

2017년 여름 국어사학회 ·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공동 전국학술대회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과제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 12일(수)

장소: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영암관(인문국제학대학) 358호(들메실)

주최: 국어사학회 ·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후원: 한국연구재단 · 계명인문역량강화사업단

이 발표논문집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MOE(Ministry of Education).

**2017년 여름 국어사학회 ·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공동 전국학술대회 세부 일정**

□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 12일(수)

□ 장소: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영암관(인문국제학대학) 358호(들메실)

<7월 11일(화)>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제1부 개회	12:30~ 13:00	등록	사회: 이동석 (교원대)
	13:00~ 13:20	개회사: 정재영(국어사학회장) 개회사: 이영찬(한국학연구원장) 환영사: 이병로(계명인문역량강화사업단장/인문국제학대학장)	
제2부 개인 발표	13:30~ 14:10	[개인발표 (1)] 발표 주제: 중세 국어 동사 '디다'의 다의성과 그 해석 발 표: 김미경(서울대학교) 토 론: 신은수(전북대학교)	사회: 김현주 (공주교대)
	14:10~ 14:50	[개인발표 (2)] 발표 주제: 15세기 '-엇-'에 대한 고찰 발 표: 이수진(전남대학교) 토 론: 가와사키 케이고(숭실대학교)	
	14:50~ 15:05	휴식	
제3부 주제 발표	15:05~ 15:35	[주제발표 (1)] 발표 주제: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과제 발 표: 손세모들(대진대학교)	사회: 석주연 (조선대)
	15:35~ 16:05	[주제발표 (2)] 발표 주제: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어/고 있다' 문법화 연구의 쟁점과 과제 발 표: 정언학(숭실대학교)	
	16:05~ 16:20	휴식	
	16:20~ 16:50	[주제발표 (3)] 발표 주제: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어 뜨리다' 연구의 쟁점과 과제 발 표: 이병기(한림대학교)	
	16:50~ 17:20	[주제발표 (4)] 발표 주제: 보조 용언의 문법화 과정 및 그에 따른 범주 구분 연구의 쟁점과 과제 - '-어디-', '-어흐-', '-거지-'를 중심으로 - 발 표: 박진호(서울대학교)	
17:20~ 17:35	휴식		
종합 토론	17:35~ 18:35	[종합 토론] 토론: 좌장 - 이현희(서울대학교) 김양진(경희대학교), 황선엽(서울대학교), 박용찬(대구대학교), 이금영(충남대학교)	

<7월 12일(수)>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제4부 개인 발표	09:30~ 10:10	[개인발표 (3)] 발표 주제: 20세기 전반기 의문형 어미의 의미 기능 실현 양상 발 표: 이소훈(서울시립대) 토 론: 안예리(한중연)	사회: 조재형 (전남대)
	10:10~ 10:50	[개인발표 (4)] 발표 주제: 19세기 고전 산문 작품에 반영된 국어 한자음의 양상에 대하여 발 표: 이준환(창원대학교) 토 론: 김세환(영남대학교)	
	10:50~ 11:10	휴식	
	11:10~ 11:50	[개인발표 (5)] 발표 주제: 洞里名의 形成과 變遷에 관하여 발 표: 박병철(서원대학교) 토 론: 백두현(경북대학교)	
	11:50~ 12:30	[개인발표 (6)] 발표 주제: 15세기 한국어 의문법 종결어미의 생성형태론 발 표: 최명옥(서울대학교) 토 론: 최동주(영남대학교)	
식사	12:30~ 14:00	점심식사	
제5부 개인 발표	14:00~ 14:40	[개인발표 (7)] 발표 주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현황과 주요 자료 발 표: 최경훈(계명대학교) 토 론: 이은규(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 이래호 (남부대)
	14:40~ 15:20	[개인발표 (8)] 발표 주제: 계명대학교 소장본 『(숙휘)宸翰帖 坤』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발 표: 장요한(계명대학교) 토 론: 송지혜(금오공과대)	
	15:20~ 15:30	[개인발표 (9)] 조선시대 한글편지 웹서비스 소개 발 표 : 황문환(한국학중앙연구원)	
폐회	15:30~ 15:40	폐회사 : 정재영(국어사학회장)	사회: 이동석 (교원대)
	15:40~ 16:3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실 방문	

목 차

제2부 개인 발표

김미경 ▶ 중세 국어 동사 '디다'의 다의성과 그 해석	9
신은수 ▶ “중세 국어 동사 '디다'의 다의성과 그 해석”에 대한 토론문	37
이수진 ▶ 15세기 ‘-엇-’에 대한 고찰	39
가와사키 케이고 ▶ “15세기 ‘-엇-’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55

제3부 주제 발표

손세모돌 ▶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과제	60
정언학 ▶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어/고 있다’ 문법화 연구의 쟁점과 과제	77
이병기 ▶ 중세·근대 ‘뜨리다’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전망	91
박진호 ▶ 보조 용언의 문법화 과정 및 그에 따른 범주 구분 연구의 쟁점과 과제 - ‘-어디-’, ‘-어흐-’, ‘-거지-’를 중심으로 -	111

종합토론

김양진 ▶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74
황선엽 ▶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어/고 있다’ 문법화 연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87
박용찬 ▶ “중세·근대 ‘뜨리다’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109
이금영 ▶ “보조 용언의 문법화 과정 및 그에 따른 범주 구분 연구의 쟁점과 과제 - ‘-어디-’, ‘-어흐-’, ‘-거지-’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121

제4부 개인발표

이소흔 ▶ 20세기 전반기 의문형 어미의 의미 기능 실현 양상	125
안예리 ▶ “20세기 전반기 의문형 어미의 의미 기능 실현 양상”에 대한 토론문	141
이준환 ▶ 19세기 고전 산문 작품에 반영된 국어 한자음의 양상에 대하여	143
김세환 ▶ “19세기 고전 산문 작품에 반영된 국어 한자음의 양상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163
박병철 ▶ 洞里名의 形成과 變遷에 관하여	165
백두현 ▶ “洞里名의 形成과 變遷에 관하여”에 대한 토론문	187
최명옥 ▶ 15세기 한국어 의문법 종결어미의 생성형태론	189
최동주 ▶ “15세기 한국어 의문법 종결어미의 생성형태론”에 대한 토론문	212

제5부 개인발표

최경훈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현황과 주요 자료	217
이은규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현황과 주요 자료”에 대한 토론문	239
장요한 ▶ 계명대학교 소장본 『(숙휘)宸翰帖 坤』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241
송지혜 ▶ “계명대학교 소장본 『(숙휘)宸翰帖 坤』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에 대한 토론문	261
황문환 ▶ 조선시대 한글편지 웹서비스 소개	263
각종 장소 안내	264

제2부

개인 발표

중세 국어 동사 ‘디다’의 다의성과 그 해석

김미경(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 쟁점

현대 국어 보조용언 ‘-어 지다’의 기원은 중세 국어 ‘디다[落]’인가?

가. 인정 (허용 1975:419-418, 성광수 1976:162 등)

MK ‘디다[落]’ > Mod.K ‘-어 지다_{AUX}’

(보조용언 구성에서 일부 어휘화) > Mod.K ‘-어지다_{Comp.V}’

나. 부정 (함희진 2008:408-410)

MK ‘지다[生]’ > Mod.K ‘-어 지다_{AUX}’

MK ‘디다[落]’ > Mod.K ‘-어지다_{Comp.V}’

다. 보류: 중세 국어의 보조용언 ‘디다_{AUX}’로 거슬러 올라가되 그것과 본동사 ‘디다[落]’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불명(손세모들 1994:203, 1995:1005)

MK ‘디다_{AUX}’ > Mod.K ‘-어 지다_{AUX}’

2. 주장

15-16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디다’ 의미의 다양성을 의미 확장, 의미 특수화, 문법화의 세 가지로 포착할 수 있다

가. ‘디다[落]’ 동사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는 구체물 및 액체의 하강 이동이며, 1) 이 의미가 추상적인 차원으로 확장되거나, 2) 결합한 논항이 도입하는 맥락과 강하게 결부되어 의미가 특수화함으로써 다양한 뜻을 지니게 되었다.

나. 현대 국어 보조용언 ‘-어 지다_{AUX}’는 ‘디다[落]’ 동사 문법화의 결과물이다.

다. ‘디다[落]’가 문법화로 진입한 것은 이 동사의 다양한 의미 중 특히 자주 쓰였던 [下降] 및 [顛倒]의 두 가지 의미와 관련이 있다.

라. ‘디다[落]’ 문법화의 진입점은 자동사로 쓰인 ‘디다_{VI}’ 동사가 필수 논항을 공유하는 다른 동사에 후행하여 쓰이는 용법이다.

마. 문법화된 ‘-어 디다’의 최초 기능은 동사가 지니는 타동성(transitivity)과 관계된 항가(valence) 범주에서 사동/기동 교체(causative/inchoative alternation, Hasplemath 1987)의 기동 짝을 표지하는 것으로서, 사동 짝을 표지하는 ‘-어 브리다’와 대립관계에 있었다.1)

1) 즉 이 발표에서는 중세 국어에서 동사의 사동/기동 교체가 양용동사(labile verb)나 접사파생(‘-이/히/리/기.’ 파생) 뿐만 아니라 ‘-어 브리다’/‘-어 디다’의 보조 용언 구성으로도 표지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것은 중세 국어의 양용 동사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사동/기동 교체의 명시적 표지로서 접사 파생과 보조용언 구성이 경쟁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어의 사동/기동 교체 표지가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종래의 양용동사들은 타동사로 재해석되고 여기에 ‘-이-’ 접사가 결합하여 반사동사(anticausative verb)가 파생되는 것이 주된 메커니즘이 되고 기동을 표지하던 ‘-어 디다_{AUX}’ 구성의 대부분은 어휘화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로 미룬다. ‘-이-’ 접사

바. 기동 표지로 문법화된 ‘-어 디다’의 초기 문법적 지위는 동사 + 보조용언 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 이미 상당수의 ‘-어 디다_{AUX}’ 구성에서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 단위를 일단 합성동사라고 불러 둔다.

사. 후기 중세 국어 자료에서 나타나는 ‘동사 + -어 디다’ 구성은 본동사 연쇄, ‘디다’가 핵이 되는 합성동사, ‘-어 디다_{AUX}’ 보조용언 구성의 흔적으로 보이는 세 유형이 섞여 있으며, 특히 1과 3 유형은 ‘디다[落]’가 ‘-어 디다_{AUX}’로 문법화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단서들이다.

3. 자료 및 용례 추출

- 국립국어원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2014-2015)’ 중간결과물에 수록된 15-16세기 한문-언해문 병렬 말뭉치 (언해문 기준으로 약 71만 어절 이상, 자잘한 오류를 수정하여 사용함)²⁾
- 김미경·박수지·이상아(2016)에 사용된 자소 분해 코드를 사용하여 어절들을 자소 단위로 분해 (예: 퍼뎃도다 → ㅎㅂ | ㄱㅅ | ㄱ | ㅅㅅㅅㅅㅅㅅ) → ‘디’ 포함 어절 추출(약 3만 개)³⁾ → 수작업으로 ‘디다’ 동사의 용례 후보 추출(약 1,700여 개)

4. 본동사 ‘디다[落]’의 다의 양상

4.1.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디다’[옛말]의 의미

표제항	품사	의미	비고
디다 ⁰⁶	VI	「1」지다 ⁰² . 이올다. 「2」‘떨어지다’의 옛말. 「3」넘어지다. 거꾸러지다.	지다 ⁰² 「1」해나 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다. 「2」꽃이나 잎 따위가 시들어 떨어지다. 「3」물엿거나 붙어 있던 것이 닳이거나 씻겨 없어지다. 「4」태아가 배 속에서 죽다. 「5」불이 타 버려 사워어 없어지거나 빛이 희미하여지다. 「6」목숨이 끊어지다. 「7」이슬 따위가 사라져 없어지다. 「8」손이 끊기거나 씨가 없어지다.
디다 ⁰⁷	VI	‘지다 ⁰³ ’의 옛말.	지다 ⁰³ 「1」【…에/에게】【…을】내기나 시합, 싸움 따위에서 채주나 힘을 겨루어 상대에게 꺾이다. 「2」【…에/에게】어떤 요구에 대하여 마지못해 양보하거나 들어주다.
디다 ⁰⁸	VT	지게 하다. 떨어뜨리다. 내리다 ⁰¹ . 뿌리다. 없애다.	

파생과 반사동의 관계에 대하여 백채원(2016)을 참조할 수 있다.

- 2) 이 사업의 최종 결과물이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https://ithub.korean.go.kr/>] 말뭉치 > 기타 참고 자료 > ‘역사자료 종합 정비 결과(2014-2015)’ 게시물로 공개되어 있다.
- 3) 이 시기 자료에서 ‘(무엇이) 생기다’를 의미하는 ‘지다’는 확인한 결과 ‘(살/기름/때가) 지다’처럼 명사에 후행하는 용법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어 디다’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세 국어의 ‘지다’를 ‘-어 디다’의 기원으로 보기 어려운 자세한 이유에 대하여는 손세모돌(1995:1008-1010, 1017) 참조.

디다 ⁰⁹	VT	‘주조하다 ⁰² (鑄造-)’의 옛말.	
디다 ¹⁰	ADJ	값이 싸다.	
디다 ¹¹	VX	‘지다 ⁰⁴ [II]’의 옛말.	지다 ⁰⁴ [II] 보조용언 ‘-어 지다’

- 디다⁰⁷은 가장 오래된 근거 용례가 <(중간)두시언해>에 등장하는 아래 (2)번 용례인데, 이 문헌은 ㄷ 구개음화 및 구개음화 과도교정형이 나타나는 자료. 구개음화 현상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초간)두시언해>에서 <(중간)두시언해>의 해당 근거 용례에 대응하는 예를 찾아보면 ‘지다’로 확인되므로, 중세 국어 ‘디다’ 중 하나로 인정하기 어려움.

‘漢虜互勝負 封疆不常全’의 언해
(1) 中原과 되왜 서르 이긱락 <u>지</u> 락 하니 封疆이 상네 오랬디 못흐놉다 <(초간)두시언해 5:33b-34a, 1481>
(2) 中原과 되왜 서르 이긱락 <u>디</u> 락 하니 封疆이 상네 오래디 못흐놉다 <(중간)두시언해 5:33b-34a, 1632>

- 디다⁰⁶과 디다⁰⁸은 중세 국어의 양용 동사 현상을 고려하면 하나의 양용동사 ‘디다’로 합쳐서 생각할 수 있음.
- 디다⁰⁶이 지다⁰²의 의미를 모두 갖는다면, 의미가 상당히 확장, 즉 탈색된 상태일 것
→ 문법화가 일어나기 좋은 조건. 그렇다면 얼마나 탈색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보자
- ‘디다’ 용례 후보 약 1,700개 중 ‘디다’ 단독⁴⁾ 용례는 약 400개
- 직관도 제보자도 없는 언어의 다의어에 대하여 어떻게 의미를 포착하고 분류하나?
→ 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종류는 그 동사의 의미 추정에 많은 단서를 준다
→ ‘디다’와 결합하는 필수 논항의 종류와 갯수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자
- 중세 국어 양용동사의 80% 이상이 사동/기동 교체를 나타내는 유형(김태우 2013)
→ ‘디다’ 역시 그럴 가능성이 큼
- 사동/기동 교체를 나타내는 양용동사는 사동 쪽의 피행위주(patient) 논항이 기동 쪽의 주어 가 되는 관계에 있음 → ‘디다’의 피행위주 논항 중심으로 용례를 분류해 보자

4.2. ‘디다’의 다양한 피행위주 논항과 ‘디다’의 의미

4) ‘-어/아’ 어미의 매개를 거쳐 다른 동사와 연결되거나 어간이 직접 합성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단독으로 쓰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디다’ 동사의 의미 목록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에서 이들을 제외한 것은 연결된 다른 동사가 의미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2.1. 물체의 하강 이동

物	
VT	(3) 마솟 <u>뜰</u> 헤는 브르미 果實을 <u>디오</u> 瀼水入 두들겐 비 물애를 <u>뜰</u> 허눗다 (秋庭風落果 瀼岸雨頽沙) <(초간)두시언해 15:14a-14b, 1481> (4) 부들 <u>디여</u> 글 스니 브름 비 놀라는 듯고 그를 지스니 鬼神이 우[눗]다 (筆落驚風雨 詩成泣鬼神) <(초간)두시언해16:5a, 1481> (5) 有情이 와 씨 <u>디면</u> 因地에 果 도로 나고 無情이 ㅎ마 씨 업스면 性 업스며 또 남 업스리라 (有情來下種 ㅎ면 因地에 果還生 ㅎ고 無情旣無種 ㅎ면 無性亦無生 이리라) <육조단경:30a, 1496>
VI	(6) 또 밤소이 누네 <u>디여</u> 가식 드러 브스닐 고토티 (又方治粟殼落眼刺入腫) <구급방언해 하:42a, 1466> (7) 師 니르샤디 니피 <u>디여</u> 불휘에 가면 오미 업스니라 (師曰 ㅎ샤디 葉落歸根 ㅎ면 來時無 ■ 니라) <육조단경:65b, 1496> (8) ㅎ 트트리 ㄴ라 하늘 ㅎ ㄱ리오고 ㅎ 芥子 <u>디여</u> ㅅㅅ ㄸ피느니라 (一塵이 飛而翳天이오 一芥 墮而覆地 라 ㅎ도다) <십현담요해:26b, 1548>

- 타동사 ‘物_{ACC} 디다’의 흔적을 평북방언 ‘디다⁰⁴’에서 찾을 수 있음.⁵⁾

디다⁰⁴ VT ‘붓다⁰²’의 방언 [평북]

붓다⁰² VT 「1」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

「2」모종을 내기 위하여 씨앗을 많이 뿌리다. [이하 생략]

- (7)번 용례의 ‘葉_{NOM} 디다’는 논향이 도입하는 맥락과 강하게 결부되어 ‘(꽃/나뭇잎이) 지다’로 굳어져 표준어로 이어짐.

物 > 花·葉	
VI [시들어 떨어지다]	(9) 치운 城에 아츨 ㄴ 열우니 ㄸ고래 <u>디는</u> 니피 블꺄도다 (寒城朝煙淡 山谷落葉赤) <(초간)두시언해 7:26a, 1481> (10) ㄸ리 두려우며 ㄸ리 이즈며 고지 프며 고지 <u>뉘매</u> 니르리 (月圓月缺 ㅎ며 花開花落 ㅎ) <금강경삼가해 2:6b, 1482>

- 이 ‘葉_{NOM} 디다’가 맥락과 더욱 강하게 결부되어 ‘식물이 (가을이 되어) 시들다, 시들게 하다’의 의미로 특수화되기도 함 ← 동사의 의미가 맥락과 결합하여 특수화할 수 있음

5) 이 의미를 감안하면, 디다⁰⁹는 ‘物_{ACC} 디다’가 ㅅㅅ물을 ㅅㅅ는다는 특수한 맥락과 강하게 결부되어 굳어진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디다[鑄] VT 陽燧는 구리로 디여 ㅅㅅ ㄸ느니 ㄸ우루 ㄸ호되 우목ㅎ니라
 (陽燧는 鑄銅爲之 ㅎ느니 似鏡而凹 ㅎ니라) <능엄경언해 3:74a, 1461>

物 > 花·葉	
VI [낙엽이 지다]	(11) 기쁜 사해 寂靜이 이서 物의 變을 보아 非常을 알며 ㅁ을 ㅁ물 보아 眞道에 드느니(靜處幽居하야 觀物變而悟非常하며 觀秋零而入眞道하느니) <선종영가집언해 하:44b, 1464>6)
VT [낙엽을 떨어뜨리다]	(12) 한 病에 ㅁ을 부르미 디느니 네 와 눈 알피서 慰勞하느다 (多病秋風落 君來慰眼前) <(초간)두시언해 8:51a, 1481>

- ‘서리디다’

자동사 ‘物_{NOM} 디다’가 논항이 도입하는 맥락과 강하게 결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또다른 후보. ‘서리_N’가 ‘무엇이 많이 모여 있는 무더기의 가운데’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物_{PL} 디다’가 복수의 물체가 주르륵 떨어지는 사건이 수반하는 필연적 결과로서 무더기가 쌓이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함.7)

物 > 物 _{PL}	
VI [姜, 쌓이다]	(13) 宮殿엿 프른 微微히 서리땃는 佩玉을 바땃거늘 香爐엿 너 細細흔 玆 遊絲 머므렛도다 (宮草微微承委珮 爐煙細細駐遊絲) <(초간)두시언해 6:6b, 1481> (14) 길헤 니땃는 고즌 직직하고 버텅에 서리딘 버드른 부르매 부치놋다 (側塞被徑花 飄緜委墀柳) <(초간)두시언해 9:21b, 1481>

4.2.2. 사람 및 네발 짐승의 비의지적 하강 이동

人, 獸	
VI	(15) 겨스래 프래 디어 값간 氣分 잇느닐 (冬月落水微有氣者) <구급방언해 상:74a, 1466> (16) 쏘 노푼 뒤서 디니와 ㅁ 타 디니와 술위에 기시니와 一切人 傷하며 것근 玆 고티며 (又方治從高墮下落馬車輓一切傷折) <구급방언해 하:27a, 1466> (17) 늘근 괴 남기 올오디 혼 적 티드라 늘근 직죄 不足홀식 몸 드위터 사해 디느니 <남명집언해:2a, 1482>8)

- 6) <두시언해>의 언해 경향은 시적 정경을 최대한 정확히 옮기는 것이고, 원문을 축자역하였을 때 의미를 복원하기 어렵다면 원문에는 없는 단어라도 밝혀 적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落’이 ‘디다’ 단독으로 번역된 것으로 보아 ‘디다’ 단독으로 ‘낙엽이 지다’를 뜻할 수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7) <두시언해>에서 2회 나오는 것이 전부여서 ‘서리_{NOM} 디다’인지 ‘서리_N-디다’인지 불분명하다.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물디다’를 감안하면, 15세기에 이미 ‘서리_N-디다’였을 가능성도 있다.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의 필연적 결과까지를 해당 동사의 의미로 포착하는 이 흐릿한 인지적 경계는 이후로도 여러 번 언급될 것이다.
- 8) 이 문장에서 늙은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비의지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맥락에 부합한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되 말과 사려가 미치지 못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이다.

- ‘人·獸_{NOM} 디다’의 용례 중에는 주어에 행동주체성(agency)이 드러나는 경우가 확인되지 않음. ‘디다[落]’가 사동/기동 교체를 나타내는 양용동사이고, 자동사로 쓰일 때에는 비대격동사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정황
- ‘디다’ 동사가 단독으로 ‘人·獸_{ACC} 디다’로 사용된 용례는 확인되지 않음
- 단 태아가 논항이 되었을 경우 이 맥락에 특수화한 의미로 ‘낙태하다/사산되다’를 확인할 수 있음. ‘人·獸_{ACC} 디다’ 용법이 있었을 가능성

人, 獸 > 胎兒	
VT [낙태하다]	(18) 흐다가 비은 즈식곳 부러 디면(若固傷胎) <장수경 11b, 1599>
VI [사산되다]	(19) 퉁 상흐야 즈시글 죽게 흐니 주근 즈시기 디니 사르미 열그리 다 마 갓테이다(殺子傷胎 唯生死兒 人形具足) <장수경 7b, 1599>

- ‘人·獸_{NOM} 디다’에 특수화된 의미로 ‘(땅에) 쓰러지다’가 있음. 하강 이동과 땅에 쓰러지는 것 사이의 연관성은 (비의지적) 낙하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포착할 수 있음⁹⁾

人, 獸	
VI [倒, 쓰러지다]	(20) 五百 도즈기 저마다 흐 살음 마자 즉자히 다 짜해 디여 (時五百人 人 被一箭 而瘡苦痛難可堪忍 卽皆斃地) <월인석보 10:29a, 1459> (21) 그 쓰리 듣고 짜해 모미 다 혈에 디여 늑미 빠드러 오라거사 썩야 (婆羅門女 聞此聲已 舉身自撲 支節皆損) <월인석보 21:22a, 1459> ¹⁰⁾ (22) 전 마리 현 버늘 딘들 三十年天子 어시니 모딘 썩를 일우리잇가 (爰有蹇馬 雖則屢蹶 三十年皇 悍謀何濟) <용비어천가 5:11a, 1447>

- 이 ‘디다[顛倒]’는 다시 추상화를 거쳐 한 번 더 확장된 것으로 보임. [顛倒]의 의미가

- 9) 또한 현대 국어에서 ‘넘어가다’가 태양과 사람을 모두 주어로 취하여 각각 해가 지는 것과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점, 사람이 뒤로 쓰러지는 것을 ‘나가떨어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낙하 사건을 경유하지 않고도 하강 이동과 쓰러짐 사건을 직접 연결하는 인지적 유사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顛倒]의 의미가 人·獸 논항이 도입하는 맥락과 결부되었을 때에 생겨나는 의미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 10) (21)의 ‘舉身自撲’의 언해에 관하여 비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용례가 있다.

羅卜이 그 말 듣고 모뎨 짜해 브드터 디니 터럭 구무마다 피 흐르더니 짜해 것마르주거 오래 잇거늘 (羅卜 遂聞此語 舉身自撲 百毛孔中 盡皆流血 悶絕在地 良久不蘇) <월인석보 23:75a-75b, 1459>

양상을 비교하면, (21)은 ‘舉身’의 결과 부분을 주목하여 (그 기세에 의해) 몸이 상할 정도라는 것으로 옮겼고, 이 예에서는 타동사 구문을 살려서 ‘모뎨 브드터다’로 옮겼다. 이 용례는 [顛倒]를 뜻하는 ‘디다’가 ‘人·獸_{NOM} 디다’(쓰러지다)로만 가능하고 ‘人·獸_{ACC} 디다’(쓰러뜨리다)로는 사용될 수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디다[顛倒]’가 ‘디다’의 기본 의미가 아니라 특수화한 의미라는 방증이 된다. 물론 이것을 ‘모뎨 [브드터_{VT} 디여_{VI}]’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단독으로 문중되지 않는 의미를 이 용례를 근거로 부여하는 것이 추론으로써 안전한지 의문이다. 여기에서는 ‘[모뎨 브드터_{VT}] 디여_{VI}’로 해석하는 편이 이 발표에서 제안하는 가설에 부합하기 때문에 후자의 해석을 택하였다.

굳어진 결과, 결합하는 명사의 종류가 낙하 가능한 물체에서, 낙하할 수는 없지만 높이가 있어서 ‘쓰러질’ 수 있는 구조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

人, 獸 > 構	
VI [무너지다]	(23) <u>디</u> 는 듯흔 집 지손 된 雲雨 드렛고 거흔 階砌엔 草茅 너추럿도다 (落構垂雲雨 荒階蔓草茅) <(초간)두시언해 14:9b, 1481>11)

- ‘디다’가 쓰여서 ‘가로로 누움’을 가리키는 용례들이 있음. 앞서 본 ‘서리디다’와 마찬가지로, ‘디다[顛倒]’ 사건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를 동사의 의미로 함께 인식하면서 확장된 듯

人, 獸 > 物	
VI [가로 눕다]	(24) 아기 그르 디여 묻 나하 커든 쇄똥을 어미 뱃에 브르면 즉재 올히 나흐리라 (橫生牛屎[쇠똥]塗母腹上即便順生) <구급간이방 7:40b, 1489> (25) 하〃 망극〃 헛딤 붓 자바 쓰로라 하니 정신니 업서 즈도 그르사마 <u>디</u> 말도 츠셔 업스이 즈셔이 보소 <안민학애도문, 1576>

4.2.3. 공중에 뜬 새의 비의지적 하강이동

禽	
VT	(26) 부픈 뵤야호로 祭홀 鬼神을 맞고 彈子는 쇄로기 곧흔 새를 <u>디</u> 놓다 (鼓迎方祭鬼 彈落似鴉禽) <(초간)두시언해 3:14b, 1481>
VI	(27) 雙鶻이 흔 사례 <u>디</u> 니 曠世奇事를 北人이 稱頌흐스븐니 (維彼雙鶻 墮於一縱 曠世奇事 北人稱頌) <용비어천가 4:9b, 1447> (28) 슬픈 납의 소리에 안즈며 니로물 서르 호니 <u>디</u> 는 그러기 느로물 일흔 듯 흐 도다 (哀猿更起坐 落鴈失飛騰) <(초간)두시언해 20:21a, 1481>

- (26)은 주어로 실현된 彈子에 행동주체성이 없지만 사람이 새를 쏘아 떨어뜨리는 상황을 전제하므로, 앞서 본 (3) ‘바람이 과일을 디다’의 예와 달리 용례가 이것 하나뿐이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禽_{ACC} 디다’ 용법을 인정할 수 있을 것
- (28)에 서술된 실제 사건은 기러기의 의도적인 하강이지만 시인에게 ‘飛騰을 잃은 듯하다’로 포착되고 있으므로 비의지적 사건으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음¹²⁾

11) 이 시는 “陪諸公上白帝城樓宴越公堂之作”이라고 하여 “越公楊素之堂也”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此堂存古制 城上俯江郊 / 落構垂雲雨 荒階蔓草茅 / 柱穿蜂溜蜜 棧缺燕添巢 / 坐接春盃氣 心傷豔藥梢” 폐허가 된 저택의 풍경을 읊고 있는 것으로 모아 ‘落構’가 무너진 건물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12) ‘禽_{NOM} 디다’는 (26-28) 사례 말고도 두 번 더 나온다. (ㄱ)은 까마귀가 “救護”한다고 하였으니 아직 날 수 없는 새끼가 둥지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ㄴ) 사례는 비의지적 사건을 가리키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ㄱ. 가히는 일즉 와 잔 소늘 맞고 가마귀는 기세 디는 샷기를 救護흐놓다
(犬迎曾宿客 鴉護落巢兒) <(초간)두시언해 15:12a, 1481>

4.2.4.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천체의 하강이동

天體	
VI	(29) 늘근 病에 마룻 마애 누워슈니 親흔 버디 <u>히 디는 나조희</u> 도라가는다 (衰疾 江邊卧 親朋日暮廻) <(초간)두시언해 3:29a, 1481>
	(30) 북과 吹角 소리는 거춘 마식 슬프거늘 별와 銀河는 새뱃 피호로 <u>디놋다</u> (鼓角悲荒塞 星河落曉山) <(초간)두시언해 11:50a, 1481>
	(31) 히 돋고 드리 <u>디놋다</u> (日生月落호놋다) <금강경삼가해 4:45a, 1482>

- 앞서 본 ‘디다[顛倒]’와 마찬가지로 ‘物_{NOM} 디다’에서 주어가 해, 달, 별, 은하수일 때 해당 맥락에서 특수화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음. ‘天體_{NOM} 디다’는 문학적 은유를 동원하지 않는 한 그것을 일으킬 행동 주체를 설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행동주가 배제되는 동사(‘花·葉_{NOM} 디다’도 마찬가지). 이 의미가 현대 국어 표준어에 그대로 이어져서 지다²⁾의 대표적인 의미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것

4.2.5. 물, 비, 눈, 서리의 하강이동

水, 雨, 雪, 霜	
VI	(32) 몇 길호로 식미 누물 바탈 저지누노 서르 빗흘러 帳 마튼 두들게 <u>디놋다</u> (幾道泉澆圃 交橫落幔坡) <(초간)두시언해 7:39b, 1481>
	(33) ㅍ이 드르시고 깃거호시며 忽然히 늣므를 비 <u>디뎛</u> 흘리거시늘 <월인석보 8:92b, 1459>
	(34) 버뎛고지 눈 <u>디뎛</u> 호야 흰 말와매 두뎛느니 프른 새 누라가 블근 巾을 므러 도다 (楊花雪落覆白縈 青鳥飛去銜紅巾) <(초간)두시언해 11:18b, 1481>
	(35) 집 외춤 물 <u>디는</u> 뎛 흙 (屋霏*中泥) <구급간이방 6:75a, 1489> *霏 ‘낙숫물, 물이 흐르다’
	(36) 드리 평흔 물애에 비취여시니 녀름 바미 <u>서리</u> 뎛 듯호도다 (月照平沙夏夜霜) <백련초해 29, 1576>

- ‘物_{ACC/NOM} 디다’의 연장선상에서 ‘水_{ACC/NOM} 디다’가 있고, 주어가 비, 눈, 서리일 때 ‘雨·雪·霜_{NOM} 디다’로 특수화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앞서 살펴본 평복 방언 디다⁴⁾나 아래에서 살펴볼 ‘눈물 디다’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게 볼 여지가 크나, ‘水_{ACC} 디다’가 문중되지 않으므로 합쳐서 제시함

ㄴ. 南녀그로 누는 가막가치 잇더니 바미 오라니 마룻 마수로 더 가놋다
(南飛有烏鵲 夜久落江邊) <(초간)두시언해 20:21a, 1481>

(ㄴ)의 “南飛有烏鵲”은 조조의 ‘短歌行’에서 따온 것이다(浦起龍, <讀杜心解 五> “烏鵲江邊用魏武月明詩” [http://ctext.org/Library > 讀杜心解 > 讀杜心解五 원문 107면]). ‘短歌行’의 해당 구절은 “月明星稀 烏鵲南飛 繞樹三匝 何枝可依”이므로 이 까막까치들은 숲 나무를 찾는 중이다. 그런데 두보는 이들이 ‘밤이 깊어’ ‘강변으로’ 하강해 간다고 읊고 있으므로 앞서 본 (17)의 늣은 고양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하강이동으로서 비의지적 사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지다⁰⁴ [I] 「3」의 ‘(물이) 흐르다’는 ‘水_{NOM} 디다’가 이어진 의미일 것
- 눈물을 논항으로 취하는 ‘디다’는 ‘눈물 디다’(12건) 혹은 ‘눈물을 디다’(6건) 형태로만 확인됨. 전자의 구조가 ‘눈물_{NOM} 디다’인지 ‘눈물_N-디다’인지 불분명하나 어느 쪽이든 의미는 ‘디다_{VI}’로 해석될 것¹³⁾

水 > 淚	
VT [(눈물)을 흘리다]	(37) 弟子 너덧 사르미 드러와 눈믈 다 디느다 (弟子四五人 入來淚俱落) <(초간)두시언해 9:1b, 1481>
VI [(눈물)이 흐르다]	(38) 阿難이 든즙고 다시 슬허 늣믈 디여 五體를 싸해 브려 長跪合掌호야 (阿難이 聞已호습고 重復悲淚호야 五體投地호야) <능엄경언해 1:92b, 1461>

- 물디다
‘水_{NOM} 디다’에서 물이 떨어지는 사건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고이는 사건 쪽으로 의미가 특수화한 용례로 추정. 앞서 본 ‘서리디다’나 ‘디다’(가로 눕다) 등과 마찬가지로 주어까지 도입하는 맥락에 의해 생겨나는 의미. (40)에서 보이듯 자전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이 미 이 시기에 합성어를 이룬 것으로 보임¹⁴⁾
- (39)의 ‘물디다’는 큰비가 내려서 고이는 단계를 지나쳐 물이 ‘불어난’ 것을 의미하여 쓰인 것으로 보임 → 하강 및 결과 사건을 가리키는 단계를 거쳐 결과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쪽으로 의미가 특수화할 수 있음. (11)에서 본 ‘ᄃᆞᆫ물 뚱’과 마찬가지로

水	
물 _N -디다 _{VI} [고이다 > 불어나다]	(39) 아버지 븐드려 드려 오더니 마초아 집 앞 내해 물디엿더니 梁氏 븐득 뛰어들어늘 (父母扶以歸 適家前川水方漲 梁遽投入) <속삼강행실도 烈女 圖: 18a, 1514> (40) 漲 한물덜 탕 <훈몽자회, 1527>

- ‘물디다’를 ‘水_{NOM} 디다’에서 특수화한 합성동사로 볼 수 있다면, ‘(액체가) 고이다’를 의미하는 ‘액체_{NOM} 디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41)은 그러한 용법의 하나로 추정됨¹⁵⁾

13) 현대 국어 표준어로 ‘눈물-지다_{VI}’(눈물이 흐르다)가 남아 있으므로, 이 시기부터 ‘눈물_N-디다’였거나, 이후의 어느 시점에 그렇게 굳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 ‘눈물지다’는 ‘눈물-짓다_{VI}’(눈물을 흘리다)와는 다른 표제항이다. 여기서도 ‘눈물_{ACC} 디다’와 ‘눈물_N-디다’ 중 현대 국어까지 이어진 용법은 비의지적인 ‘눈물_N-디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 앞서 본 ‘서리디다’의 ‘쌓이다’ 의미와 여기서 본 ‘물디다’의 ‘고이다’ 의미가 ‘디다[落]’과 관계가 있다는 이 발표의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현대 국어에 남아 있는 ‘첫물지다’ 「1」(첫 홍수가 나다), ‘여울지다’, ‘둔덕지다’ 등은 ‘디다[落]’에서 나온 합성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현대 국어의 ‘N-지다’ 동사들을 중세 국어의 ‘지다’ 계통과 ‘디다’ 계통으로 나누게 된다. 이에 관하여는 더 연구가 필요하나, ‘지다’ 계통으로 생각되는 ‘각지다’, ‘가닥지다’, ‘명울지다’ 등은 ‘-어 보이다’와 잘 결합하는 데 비해 ‘여울지다’, ‘둔덕지다’ 등은 잘 결합하지 못하는 듯하다.

15) 지다⁰⁴ [I] 「3」은 ‘(물이) 흐르다’ 외에 “물 따위가 한데 모여 모양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이 ‘물디다’, ‘한물디다’ 등에서 역형성을 거쳐 생겨난 의미인지, 혹은 ‘디다_{VI}’의 특수화한

水 > 液體	
디다 _{VI} [고이다]	(41) 노푼 되셔 느려디거나 나모 돌해 지즐여 흘골으티 상흐야 피 안흐로 디여 얼의여 알프거든 (從高墜下及木石所壓一切傷損血癢痛) <구급간이방 1:78a-b, 1489>

4.2.6. 빛 또는 그림자가 어떠한 장소에 드리워짐

光, 影	
VI	<p>(42) 앞 軒檻애 도로 비취는 <u>히비치 디엣느니</u> 노푼 華嶽이 붉도다 (前軒顏反照 巉絕華嶽赤) <(초간)두시언해 7:24b-25a, 1481></p> <p>(43) 디는 <u>들비치</u> 집 물리 ㅁ득흐니 그딛 늦비치 비취엿는가 오히려 疑心호노라 (落月滿屋梁 猶疑見顏色) <(초간)두시언해 11:52a, 1481></p> <p>(44) 므리 조흐니 樓ㅅ 그르메 <u>바르 텃고</u> 뵈히 어드우니 ㅁ딛 히 기우도다 (水靜樓陰直 山昏塞日斜) <(초간)두시언해 3:25a-25b, 1481></p> <p>(45) 네 五百 나비 가다가 즘게 아랫 우므레 <u>들 그르메 디엣거늘</u> 보고 내요려 호야 <남명집언해 27b, 1482></p>

- 빛과 그림자가 ‘디다[落]’의 주어로 실현된다는 것은 ‘디다’의 피행위주 논항이 구체물에서 추상물로 확대되었다는 의미.
- 해와 달에서 나오는 빛이 지상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받아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지는 것은 문학적 은유를 동원하지 않는 한 역시 행위주(agent)를 설정하기 어려운데, 나타나는 용례가 모두 자동사 용법이라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¹⁶⁾

4.2.7. 소리가 특정 권역에 울림

音	
VI	(46) 두려운 소리 <u>딘</u> 고대 구루미 흐러 다으느니 값간도 거름 드디 아니호야 곧 지비 도라가눗다 (圓音落處에 雲散盡호느니 不曾抬步호야 便還家 로다) <금강경삼가해 1:16a, 1482> ¹⁷⁾

의미 중 하나로서 계속 존재했던 것인지 판단하려면 후대의 자료를 확인해야 할 것이지만, 충북 방언으로 ‘맺히다’를 뜻하는 지다⁰⁷⁾이 남아 있고 ‘맺히다’는 ‘살 속에 피가 멩치다’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16) 이 발표문을 처음 작성하던 시기에는 지다⁰⁴⁾ [I] 「1」에서 ‘(그들이) 지다’ 역시 이 의미의 후계형이라고 생각하여 적어서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신은수(2013)을 통해 15세기에 ‘ㅁ늘지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림자가) 지다’는 ‘그림자’ 항목의 용례로만 등장하고 ‘지다’와 관련해서는 용례로 등장하지 않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다⁰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현대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 그들은 생기는 것이고 그림자는 떨어지는 것으로 서로 다르게 포착되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앞서 각주 14에서 제기한 문제의 연장이며,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명사에 단독으로 결합한 ‘지다’와 ‘디다’의 의미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신은수(2013)을 참조하기 바란다.

17) 圓音은 부처님의 말씀을 뜻한다.

- ‘디다[落]’의 논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으로 확장되는 중간 단계가 드러나는 사례

4.2.8. 평판과 가격의 하락

評, 價	
VT	(47) 家門入 소리를 싸해 디요물 즐기리아 놀카온 갈히 ㄴ숄 터리를 當舖 ㄷ도다 (家聲肯墮地 利器當秋毫) <(초간)두시언해 8:57b, 1481>
ADJ	(48) 빛 갑슨 ㅅ던가 디던가 (布價高低麼) <번역노걸대 상:9a, 1517>

- ‘디다[落]’의 의미가 물리적 하강에서 지향적 은유로서의 하강으로 확장된 단계.¹⁸⁾ 디다¹⁰은 디다⁰⁶과 품사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4.2.9. (문서에서) 글자 또는 내용의 누락

文	
VI	(49) ㅅ 어루 翻譯과 傳하야 수미 ㄷ ㅅ니언딩(亦可翻譯傳寫 脫漏 언딩) <원각경언해 하1-1:28b, 1465> ¹⁹⁾ (50) 住 네히오 異 들히니 ... 經에 異ㅅ 字 업수믄 시혹 ㄷ 디 시혹 略흔 디 ㅅ든 받드기 ㄴ초 잇느니라 ((住四 오 異二니 ... 經無異ㅅ 字者는 或脫흔디 或略흔디 義는 必具有ㅎ니라) <원각경언해 하3-2:52a, 1465> (51) 念 업슨 智로 ㄷ 機를 應ㅎ시니 半과 滿과 偏과 圓과 몇맛 說이어서뇨 몇맛 說이 ㅅ간도 ㅎ 字 言詮에 ㄷ미 업스시니라 (以無念智로 應群機ㅎ시니 半滿偏圓이 多少說이어서뇨 多少說이 曾無一字 落言詮이시니라)

- 개념적 하강이동 은유가 작동하여 텍스트가 (발화자가 보기에)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을 ‘디다[落]’로 표현한 사례. 현대 국어에서 텍스트나 글자가 일부 없는 것을 ‘누락’, ‘탈락’, ‘결락’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은유의 작동²⁰⁾
- (50)에서 ‘디다’와 ‘略하다’를 구분하여 나열한 것은 비의도적 탈락과 의도적 탈락을 구분하여 서술한 것으로 추정. 추상화가 진전된 상태에서도 비의지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디다_{VI}’의 의미 특성이 유지된 사례

18) 지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s)에 관해서는 Lakoff and Johnson (1980:14-21) 참조.
19) 이 문장은 ‘열 가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거나 아귀가 된다’는 경문에 대하여, 원래 축생으로 나는 것을 포함하여 三惡報가 나올 자리인데, 글자 수를 맞추어 문장의 아름다움을 높이느라 빠졌을 뿐이며, 빠졌다 하더라도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화엄경의 十不善業道 관련 내용을 근거로 드는 주석이다. 따라서 “(경전 텍스트에서) 번역과 전하여 쓰는 것이 빠졌을지라도”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0) (49-51)의 빠진 텍스트는 특히 (49-50)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 자리에 없을 뿐 복원 가능하며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상이다. 텍스트가 빠졌음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빠지지 않은 원형을 알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文_{NOM} 디다’는 텍스트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디다’ 동사가 소멸의 의미를 지녔는가에 대하여는 4.4절 참조

4.2.10. 양의 (상대적) 감소

(量)	
VT	(52) 長常 물에 들어더 藥欄 ㅎ야브료물 ㅎ로이 너겨 또 ㄹ꺄꺄 軒檻을 조차 ㅅ름 부는 ㅅ름 ㄷ이여 ㅎ료라 (常苦沙崩損藥欄 也從江檻落風湍 [言向時예 常恐沙岸이 崩頽ㅎ야 將損藥欄故로 從江檻之外而設隄防ㅎ야 減落風湍也 라]) <(초간)두시언해 21:5a, 1481>21)
VI	(53) 文殊 부터의 슬브샤디 ... 迦葉佛入 小珠函이 오직 기리 三寸 三分이라 ㅎ 더시니 僧伽梨 ㅎ 오슬 다마도 몬 바둑가 식브니 엇데 ㅎ믈며 迦葉佛入 三藏教迹 一切 經典을 다므리잇고 ... 世尊이 ... 슌가라ㄹ로 函애 觸ㅎ시니 큰 城門 여듯 ㅎ더니 大衆이 一切 한 이를 보스브니 珠塔과 絹衣와 金銀樓觀이 그 數 十萬이오 諸三藏을 담고 또 天樂이 상네 供養ㅎ며 臺入 노퍽 四十里오 塔 노퍽 열 由旬이로디 그러나 函이 더으며 ㄷ뽀미 업서 本來入 三寸이러니 (... 然函無增減 依本三寸) <월인석보 25:46b, 1459>

- 추상화가 더욱 진전된 사례. <위는 많음, 아래는 적음>의 은유가 작동하여 함의 길이와 물의 양을 표현하는 데에 ‘디다’가 사용됨. 이전까지의 용법에서는 피행위주 자체가 개념적 하강을 겪는 데에 비해, 이 단계에는 피행위주가 지니는 특성이 개념적으로 하강한다는 것도 주의할 점

4.2.11. 질의 (상대적)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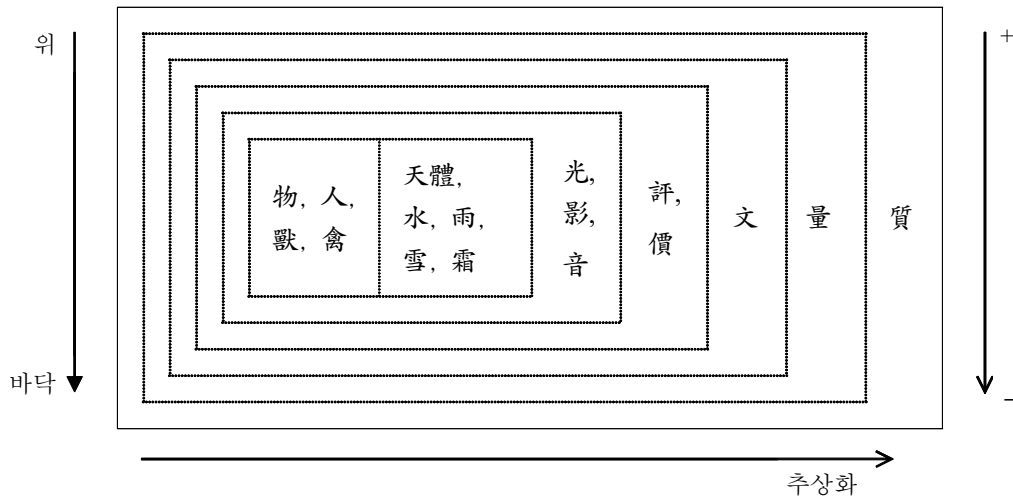
(質)	
VI	(54) 널오디 부터긔 ㄷ디 아니ㅎ며 凡에 더오디 아니ㅎ며 世間애 나디 아니ㅎ며 三界에 屬디 아니ㅎ니 (謂不劣於佛不勝於凡不出世間不屬三界) <원각경언해 하 2-1:40a-b, 1465>
VI	(55) 차와 蔗漿을 잇는 양즈로 가죠티 구운 그르시 玉으로 甞ᄃᄇ 缸에서 ㄷ디 아니토다 (茗飲蔗漿携所有 瓷甞無謝玉爲缸) <(초간)두시언해 15:32b, 1481>
VI	(56) ㅅ슴 ㄹ호미 骨肉 아스매 ㄷ디 아니ㅎ니 ㅅ양 말슴호매 나를 文章애 伯이라 許호물 ㅅ더라 (同心不減骨肉親 每語見許文章伯) <(초간)두시언해 25:31b, 1481>

- 양에서 한 차례 더 추상화되면 질의 영역에 도달하며, 이것은 추상화의 거의 끝단계라고 할 수 있음. 양과 마찬가지로 피행위주의 특성이 개념적으로 하강하는 사건
- 이 의미가 특수화한 용법으로 ‘몸을 낮추다 → 겸손하다’를 확인할 수 있음

21) <두시언해>에서 ‘落’은 거의 대부분 ‘디다’로 번역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53)은 특히 흥미로운 사례인데, 시의 원문 자체는 ‘落’ 한 글자이지만 굳이 두 개의 동사를 병렬하여 쓴 구성을 보면 언해자는 주석의 내용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주석에서 ‘제방을 쌓아’ 風湍을 ‘減’하고 ‘落’하였다고 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방을 쌓은 효과를 강조하여 나타내기 위해 ‘減’을 살려서 번역하되, 이 단어의 번역어로 ‘디다’를 썼기 때문에 ‘落’을 번역하는 데에 굳이 ‘흘리다’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自	
VI	(57) 변비 스이에논 그 서르 디믈 게을이 아니코자 흐는디라 (朋友之際에 欲其相下不倦) <소학언해 5:77a, 1588> ²²⁾

4.3. ‘디다[落]’의 다의 양상: 종합



- 4.2절에서 분류한 ‘디다[落]’의 피행위주 논항들 가운데 특정 맥락에 결합하여 특수화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제외하고 추상성의 정도에 따라 배열하면, ‘디다[落]’가 취하는 논항의 종류가 확장되어 가는 양상이 드러남
- 이는 구체물의 물리적 하강에서 개념의 은유적 하강으로 ‘디다[落]’의 의미가 탈색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함
- 지면관계상 생략했으나, 불교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디다’ 역시 지향적 은유가 작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개념적 하강의 의미로 쓰임
- 가장 왼쪽의 구체물 차원에서 ‘디다’는 <위 → 아래>의 지향 이동을 의미하지만, 가장 오른쪽의 개념 차원에서는 지향적 은유를 통해 <+ → ->의 변화를 의미함
- 구체물 차원일 때 ‘디다’의 피행위주는 항상 ‘바닥’에 도달할 수 있지만, 개념 차원에서 ‘없음’에 도달함을 표현하는 용례가 ‘디다’ 단독으로는 문증되지 않는 것도 주의할 점
- 특수화된 것들을 포함하여 ‘디다[落]’의 다양한 용법 가운데 현대 국어 표준어로 이어지는 것들은 모두 자동사적 용법이고, 그 의미를 보면 사건의 속성상 행위주체를 설정하기 힘들거나, 유정물이 관여하더라도 행위주성을 결여하는 사건인 경우가 대부분
→ 이후 ‘디다’의 문법화를 검토할 때에도 중요하게 다뤄질 단서

22) 여기에서 ‘디다’가 ‘겸손하다’를 뜻하여 쓰인 것은 <번역소학>을 보건대 분명하다.

“버디 스이에 서르 스양호믈 게을이 마오져 흐요모로” (朋友之際에 欲其相下不倦)
<번역소학 7:45b-46a, 1518>

단 <번역소학>에서 ‘下’를 굳이 ‘사양하다’로 바꾸어 번역한 것을 보면 이 ‘디다’가 그렇게 일반적인 용법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4.4. ?디다[滅] : ‘디다’의 [消滅] 의미 인정 여부와 그 함의

- 종래 [消滅]을 뜻하는 ‘디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우리말 큰사전 및 표준국어대 사전에도 ‘디다’의 의미로 나열되어 있음
- 함희진(2008), 신은수(2016) 등에서 용례를 들어 ‘디다’가 지니는 [消滅]의 의미를 지적한 바 있음
- 해당 용례들을 근거로 ‘디다’에 소멸의 의미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디다’ 동사 자체에는 소멸의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자 함.

가. 종래 ‘디다’의 문법화는 15세기에는 불완전하였다가 그 이후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여겨짐. ‘-어 디다’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형용사의 종류가 자료에서 서서히 늘어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문법화된 ‘-어 디다_{AUX}’의 핵심 기능으로 여겨지는 상태변화(fientive) 의미가 16세기부터 서서히 발달한 것으로 추정(이정택 2001: 126)

나. 특히 19세기 말부터 자료에서 관찰되는 ‘-흐다’ 형용사들과의 결합은 ‘-어 디다_{FIENT}’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계기로, 그리고 그러한 생산성의 증가는 문법화가 충분히 진전되어 ‘-어 디다_{AUX}’가 문법 안에 자리잡은 증거인 것으로 제시됨(이정택 2001: 127)

다. 그러나 17세기 말 인간에서 관찰되는 다음의 ‘-흐여지다’ 용례를 보건대, ‘디다’ 문법화의 속도 및 ‘-어 디다_{FIENT}’의 발달이 종래 생각되던 것보다 더 빨랐을 가능성이 있음²³⁾

17세기 말 ‘-흐여지다’ 사례
(58) 동싱은 병이 이제는 죽든 아니케 되었스오나 이제도 거름을 편편히 짓디 못흐오니 민망흐오며 온혜 형님 집의도 삼월우터 염병으로 피우를 흐여 지금 드디 못흐여 시때 빙소 제스도 못 흐오니 삼년 제스도 막음으로 못 흐와 대상이 거의 다듯게 되오니 망극흐온 막음을 어이 내내 덕스오리잇가 심식 아므라타 못흐오며 이런 흉악흐온 시절을 만나와 일가의 브려 두디 못흐여 흐읍노라 흐오니 이제 마치 흐가지로 <u>이러흐여지오니</u> 이런 이리 어딴 잇스오리잇가 <진성 이씨 이동표가 인간 21, 시동생 이명익 → 형수 순천 김씨, 1671> ²⁴⁾

23) 물론 이 두 건의 자료에 대하여 방언에서 좀 더 빨리 출현한 예외일 뿐이고, 중앙어에서의 변화는 종래 이해되던 방식대로 느리게 진행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건의 사례를 ‘디다’ 문법화 시점을 더 올려잡는 근거로 삼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였을 경우 후기 중세 국어 ‘디다’ 및 현대의 ‘지다’에 관하여 여러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볼 경우, 일찍 문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어 기간 동안 자료에서 관찰되는 ‘-어 디다_{FIENT}’의 예가 왜 그리 적은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전달할 것인가’ 하는 화자의 태도가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간 자료는 자료의 양에 비해 ‘-어 디다’가 등장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이 인간>에서 비슷한 시기의 편지들을 놓고 볼 때 유독 부인 여강 이씨가 면에서 근무하는 남편 김진화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어 디다’ 용례가 많이 나온다. 아쉽게도 어질 수를 구하기 어려워 빈도를 계산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수신자보다는 남편에게 보낼 때 내용이 더 자세하고, 개인적인 의견 및 감상이 자주 등장하며, 그와 함께 ‘-어 디다’도 더 자주 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후속 연구로 넘긴다.

24) 판독문은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2》 83면. 영인본은 나와 있지 않으나 한국학중앙연구원

(59) 나는 계유 이시나 네 어마님이 홀터 나가니 섭섭 곳브기 혼두 물이 아녀 가지가 지 하 므음이 아므라타 업스며 집은 다 빈 듯^하여디고 아히들^하고 집안히 호젓^하며 디속은 덤티 못^하니 언스는 모르고 다시 보기를 덤티 못^하니 즈연이 심식 사오납오 나 <은진 송씨 제월당 송규렴가 선찰 9-104, 안동 김씨 → 손자, 1684 ~ 1701 사이 추정>25)

라. 17세기 후반에 ‘-어 디다_{FIENT}’가 ‘하_{ADJ}’와 결합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어 디다’의 문법화는 최소한 17세기 중반까지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어야 함

마. 특정 어휘가 문법화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주된 단서가 출현하는 맥락의 종류 및 빈도의 증가임을 고려할 때, 17세기 중반 이전의 자료에서 ‘-어 디다_{AUX}’로 이어질 만큼 탈색된, 즉 여러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고빈도의 본동사가 관찰될 것으로 예상됨

바. 이 조건에 들어맞는 유력한 후보가 ‘디다[落]’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 15-16세기의 ‘동사 + -아/어 + 디다[落]’ 용례들을 보조용언 결합 구성 혹은 그것의 전신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없는가?

사. 함희진(2008)에서 제안된 후기 중세국어 ‘V-어디다[落]’ 합성동사의 의미 목록은 [下降], [消滅], [分離].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 본동사 ‘디다’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의 의미는 [下降]에 집중되어 있으며, [消滅]과 [分離]의 의미로 쓰인 용례는 매우 드물거나 없음. → [消滅]과 [分離]가 ‘디다[落]’가 기여하는 의미가 아닐 가능성

- 종래 소멸을 뜻하는 것으로 제시된 ‘디다’의 용례에서 [消滅]의 의미를 의심할 여지가 있는가?

- 표준국어대사전 및 우리말 큰사전에서 제시된 용례 중,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음 문장 뿐

[?]디다[消滅]: (비듬을) 디요다
(60) 빈 춤비소로써 7장 빗겨 비드물 디요를 조히 하라 <번역박통사 상:44, 1517>

- (60)은 제시 순서로 보건대 ‘내리다’ 의미의 용례로 제시된 것일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이 문장에 대응하는 한어 원문이 “用那密的篋子好生篋着 將風屑去的爽利着”이므로, ‘去’를 ‘없애다’로 해석하고 ‘디다’가 ‘없애다’를 언해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이를 근거로 ‘디다’에 ‘없애다’의 의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듬’이라는 논항이 도입하는 맥락에서 그것을 ‘(빗어서) 내리는’ 행위에 수반되는 결과를 가리키는 것 → ‘서리디다’, ‘물디다’와 같은 유형의 특수화된 의미로 볼 수 있음

의 황문환 선생님의 도움으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 호의를 베풀어 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5) 판독문은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2》 338면, 영인본은 《은진송씨 송준길·송규렴 가문 한글 간찰》 (116번 선찰 9) 150-151면

- ‘노가디다’ (함희진 2008)

<p>³디다[消滅]: 노가디다</p>
<p>(61) 果報 中間 訶니는 비치 저기 붉고 福 訶가벗니는 비치 저기 거므니 이베 들면 노가 디느니라 <월인석보 7:42> (함희진 2008:411, 신은수 2016)</p>

- (61)은 ‘디다’ 단독으로 사용된 예가 아니어서 ‘눅다’가 소멸의 의미를 기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디다[滅]’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움

- 현대 국어 ‘지우다’와 ‘디다[滅]’의 관계(함희진 2008: 411 각주)

→ 용례를 들지는 않았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우다’의 기원으로 삼은 ‘디오다’를 의식한 듯

<p>³디다[消滅]: (때를) 디오다</p>
<p>(62) 𪗇洗 물에 타 옷에 띠 디오논 돌 <역해유해 상:47, 1690></p>

- 17세기 자료인 <역어유해>를 근거로 15-16세기 국어에서 ‘디다[滅]’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역시 앞서 본 ‘비듬 디다’와 같은 유형의 의미로 분류할 수 있음

- ‘디여 가다’ (신은수 2016)

<p>³디다[消滅]: (念念이) 디여 가다</p>
<p>(63) 새로 새로 니로물 널오디 ㅅ이오 念과 念패 디여 가물 널오디 滅이라(新新而起曰 ㅅ이오 念念落謝曰滅) <선종영가집언해 상:69a> (신은수 2016:237)</p>

- ‘디다[滅]’을 인정할 근거 용례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음
- 문제는 ‘滅’에 대응하는 것이 ‘디다’가 아니라 ‘念念과 念이 디여 가다’라는 점. ‘디여 가다’는 ‘滅’의 풀이이기 이전에 ‘落謝’의 번역어
- 여기서의 ‘落謝’는 불교철학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로서, 산스크리트어 용어를 하강 이동 은유에 기대어 번역한 표현²⁶⁾

26) ‘落謝’ (Skt. अभ्यतीत [abhyatīta], En. Falling into past)는 소승불교의 분과인 說一切有部에서 제시된 三世實有說에서 등장하는데, 이 설의 주된 내용은 미래에 속하는 개념들이 현재로 투사되어 우리에게 일순간 인식되고 바로 과거로 사라진다는 것이다.<종교학 대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설 일체유부” 항목.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경유 이용 (2017년 6월 21일 확인) 여기서 개념이 과거로 사라지는 것을 낙사한다고 하고, 개념이 낙사하여 사라지는 일이 곧 ‘滅’이다. 이 설명은 위에서 아래로의 이동이라는 인지적 도식에 기대고 있으며, 중국의 번역자들은 이 도식을 받아들여 ‘落謝’라는 번역어를 채택했다고 할 수 있겠다. ‘落謝’의 단어 구성만 보면 ‘하강 + 소멸’ 또는 ‘하강 + 후퇴’의 두 가지 의미 해석이 가능한데, 三世實有說은 三世,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가 實有, 거칠게 바꿔 말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므로(노민정 2012: 113-119) 개념들이 과거로 낙사하는 것을 ‘소멸’로 보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三世實有說의 설명은 滅을 소멸 그 자체로 정의하기보다는 존재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Ibid.), ‘(인지 밖으로

- 15-16세기 자료에서 ‘落謝’는 불경의 주석에서만 3회 나타나는데, 모두 ‘디여 가다’로 번역됨 → ‘落’과 ‘謝’를 각각 ‘디다’와 ‘가다’로 옮겨거나, ‘落謝’의 개념에 상응하는 합성 동사 혹은 동사 연쇄 ‘디여(#)가다’를 전문용어로서 사용했을 가능성

‘落謝’와 ‘디여(#)가다’
(64) [文殊 니르샤디 法을 안헛 드트리라 니르느니라 헛시니 곧 過去엿 諸法의 그리메 像이 이라 쏘 일후미 <u>디여간</u> 듣그리라] (文殊 云헛샤디 法을 稱爲內塵이라 헛시니 卽過去諸法影像이 是也 라 亦名落謝塵이라) <능엄경언해 3:16a, 1461>
(65) 아로물 니르와다 아로물 아로뎨덴 後入 아로미 날 쟈 문젯 아로미 불췌 滅헛리니 [새로새로 니로물 닐오디 生이오 念과 念과 <u>디여가물</u> 닐오디 滅이라] (起知하야 知於知-덴 後知 若生時에 前知 早已滅헛리니 [新新而起曰生이오 念念落謝曰滅이라]) <선종영가집언해 상:68b-69a, 1464>
(66) 滅 [念念이 <u>디여가미라</u> (念念落謝 라)] <원각경언해 상2-3: 17a, 1465>

- (64)의 ‘디여간’을 보면 ‘落謝’의 번역어인 ‘디여(#)가다’의 ‘가다’는 보조 용언이기보다는 동사일 가능성이 큼²⁷⁾ → 이렇게 볼 경우, ‘디여(#)가다’가 나타내는 [消滅]의 의미는 이동동사 ‘디다’와 ‘가다’의 중첩으로 표현된 한없는 하향 이동에 수반되는 결과 해석으로서 ‘디다’ 단독의 의미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음
- <두시언해>에서도 소멸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디다’가 아니라 굳이 ‘디여(#)가다’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례가 존재함²⁸⁾

‘盡’과 ‘디여(#)가다’
(67) 暵근 ㄹ르매 白日이 <u>디여가거늘</u> 쏘 고은 사르물 자바 빗난 비예 오르노라 (淸江白日落欲盡 復携美人登綵舟) <(초간)두시언해 15:44a, 1481>

의) 하강 + 후퇴’를 의도한 번역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7) 후기 중세 국어에서 ‘-ㄴ’ 관형절은 [-상태성] 용언과 결합하였을 때 주절 시점보다 이전의 과거 시제를 가리키며, 과거 시제 술어에서는 추가적으로 비완망상 ‘-더-’와 완망상 ‘-Ø-’의 대립이 있다 (최동주 2015:101, 110-122). 동사에 결합한 보조 용언 ‘-어 가다’가 행위의 지속을 나타낸다고 본다 (손세모들 1994:195). 동사 ‘디다’에 이것이 결합한 동사구는 [-상태성]을 띠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여간’의 ‘-어 가다’를 보조 용언으로 해석하면 진행 또는 지속의 상적 의미(Progressive)와 완망상(perfective)이 한 동사구 안에서 동시에 실현되는 극히 드문 사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28) <(초간)두시언해>에는 ‘落’과 관련된 ‘디다’ + ‘-어 가다’ 사례가 모두 다섯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盡’이 포함된 시구를 언해한 이 문장에서만 ‘디여(#)가다’ 형태로 옮겨지고 나머지 ‘落’의 번역어는 모두 ‘더 가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도 몹시 신경쓰이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자료 내에서 ‘디다’에 ‘-아/어’ 어미가 결합했을 때 ‘디여’ 형태로 실현된 것은 대부분 본동사로 쓰인 어휘에 선행하였기 때문이다.

ㄱ. 벼를 머거 雙關에 뒤오 드를 빈헛야 邊城으로 더 가눗다 (舍星動雙關 伴月落邊城) <(초간)두시언해12:10a, 1481>

ㄴ. 南너그로 느는 가막가치 잇더니 바미 오라니 ㄹ르 ㄹ르로 더 가눗다 (南飛有鳥鵲 夜久落江邊) <(초간)두시언해12:3a, 1481>

ㄷ. 늘거가매 슬픈 吹角스 소리를 드로니 사르미 더위자바셔 히 더 가눗다 알외는다 (老去聞悲角 人扶報夕陽) <(초간)두시언해 14:7b, 1481>

ㄹ. 北關에 새 넘그미 ㄹ르시니 南너 버리 故園으로 더 가눗다 (北關更新主 南星落故園) <(초간)두시언해 21:23b, 1481>

- 이상의 정황에서 나오는 의심과, ‘-어디다[消滅]_{Comp.V}’를 ‘-어 디다_{AUX}’로 바꿔 해석할 때 생겨나는 분석 차원의 이익을 바탕으로, ‘디다’에 [消滅]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고자 함

5. 디다^{V2} 사례의 분류: 동사 연쇄, 합성동사, 보조용언 구성

5.1. 디다^{V2}의 유형과 분석상의 난점

- 디다^{V2} : 다른 동사에 ‘-어/아’ 어미의 매개를 거쳐 후행하는 ‘디다’ 동사의 총칭²⁹⁾
- 15-16세기 자료에 나타난 선행 용언별 디다^{V2} (81종)³⁰⁾

가 - 가디다	드위티 - 드위터디다	스미 - 스미어디다	*우글 - 우그러디다
가르 - 갈아디다	똥 - 들위디다	슬 - 스러디다	잇 - 이저디다
갓굴 - 갓ᄃ라디다	드외 - 드외야디다	스밋 - 스ᄃ차디다	젓브 - 젓바디다
것ᄃᄃ죽 - 것ᄃᄃ주 거디다	므르 ¹ - 물어디다	솔 - 스라디다	죇 - 조차디다,
저디다	므르 ² - 물러디다	숯 - 슬하디다	즈르 - 즐어디다
저 - 젓거디다	밀 - 미러디다	브드티 - 브드터디다	츠림 몰ᄃ - 츠림 몰 ᄃ야디다
그울 - 그우러디다	미 - 미어디다	붓 - 붓아디다	칩 - 치위디다
글희 - 글희어디다	발 - 발아디다	뿔 - 뿔러디다	츠 - 처디다
긋 - 그처디다	버물 - 버므러디다	뿔 ¹ - 뿔디다 ¹	타 ¹ - 타디다 ¹
기울 - 기우러디다	버히 - 버허디다	뿔 ² - 뿔디다 ²	타 ² - 타디다 ²
굴 - ᄃ라디다	벗 - 버서디다	빨 - 뿌러디다	퍼 - 퍼디다
넘 - 넘어디다	뿌 ¹ - 뿌디다 ¹	빼 - 빼야디다	프 - 퍼디다
녹 - 노가디다	뿌 ² - 뿌디다 ²	빼 - 빼어디다	플 - 프러디다
눅 - 누어디다	뿌 - 뿌디다	식 - 식어디다	혈 - 허러디다
늣 - 늣거디다	뿌리 - 뿌러디다	솔 - 쏘라디다	혈뽏 - 혈뽏디다
낮히 - 니쳐디다	뿌 - 뿌야디다	쌈 - 싸디다	헤프 - 헤퍼디다
느리 - 느려디다	뿌 - 뿌디다	어기 - 어기어디다	호르 - 홀러디다
늘 - 느라디다	석 - 서거디다	업드 - 업더디다	홀 - 호터디다
도돈 - 도돌라디다	소 - 소아디다	없 - 업서디다	히 - ᄃ야디다
돌 - 도라디다	숯 - 소다디다	옴 - 올마디다	
드위 - 두위어디다	숯 - 소사디다		

- 4.4절에서 밝힌 이유에 따라 ‘-어 디다_{AUX}’가 ‘디다[落]’의 문법화의 결과물이라고 가정하고 자료를 관찰할 경우, 디다^{V2}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것

29) 동사에 후행하는 ‘디다’는 ‘드리디다[垂]’와 같이 ‘-어/어’ 어미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어간에 합성되는 경우가 소수이지만 존재하며, 이것이 ‘-어 디다_{AUX}’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 동사의 어간합성법과 그것이 쇠퇴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분석의 전제로서 ‘-어 디다_{AUX}’의 존재와 기능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른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30) 디다^{V2}의 대표형을 선정하고 결합한 선행 용언을 확정하는 과정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다른 기회로 미룬다.

가. 동사 연쇄 : 다른 동사와 본동사 ‘디다[落]’의 연쇄

나. 합성동사 : ‘디다[落]’의 고유한 어휘 의미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합성동사

다. 보조용언 구성: ‘디다[落]’의 고유한 어휘 의미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보조용언 구성
(혹은 그것이 굳어진 결과로서의 합성 동사)

- 직관도, 제보자도, 문법적 메타 분석도 없는 언어 자료에 대하여 위 (가-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중세 국어에 양용 동사 현상이 있는 이상, 직관이 없는 현대 국어 화자로서 특정 용언이 단독으로 자동사·타동사 또는 자동사·형용사 양쪽의 쓰임을 보일 때 디다^{V2}와 결합한 해당 용언이 어떤 품사로 사용되었는지 확신을 가지고 판정할 방법은 없음
→ 선행 용언의 품사는 단서로 쓰기 어려움
- 앞서 결합하는 논항과 맥락을 단서로 ‘디다[落]’의 의미를 추정했듯이, 같은 방식으로 디다^{V2} 사례들에 대하여 사건 구조와 참여자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함
- 이미 ‘디다[落]’의 의미 목록을 확정하였으므로, 선행하는 동사가 1) ‘디다[落]’의 유의어가 아니고 2) 디다^{V2}에 어휘 의미가 나타난 경우는 동사 연쇄 또는 합성동사로 분류 가능
- 한어의 번역 표현일 경우, 선행 동사와 디다^{V2}가 서로 다른 두 단어의 조합에 대응하고 있고 대응 관계가 투명하다면 동사 연쇄이거나 합성동사
- 동사 연쇄와 합성동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 앞서 ‘디다[落]’의 다의 양상에서, 피행위주 논항이 도입하는 맥락 속에서 ‘디다’의 의미가 하강이동에 수반되는 결과 사건까지 확장되는 경우와, 더 나아가 결과 사건만 가리키는 의미로 특수화하는 경우를 여러 번 확인함

(무더기) 하강 - 쌓임

(액체) 하강 - 고임 > (물이) 불어남

(사람/짐승) 하강 - 쓰러짐 > (글자) 쓰러짐

(나무/꽃/식물) 하강 - (가을이 되어) 시듦

...

- 특히 자동사 용법에서 이러한 특수화가 자주 발생함 → 모든 참여자를 공유하는 사건의 연속이 있고, 두 사건 사이에 인과 연쇄(causal chain)가 성립할 경우, 인간은 그 두 사건 간의 경계를 무시하고 하나로 포착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디다^{V2}는 합성동사 또는 보조용언 구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디다^{V2}를 동사 연쇄로 분류해 보면 어떨까? → 이 기준으로 디다^{V2} 용례들이 잘 분류되고 문법화 과정도 드러난다면 성공,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면 폐기
- ‘치위디다’와 ‘업서디다’는 특히 후자에 관하여 품사를 확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단 ‘-어 디다^{FIENT}’의 사례로 간주해 둬

5.2. 디다^{V2} 동사 연쇄

디다[落] 의미(○), 논항 공유(×), 인과 연쇄 (×)
(68) 洪武 壬申 三月에 太祖 뭍 <u>타아 디엣거시늘</u> (洪武壬申三月 太祖墮馬) <삼강행실도 충신도:33a, 1481>

- (68)을 보면, ‘타다’는 ‘말_{ACC}’도 필수 논항으로 지니지만 ‘디다’는 그렇지 않음. 또한 말을 타는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낙마하는 것은 아님
- 타 디다¹, 소아 디다, 드위터 디다, 받드터 디다, 미리 디다, 슬하 디다, 조차 디다

디다[落] 의미(○), 논항 공유(△), 인과 연쇄 (×)
(69) 다보지 나미 불휘 업순 줄 아니언마룬 漂蕩 _{흐야} 노픈 브르뭉 좇느니 하늘히 치운 제 萬 里에 <u>가 디어</u> 다시 민 퍼기에 도라가디 몬 _{흐느} 니라 (蓬生非無根 漂蕩隨高風 天寒落萬里 不復歸本叢) <두시언해 6:53a-53b, 1481>
(70) 淨居天 濼 _緋 이 주근 벌에 드외야 <u>디엣거늘</u> <석보상절 3:15b, 1447>

- (69)의 뜻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만, 만리 밖에 가는 것은 떨어지는 사건과 인과 연쇄를 이루지 않음
- 가디다, 드외야 디다, 츠림 몬_{흐야} 디다, 올마 디다, 느라 디다

한어 원문에서 서로 다른 두 단어의 조합에 대응함
(71) <u>헝다가 能히 브즈러니</u> 나사가면 오히려 어루 거의러니와 <u>헝다가 쏘 물러 디면</u> 쏘 未來엿 그스므로 알뵈 塵劫을 가즐비건댄 쏘 이 數에 더으디 아니홀 뜰 엇데 알리오 (若能勤進 _{흐면} 猶可庶幾어니와 設復退墮 _{흐면} 又安知未來之期로 比前塵劫건댄 不復過於是數耶 리오) <법화경언해 3:165b, 1463>

- ‘물러디다’는 출현한 모든 사례에서 ‘退墮’에 대응함. ‘므르다[退]’와 ‘디다[落]’가 각각 대응하는 관계가 투명하여 동사 연쇄 또는 합성동사일 수 있으나 편의상 동사 연쇄에 분류해 둠
- 물러 디다, 뿌여 디다, 소사 디다

선행동사와 디다 ^{V2} 사이에 다른 어휘가 개재함
(72) 迦葉이 弟子들과 <u>흔뵈 禮數</u> <u>헝습고</u> <u>것므르주거</u> <u>싸해 디엣다가</u> <석보상절 23:43b, 1447>

- ‘悶絶’의 번역어로 ‘것므르죽다’와 ‘것므르주거 디다’가 모두 자주 등장하며 까무러치는 사건과 쓰러지는 사건 사이에는 인과연쇄도 성립하지만, 디다^{V2} 앞에 ‘싸해’가 개재되는

사례들로 보아 동사 연쇄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음

5.3. 디다^{V2} 합성동사

디다[落] 의미(○), 논항 공유(○), 인과 연쇄(○)
(73) 시혹 妙圓을 자바 諸趣入 業을 띠러브러 그르 띠러듀물 널윽 전츠로(或執妙圓而撥 諸趣之業호야 以致失錯墮落故로) <능엄경언해 8:65a, 1461>

- ‘디다[落]’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합성동사들
- 디다^{V2} 합성동사는 ‘디다’가 의미핵이고 선행동사가 ‘디다’의 직전 인과를 나타냄
- ‘띠러디다’의 의미 핵이 ‘디다’라는 점은 ‘띠러브리다’와 비교할 때 분명히 드러남. 이후에 볼 디다^{V2} 보조용언 군은 ‘것거디다’와 ‘것거브리다’가 모두 ‘折’에 대응하는 식으로 같은 한자에 대응하는 데에 비해, ‘띠러디다’는 墮/落 등에 대응하고 ‘띠러브리다’는 拂/撥 등에 대응하는 양상이 일관적으로 나타남
- 띠러디다, 싸디다, 처디다, 땀디다¹, 도라디다,³¹⁾ 슝차디다, 썩라디다, 띠디다¹, 즐어디다

디다[顛倒] 의미(○), 논항 공유(○), 인과 연쇄(○)
(74) 남기 𦵏라디며 藤이 이우러 우수미 더욱 새르외도다 <금강경삼가해 5:27b, 1482>

- ‘디다[顛倒]’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합성동사들. 여기서의 선행 동사는 쓰러지는 사건의 원인/방식을 나타냄
- 𦵏라디다, 그우러디다, 기우러디다, 넘어디다, 썩라디다, 엮더디다, 젓바디다, 쓰러디다, 버허디다

5.4. 디다^{V2} 보조용언 구성 혹은 그 흔적

31) '도라디다'의 예들은 대부분 '돌아와 디다'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월인천강지곡 상 其一百二>에 나오는 '불이 도라디고 춘 보롬 불어늘 모딘 龍이 怒를 그치니' 사례는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에서 관련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 해석이 까다롭다. 다행히 <진언권공>에 배경 고사가 나와 있어 이 역시 '돌아와 디다'의 의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迦葉이 부터의 가 出家호□ 道心이 물러 火龍外道를 섬기거늘 부테 根性이 호마 니근 들 보시고 가 濟度호더시니 그뻘 데 가샤 자리 빌어시늘 迦葉이 널오던 이에 자실 뵤 房이 업고 오직 火龍의 돌窟이 잇느니 자시리잇가 호야늘 부테 더에 가 자시더니 밋 中에 火龍이 神通을 나토아 고해 닻 내오 비늘에 불 내야 부터를 害호스오려커늘 世尊이 慈悲호스 ㅁ스물 니르와드시고 三昧火를 내샤 漸漸 불마니 火龍이 모딘 브리 도르혀 제 모물 솔식 逃亡호 디 업고 오직 世尊호 보빏 바리 안히 서늘코 어원 들 보고 뿌여 바릿 안해 드니라 <진언권공 21a-b, 1496>

5.4.1. 선행동사와 디다^{V2}의 의미가 일부 중첩되는 경우 (‘-어 디다_{AUX}’ 1군)

디다[落] 의미(△), 논항 공유(○), 인과 연쇄(○)
(75) 뒤편 식미 滄江애 <u>흘러디느니</u> 霹靂 소리 오히려 귀에 잇도다 (山泉落滄江 霹靂猶在耳) <(초간)두시언해 16:66a>

- (75)의 ‘흘러디다’는 ‘흐르다’와 ‘디다’ 모두 액체의 이동을 나타낼 수 있으나 ‘디다’는 하향이라는 지향을 추가로 표현한다는 점이 다름
- 이 단계에서는 아직 동사 연쇄 또는 합성동사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의미가 중복됨으로써 의미의 재해석이 발생할 소지가 생겨난다는 점이 중요함
- 이동의 의미가 중복되면서 인과 연쇄를 이루기 때문에, ‘디다’에서 이동의 의미가 탈색될 수 있는 환경 → 문법화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
- 액상화, 또는 액체의 이동을 나타내는 선행동사들과 결합한 경우가 많음
- 노가디다, 식여디다, 스미여디다, 소다디다, 흘러디다
- 느려디다, 누어디다

5.4.2. 선행동사의 디다^{V2}의 의미 중첩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어 디다_{AUX}’ 2군)

디다[落] 의미(△), 논항 공유(○), 인과 연쇄(○/--)
(76) 堂閣이 서거 늘ㄷ며 담과 브롬괘 <u>몰어디며</u> 긴 불휘 서거 헛야디며 보 물리 기울어늘 <법화경언해 2:56b, 1463>
(77) 네 어머니는 므를 머그면 므븐 브리 득외야 비솔히 데여 <u>몰어디리라</u> <월인석보 23:90a, 1459>
(78) 너와 드트레셔 혼 번 기리 브라고 늘구메 正히 <u>느출 몰어디유라</u> (烟塵—長望 衰颯 正摧顏) <(초간)두시언해 13:38a, 1481>

- (76)에서는 ‘디다[顛倒]’의 의미가 구조물로 확장된 용법을 읽어낼 수 있음
- 그러나 같은 ‘몰어디다’여도 (77-78)에서는 쓰러짐의 의미를 읽을 수 없고 선행동사 ‘므르다’의 의미가 핵이 됨
- 디다^{V2}에서 어휘 의미를 읽을 수 없는 경우, 사건이 없으므로 인과 연쇄를 설정할 수 없음
- 몰어디다, 허러디다, 글희여디다, 프러디다, 퍼디다, 헤퍼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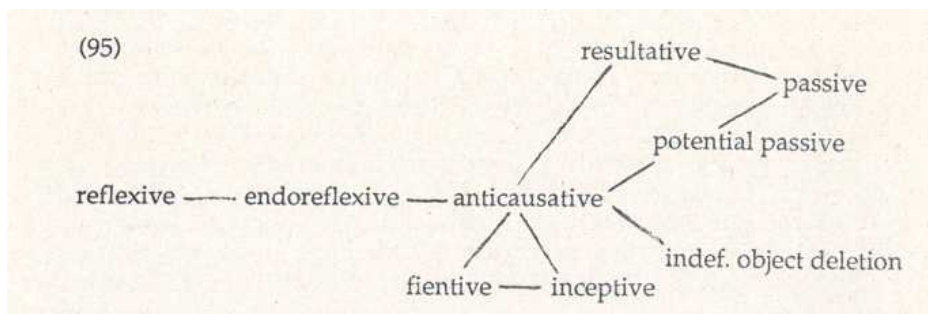
5.4.3. 선행동사가 의미핵으로 작용하고 디다^{V2}에서 ‘디다[落]’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경우 (‘-어 디다_{AUX}’ 3군)

디다[落] 의미(x), 논항 공유(○), 인과 연쇄(--)
(79) 모매 두루 흰 어르러지 점점 <u>퍼디여</u> 버즘 곤거든 <구급간이방 6:86a, 1489>
(80) 겨슬해 업고 보미 <u>퍼듀물</u> 보며 녀르메 盛코 ㅅ슬히 듀물 알며 <선종영가집언해

- (79)의 ‘퍼디다’가 가리키는 것은 피부에 생겨난 질환의 면적이 넓어지는 사건이며, ‘디다[落]’의 어떤 추상화된 의미로도 여기에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은 없음
- (80)의 ‘(꽃이) 퍼디다’의 경우, ‘디다[落]’의 가장 고빈도 의미의 하나인 ‘(꽃이) 시들다’와 정반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음 → ‘-어 디다_{AUX}’의 문법화가 매우 진전되어 있다는 증거
- 빠디다², 갈아디다, 것거디다, 그쳐디다, ㄹ라디다, 들워디다, 두위여디다, 드위터디다, 버르러디다, 띄여디다, 버서디다, 빠디다, 뿌러디다, 뿌야디다, 빠디다, 스러디다, 스라디다, 붓아디다, 떠디다², 빼야디다, 빼여디다, 이저디다, 퍼디다, 혈쁘다디다, 흐터디다, 햏야디다, 늘거디다, 니쳐디다, 도들라디다, 발아디다, 서거디다, 어긔여디다, 우그러디다, 타디다²

5.5. ‘-어 디다_{AUX}’의 문법적 기능

- 역사적 언어 자료에서 특정 구문의 문법적 의미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 우리는 해당 구문의 후계형이 지닌 문법적 의미를 알고 있으므로, 언어유형론 및 역사언어학의 성과를 빌어서, 문법화를 거쳐 현재의 의미로 발달할 수 있는 문법 범주들을 후보로 고려할 수 있음
- 현대 국어 ‘-어 지다_{AUX}’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확인되는 기능은 상태변화(fientive)이며, 가능 피동(potential passive), 피동(passive) 등이 확인되어 있음
- 마침 이러한 기능들은 한 쪽에서 문법화를 거쳐 다른 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연구 성과(Haspelmath 1987)가 있으므로,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다음 지도를 이용하기로 하자



반사동 및 그 인접 범주들의 의미 지도(Haspelmath 1987:35)

- 위 그림은 여러 언어의 문법 형태소의 다의성을 토대로 그린 의미 지도이면서, 동시에 한 범주가 문법화를 거쳐 다른 범주로 확장될 수 있는 경로의 지도이기도 함
- 언어유형론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추론할 경우, 문법 범주의 목록과 그 의미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Haspelmath (1987)에서 ‘상태변화(fientive)’는 형용사가 굴절이나 파생 등의 형태소 결합을 통해 ‘~한 상태가 되다’의 의미를 갖게 하는 형태론적 작용(morphological operation)의 이름이자 그 범주(grammatical category)의 이름

-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 ‘-어 지다_{AUX}’가 결합했을 때에 실현되는 의미가 상태변화와 매우 관련이 깊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합한 용언이 형용사가 아니라면 이 지도를 이용할 때에는 그것을 ‘-어지다_{FIENT}’의 예로 분류할 수 없음
- 현대 국어 ‘-어 지다_{AUX}’의 의미가 상태변화와 가능피동, 피동을 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 지도 상에서 그것으로 확장될 수 있으면서 후기 중세 국어 ‘-어 디다_{AUX}’의 통사적 분포 패턴과 부합하는 후보는 결과상(resultative)과 반사동(anticausative)
- 위 의미 지도에 표시된 각 영역들은 문법적 특성을 가리키고, 이름은 그것을 실현하는 범주를 적은 것. 즉, 위 지도에 결과상으로 표시된 영역은 동시에 상태동사(stative verb)들이 공유하는 문법적 특성의 영역이며, 반사동으로 표시된 영역은 동시에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들이 공유하는 문법적 특성의 영역(Haspelmath 1987:35)
- 15-16세기 ‘-어 디다_{AUX}’는 결과상과 양립하기 힘든 비과거 시제인 문장에서 실현됨 → 이 시기의 ‘-어 디다_{AUX}’는 결과상 기능은 지니고 있지 않음
- 특히 (82)에서 ‘-어 디다_{AUX}’와 결합한 ‘-느-’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결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최동주 2015:67-69) → ‘-어 디다_{AUX}’가 결합한 동사구는 상태동사처럼 해석되지 않음

‘-어 디다 _{AUX} ’와 비과거 시제
(81) 究竟은 비 부러 서거딜 시라 <원각경언해 상2-2:114a, 1465> ³²⁾
(82) 온 즈침이 듣고 디고리 다 뿌려디느니 <남명집언해 47b, 1482>

- 따라서 반사동이 남음
- Haspelmath (1987)에서 정의하는 반사동은 ‘사동/기동 교체를 나타낼 때 타동사에서 기동사를 형태론적으로 파생하는 범주 및 그 작용’이지만, 위의 지도는 기능 영역을 표시한 것이므로 위 지도에서 반사동의 영역을 ‘사동/기동 교체에서 기동 쪽을 표시하는 범주’로 이름을 바꿔 붙일 수도 있을 것
- ‘사동/기동 교체’를 표시하는 다양한 방법(Haspelmath 1987:4)

- ㄱ. 사동 혹은 기동 쪽에 표지를 결합하여 다른 한쪽을 실현(privative alternation)
- ㄴ. 사동 쪽과 기동 쪽을 나타내는 각각 다른 표지를 동일한 어근에 결합시키거나, 동일한 동사를 사용해서 실현(equipollent alternation)

- 손세모돌(1992:85-87)에서 지적된 바, 중세 국어는 ‘-어 브리다’와 ‘-어 디다’가 어휘 의미의 변동 없이 결합하는 논항의 수만 바꾸면서 교체되는 현상이 있음
- 사동/기동 교체에서 사동 쪽은 항상 타동사이고 기동 쪽은 항상 자동사로 나타남
- 그렇다면, 위에서 분류한 ‘-어 디다_{AUX}’ 유형의 디다^{V2}, 특히 3군에 속하는 유형에서 모두 ‘-어 브리다’와 교체 현상을 보일까?

32) 여기서의 究竟은 불교에서 말하는 몸의 다섯 가지 부정함 중 究竟不淨을 줄여 말한 것이다.

ㄱ. ‘-어 브리다’ 교체가 확인되는 경우

빠디다 ² - 빠브리다	피여디다 - 피여브리다	붓아디다 - 붓아브리다
것거디다 - 것거브리다	버서디다 - 버서브리다	이저디다 - 이저브리다
그쳐디다 - 그쳐브리다	빠디다 - 빠브리다	호터디다 - 호터브리다
ㄹ라디다 - ㄹ라브리다	쁘려디다 - 뿌려브리다	히야디다 - 히야브리다
들워디다 - 들워브리다	쩍야디다 - 찻야브리다	스러디다 - 스러브리다
드위터디다 - 드위터브리다	뼈디다 - 뼈브리다	스라디다 - 스라브리다

ㄴ. ‘-어 브리다’ 교체는 없으나 선행 동사 단독으로 타동사 용법이 확인되는 경우:

갈아디다 - 가르다	빼야디다 - 빼다	피디다 - 프다
두위여디다 - 드위다	빼여디다 - 빼다	혈뽀디다 - 혈뽀다
버므러디다 - 버믐다	어긋여디다 - 어긋다	

ㄷ. 선행 동사가 자동사로만 사용되는 경우:

발아디다 - 발다	도들라디다 - 도들다	늘거디다 - 늙다
서거디다 - 석다	니쳐디다 - 낮히다	뼈디다 ₂ - 뼈다 ₂
우그러디다 - *우글		

- ‘-어 디다_{AUX}’ 3군을 이루는 대부분의 선행 동사에서 사동/기동 교체로 해석되는 분포를 확인할 수 있음 → 중세 국어 ‘-어 디다_{AUX}’의 기능은 사동/기동 교체 표지일 것
- 그렇다면 ‘서거디다’ 류에 실현된 ‘-어 디다’는 무엇? → 앞서 본 (81) 예를 볼 때 결과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므로, 여전히 사동/기동 교체와 관련이 있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 논항 구조의 ‘교체’가 아니라 그 결과물인 기동 쪽의 논항 구조 그 자체를 나타내는 표지로 전화되었다면 어떨까?
- 기동 쪽의 논항구조의 특성은 1) 피행위주 한 개를 필수 논항으로 지니며 2) 대응되는 사동 쪽에 존재하는 행위주가 배제되는 것 → 이것을 잠정적으로 ‘비대격성 (unaccusativity)’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 사동/기동 교체의 기동 쪽은 비대격동사의 하위 부류 → 즉 추상화를 거쳐서 일종의 기능 확장이 벌어졌을 가능성
- 확장의 경로가 있는가? → 디다[顛倒]^{V2} 합성동사 ‘갓ㄹ라디다’ 류. 이 부류의 동사에서 의미핵은 ‘디다’이지만, ‘디다[顛倒]’가 나타내는 ‘쓰러짐’ 사건은 ‘갓꺾다’, ‘넘다’, ‘뜯다’ 등의 선행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과 인과 연쇄를 이루기 때문에 선행 동사의 의미인 것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있음
- 디다[顛倒]^{V2} 합성동사가 그러한 재해석을 거친다면 비대격동사 + ‘-어 디다’의 구조에 도달할 것 → 이 ‘-어 디다’와 기동 쪽을 표지하는 ‘-어 디다_{AUX}’가 추상화되면 비대격성 표지인 ‘-어 디다’에 도달할 수 있음
- 특히 비대격동사라는 특성은 현대 국어까지 살아남은 용법의 ‘디다_{VI}’들에서도 빈번하게 확인됨 → 중세 국어부터 이미 ‘디다_{VI}’ 자체에 강하게 결부된 의미 특성이었을 것. 디다^{V2} 사례들이 ‘저절로’, ‘스스로’ 등의 부사 수식을 자주 받는 것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
- 즉, 디다[顛倒]^{V2} 합성동사에 실현된 ‘-어 디다_{Comp.V}’와, ‘-어 디다_{AUX}’ 및 ‘디다_{VI}’의 의미

- 특성이 일반화되면서 비대격성 표지 ‘-어 디다’가 성립하였으며, 이것이 ‘서거디다’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서거디다’ 류의 선행 동사가 이미 비대격동사인 이상, 여기에 실현된 ‘-어 디다’의 기능은 잉여적인 것 → 이것이 명시적으로 표지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비대격성을 더 강조하는 것
 - 중복되어 표지된 것이 비대격성이기 때문에, 유정물이 논항이 될 경우 그 유정물의 행동주성의 약화, 즉 그럴 의도가 없었거나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겪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³³⁾
 - 혹시 그 잉여성으로 인해 이후에 다른 문법적 재해석을 겪었을 가능성은 있나? → 현재 까지 강하게 유지되는 ‘디다’의 비대격성을 고려하면, 향가 범주를 벗어나는 확장을 거쳤을지 의문. 기동 표지 및 비대격성 표지의 ‘-어 디다’ 외에도 ‘디다[落]’에서 발달한 ‘-어 디다_{FIENT}’는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는 범주이고, 이는 사건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향가와 한데 묶일 수 있는 범주이거나 그 비슷한 정도로 어간과의 관련성이 높은 범주임
 - 19세기 말까지도 비과거 시제에서 실현되는 비대격표지 ‘-어 지다’를 관찰할 수 있음 → 동사의 사건 구조를 벗어나 문법상 범주 쪽으로 확장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³⁴⁾

19세기 말의 비대격표지 ‘-어 디다 _{AUX} ’
(83) 입안을 상고 흐거드면 이가 아리 우희로 들어 잇는 디 길고 므우 묘족 흐야 그 이 틈에 무슴 물건이 들어 가거드면 글씨가 므우 쉬히 되얏는지라 쯔 그썸 아니라 턱이 나왓다 들어 갓다 흐게 싱긴 고로 무슴 물건을 먹을 쟈에 입삭위나 풀이나 저 절노 갈너질 밧씩 슈가 업는지라 <독립신문 2권 77호 론설, 1897년 7월 1일>

6. 추후 과제

- 여기에서 사용한 비대격성 개념은 비대격동사의 일반적인 정의와 Haspelmath(1987)에 기댄 것. 비대격동사에 관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여러 성과와 맞추어서 ‘-어 디다_{AUX}’의 특성을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어 디다_{FIENT}’는 사동/기동 교체 표지 ‘-어 디다’보다 늦기는 하지만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발달한 범주임. 이 범주의 자세한 의미 특성과, 그것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문법화 경로를 자세히 살펴야
- 17세기 이후 ‘-어 디다’의 기능이 다시 어떻게 확장되는지 추적 연구가 필요함.

33) 이 비대격성 강조를 ‘-어 디다’의 기능으로 추가함으로써, <순천 김씨묘 출토 언간> 95번 편지에 나타나는 ‘정시니 아득흐고 흘 □□□ 니쳐디니’ 사례처럼 이미 ‘-이-’ 결합 과생을 통해 반사동사 (anticausative verbs)가 된 동사에 다시 ‘-어 디다’가 결합하는 사례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비대격성을 강조하는 기능이 좀더 발달하면 일본어에 나타나는 피해피동의 범주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34) 따라서 김미경(2016)에서 제기했던 ‘-어 디다’ 결과상 가설을 잠정적으로 폐기하고자 한다. 당시에 공부 부족하여, 상태변화 및 피동과 문법화 측면에서 관계가 있으면서 자동사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범주를 결과상밖에 떠올릴 수 없었다. 당시 학술대회 청중 가운데 비대격동사와 비능격 동사 등 ‘-어 디다’가 결합하는 동사의 성격이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부끄럽게도 그 때는 공부가 부족하여 그 말씀을 살리지 못하였다. 이 발표는 그 때 드리지 못했던 뒤늦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성함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 역시 죄송한 일이다. 이 자리를 빌어 뒤늦게나마 그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Haspelmath(1990:36)에서 관찰한 유형론에 따르면 피동 표지가 무의도(unintentional) 표지를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대격성 강조의 기능을 이것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일본어의 피해피동과 연결할 수 있을지 추가 연구가 필요함
- 향가 범주는 태(voice) 범주에 속하는 피동(passive)과 달리 동사의 논항 구조의 내역을 직접 변경함 → 어간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여러 언어에서 굴절보다는 어휘 차원에서 표지됨(Bybee 1985:20, 24) → 그런 것을 표지하는 형태소의 문법적 지위를 보조용언이라고 불러도 될 것인지?
- ‘-아/어’를 매개로 하고 있고 동사 연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며, 두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의 긴밀한 연결을 바탕으로 발달한다 → 합성동사와 여러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합성동사라고 부르기도 곤란함. 종래 보조용언이 상 범주를 표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향가 범주 ‘-어 디다’의 문법적 지위를 보조용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부담
-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15-16세기 자료에서 어휘적, 문법적 차원에서 ‘디다’와 유의 관계, 보다 정확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듣다^{V2}’ 구문이 존재함. 이것은 자료에서 살펴본 바 ‘-아/어’를 매개로 선행동사와 결합한 예가 없음. 즉 이 시기에 어간의 직접 합성을 통한 동사 연결과 ‘-아/어’ 어미 매개를 통한 동사 연결의 두 가지 방식이 경쟁하고 있었으며, ‘디다’와 ‘듣다’는 그 경쟁을 포착하는 단서로 보임. 다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보조용언 ‘-어 디다’ 연구의 후속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연구 과제로 보아야 할 것.

참고문헌

- 김미경(2016) 19세기 말 초기 신문자료에서 나타나는 ‘-어 지다’의 분포와 쓰임, <(사)한국 언어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김미경·박수지·이상아(2016) 형태소 깎는 노인: 국어사 자료를 위한 형태분석 보조기, <제 28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39-43.
- 김태우(2013) 중세한국어 자·타 양용동사에 대한 기능·유형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민정(2012) 찰나刹那의 상속相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구사론》20권〈분별수면품分別隨眠品〉에 등장하는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논의를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30, 105-141.
- 백채원(2016) 중세한국어 피동 표지의 다의성과 그 변화, <국어학> 78, 221-250.
- 성광수(1976) 국어 간접 피동에 대하여, <문법연구> 제3집, 문법연구회, 탑출판사, 159-182.
- 손세모돌(1992) 중세 국어의 “??리다”와 “디다”에 대한 연구, <주시경학보> 9, 78-93.
- _____ (1994) 중세 국어의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24, 175-217.
- _____ (1995) “디다”와 “지다”의 의미 고찰, <한국언어문화> 13, 997-1018.
- 신은수(2013) ‘X+지다’류 어휘에 대한 통시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6) 15세기 ‘V아디다’ 기원의 합성어 ‘녹아지다’, <국어학> 80, 229-258.
- 이정택(2001) ‘-지(디)’의 통시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국어학> 38, 117-134.
- 최동주(2015) <국어 사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태학사

함희진(2008) ‘V1-어+지다’형 합성동사의 형성과 기원, <한국어학> 41, 403-429.

허웅(1975/199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Bybee, Joan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Hasplemath, Martin (1987) Transitivity alternations of the anticausative type, [Arbeitspapier Nr. 5, Neue Folge], University of Cologne.

_____ (1990) The grammaticization of passive morphology, *Studies in Language* 14(1), 25-71.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Chicago University.

<우리말 큰사전 4 옛말과 이두>, 어문각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2014-2015)’ 결과물, 국립국어원

“중세 국어 동사 ‘디다’의 다의성과 그 해석”에 대한 토론문

신은수(전북대)

발표문은 본동사 ‘디다’의 의미를 세밀하게 살피고 ‘디다’^{V2}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국어사에서 중요한 보조용언 ‘-어 지다’의 기원과 기능 등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발표문의 내용은 크게 (1) 본동사 ‘디다’의 다의 양상 (2) ‘디다’^{V2} 유형 분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바탕으로 중세국어 ‘디다’가 갖는 다의미를 의미 확장과 의미 특수화로 설명하고, 중세국어에 이미 ‘디다’가 문법화되었으며, 문법화된 ‘-어 디다’는 ‘사동/기동 교체’의 기동 ‘작’을 드러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세국어 동사 ‘디다’가 사용된 예를 세밀하게 살피고, 논항에 따른 ‘디다’의 의미 특징을 자세히 분류하였다는 점, 중세국어의 양용동사나 접사파생 이외에 보조용언 구성을 통해 ‘사동/기동 교체’가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합니다. 완성도 높은 논의가 될 거라 기대하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본동사 ‘디다’의 다의를, ‘하강 이동’이라는 기본의미에서 은유 확장이나 은유 특수화를 거쳐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1) 그런데 ‘하강 이동’에서 ‘사람 및 네 발 짐승, 공중에 뜬 새’(人·獸, 禽)를 구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들은 사람을 포함한 유정명사의 ‘비의지적’ 하강이동으로 묶어도 충분히 보입니다.

(2) ‘디다’가 갖는 기본의미를 [하강]으로 한다면, 의미 확장이나 의미 특수화되는 의미들도 [생성]이나 [소멸]로 체계화할 수는 없는지요? 예를 들면, ‘쌓임, 붙어남, 누락, 시듦’ 등으로 표현된 의미 중 ‘쌓임, 붙어남’은 [생성], ‘누락, 시듦’은 [소멸]이라는 의미로 개념 체계를 설정하고, 논항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받는다든 설명이 가능해 보입니다(4와 5.1 참고).

(3) ‘디다’가 문법화로 진입한 것은 ‘디다’의 의미 중 [하강]과 [전도]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2. 주장. ‘다’ 항목)고 하였는데, ‘디다’가 의미 확장이나 의미 특수화를 통해 얻게 된 의미(예를 들면 [생성])와 관련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문법화에 기여하는 ‘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디다’^{V2} 합성동사나 보조용언 구성의 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디다’가 갖는 의미는 ‘디다’^{V2} 유형 분류에 중요한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용언 구성 3군에서 ‘퍼디다’는 ‘디다’의 어떤 추상화된 의미로도 관련이 되지 않고, ‘시들다’와 정반대 맥락에서 사용된다(5.4.3.)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핀 ‘디다’가 다음과 같은 의미와 용법이 있었음을 상기하면 충분히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① ‘물 디다’에서 ‘붙어남’의 의미→면적의 넓어짐 [확장, 생성]

- ② ‘피 안흐로 디여’ <구급간이방1:78ㄱ>에서는 ‘하강 이동’에서 ‘수평 이동’으로 확대.
또 ‘소리가 특정 권역에 울림’(4.2.7.)도 ‘수평 이동’에 가까움.

(4) 본동사 ‘디다’의 의미가 구체물의 물리적 하강에서 개념의 은유적 하강으로 ‘탈색’되어 간다(4.3.)고 하였는데, 이때 ‘탈색’이 가리키는 의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궁금합니다.

발표문에서는 본동사 ‘디다’의 다의를 11개로 나누었는데(4.2.1~4.2.11), 이 중 ‘하강 이동’이 5개(物→人·獸→禽→天體→水)(4.2.6. ‘빛, 그림자가 드리워짐’을 포함하면 6개), 은유 확장이나 은유 특수화로 설명되는 나머지가 6개(4.2.6.을 빼면 5개)입니다. 이와 같이 ‘디다’는 ‘하강 이동’을 기본으로 하여 개념적 은유 확장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획득하는 동사로, 의미 확장이 활발한 동사입니다. 말하자면, ‘디다’는 한 단어가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볼 때 긍정적인 발달 과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세국어에 ‘하강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중(듣다, 빠리디다, 싸디다 등) ‘디다’가 가장 다양한 의미를 가졌고, ‘하강 이동’을 대표하는 동사로 쓰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5) ‘디다’는 위에서 아래로의 이동을 기본의미로 합니다. ‘수평 이동’과 달리 ‘하강 이동’은 유정명사가 주어로 나타나도 ‘비의지’라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강 이동’을 나타내는 사건에서는 ‘의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유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디다’의 ‘행위주성 결여’가 문법화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4.3.)면, 대상(theme)의 의미역을 갖는 자동사가 대부분 문법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다’가 문법화하는 데 결정적인 다른 요인은 상정할 수 없나요?

(6) ‘디다’^{V2} 유형 분류에 제시된 예들이 언제나 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소다디다’를 보조용언 구성의 1군으로 분류하였는데, 문맥에 따라 동사 연쇄로 쓰인 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세기 ‘-엇-’에 대한 고찰

이수진(전남대학교)

1. 서론
2. ‘-엇-’의 연구사
3. 15세기 ‘-엇-’의 출현 양상
4. 결론

1. 서론

국어의 선어말어미 ‘-엇-’이 문법화의 산물이라는 점은 학계의 일반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문법화의 과정으로 생성된 ‘-엇-’은 ‘-어 잇- > -엇- > -엇-’의 진행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본다.¹⁾ ‘-엇-’이 근대국어 시기 시상 선어말어미로 자리 잡았다는 것에는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²⁾ 그렇다면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엇-’은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엇-’이 ‘-어 잇-’의 축약인 ‘-엇-’의 단순 변이형이라는 견해와 이미 15세기에 ‘-어 잇-’에서 의미변화를 일으킨 상태에서 형태 변화를 입어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기존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문헌 내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 잇-’, ‘-엇-’, ‘-엇-’의 15세기 공식적 관계에 대한 고찰과 ‘-엇-’이 확인되는 자료적 측면에서의 고찰로 이루어진다. 15세기

1) 본고에서 ‘-어 잇-’, ‘-엇-’, ‘-엇-’은 ‘잇-’의 이형태 ‘이시-’의 활용형까지를 대표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밝힌다. 필요한 경우 ‘-어 이시-’, ‘-에시-’, ‘-어시-’와 같이 그 형태를 밝히되 일반 기술에는 ‘-어 잇-’, ‘-엇-’, ‘-엇-’을 사용하기로 한다. 부사형 어미 ‘-아/어’의 형태적 측면에서는 현대국어의 선어말어미 ‘-엇-’의 형태를 고려하여 ‘-어’형을 기본으로 삼아 나타내고자 한다. 다만 선행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연구의 표기를 따르기로 한다.

2) 이지양(1998: 132-136)에서는 ‘-엇-’을 융합의 결과물로 다루었는데 융합의 몇 가지 예를 들어 융합과 문법화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융합은 문법화와 유사한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법화로 융합이 모두 설명되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 차이는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융합과 문법화의 차이는 그 결과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문법화가 일어날 때 의존형태소는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굴절접사의 유형에 국한되지만 융합은 어미 외에 파생접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한다. 두 번째 차이는 융합이 통사구조나 음운구조의 형태화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어 잇-’이 ‘-엇-’이 되는 변화는 통사구조가 하나의 형태로 바뀐 것으로 자립형식이 의존형태소로 바뀌거나 어휘범주가 비어휘범주로 바뀌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융합의 조건과 관련하여 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사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실사들이 어휘적 기능이 약화된 것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법화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지양(1998)에서 ‘융합’으로 다룬 것들도 ‘덜 문법적인 요소가 더 문법적인 요소로 되는 변화’라는 개념 하의 문법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Bybee(1985)에서도 문법화의 단계의 마지막은 음운론적 축약과 형태의 융합이 일어난다고 하여 ‘문법화’의 한 과정으로 ‘융합’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문헌이라 하더라도 모두 균질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특히 이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어 잇-’, ‘-엿-’, ‘-엇-’이 단순 변이형인지 다른 층위의 형태인지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15세기의 ‘-엇-’이 『두시언해』에 유독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엇-’의 연구사

‘-엇-’에 대한 연구는 매우 방대한 측면에서 수행되어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³⁾ ‘-엇-’의 형성은 ‘-어 잇->-엿->-엇-’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엇-’의 형성을 이야기 할 때 15세기에 존재하는 ‘-어 잇-’, ‘-엿-’, ‘-엇-’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 자유변이형(free variant)으로 보는 견해와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 후자에 대해서는 이승욱(1973), 허용(1977), 한동완(1986)을 들 수 있으며 15세기에 공존하는 세 형태에 대해서는 자유 변이형이라고 보는 입장이 좀더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연유로 15세기의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엇-’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연구가 의외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승욱(1973: 195-196)은 ‘-더-’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체계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엿-’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한다. ‘-엇-’이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16세기의 일이라고 파악하였다.

허용(1975:421-425)에서는 ‘-어 잇다’를 “어떠한 상태나 동작이 완료된 채 그대로 지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으뜸풀이씨 ‘잇다’에서 온 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으뜸풀이씨의 어미 ‘-아/어 잇-’의 /이/는 모음충돌을 일으키고, 이 두 말 사이에는 휴지를 둘 수 없으므로 한 음절로 축약된다고 한다. 이러한 축약된 어형은, 축약되지 않은 어형과 같은 시기에 공존하고 있었는데, 15세기 말기에 가까워지면, /애, 에, 애, 예/ 등의 하향 이중모음의 /ㅣ/(j)소리가 줄어들어드는 경향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하야잇다’, ‘ㅎ엿다’는 단순한 음성적 축약형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ㅎ얏다’의 /i/가 완전히 줄어들 두 낱말의 형태를 잃어버렸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이기갑(1981: 10)에서는 ‘-아 잇-’과 ‘-엿-’이 원형과 축약형으로서 출현 환경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엿-’에서 /i/가 없이 쓰인 ‘-앗-’의 경우도 ‘지속’의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음운의 차이가 반드시 기능 차이를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다. 15세기의 공시적 관점에서 축약형 ‘-엿-’은 상태 지속적 의미의 ‘-어 잇-’의 자유변이형(free variant)인 셈이라고 하였다.

최명옥(2002)에서는 ‘-어 잇->-엿->-엇->-엇-’에 대해서 형태론적 또는 형태사적 문제에 집중하여 접근하였다. 특히 ‘-어 잇-’이 축약된 ‘-엿-’이 ‘-엇-’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형태론적 논의에 집중하였다. 15세기의 과거시제 어미의 출현 환경을 [-관형절]과 [+관형절]로 나누어 살펴보고 ‘-엿-’, ‘-엇-’중 ‘-엿-’이 일

3) 15세기부터 ‘-엿-’과 ‘-엇-’이 공존하고 있음은 일찍이 파악되었으나 ‘-엇-’이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이견이 있다. ‘-엇-’의 의미는 크게 ‘결과상태 지속’, ‘완료’, ‘과거 시제’ 정도로 파악되는데 ‘-엇-’이 문법화를 경험하였다고 할 때 통사적 구성 ‘-어 잇-’이 지닌 상적 의미와 시제적 의미의 전환 내지는 발달의 단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현대국어의 선어말어미 ‘-엇-’이 시제인지 상인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볼 때 손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반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에시-’, ‘-어시-’중 ‘-어시-’의 예가 더 많다고 하였다.⁴⁾

최명옥(2002: 140)에서 『두시언해』가 제1기와 제2기를 구분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자료이며 제1기에 일반적으로 실현되던 ‘-옛-’이 이 문헌에서 ‘-엇-’으로 바뀌었다고 보았다.⁵⁾ [-관형절]의 경우 『삼강행실도』와 『번역소학』에는 ‘-옛-’이 실현되는 예가 절대적인데 반해 ‘-엇-’이 실현되는 예는 극소수이며 『맹자언해』 이후부터는 그 환경에서 ‘-엇-’으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사에서 15-16세기에 ‘-엇-’에 대해서는 변이형 정도로 처리한 데 비해 ‘-옛-’, ‘-어시-’를 과거시제의 이형태로 설정하였다. 또한 ‘-엇-’과 ‘-어시-’가 실현되는 양상이 [-관형절]과 [+관형절]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어시-’는 [-관형절] 안에서만 실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⁶⁾

한동완(1986)에서는 ‘-옛-’이 ‘-엇-’으로 변함으로써 형성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허용(1982)에서는 앞 시기의 ‘-옛-’에서 /j/가 탈락하는 과정을 거쳐서 ‘-엇-’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지양(1998: 181)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설정하는 ‘-어/아 잇->-옛/옛->-엇/앗-’의 변화 과정에 의문을 품는다. 아무런 조건없는 상황에서 /j/이 생략될 수 있으리라 쉽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옛/옛->-엇/앗-’의 변화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옛-’과 ‘-엇-’이 ‘-어 잇-’에 의한 형태이기는 하나 ‘-옛-’은 축약에 의한 융합형이고 ‘-엇/앗-’은 모음 ‘ㅣ’의 탈락에 의한 융합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⁷⁾

김종규(1986: 259)에서는 ‘-어 잇-’의 경우 형태소 경계를 넘어선 단계에까지도 모음층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잇’의 /i/가 /j/로 반모음화되어서 ‘-옛-’으로 축약된 것인데 단어 경계인 ‘-어 잇-’의 구성에 존재하는 휴지가 삭제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보조용언 구성의 ‘-어 잇-’이라 할지라도 그 경계에 존재하는 휴지를 수의적으로 삭제하는 규칙을 설정해야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보조용언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고 왜 ‘-어 잇-’에만 이러한 휴지의 삭제가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 4) 후행 어미의 종류에 따라 ‘-옛-’, ‘-엇-’형과 ‘-에시-’, ‘-어시-’ 형이 나타나므로 ‘-옛-’, ‘-에시-’의 비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관형절]에 ‘-옛-’, ‘-에시-’에 후행하는 어미는 ‘은, 는’인데 항상 어미 ‘-은’은 ‘-더-’를 선행하는 형태로 ‘-던’을 요구하고 있다.
 - 5) 최명옥(2002)에서 1기와 2기의 분기점을 『두시언해』 초간본 간행에 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두시언해』 초간본에서부터 ‘-엇-’의 형태가 폭발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최명옥(2002)에서는 ‘-엇-’의 형성에 참여한 ‘존재표시 어간’은 ‘-잇/이시-’로만 보지 않고 여기에 ‘-잇/이시-’의 쌍형어 ‘시-’를 포함하여 ‘-엇-’과 ‘-어시-’의 발달시기와 방향이 달랐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명옥(2002: 138)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간행 문헌을 총 네 시기로 나누었으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1기는 『몽산화상법어약록』이 간행된 1472년 이전까지이며, 제2기는 『두시언해』 초간본 간행년인 1481년부터 『종덕신편언해』가 간행된 1700년대 후기 이전까지로 설정하였다. 제3기는 『증수무원록언해』 간행년인 1792년부터 『태상감응편도설언해』의 간행년 1852년 이전까지로, 제4기는 『남궁계적』의 간행년 187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나누었다.
 - 6) 이에 대해서는 관형절 내부에 시상 선어말어미가 출현하는 양상은 통시적으로 이전 시기의 [-관형절]이 보여 주던 현상을 보수적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논의가 대부분이므로 최명옥(2002)의 이 주장에 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관형절]에 이미 과거시제 어미로 ‘-엇-’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최동주(1995) 등에서는 15세기 관형절의 과거시제는 ‘∅’로 나타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관형절]의 ‘-옛-’에 후행하여 ‘-더-’가 결합된다는 사실은 이를 시제어미로 처리하기 어렵게 한다. 최동주(1995)와 박부자(2006)에서는 ‘-더-’에 선행하는 선어말어미는 ‘-습-’이며, ‘-시-’와 ‘-더-’가 선후관계가 고정된 것은 아니라 ‘-더시-’, ‘-시더-’ 형과 같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만약 ‘-옛-’, ‘-엇-’을 시제어미로 처리하게 되면 체계상에 ‘-더-’에 선행하는 ‘-옛-’이 존재하게 되므로 분명한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 7) 이지양(1998: 181 주8)에서는 현대국어의 예를 들어 ‘-아 잇-’이 ‘-았-’으로 줄어드는 것이 공시적으로 가능한 일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예문은 ‘뽕짜말고 앓아 있어/뽕짜말고 앓았어’로 명령문 ‘앓았어’에 쓰인 ‘-았-’은 과거일 수 없기 때문에 ‘-아 잇-’의 단순 융합형이라는 것이다. 이는 ‘-어 잇-’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적 의미에 의한 것으로 상태지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종규(1986)에서는 모음충돌 회피현상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며 형태론적 고려가 선행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어 잇-’은 단순한 보조용언 구성이라고 하기 어렵다. ‘-어’와 ‘잇-’의 결합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나 결과 상태 지속의 의미를 획득한 하나의 문법화된 형태로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 잇-’의 문법화에 의해 휴지가 삭제되어 축약된 형태 ‘-엇-’ 형태에서 ‘-엇-’으로 발달이 완료되려면 최명옥(2002:137)에서 지적한 것처럼 ‘에>어’의 변화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고광모(2004:371)에서는 ‘둘챗>둘챗’, ‘옛가>앗가’, ‘뒛고마리>뒛고마리’ 등의 어휘 변화를 통해 종성의 ‘ㅅ’ 앞에서 j가 탈락한 예가 있음을 밝혔다. 최명옥(2002)에서 지적한 ‘에>어’의 변화를 증명하였는데 단순히 이러한 변화형이 보인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음운환경과 요인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함을 문제 삼을 수 있겠다. ‘그위실>그우실’이 과연 변화의 진행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위실’은 『능엄경언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지만 『삼강행실도(런던대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내훈』에도 나타나는 형태이다. ‘그위실’이 출현하고 있는 『내훈』에는 ‘그우실’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변화 진행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한재영(2002)에서는 ‘-어 잇->-엇->-엇-’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소위 부정법(不定法)에 사용되는 무표적 과거시제 ‘∅’형태와 함께 ‘-엇-’이 15세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주장한다. ‘∅’형태로 실현되는 과거 시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엇-’을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15세기 이전의 ‘-엇-’의 분포는 접속구문 등에서만 나타나고 일반 서술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분포상의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고광모(2004: 373-374)에서는 한재영(2002)의 해석은 성립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15세기의 ‘-엇-’이 이미 과거시제 표지였다고 가정하더라도 15세기의 ‘-엇-다가, -엇-거든’ 따위가 그 이전 시기의 과거시제 표지 ‘-엇-’의 존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재영(2005)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금 공고히 하고 있다.

정언학(2007)에서는 ‘-어 잇-’, ‘-엇-’, ‘-엇-’의 세 형식을 자유변이형이라고 본 견해와 달리 이 세 형식이 문법 층위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어 잇-’이 ‘-엇-’(1단계 변화형), ‘-엇-’(2단계 변화형)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월인석보』까지의 초기 문헌에서는 1단계 변화형만이 나타나지만 1460년대 문헌부터 15세기 말까지 1단계 변화형과 2단계 변화형이 공존한다고 하였다. 16세기부터는 일부 보수적 표기를 제외하면 전면적으로 2단계 변화형만이 나타나게 되어 ‘-엇-’은 선어말어미로 형태화된다고 한다.⁸⁾

선행 연구에서는 15세기의 ‘-어 잇-’, ‘-엇-’, ‘-엇-’과 관련하여 세 형태 모두를 자유변이형으로 보는 견해와 ‘-어 잇->-엇-’, ‘-어 잇->-엇-’의 견해, ‘-엇-’이 15세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견해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겠다.

3. 15세기 ‘-엇-’의 출현 양상

15세기 ‘-엇-’의 출현 양상은 어떠했는지 살피고 ‘-어 잇-’, ‘-엇-’이 ‘-엇-’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기로 한다. 앞서 2장에서 연구사 검토를 통해 ‘-어 잇-’, ‘-엇-’, ‘-엇-’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견해를 살펴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좀더 자세한 논의를 진행한다.

8) 여기에서는 ‘-엇-/-어시-’로 표기하고 있으나 표기의 편의를 위해 ‘-엇-’으로만 나타냈음을 밝힌다.

3.1. 15세기 ‘-엇-’과 ‘-엇-’의 출현 양상

선어말어미 ‘-엇-’의 형성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15세기에 공시적으로 출현하는 ‘-엇-’의 출현 양상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한다.⁹⁾

- (1) ㄱ. 거문 브르미 一萬 불 들어 잇거늘 즘든 디위 블러도 맛골뭇 사르미 업더이다 <월석23:83b>
 ㄴ. 羅雲이 前生에 혼 나랏 王이 드외야 잇더니 <석보3:37a>
 ㄷ. 이 보비웃 가져 이시면 有毒 혼 거시 害히디 몬히며 <월석8:11b>
 ㄹ. 네 빠디 ㅎ마 외면 이운 고들 조차 므스미 조차 잇느니라 니르디 몬히리로다 <능엄1:68a>
 ㄱ. 혼가지로 프른 시내해 머뜨러 이시리로다 <두해7:16b>
 ㄴ. 王也는 道理를 議論히리어늘 江湖에 병으러 잇고 李也는 前疑後丞사 벼슬 홀 디어늘 앓뒤히 뷔엇도다 <두해25:11a>
- (2) ㄱ. 여러가짓 毒을 맛냈거든 혼 知識이 큰 術을 만히 아라 <월석21:118a>
 ㄴ. 셔불 도즈기 드러 님그미 나갯더시니 <용가49>
 ㄷ. 난 심고물 브터사 목수물 가졌느니이다 <월석22:25b>
 ㄹ. 불근 거시 ㅼ데시니 비예 梅花사 여르미 슬젓도다 <두해15:9a>
 ㄱ. ㅼ헛 비예는 ㅼ는 브리 ㅼ갯고 자는 ㅼ러기는 두려운 물애예 모뎛도다 <두해3:26a>
- (3) ㄱ. 혼 터럭 그테 너비 能히 十方國土를 머구머 가져시리라 <능엄2:44b>
 ㄴ. 쯔 과일이 ㅼ오늘엇거든 雄黃을 ㅼ느리 ㅼ라 곶로 부러 두고 <구급방상23a>
 ㄷ. 藏識은 一切사 染淨 種子를 머거 ㅼ초앗느니 곧 阿賴耶識이라 <원각하3-1:43a>
 ㄹ. 幽深 혼 고즌 기웃ㅎ야 남기 ㅼ득ㅎ얏고 저근 ㅼ른 ㅼ느리 모새 슝차 가눗다 <두해7:2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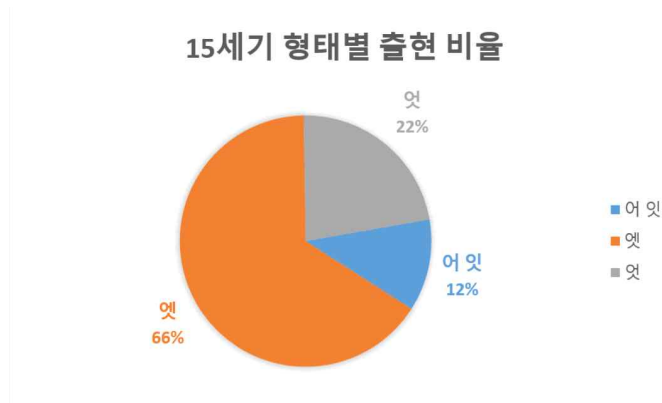
(1)은 ‘-어 잇-’, (2)는 ‘-엇-’, (3)은 ‘-엇-’의 예이다. (1)은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는 ‘-어 잇-’의 축약형으로 ‘-엇-’이 쓰였다. 여기에서 의미는 대체로 결과상태 지속으로 파악된다. ‘-엇-’형의 분석은 20세기 초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는데 前間恭作(1924: 95-96)에는 ‘나갯더시니’의 ‘갯’은 ‘가’에 ‘잇’이 포함된 채로 쓰이고 있다고 하며 ‘수메셔’와 ‘수멧던’도 이와 같다고 본다.¹⁰⁾ 이두에서 ‘爲有去乙(ㅎ야잇거늘)’, ‘爲有如(ㅎ야잇더은)’, ‘爲有臥乎(ㅎ야잇누은)’ 등을 보아도 ‘ㅎ야- + 잇-’의 통합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두시언해』에서 ‘-엇-’ 형태로 쓰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9) 본고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필자가 ‘깜짝새(SynKDP)’를 이용하여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 자료에서 ‘-어 잇-’, ‘-엇-’, ‘-엇-’형의 활용 형태를 고려하여 추출한 것이다. 추출한 원시 자료를 ‘-어 잇-’, ‘-엇-’, ‘-엇-’에 해당하는지 적격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원문과 대조를 통해 정확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얻은 15세기 형태 3565개의 자료 본고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0) ‘수메셔’는 ‘숨- + -어 이시- + -어’로 분석할 수 있고 ‘수멧던’은 ‘숨- + -어 잇- + -던’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접차로 원형을 잃어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3)에서는 ‘-엇-’이 쓰인 예들인데 (3ㄴ, ㄷ)은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보다는 과거의 의미로 읽힌다. 한재영(2005: 719)에서는 중세국어에서는 과거시제 형태소의 기능을 ‘∅’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문장의 중의성 해소에 필요한 경우에 ‘엇’을 취하였다는 견해를 보인다.¹¹⁾ 본고에서는 과거시제 형태소를 ‘-엇-’이 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5세기에 과거의 의미로 해석되는 ‘-엇-’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림 3> ‘-어 잇-’, ‘-엇-’, ‘-엇-’의 15세기 문헌 출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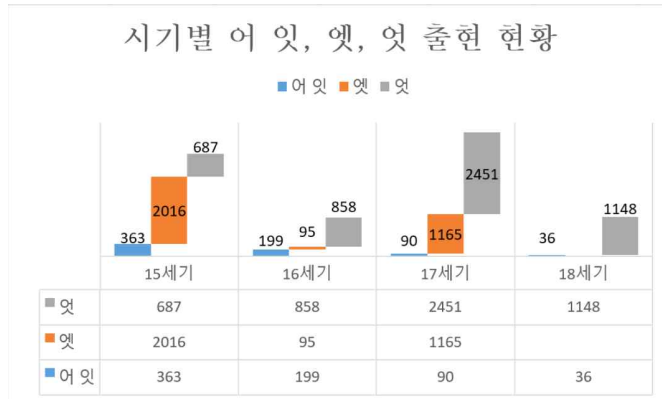
<그림 1>은 15세기 문헌에 출현하는 ‘-어 잇-’, ‘-엇-’, ‘-엇-’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의외로 ‘-어 잇-’ 구성보다 ‘-엇-’이 대중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엇-’이 상당부분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정언학(2001: 92)에서는 ‘-어 잇-’ 구성이 상태, 행위, 완성, 달성 상황 유형과 결합하여 ‘결과상태 지속’이라는 미완료적 관점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의 관점에 따른다면 ‘-엇-’과 ‘-엇-’의 기능 분석에 ‘-어 잇-’의 의미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엇-’과 ‘-엇-’에 대한 정언학(2001: 179)의 입장은 ‘-어 잇-’ 구성의 축약형인 ‘-엇-’을 ‘-어 잇-’과 같은 층위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형태적으로 ‘-어 잇-/이시-’는 ‘-엇-/에시-’(1단계 변화) > ‘-엇-/어시-’(2단계 변화) > ‘-엇-’(3단계 변화: 근대 국어 말기)의 변화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으며 1단계 변화형인 ‘-엇-’은 형태·의미론적 측면에서 그 층위가 다른 것으로 보았다. 이에 ‘-엇-’은 보조 용언 구성의 ‘잇-’이 지속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때 허웅(1977: 60-64)에서는 ‘-엇-’과 ‘-엇-’에 대해 ‘완결지속’의 지속의 뜻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설명하였는데 정언학(2001)은 여기에서 나아가 이미 1,2단계 변화에서 ‘지속’의 의미가 없어진 ‘완결’ 혹은 ‘완료’로 문법화 한 파악하였다.¹²⁾

11) 다만 ‘∅’가 영형태라기 보다는 무표항으로 보이며 이때 ‘∅’가 나타내는 과거의 의미는 용언의 가지는 상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지 특별한 문법 형태소에 의해 표현되는 과거는 아니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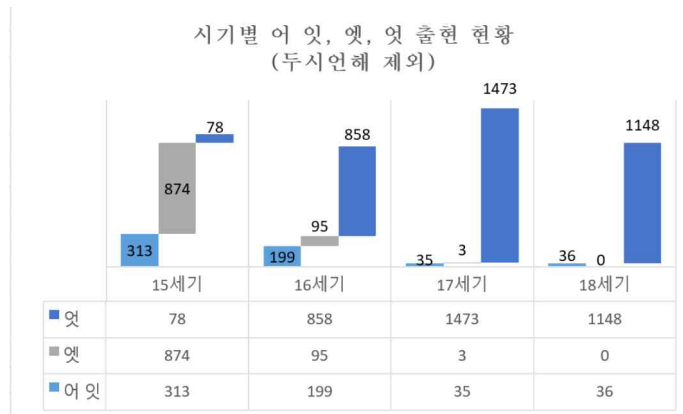
12) 그러나 ‘-엇-’과 ‘-엇-’을 이미 ‘완결’ 혹은 ‘완료’로 본다면 이 시기의 ‘-더-’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세국어 시기 ‘-더-’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과거 미완료’ 내지는 ‘과거’, ‘미완료’ 등으로 파악되는 15세기의 ‘-더-’와 ‘-엇-’, ‘-엇-’이 결합하는 양상이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엇-’은 15세기에 ‘-더-’와 결합한 것은 251건이다. ‘-엇-’이 ‘-더-’와 결합하는 경우는 15세기에는 17건, 16세기 217건, 17세기 483건, 18세기 305건 등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엇-’과 ‘-엇-’의 의미 기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15세기에 ‘-엇-’에서 단순히 /j/이 탈락하여 ‘-엇-’으로 변이형이 나타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림 2> 시기별 '-어 잇-', '-옛-', '-엇-'의 출현 현황



<그림 2>를 보면 15세기에는 '-옛-'이 '-엇-'에 비해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는 15세기와는 달리 '-옛-'의 출현이 현저히 줄어들고 '-엇-'의 사용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하향 이중모음 '꺀'의 소멸이 관여하고 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17세기의 수치는 『두시언해』 중간본의 영향으로 '-옛-'의 수치가 다시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5세기와 17세기의 『두시언해』를 제외한 그래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두시언해 제외 시기별 '-어 잇-', '-옛-', '-엇-' 출현 현황



<그림 2>와 <그림 3>을 비교해보면 '-어 잇-', '-옛-'형은 시기가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여 18세기에는 '-옛-'이 쓰이지 않은 반면 '-엇-'은 15세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으나 16세기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어 잇-'의 경우 현대국어에서도 여전히 보조용언 구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의미 기능이 축소하여 '-고 잇-'에 상당부분 영역을 내어준 것으로 본다.¹³⁾

13) 이에 대해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 잇-'이 일부 형용사를 선행어간으로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논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듯하나 이영경(2009)에서는 중세국어 형용사가 자동사로 겸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어 잇-'에 선행하는 형용사는 '형용사의 자동사적 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

3.2. 15세기 ‘-엇-’과 ‘-엇-’의 성립

3.2.1. 15세기 이전 ‘-엇-’의 존재 여부

15세기 이전에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엇-’이 이미 15세기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는 견해는 한재영(2002, 2004)에서 피력된 바 있다. 그는 중세국어 시기 과거는 ‘∅’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무표지로 인한 문장의 중의성 해소에 ‘-엇-’이라는 형태가 쓰였을 것이라고 하였다.¹⁴⁾ 한재영(2002: 209)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 ‘∅’가 과거를 나타내는 데에 쓰였고, 그것으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데에 충분하였다면 ‘-엇-’의 출현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는 중의적 해석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가시적인 형태소가 필요했으며 그것은 15세기 이전부터 존재한 ‘-엇-’을 상징하게 되었다.¹⁵⁾

한재영(2002, 2004)에서 중세국어의 ‘-엇-’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존재 시기의 소급에 대해 향가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¹⁶⁾

- (4) ㄱ.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아야 드라라 떠갓드야) <혜성가>
ㄴ. 倭理叱軍置來叱多(여릿 軍도 았다) <혜성가>

(4)의 ‘浮去伊叱’이 ‘떠가 + -어 잇-’으로 해독이 되는 것으로 향가에서의 ‘-어 잇-’의 존재를 보여주는 예이다. 한재영(2002: 213)에서는 (4ㄴ)의 ‘來叱多’를 ‘았다’로 풀이한 김완진(1980)의 해독을 따랐는데 여기에서 ‘叱’이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기능을 표기하는 수단으로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시제가 과거임을 선명히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

다.

14) 고영근(1981/1989: 13)에서는 특정 형태소의 개입 없이 용언의 동작류에 따라 시제가 결정되는 것을 ‘부정법(不定法)’이라고 하였다. 고영근(1981)은 시제가 서법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부정법이 河野六郎(1951)의 ‘기본 어간’ 내지 ‘부정 어간’과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河野六郎(1951)에서는 시칭어간을 7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만 이 명칭들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지만 편의상 쓴 가칭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기본어간’은 시칭어간을 7가지로 나눈 것 중 하나이며 어떠한 시칭접미사(즉, 시상형태소)도 결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1) 기본어간 혹은 부정어간(Basic Stem or Aorist Stem)
- (2) 현재어간(Present Stem)
- (3) 제일미래어간(First Future Stem)
- (4) 미완료어간(Imperfect Stem)
- (5) 강세어간(Intensice Stem)
- (6) 완료어간(Perfect Stem)
- (7) 제이미래어간(Second Future Stem)

河野六郎(1951)에서 쓰고 있는 용어는 현재와 그 정의가 온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는 ‘기본어간’을 설명하면서 ‘보스븐’과 ‘降服흐습느니라’의 예를 들고 둘다 ‘결양법어간’의 형태라고 하였다. 현재 용어로 한다면 동사어간은 ‘보-’와 ‘降服흐-’이고 ‘-습-’은 객체높임 선어말어미(혹은 결양법 선어말어미)인 것이다. 河野六郎(1951)이 어떠한 시칭접사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기본어간의 용례 중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어간이 형용사적 의미를 갖는 동사의 경우에는 과거와 관련이 없고 동사적 의미를 갖는 동사인 경우에도 반드시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기본어간’의 용법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형태적 특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기본어간’에서 과거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기본어간’의 동사가 context에 의해 과거의 계기가 부여되어 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았다.

15) 다만 ‘∅’과 ‘-엇-’이 공존하는 시기의 의미 기능이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16) 한재영(2002, 2004)에서는 김완진(1980)의 해석을 따랐다.

고 하였고 ‘有’와 ‘有叱’의 차이를 ‘있다’와 다른 의미의 ‘있었다’를 나타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앞서 제시한 ‘去伊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去伊叱’가 ‘거- + -어 잇-’으로 해독한다고 할 때 ‘阿叱’ 등으로 ‘-엇-’을 표기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

이승욱(1973: 189)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향가의 ‘去伊叱’를 ‘갯’으로 해독할 수는 없으며 이 시기에는 ‘-옛-’형이 용인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옛-’과 같은 결합 형식은 발달과정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발달 형식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형태로 통용되다가 쇠퇴하거나 안정형식의 단위로 확립되어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의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가 이 문제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다만 ‘-옛-’이 고대국어 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면 15세기 문헌 자료의 ‘-어 잇-’과 ‘-옛-’, ‘-엇-’ 8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것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불완전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가 시대에 과거 시제로서 ‘-엇-’을 표기하기 위해 왜 ‘阿叱’형태가 나타날 수 없는가? 여기에는 쉽게 답할 수가 없다.

한재영(2002)에서 ‘叱’을 과거형의 ‘ㅅ’으로 보려고 제시한 형태는 ‘來叱多’이다. 이는 ‘왔다, 왔다, 왔다, 왔다’와 같이 해독이 같지 않은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처리한 ‘왔다, 왔다, 왔다’가 있다. 유창균(1994: 751)에서는 ‘왔다’에 선행하는 ‘왔다’가 상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과거를 표기한 것이라면 마땅히 ‘來阿有叱多’와 같이 표기되었을 것이라 하였으며 ‘達阿羅浮去伊叱等邪’가 이것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세국어에서 보이는 ‘-어 잇-’과 같은 형태가 이 시기에 이미 발달하고 있었음을 뜻한다고 하였지만 ‘來叱’을 ‘왔-’으로 표기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며 이것을 감탄형 ‘-ㅅ다’로 보았다. 오히려 이 시기에 ‘-어 잇-’이 발달하고 있었다면 그 의미는 ‘有’로는 표시할 수 없는 문법적인 것이며 ‘(阿)伊叱’로 쓰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승욱(1973: 189)에서는 ‘-앗/엇-’의 형성과 발달에 관계되는 정보가 있음을 지적한다. <彗星歌>의 ‘達阿羅浮去伊叱等邪’를 들어 이 향가의 형성 연대로 미루어 7세기의 것이라고 전제할 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완료의 부동사 어미 ‘-아/어’와 ‘잇-/이시-’(在)와의 결합형식 ‘-옛/옛-’이 15세기 국어에서 분석된다고 해서 여기 ‘去伊叱’을 ‘갯’으로 직결시키려는 데는 주저치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옛/옛-’과 같은 결합형식이 어원적인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의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일반론에 의해 추측할 때 발달형식의 형태가 수세기 동안이나 지속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去伊叱’는 ‘가 이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적어도 향가 자료의 시대에서는 ‘-옛/옛-’형은 용인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승욱(1973: 194-195)에서는 또한 ‘-더-’의 성질을 이야기 하면서 시제성은 점차 가리어지는 한편, 상이 두드러지게 되어서 기능적인 지속상이 나타나며, 이것은 회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이의 빈자리를 위해 오래 전부터 관용되어오던 결합 형식 ‘-옛-’을 채택하게 되었고 15세기 후기가 이 일을 결정적으로 진행시켰던 시기로 보았다.

향가 자료에서 ‘-어 잇-’의 연결 관계는 고대국어의 시기에도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추적했고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아/어’에 존재의 뜻을 가진 ‘잇-’이 받고 있는 구성으로 직선적이며 일차적인 의미의 연결 관계라고 하였다. 향가 자료의 ‘叱’을 분석하면서 이것을 과거 표지 ‘-엇-’으로 해독할 여지보다는 감탄의 ‘-ㅅ다’와 관련짓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아마 같은 <彗星歌>내에 존재하는 ‘-어 잇-’의 형태 ‘去伊叱’이 보여주는 ‘-어 잇-’ 구성을 무시하면서까지 ‘叱’을 ‘-엇-’으로 보기는 어렵다¹⁷⁾

한재영(2004: 719)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지만 ‘-어 잇-’이나 ‘-엣-’과는 다른 ‘-엇-’의 존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였으며 제한된 환경에서이기는 하나 중세국어에서 ‘-엇-’이 ‘-엇-’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데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본고 역시 자료적 한계에 의해 명확히 문증되지는 않지만 15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엇-’은 ‘-어 잇-’의 축약형 ‘-엣-’과는 관련짓지 않기로 한다.

3.2.2. 15세기 ‘-엣-’과 ‘-엇-’의 관계

- (5) ㄱ. 니르샤디 싯를 두겨시다 듣고 婚姻을 求호노이다 <석보11:28a>
 ㄴ. 엣던 功德을 닷ᄃ시관디 能히 이 큰 神通力이 겨시며 <월석18:75a>
 ㄷ. 쏘 舍利弗아 더 부테 無量 無邊 聲聞 弟子를 두겨시니 <월석7:69a>
 ㄹ. 智勝王子 | 보비 노리개엣 거슬 두겨시다가 아바님 道 得호시다 듣좁고 <능엄1:101b>
 ㅁ. 나라히 乾坤의 쿠를 두겨시니 王이 이제 叔父 | 尊호시도다 <두해8:10b>
- (6) ㄱ. 이 菩薩이 엣던 功德을 닷관디 能히 이 큰 神通力을 뒤시며 <석보20:40a>
 ㄴ. 經과 袈裟와 바리와를 내다 가져다가 이 塔에 녀허 뒛습다가 <석보24:31b>
- (7) ㄱ. 엣던 功德을 닷ᄃ시관디 能히 이 큰 神通力이 겨시며 <월석18:75a>
 ㄴ. 舍利弗아 더 부테 無量 無邊 聲聞 弟子를 두겨시니 다 阿羅漢이니 <월석7:69a>

(5)~(7)은 ‘두다’와 결합하는 ‘잇-(겨시-)’의 예이다. 특이하게도 ‘두다’와 결합할 때에는 ‘-어 잇-’, ‘-어 겨시-’ 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가 생략된 형태로 보인다.¹⁸⁾ 특이한 점은 (6ㄱ)이다. (6ㄱ)은 문수사리가 세존께 아뢰는 말씀이다. ‘이 보살이 ... 어떤 공덕을 닦기에 능히 이 큰 싯통력을 두고 있으며’ 정도로 해석이 된다. (7)의 예문과 비교하여 보자.

(6ㄱ)은 ‘뒤시며’로 나타나며 (7ㄱ)은 ‘겨시며’로 나타난다. 이는 (6ㄱ)에서는 ‘NP이 NP을 뒤시며’로 ‘보살이 싯통력을 두고 있다’로 해석되고 (7ㄱ)은 ‘보살이 어떤 공덕을 닦기에 능히 이 큰 싯통력이 계시며’로 문형이 달라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어)이시-’는 ‘두-’와 보조용언의 관계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보조용언이라면 본용언 ‘두-’를 제외하여 ‘겨시-’가 본용언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8) ㄱ. 先生의 뒛논 道理는 羲皇入 우희 나고 <두해15:37a>
 ㄴ. 簡易호 노픈 사르미 쁘디여 匡床과 竹火爐 썬 뒛쏘다 <두해16:43b>

17) 다만 <해성가>가 15세기 이전 ‘-엇-’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할 뿐이지, 이것이 15세기 이전에 ‘-엇-’이 존재하였으리라는 가정을 부정할 결정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

18) 기존에는 이를 소위 ‘비통사적 합성어’인 ‘두겨시다, 뒛다, 뒛다’로 보아 사전의 표제항으로 처리하는 태도도 있었으나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해석 또한 ‘두겨시다’, ‘뒛다’는 ‘두어 있다, 두었다’, ‘뒛다’는 ‘두었다’로 처리하고 있어 ‘뒛[두- + ㅅ-]’와 같이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합성어로 보기에 이미 합성어가 된 ‘뒛-’ 형태에서 ‘ㅣ’가 탈락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두겨시다’, ‘뒛다’, ‘뒛다’는 ‘-어 겨시-’, ‘-어 잇-’, ‘-엇-’ 형에서 ‘-어’가 생략된 형태가 용언 어간과 융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한다고 해도 ‘-어’가 생략될 이유가 없는 바, ‘두-’가 가지는 특이한 활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같은 음운론적 환경을 지니는 ‘주다’의 경우는 ‘-어 잇-’이나 ‘-엇-’과 결합하는 예를 찾지 못하였다.

- ㄷ. 노니는 子ㅣ 불휘 업소니 새지블 ㄱ숯 프서리에 브터 뫼노라 <두해19:33a>
 ㄹ. 取측ㅎ며 捨샹호믈 ㅁ스매 뫼거니 엇테 ㅅ간인들 니즈리오 <남명下:48a>
 ㅁ. 더운 ㅁ를 그 위즈에 브서 뫼다가 입곳 평ㅎ거든 <구간1:20b>

(8)은 ‘뫼-’의 /j/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난 예이다. 이러한 형태들은 『두시언해』에서부터 확인된다. 이는 구어적인 성격이 크게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6)~(7)의 예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어 잇->-엇-’의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때 ‘-어 잇-’과 ‘-엇-’의 관계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엇-’을 ‘-어 잇-’과 다른 층위에 있는 형태로 보려는 입장에서는 ‘-어 잇-’과 ‘-엇-’의 환경적 차이나 의미적 차이를 논하고 있다. 한동완(1986: 226)에서는 ‘-어 잇-’과 ‘-엇-’에 후접되는 어미군의 분포의 차이를 들어 이기갑(1981)의 근거 중 하나인 두 형태의 환경이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박하고 있다.

그의 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어 잇-’, ‘-엇-’의 후접하는 어미군의 분포(한동완(1986: 226) 재인용)

후접어미군	-어 잇-	-엇-
-더(시)니, -더(니)라		○
-거늘, -거든		○
-다가		○
-던, -논, -논		◎
-노니, -느니, -느니라	○	
-며	◎	
-어	◎	
-르, -르썩	◎	

(※ ○ :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 빈도 ◎ : 절대적으로 높은 결합 빈도)

한동완(1986: 226)에서는 ‘-어 잇-’과 ‘-엇-’에 후접되는 어미군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히긴 하였으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해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이기갑(1981)에서 ‘-엇-’이 ‘-어 잇-’의 단순 변이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의 근거로 든, 분포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증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어 잇-’과 ‘-엇-’의 후접 어미군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어 잇-’이 ‘-엇-’으로 축약되는 과정은 음운론보다 더 높은 층위, 즉 문법 층위의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동주(1995: 109-111)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이 어미군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의미특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는데, 동일한 시상형태소 ‘-느-’가 다른 분포를 보이는 것이 ‘-어 잇-’이 ‘-엇-’으로 축약되거나 반대로 견제한다든지 하는 ‘의미기능의 역학작용’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였다. 즉, 이러한 차이가 후접어미들의 의미특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동주(1995: 110)에서는 15세기 중엽에 축약을 잘 허용하지 않았던 어미들(-어, -으니, -으면, -오되, -음)이 ‘이시-’를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 이시-’가 축약에 제약 받았다라는 것이다. 나머지 어미들은 ‘잇-’과 결합하기 때문에 ‘어 잇-’ 형태가 예상되고, 이 때

에 축약형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고 하였다. 한동완(1986: 226)에 제시한 분포 차이는 쌍형어간 ‘잇-’과 ‘이시-’의 출현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어 잇-’이 대체로 축약형이 지배적이었고 ‘-어 이시-’는 축약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당시의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최동주(1995: 110)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바뀌어간다고 하였는데, 15세기 중엽 자료인 『석보』, 『월석』에서는 ‘-어 이시-’의 축약 형태로 ‘왜시니’밖에 찾아 볼 수 없지만 『두시언해』 초간본에서는 ‘-어 이시-’의 축약이 확대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시언해』의 축약형태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를 ‘-엇-’의 확대와 관련지었다. ‘-엇-’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15세기에 ‘-엇-’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에 대해 해명해야 함이 먼저다. 15세기에 출현하는 ‘-엇-’은 과연 무엇인가? ‘-엇-’ > ‘-엇-’에서 볼 수 있는 /j/의 탈락에 병행하여 ‘-에시-’가 그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어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어 이시-’ > ‘(-에시-)’ > ‘-어시-’의 변화과정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앞의 주장이 유지될 수 없음을 더욱 분명히 해 준다. 만약 ‘-어 잇/이시-’와 ‘-엇-’ 사이의 후접되는 어미의 분포의 차이가 의미특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15세기 중엽 축약형의 결합에 제약을 보이던 어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결합을 허용하게 된 것에 대한 의미를 본래 이들 어미가 그 의미특성에 따라 축약형을 제약하였던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15세기 중엽의 ‘-어 잇/이시-’와 ‘-엇-’은 선행술어와의 결합관계나, 후접어미와의 결합관계에 있어서도 적어도 의미에 관련된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3.3. 『두시언해』에 나타나는 ‘-엇-’의 성격

15세기의 ‘-엇-’이 공식적으로 존재했음은 앞서 확인해 보았다. ‘-엇-’은 ‘-어 잇-’과 환경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로는 과거로 해석될 만한 것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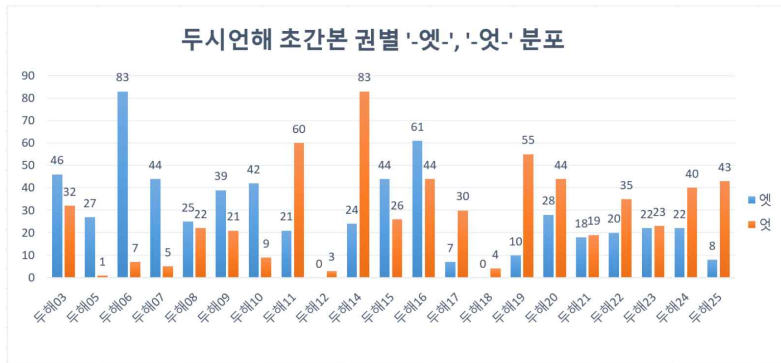
<표 2> 15세기 문헌별 ‘-엇-’의 출현 비율

문헌명	엇	문헌별 비율
1461능엄	7	1.0%
1463법화	2	0.3%
1465원각	3	0.4%
1466구방	4	0.6%
1467목우자	1	0.1%
1475내훈	2	0.3%
1481두해초	607	88.5%
1481삼강(룬)	5	0.7%
1482금삼	9	1.3%
1482남명	20	2.9%
1489구간	20	2.9%
1493태을	1	0.1%
1496육조	4	0.6%
1500개법	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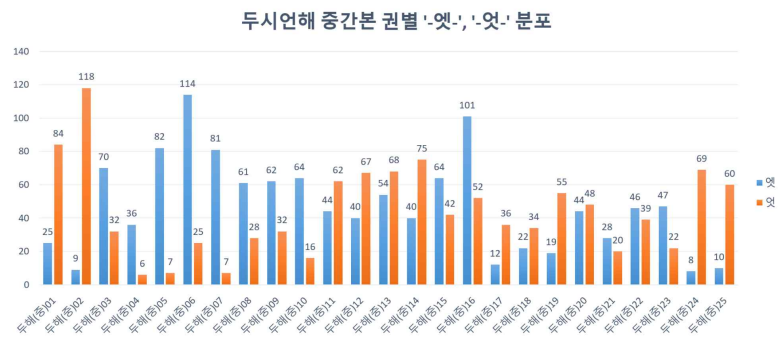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엇-’은 『두시언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기존에는 『두

시언해』 이후 ‘-엇-’이 점차 발달된다고 보았으나, 실제 ‘-엇-’이 나타나는 비율을 살펴보면 1~2%의 증가세를 보이는 문헌은 『금강경삼가해』, 『남명집언해』, 『구급간이방』을 꼽을 수 있으며 그마저도 큰 수치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시언해』가 운문자료임을 염두에 둘 때 다른 문헌과의 차이점은 운문 문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시언해』는 시기적 차이를 두고 중간되어 초간본과의 형태적 차이를 나타내는데 다음 <그림 4>, <그림 5>를 살펴보자.

<그림 6 > 『두시언해』 초간본 권별 ‘-엇-’, ‘-엇-’ 분포



<그림 7 > 『두시언해』 중간본 권별 ‘-엇-’, ‘-엇-’ 분포



<그림 4>에 나타난 ‘-엇-’과 ‘-엇-’이 나타나는 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듯 하나 수치상으로는 ‘-엇-’이 49.4%, ‘-엇-’이 50.6%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비율은 중간본에서 48.3%: 51.7%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두시언해』 중간본이 간행되었던 17세기에는 이미 ‘-엇-’ 형이 사라진 이후이므로 초간본의 언어 상황이 보수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선 <그림 3>의 그래프를 보면 17세기의 ‘-엇-’은 『두시언해』 중간본을 제외하면 단 3개의 예만 찾아질 뿐이다.

- (9) ㄱ. 馬 | 상네 사호느니 江東엿 나그네 도라가디 몬흐얏노라 <두해3:43b>
- ㄴ. 風塵이 어드워 여디 아니흐얏느니 네 가 어느 뻘 올다 <두해8:37b>
- ㄷ. ㄴ곶亭子애 모다셔 醉코 雲嶠篇ㄴ튼 그를 자밧노라 <두해22:55a>
- ㄹ. 흰 실로 긴 고기를 미야 잡고 프른 수레 玉근흔 ㅂ리 조찰도다 <두해22:51a>
- ㅁ. 조스르윈 깊이 폐 旌旗를 드랏고 더른 亭子ㅅ 가온디 갈홀 지엿도다 <두해9:7b>

ㅂ. 이스레 두위티며 비 튜믈 조처흐니 께 漸漸 께뎃도다 <두해15:8a>

(10) 內豎는 께스왔는 혀근 臣下 | 라 <내훈1:36a>

(9)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엇-’은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보다는 ‘과거’의 의미로 해석함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9ㄱ)이 ‘말이 항상 싸우니 강동의 나그네가 돌아가지 못하였다’로 해석되며 (9ㄴ)은 ‘풍진이 어두워 열지 아니하였으니’, (9ㄷ)은 ‘물가 정자에 모여서 취하고 운교편같은 글을 잡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두시언해』에 나타나는 ‘-엇-’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쓰여 ‘-엇-’과도 차이를 보인다. (10)의 예처럼 ‘-어 잇-’의 의미를 지니는 ‘-엇-’과도 또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기존의 ‘-엇-’의 형성 과정에서 설명된 ‘-어 잇->-엇->-엇-’이라는 단선적 도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15세기에 공존하는 ‘-어 잇-’과 ‘-엇-’, ‘-엇-’의 분석에서 ‘-어 잇-’은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를 지니는 것에는 동의하며 ‘-엇-’은 이러한 ‘-어 잇-’의 음성적 축약형으로 자유 변이형에 속한다. 그러나 ‘-엇-’은 ‘-엇-’과 출현 양상에 차이가 있으며 그 의미 기능에도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과거’의 의미로 해석할 만한 예를 다수 파악하였다.

15세기의 ‘-엇-’은 ‘-어 잇-’의 축약형 ‘-엇-’의 문법화에 의한 것이 아닌 15세기 공시적으로,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엇-’은 ‘-어 잇-’과의 연관성을 상정할 수는 있으며 ‘-어 잇->-엇-’, ‘-어 잇->-엇-’의 두 가지 방향의 발달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구어체적 문헌인 『두시언해』에서 ‘-엇-’형을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때의 ‘-엇-’은 ‘-어 잇-’의 ‘결과상태 지속’이라는 의미와 함께 ‘과거’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받아들여졌던 ‘-어 잇->-엇->-엇-’의 과정은 합리적으로 보이나 ‘에>어’의 공시적 음운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엇-’의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은 ‘-엇-’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 보았다.

15세기 ‘-엇-’의 공시적인 면면을 살펴본다면 응답 ‘-엇-’과 결합하는 어미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고광모(2004), 「과거시제 어미 ‘-엇-’의 형성에 대하여」, 『형태론』 6-2, 박이정, 367-375.
- 김종규(1986), 「중세국어 활용에 나타난 모음충돌 회피현상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51-270.
- 박부자(2006), 「한국어 선어말어미 통합순서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안병희(1967), 「문법사」, 『한국문화사대계』 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65-261.
- 이기갑(1981), 「15세기 국어의 상태 지속상과 그 변천」, 『한글』 173-174, 한글학회, 401-422.
- 이승욱(1970), 「과거시제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211-222.
- 이승욱(1973), 『국어문법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 이승욱(1986), 「중세국어 시상법의 형태범주」, 『동아연구』 10,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40.
- 이지양(1998), 『국어의 융합현상』, 태학사.
- 이카라시 고이치 역(2006), 「고노 로쿠로(河野 六郎)의 「中期朝鮮語の完了時稱に就いて」(1946)의 번역」, 『형태론』 8-2, 도서출판 박이정, 451-462.
- 이카라시 고이치 역(2007), 「중기조선어의 시칭체계에 대하여」, 『형태론』 9-1, 도서출판 박이정, 219-240.
- 이현희(1991), 「국어 문법사 기술의 몇 문제」. 『국어사 논의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과학연구부어문연구실, 57-76.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정언학(2001), 「중세 국어 보조 용언 연구 : ‘V-어 V’, ‘V-고 V’ 구성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언학(2006), 『상 이론과 보조 용언의 역사적 연구』, 태학사.
- 정언학(2007), 「보조용언 구성의 문법화와 역사적 변화」, 『한국어학』 35, 한국어학회, 121-165.
-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명옥(2002), 「과거시제 어미의 형성과 변화」,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135-165.
- 한동완(1986), 「과거시제 ‘었’의 통시론적 고찰」, 『국어학』 15, 국어학회, 217-248.
-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연구』, 태학사.
- 한동완(2000), 「‘-어 잇-’ 구성의 결합제약에 대하여」, 『형태론』 2-2, 도서출판 박이정, 257-285.
- 한재영(1986), 「중세국어 시제체계에 대한 관견」, 『언어』 11-2, 한국언어학회, 258-284.
- 한재영(2002), 「16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와 변화 양상 연구」,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199-219.
- 한재영(2005), 「‘었’과 ‘더’의 통합관계」, 『우리말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709-725.
-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웅(1977),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 『세립 한국학 논총』 1, 세립학술재단(허 웅(1987),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사』에 재수록).
- 허 웅(1987),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 前間恭作(1924), 「龍歌古語箋」, 『東洋文庫論叢』 2, 東京(前間恭作著作集(1974)에 재수록).
- 前間恭作(1974), 『前間恭作著作集』, 京都大学文学部 国語学国文学研究室.
- 河野六郎(1946/1979), 「中期朝鮮語の完了時稱に就いて」, 『河野六郎著作集』 1, 平凡社, 467-480.
- 河野六郎(1952/1979), 「中期朝鮮語の時稱體系に就いて」, 『河野六郎著作集』 1, 平凡社, 508-534.
- Bybee, J.(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Bybee, J., R. Perkins and W.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5세기 ‘-엇-’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가와사키 케이고(숭실대학교)

이 발표는 15세기 ‘-엇-’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엇-’의 형성과정, 의미, 문헌적 분포 등을 논의하여 거기에 대해 “기존 논의와 다른 시각”을 제시하였다. “결론” 부분을 간결하게 정리하면, 그 주장(제안)은 아래와 같다.

- ① 종래 정설로는 ‘-엇-’은 ‘-어 잇- > -엣- > -엇-’처럼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에>어’의 변화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② 15세기 ‘-어 잇-’과 ‘-엣-’은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지만, ‘-엇-’은 그 외에도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 ③ 따라서(①②) 정설처럼 ‘-엣- > -엇-’이라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 잇- > -엣-’, ‘-어 잇- > -엇-’가 따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좋다.
- ④ 『두시언해』는 “구어체적”이기 때문에 ‘-엇-’ 형이 특별히 많이 나타난다.

토론자는 이 주장들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보도록 하고, 또한 이 지적이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①에 대하여

‘-엣- > -엇-’(-에시- > -어시-)이라는 음운변화는, 발표자가 문제시하는 만큼 설명이 어려운 대상은 아닌 듯하다. 아래와 같이 많은 유사현상, 관련현상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발표문 중에서 언급된 것들

1. 고광모(2004: 371) ‘둘챗>둘찰’, ‘엣가>앗가’, ‘뫓고마리>뫓고마리’ 등, 중성 ‘ㅅ’ 앞에서 /j/가 탈락한 예가 있음.
2. ‘그위실>그우실’

(b) 감동법 ‘-엇다’(-것다), 의문사 ‘엇데’, ‘엇디’의 변이형, ‘-꺄다~-것다’의 혼동 등(cf. 졸고 2016: 202). 이들(1~3)은 “j 탈락”이 아니라 정반대인 “j 삽입”이지만, 결국은 “j 유무의 혼동” 또는 “대립의 애매화”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cf. “과도 교정”), 역시 유사현상으로 묶을 만하다.

1. 감동법 ‘-엇다’(-것다)의 변이형 ‘-엣다’. 즉, “마로꺄다(<*마로꺄다[말-오-리-것다])<月釋 8:87b>” 및 ‘오ㅅㅅㅅ’(ㅅㅅㅅㅅ)-엇다) > ‘-ㅅㅅㅅㅅ’(엇다 ~ -잇다 ~ -엣다).
2. 중세어 한글자료에서 6예가 확인되는 의문사 ‘엇데’의 ‘엇데 > 엣데’라는 변이현상 (<楞嚴4:32b><法華4:74a><三綱烈19, 烈20><六祖中64b><法集31a>)
3. 16세기의 『십현담요해』에서 의문사 “엇디”, “엇더”가 항상 “엣디”(17예), “엣더”(3예)처럼 나타나는 변이현상

4. 정경재(2007)에서 지적된, 후기 근대어 시기에 등장한 ‘꺾다’와 감동법 ‘-것다’가 “혼동”된 현상

(c) 모음 뒤에서 (보조용언, 계사 등의 어두의) /i/가 탈락하는 현상.

1. 현대한국어 계사 ‘이-’가 모음 뒤에서 탈락하는 현상.
2. 현대일본어 ‘te iru’(lit. “-어 있-다”), ‘te ik-u’(lit. “-어 가-다”)가 각각 구어체에서 /i/가 빠진 ‘teru’[-어 있다], ‘tek-u’[-어 가다]로 실현되는 현상.

만약에 이 현상들을 음운론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론 쪽의 “과제”일 뿐, “자료적 사실” 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②에 대하여

발표자가 ‘-엇-’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 (9)의 예들이다.

- (9) ㄱ. 馬 | 상네 사호느니 江東엿 나그내 도라가디 몬흐얏노라 <두해3:43b>
ㄴ. 風塵이 어드워 여디 아니흐얏느니 네 가 어느 뵙 올다 <두해8:37b>
ㄷ. 浬又 亭子애 모다셔 醉코 雲嶠篇ㄴ튼 그를 자밧노라 <두해22:55a>
ㄹ. 힌 실로 긴 고기를 미야 잡고 프른 수레 玉곤흔 삿리 조챗도다 <두해22:51a>
ㄱ. 조스르윈 깊이 폐 旌旗를 드랏고 더른 亭子스 가온디 갈홀 지엿도다 <두해9:7b>
ㄴ. 이스레 두위티며 비 튜틀 조쳐흐니 피 漸漸 피엿도다 <두해15:8a>

하지만 鈴木(1928-1931), 鈴木·黒川(1963-1966) 등을 참조해 보아도, 이들의 原詩를 해석하면서 “과거시제”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 발표문에서는 문맥에 대한 검토도, 심지어 한문 원문도 제시해 주지 않았는데, 독자는 무엇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9ㄱ)은 제목이 “有歎”(탄식할 일이 있다), 정확히 인용하면 “天下애 兵馬 | 상네 사호느니 江東엿 나그내 도라 가디 몬흐얏노라 (天下兵常鬪 江東客未還)”이며, 해석은 “천하는 항상 전쟁을 하고 있어서, 이 江東의 나그내인 나는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현재 상태), (9ㄴ)은 제목이 “送舍弟穎赴齊州三首”(동생 穎이 齊州에 가는 것을 보내다), 原文은 “風塵暗不開 汝去幾時來”이며, 해석은 “(전쟁의) 먼지로 하늘이 어두워 아직도 개지 않았는데(개지 않은 상태인데)(현재 상태), 너는 이제 가 버리면 언제 또 돌아오겠느냐” 정도가 된다. 모두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참고로 현대한국어의 ‘-엇-’에도 여전히 ‘-어 잇-’과의 연관성, 즉 “과거시제”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용법이 남아 있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9ㄷ)도 정확히 인용하면 “아츰디 [브롬 부는 浬又 亭子]애 모다셔 醉코 雲嶠篇ㄴ튼 그를 자밧노라(晨集風渚亭 醉操雲嶠篇)”, (9ㄱ)도 정확히 제시하면 “조스르윈 깊이 이폐 旌旗를 드랏고 더른 亭子스 가온디 갈홀 지엿도다(懸旌要路口 倚劍短亭中)”이다. 일일이 해석을 제시하지는 않겠으나 모두 다 자연스럽게 “현재 시제”로 해석할 수 있는 예들이다. (9ㄱ-ㄴ) 각각 z4:468/i7:224, z3:175, z3:427, z1:401, z3:99, z1:153/i1:132 를 참조(“z”는 鈴木 1928-1931, “i”는 鈴木·黒川 1963-1966을 가리킴).

③에 대하여

①②가 성립하지 않으면 ③의 주장도 어려워진다. 또한 ‘-엿- > -엇-’이라는 변화를 문제 삼는다면, 발표자가 주장하는 ‘-어 잇- > -엇-’이라는 변화도 똑같이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④에 대하여

『두시언해』에 ‘-엇-’ 형이 특히 많음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두시언해』가 특별히 “구어체적”이라는 말은 어떤 근거/관점에서 하는 말인지, 여쭙보고 싶다.

①~④처럼 “결론”으로 종래 정설을 부정하는 큰 주장(제안)을 하려면, 적어도 그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설이라고 독자들을 납득시키는 “논증”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논증” 과정이 거의 안 보인다는 점이 아쉽다. “일부 선행연구의 주장”에 의지하지 말고, “자료적 사실”을 근거로 스스로 논증할 필요가 있다.

기타

- ▶ ‘-엇-’이 어느 정도 잘 쓰이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통계를 낸다면, 단순히 ‘빈도수’만 내면 안 되고 ‘빈도수’/‘어절수’의 비율을 보아야 한다. 1,000 어절 중 10번 나타나는 것과 10,000 어절 중 10번 나타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
- ▶ 『두시언해』 중간본은 초간본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서 표기법만 기계적으로 바꾼 부분이 대부분이라 17세기 언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는 아예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 ▶ 각주 (13)에서 형용사 어간에 ‘-어 잇-’이 접속하는 경우, 그 형용사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로 전용된 것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일시적인 상태”라는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많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있다(cf. 박진호 2006).

참고문헌

가와사키 케이고(2016), 중세한국어 감동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호(2006),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잇-’의 상적 의미,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鈴木虎雄(1928-1931), 『杜少陵詩集』(續國譯漢文大成; 文学部 第4卷-第6卷下), 東京: 國民文庫刊行會[鈴木虎雄註解(1978), 『杜甫全詩集』 第一卷~第四卷 復刻愛蔵版, 日本図書センター所収].

鈴木虎雄·黒川洋一(1963-1966), 『杜詩』 第一冊~第八冊,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제3부

주제 발표

중세. 근대 국어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과제

손세모돌(대진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 보조용언 연구 업적 개괄
3.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과제
4.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이 발표에서는 국어 보조용언의 연구 업적들을 살펴보면서 보조용언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중세와 근대 국어 보조 용언 연구에서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언급할 보조용언 연구의 대부분은 국회도서관에서 ‘보조용언’과 ‘보조동사’로 검색한 논문들로 1974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구업적들이다. 국회도서관 검색에서는 1980년대 이전 논문들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2. 보조용언 연구 업적 개괄

이 장에서는 국어 보조용언 연구 동향을 전반적으로 개괄해 보고자 한다.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용언 연구가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조용언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현대국어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다.

국회도서관에서 ‘보조용언’과 ‘보조동사’로 검색하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합쳐 519편의 논문이 검색된다. 그 가운데 보조용언과 관련이 없거나 일본어나 몽골어 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을 제외하면 보조용언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상세 편수는 <표 57>과 같다.¹⁾

<표 57> 보조용언 연구 업적 편수

검색 용어	학위논문(1974~2017)			학술지 논문 (1977~2016)	계
	박사	석사	소계		
보조용언	15편	69편	84편	137편	221편
보조동사	7편	49편	57편	119편	176편
계	22편	118편	140편	255편	396편

논문들의 편수, 주제 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 동향을 엿

1) ‘보조동사’로 검색되는 논문들 중에는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몽골어나 중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도 있다. 국어 보조용언과의 대조 논문은 397편 중에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는 지표이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들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고려할 때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197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표된 보조용언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1)과 같다.²⁾

(1) 보조용언 관련 박사학위 논문(1974년 ~ 2017년)

김명희(1984). 국어 동사구 구성에 나타나는 의미 관계 연구: 'V1+어+V2' 구조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김기혁(1987). 국어 보조동사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엄정호(1990). 종결어미와 보조동사의 통합구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s가 하다/보다/싶다

손세모돌(1994). 국어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류시종(1995). 한국어 보조용언 범주 연구: 원형이론적 접근.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김영태(1996). 경북 군위 지역어의 보조용언 연구, 대구대 박사학위 논문.

호광수(1999). 국어 보조용언 구성 연구: '보다'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중심으로. 조선대 박사학위 논문.

강흥구(1999).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이병희(2002). 한국어 보조 용언, 연결 어미, 시제의 개념 그래프 기술,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정언학(2002). 중세 국어 보조 용언 연구: 'V-어 V', 'V-고 V' 구성을 대상으로,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박선옥(2003). 국어 보조동사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송효빈(2003). 지각동사 '보다'의 인지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권순구(2004). 국어 보조용언의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배수지(2007). 현대국어 보조용언 연구, 창원대 박사학위 논문.

강덕구(2008). 일본어와 한국어의 보조용언 문법화 현상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육미란(2008). 이동동사 '가다'의 의미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다키구치 게이코(2009). 한.일어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 대조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임병민(2009). 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 논문.

유지연(2014).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동작상 보조용언 교육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 논문.

최영(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용언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 논문.

신현단(2015).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교육 연구: 보조용언 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안희재(2017). 국어 서술어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시기별로 보면 국어 보조용언 연구는 주로 현대국어 쪽에 치우쳐 있다. (1)에서 보는 것처럼 박사학위 논문 22편 중 중세나 근대 국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정언학(2002) 한 편뿐이다. '보조용언'과 '보조동사'로 검색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396편을 연구 주 대상 시기별로 구분하면 <표2>, <표3>과 같다.

2) 연구업적들은 연구 주제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연도별로 제시한다. 검색된 박사학위 논문 25편 중 한세진(2005), 동소현(2008)과 최숙이(2009)는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반면에 남미혜(1996)는 '보조용언/보조동사'로 검색되지 않았으나 뒷부분에서 보조용언을 다루고 있다.

<표 58> 시기별 보조용언 연구 업적 수 1

검색 용어	중세 국어		근대국어		통시적 고찰		계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보조용언	박1, 석2	4	0	1	석2	5	6	10
보조동사	석1	1	석1	0	0	1	1	2
소계	4편	5편	1편	1편	2편	6편	7편	12편
계	9/396편(2.3%)		2/396편(0.5%)		8/396편(2.0%)		19/396편(4.8%)	

<표 59> 시기별 보조용언 연구 업적 수 2

검색 용어	현대 국어		계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보조용언	박 14, 석 64	127	78편	127편
보조동사	박 7, 석 48	117	55편	117편
소계	133편		133편	244편
계	377/396편(95.2%)		377/396편(95.2%)	

<표2, 3>에서 보듯이 ‘보조용언’과 ‘보조동사’로 검색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396편 중에서도 중세나 근대 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다. 중세 국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 9편, 근대 국어 대상은 2편, 통시적 고찰 논문은 8편으로 모두 합쳐 19편(4.8%) 뿐이다. 현대 국어 보조용언 대상 논문은 376편으로 보조용언 전체 연구 업적의 약 95%를 차지한다.³⁾

주제 면에서는 동사구 구성과 보조용언의 통사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박사학위 논문의 주를 이루고 있으나 2003년 이후 주제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지 관련, 개별 보조용언 연구, 외국어와의 대조 연구로 확장되고 있으며, 2014년 이후에는 주제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2014년과 2015년 세 편의 논문이 한국어 학습자의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최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영역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변화이다.

3.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과제

이 장에서는 중세. 근대 국어 보조용언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연구에서 자주 논의되었던 분야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통시적인 내용의 업적도 여기에서 함께 다룬다. 중세.근대 국어 보조용언 관련 연구, 통시적 연구는 검색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총 19편에 불과하고 특히 근대 국어 보조용언은 독립된 연구 논문이 1편밖에 검색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중세 국어 보조용언의 연구 쟁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⁴⁾ 중세. 근대 국어 보조용언 연구 업적과 동향을 살피고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남은 과제들을 살펴본다.

3) 학위논문들 중에는 통시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중세나 근대 국어를 대상으로 하거나 통시적인 고찰을 주제로 한 것만을 대상으로 해서 분류한 결과이다.

4) 중세 국어 연구에서 보조용언 연구는 주된 주제가 아니다. 음운이나 어휘, 문법 형태들처럼 현대국어와 확연하게 다른 부분들에 연구자의 시선이 먼저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문헌 자료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중세 자료는 상이나 양태를 표현하는 보조용언 연구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3.1 중세. 근대 국어 보조 용언 연구 업적

중세.근대 국어 보조용언 관련 연구, 통시적 연구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합쳐 총 20편에 불과하다. 검색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하여 중세국어, 근대국어, 통시적 연구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2)-(4)와 같다.

(2) 중세 국어 보조용언 관련 논문

- 박유현(1974). 보조용언의 연구: 정음 초기 문헌을 중심으로.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태(1987). 15세기 국어의 '-아잇-' 결합어형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14. 한민족어문학회. 291-315.
- 손세모돌(1992). 중세 국어 '부리다'와 '디다'에 대한 연구. <주시경학보> 9. 탑출판사. 78-93.
- 손세모돌(1994). 중세 국어의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제24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75-217.
- 손세모돌(1995). '디다'와 '지다'의 의미 고찰. <한양어문연구> 제 13집. 한양대 한양어문연구회. 997-1018.
- 한재영(1999). 중세국어 복합동사 구성에 관한 연구. <어학연구> 35-1, 123-149.
- 정언학(2002). 중세 국어 보조 용언 연구 -'V-어 V', 'V-고 V' 구성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진(2014). 중세한국어 어미 '-아'와 '-아셔'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강미경(2002). 중세 한국어 보조용언 연구, 대구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유기(2007). 선어말 형태소 '-지-'의 형태론과 통사론 -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5. 119-144.
- 이병기(2008). 중세 국어 '강세접미사'와 '보조용언'의 상관성. <국어학> 53집. 국어학회. 87-111
- 이영경(2009). 중세국어 보조용언과 상 의미에 대하여. <형태론> 11권 2호. 통권 22호. 497-511.
- 권용경(2010). 중세국어 '-어 가다' 구성에 대하여. <최명옥 선생 정년퇴임기념 국어학논총>.
- 나찬연(2016). 15세기 국어에 쓰인 '-아 지다'의 문법적 성격. <우리말연구> 제47집. 우리말학회. 85-109.

(3) 근대 국어 보조용언 관련 논문

- 이유기(2007). 선어말 형태소 '-지-'의 형태론과 통사론-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5. 국어국문학회. 119-144.⁵⁾
- 권용경(2011). 근대국어 '-어 가다' 구성에 대하여. <한국어와문화> 제9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15-249.

(4) 통시적 연구 논문

- 조오현(1984). 조동사 '지다'의 연구: 생성, 태, 의미, 구문구조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 이지선(1991). 국어 보조용언의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 19세기어와 20세기어의 대비를 통하여. 서울여대 석사학위 논문.
- 손세모돌(1995). '-고 싶다'의 의미 정립 과정. <국어학> 제 26집. 국어학회. 147-169.
- 호광수(1999). 보조용언 '보다' 구성의 역사적 변천. <국어문학> 34. 국어문학회. 151-178.

5) 이유기(2007)은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쪽에 모두 포함한다.

- 최동주(2000). 국어 사동구문의 통시적 변화, <언어학> 27.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03-327.
- 이정택(2001). '-지(디)-'의 통시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국어학> 38. 국어학회. 117-134.
- 권용경(2004). '-고 가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에 대하여, <형태론> 6권 2호. 탑출판사.
- 이영경(2005). '싶다' 구문의 사적 변천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 3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25.
- 박민정(2005). 'V1-어+디다'의 통시적 변화.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 정언학(2007). 보조용언 구성의 문법화와 역사적 변화. <한국어학> 제 35호. 한국어학회. 121-165.
- 함희진(2008). 'V1-어+지다'형 합성동사의 형성과 기원. <한국어학> 제 41호. 한국어학회. 403-429.
- 박선옥(2008). 완료상 표현의 보조동사 '버리다'와 '내다'에 대한 통시적 연구. <어문연구>,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159-185.
- 이현희(2009). 보조용언 범주 분화와 접미사로의 이동, <국어학> 제 54호. 국어학회. 165-196.
- 양지현·황병순(2016). 중세어 '지-' 구성의 현대어 수용 양상에 대해, <언어과학연구> 제79집. 229-249.

3.2 중세. 근대 국어 보조용언 연구의 쟁점과 과제

동일 분야 연구 업적들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그 분야의 주요 사항이거나 관심거리일 개연성이 높다. 보조용언 관련 논의는 초창기 범주 설정 문제와 목록 선정, 보조용언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 제약 조건 등에서 최근에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 외국어와의 대조 연구로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⁶⁾

중세 보조용언에서도 보조용언 범주 설정 가능성과 보조용언 구별 기준 문제, 목록 설정 문제, 문법화 문제 등이 논의의 중심이다.⁷⁾ 문법화는 보조용언과 접미사 범주 구분과 관련이 있다. 각 분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간략히 점검해 보기로 한다.

1) 중세 국어 보조용언 범주 설정과 구별 기준

중세 국어에 보조용언 범주를 인정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보조용언 범주의 설정 이유는 현대국어 보조용언 설정 근거와 기준에 부합하는 용례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보조용언 범주 설정의 근거는 통사론적, 의미론적 특성이다. 현대 국어의 보조용언 범주 설정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문론적 의존성, 대용형에 의한 비대칭성, 두드러진 문법성이다(손세모들 1996:39).

중세 국어의 보조용언 구별 기준으로 현대 국어 보조용언 연구에서 이루어진 업적들을 적용하는 데 큰 이견이 없다. 보조용언은 '-어'나 '-고' 등을 매개로 하므로 이들을 매개로 하는 합성어, 복합문의 후행 동사와 구별되어야 한다.⁸⁾ 보조용언을 합성어, 복합문 후행동사와 구

6) '보조용언'과 '보조동사'로 검색된 2003-2017년까지 석사학위 논문 109편 중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이 27편, 외국어와의 대조 논문이 33편으로 54.1%(59/109편)나 된다. 두 주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 국어 연구에서 한국어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7) 안명철(1990)은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전반적으로 개괄한 것이다. 안명철(1990: 319-320)에서는 보조동사 연구의 주된 관점으로 범주 확인과 목록 작성, 통사적 기능에 대한 연구, 보조동사의 의미와 화용론적 기능 연구를 꼽고 있다.

8) 보조용언의 설정 근거에 대해서는 앞선 시기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최현배(1937: 296), 고영근·남기

별하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5) 논항과의 무관성, 내적 비분리성, 문장 대응형과의 결합 가능성, 선행 용언까지의 분리 대응, 동일 형태의 선행 용언 사용 가능성, 보조용언의 연속 사용 가능성, 의사 분열문 형성 가능성
(손세모듈 1996: 47-69)

정언학(2002: 16)에서는 현대 국어 보조용언의 구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세 국어 보조용언 구분 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보조용언 단독 서술어 기능 불가, '-서'나 부사 등의 어휘적 요소 개재 가능, 분리 전·후 의미 차이, 선행 용언 도치 불가 등이다.

보조용언 구별 기준으로 가장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서”의 개입 여부이다. 최현배(1937: 373, 1980: 301)에서 제시된 이후 서정수(1971, 1990: 395-398), 김석득(1984: 3)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보조용언 구분 기준으로 언급된 바 있다. 최현배(1980: 301)에서는 ‘감목법(자격법)의 ’-아‘와 이음법의 ’-아‘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서‘ 개입시킨 ’-아서‘형의 사용 여부를 제시한 바 있다.

- (6) ‘감목법(자격법)의 ’-아‘는 다시 ’-서‘를 더하여서 쓰이는 일이 없으되 이음법의 ’-아‘는 ’서‘를 더하여 ’-아서(어서)‘로도 쓰인다. 그 ’-아‘가 어느 법의 것인가를 시험하려면 거기에 ’-서‘를 더해 보아 ’-아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음법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감목법(자격법)이다.

최현배(1937: 373, 1980: 301)

2) 중세 국어 보조용언 목록에 대한 문제

중세 국어 보조용언 목록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고 아직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조용언 구분 기준에 큰 이견이 없는 것에 비해 보조용언 목록은 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안명철(1990: 329)에서는 보조용언의 기준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지만 기준이 보조용언의 특성을 얼마나 타당하게 밝혀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세 국어 보조용언 목록이 학자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현실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지적이다.

강미경(2002: 24-26)에는 선행연구에 제시된 중세 국어 보조용언 목록이 제시된 바 있는데 최대 49개부터 최소 5개까지로 보조용언 인정 형태 수에 큰 차이가 있다.⁹⁾ 허웅(1975)에 중세 국어 보조용언이 49개나 제시된 것은 다양한 형태에 결합하는 ‘ㅎ다’를 보조용언 목록에 올렸기 때문이다.¹⁰⁾

보조용언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도 목록에 편차가 큰 것은 앞으로 더 살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중세 국어 보조용언 목록에 대해 학자마다 편차가 큰 것은 보

심(1993: 121-122), 김석득(1992: 670-678), 김기혁(1987: 7-57), 서정수(1990: 298), 안명철(1990: 320: 320-324), 김용석(1983: 15-25) 등에 각각의 판별 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9) 강미경(2002: 24-26)에는 허웅(1975), 최범훈(1987), 조세용(1994), 손세모듈(1996), 김문기(1999), 고영근(2000)의 목록이 표로 제시되어 있다. 각각 49개(허웅 1975), 37개(김문기 1999), 31개(조세용 1994), 22개(고영근 2000), 21개(최범훈 1987) 5개(손세모듈 1996)를 중세 국어 보조용언으로 제시하고 있다.

10) 강미경(2002: 88-89)에서는 허웅(1975)에 제시된 보조용언 목록 49개 중 24개를 ‘실질적 보조용언’, ‘ㅎ다’ 결합형 14개를 ‘형식적 보조용언’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여 총 38개의 보조용언을 제시한 바 있다.

조용언 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거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중세 국어 보조용언 목록에 많은 수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데 비해 논의되는 형태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세 국어 보조용언 목록 결정은 보조용언 범주 설정의 근거와 유사 구조와의 변별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어’를 연결어미로 하는 경우와 ‘-고’를 매개로 하는 경우

중세 국어 보조용언 목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어’를 매개로 하는 형태만 인정할 것인가, ‘-고’를 매개로 하는 형태도 인정할 것인가, 또는 그 이외의 어미들과 결합하는 형태들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보조용언 구분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세 국어 보조용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어’를 연결어미로 하는 경우이다. 다른 연결어미와의 구성도 보조용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 학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보조용언의 대다수는 ‘-어’를 매개로 하는 경우이다.¹¹⁾ ‘-어’를 연결어미로 하는 경우만 보조용언으로 보는 견해에는 손세모돌(1994: 177-187)이 있다. 손세모돌(1994: 17-187)에서는 중세 국어 보조용언의 구문론적 환경과 설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면서 ‘-어’를 연결어미로 하는 경우만 보조용언 설정 환경에 맞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²⁾

중세 국어 보조용언 목록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를 매개로 하는 ‘-고 가다’, ‘-고 있다’이다. 강미경(2002: 24-26)에 제시된 선행연구들의 중세 국어 보조용언 목록에서 ‘-고’를 매개로 하는 것은 ‘-고 있다’와 ‘-고 겨시다’뿐이고 이들을 보조용언으로 인정한 것도 각기 한 개 선행연구뿐이다. ‘-고 있다’는 고영근(1987)에서, ‘-고 겨시다’는 김문기(1999)에서 보조용언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고 있다’는 고영근(1987: 51)에서 중세 국어 보조용언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¹³⁾ 고영근(1997: 125)에서는 ‘-어 가다’, ‘-어 오다’와 함께 진행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용경(2004)는 ‘-고 가다’가 중세와 근대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동시 진행’의 보조용언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히고자 한 논문이다. 15, 16세기 국어 자료에서 ‘동시 진행’의 ‘-고 가다’ 사용례가 적긴 하지만, 17, 18세기 들어 사용이 증가하고 반면에 중세 국어에 나타났던 ‘-어 가다’ 구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중세 국어에서 ‘-고 가다’가 ‘동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 가다’는 다른 연구에서는 중세 국어 보조용언 목록에 올라있지 않은 형태이므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11) 현대 국어의 보조용언은 ‘-어’를 매개로 하는 것과 ‘-고’를 매개로 하는 것의 두 유형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세모돌(1994: 17-187)에서는 중세 국어 보조용언의 구문론적 환경과 설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어’로 연결되는 형태 중 5개만 보조용언으로 파악한 바 있다.

12) 손세모돌(1996: 70, 432)에서는 현대국어에 13개의 보조용언 형태를 제시하고 있지만 중세 국어에는 5개의 보조용언 형태만 인정하고 있다. 제시된 현대 국어 보조용언은 ‘-어’를 매개로 하는 것이 11개(가다, 오다, 있다, 두다, 놓다, 버리다, 내다, 주다, 대다, 보다, 지다), ‘-고’를 매개로 하는 것이 2개(있다, 싫다)이다. 중세 국어 보조용언으로는 ‘가다’, ‘디다’, ‘버리다’, ‘보다’, ‘있다’ 5개만 인정하고 있다(손세모돌 1994: 188, 1996: 438-439).

13) 고영근(1987:47-51)에서는 본동사에 연결어미를 매개로 조동사가 결합하면 여러 가지 동작상을 표시한다고 지적하고, ‘-고 있다’는 종전 중세 국어 연구에서 언급된 일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개별 보조용언의 의미, 보조용언과 접미사 범주 문제

국어 보조용언은 상과 양태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고영근(1987: 47)에서는 중세 국어의 동작상이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보조용언에 의해 표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⁴⁾ 중세 국어 보조용언 가운데 많이 논의되는 형태는 ‘-어 있다’, ‘-어 디다’, ‘-어 브리다’ 등이다. ‘-어 있다’와 ‘-어 브리다’는 상적 의미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어 지다’는 ‘피동’과 ‘상태 변화’라는 의미와 보조용언 범주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중세 국어 보조용언 목록에 포함되기도 하는 형태 중 ‘-게 드외다’, ‘-게 헐다’ 등은 피동과 사동이라는 기능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¹⁵⁾

중세 국어 보조용언 중 가운데 많이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어 지다’이다. 현대 국어에서 ‘-어 지다’는 피동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되는 보조용언이다. 현대 국어에서 다양한 선행용언과 결합하여 생산성을 가지며, 보조용언 혹은 접미사로 파악될 여지를 보이기 때문에 통시적인 고찰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다. 피동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의미 문제에서부터 보조용언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법적 범주 위치까지 논의되고 있다. 중세 국어 보조용언 ‘-어 디다’도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⁶⁾ 현대 국어에서 ‘-어 지다’는 ‘변화’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는데, 중세 국어에서의 의미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⁷⁾

중세자료에서의 ‘-어 디다’는 현대국어 보조용언 ‘-어 지다’에 대응된다.¹⁸⁾ 중세 국어 자료에는 ‘지다’와 ‘디다’ 두 개의 형태가 존재하였고, ‘지다’는 ‘-고 싶다’와 같은 ‘소망’을 표현하는 동사와 ‘떨어지다/없어지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지다’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현대국어의 ‘-어 지다’와 같은 사용은 ‘-어 디다’가 담당하고 있다.

중세국어 ‘-어 디다’에 대한 논의는 범주 문제와 현대국어 보조용언 ‘-어 지다’와의 관련 문제로 정리된다. 범주 논의에서는 ‘-어 디다’를 보조용언으로 보는 견해가 접미사로 보는 견해보다 우세하다.¹⁹⁾

‘-어 디다’는 선행 용언을 가지며 ‘디다’ 단독으로 서술어 구실을 할 때(落의 의미)와 의미면에서 매우 다르며 선행용언과 함께 쓰인 경우가 더 많다. ‘-어 디다’는 중세 자료에서도 선

14) 피.사동을 표현하는 태, 부정의 의미 등을 표시하기도 한다. 강미경(2002: 23)에서는 보조용언 구성이 담당하는 상, 부정, 태, 양태 의미를 아울러 ‘서법적 의미 기능’으로 처리한 바 있다.

15) 사동법, 피동법이라는 문법 범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최동주(2000: 303-304)에는 사동사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16) 고영근(1987: 48)에서는 중세 국어 보조용언 ‘-어 디다’가 현대 국어 ‘-어 지다’의 직접적 소급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7) 우인혜(1992: 39-40)에서는 주시경(1910: 113-114), 최현배(1937/80: 399), 이기동(1978: 46), 김민수(1981: 113), 성광수(1976, 1982), 심재기(1982: 372-373) 등이 ‘-어 지다’의 ‘기동성, 타율성’의 의미와 피동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반면에 ‘지다’가 피동 구문과 관계 없다고 주장한 견해로 임흥빈(1982:30), 박성종(1984: 12), 서정수(1990: 417), 김석득(1984: 18-20), 서승현(1991), 조오현(1992) 등을 들고 있다. 현대국어 ‘-어 지다’의 의미를 ‘(상태)변화’로 파악하는 견해에 임흥빈(1977: 52-53), 손세모듈(1995: 1002-1003), 이정택(2001: 121), 임동식(2015:671)이 있다.

18) 중세국어의 ‘-어 디다’가 현대국어 ‘-어 지다’의 직접 소급형이라는 것은 고영근(1987: 48), 이정택(2001: 120)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9) 최현배(1937) 이후 이상역(1970), 김석득(1971), 허웅(1975), 고영근(1987: 48), 손세모듈(1995: 1005-1008) 등에서 보조용언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정택(2001: 121, 124)에서는 불안정한 상태의 보조동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에 이강로(1967)에서는 파생접사로 보고 있다. 남광우(1999), 이유기(2007)에서는 ‘-지-’를 어말어미로 간주하고 있다. 신은수(2016)는 15세기 ‘V아디다’ 기원의 합성어 ‘눅아지다’를 대상으로 ‘V아디다’가 합성어인 경우를 논의한 것이다.

행용언이 단독으로 서술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 이정택(2001: 118)에서는 중세국어 '-어 디다'가 17세기 이후 분포에 변화가 초래되었음을 지적하고 현대국어에 이르러 '-어 지다'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망/원망'의 '-어 지다'를 선어말어미로 보려는 견해에 이유기(2007)이 있고 보조용언으로 처리하는 견해에 나찬연(2016)이 있다.²⁰⁾ 소망의 '지다'는 중세에도 '-어지다' 형태로 사용되었고 어말어미 연결에서 명령형 '-라'나 존칭의 '-이다'와만 결합하는 제약을 보이는데, 현대에도 '보고지고' 등에서와 같이 제약된 형태에서 '소망'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남아 있다.²¹⁾

(7) 머리를 조아 제 몸으로 아의 주구물 ㅌ | 신희야지라 비더라<번역소학 9:31>

宣王스기 제 罪를 슬와 죽거지이다 靑야날<내훈 3/28>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1992)>에는 '지-'가 보조용언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반해 남광우 <교학 고어사전(1992)>에는 연결어미로 간주하여 표제어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이유기 2007: 120).

중세 국어의 또 다른 '지다'는 사용례가 많지 않으며 '생기다/나타나다'의 의미를 드러낸다.²²⁾ 현대국어 보조용언 '-어 지다'는 흔히 피동 보조용언으로 언급되는데, 우인혜(1993: 110-117)에서는 '지다'의 의미를 중세 국어 자료와 관련하여 '생김'으로 파악하고 '생김'을 '떨어짐/없어짐'에서 파생된 의미로 파악한 바 있다. 이런 견해는 중세국어 '지다'를 현대국어 '지다'와 관련시킨 경우라 할 것이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 동일한 형태가 사용되었을 때 두 형태가 같은 어휘인지에 유의해야 한다. 현대 국어 보조용언 '-어 지다'의 '피동'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본동사 '지다'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는데, 통시적인 고찰을 통해 의미를 밝히려는 경우 자칫 유사한 형태의 의미들을 차용하게 될 우려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지다'처럼 음운변이 등으로 두 가지 어휘가 동일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경우 자칫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세 국어에 '지다'가 2가지나 존재하지만 '피동'과 '상태 변화'의 경우 중세 국어 형태는 '디다'이다. 중세 국어의 '지다'는 소망을 나타내는 동사와 명사를 선행어로 하는 '지다'가 있다. 명사를 주된 선행어로 하는 '지다'는 중세 국어에서 쓰임이 적은 용언이고, '되다', '나타나다', '생기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3) 문법화 단계와 관련된 문제

중세 국어 보조용언 선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또 하나는 문법화 단계이다.²³⁾ 보조용언

20) 나찬연(2016)은 15세기의 '-아 지다'에서 '지다'가 화자의 바람이나 소망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임을 밝히기 위한 논문이다. '소망'의 '지다'를 보조용언으로 보는 견해에 허웅(1975), 서태룡(1985), 양지현,황병순(2016)이 있고, 어말어미로 보는 견해에는 남광우(1999), 이유기(2007)가 있다. 중세 국어에서 소망을 나타내는 '지다'는 근대국어에 '보고지고', '후고지고', '죽고지고', '숨고지고'처럼 굳어진 형태로만 존재한다. 현대국어에도 예스러운 표현으로 '천년만년 살고지고' 등과 같이 잔존하고 있다(양지현,황병순 2016: 237).

21) 손세모들(1995:1010-1016)에서는 중세국어에서 '소망'을 표현하는 '지다'가 명령형 '-라'나 존칭의 '-이다'와만 결합한다는 점을 들어 불안전 활동을 하는 동사로 처리한 바 있다.

22) 손세모들(1995)는 중세 국어 용언 '디다'와 '지다'에 대한 연구로 '디다', '지다1', '지다2'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어 디다'는 보조용언으로 사용되지만 '생김'의 의미를 가지는 '지다1'은 현대 국어의 보조용언과 무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망', '의도'의 '지다2'는 종결어미 결합에 제약을 보이는 불안전 활동 동사로 처리한 바 있다(손세모들 1995: 1005, 1009, 1010).

은 본래 용언이 문법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된다. 보조용언은 문법화 진행 정도에 따라 접사화 될 개연성이 있으며 문법화 정도는 통시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가) '-어 디다' 결합형의 합성어 가능성

현대 국어에서 보조용언이 문법화하여 접사화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지다'가 자주 거론된다. '지다'는 현대 국어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면서 복합동사를 구성하거나 접미사로 기능하기도 한다. 신은수(2016)는 중세 국어의 일부 '-어 디다' 결합형이 보조용언이 아니라 합성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 논문이다.²⁴⁾

중세 국어에서 '-어 디다'가 이미 접사화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미 접사화한 것을 보조용언으로 처리하거나 아직 보조용언으로 보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후대의 용례를 기준으로 보조용언으로 처리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보조용언의 선정은 공시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나) '-어 프리-'에서 '프리다'의 보조용언 논의

'-프리-'는 접미사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²⁵⁾ 고영진(1997: 91-100)에서는 '프리다'가 보조용언에서 접미사로 발전된 용례로 다루고 있다.²⁶⁾ 최현배(1991: 362)에서도 본래 독립된 낱말에서 접미사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승재(1992: 67-68)에서도 '-프리-'가 동사어간에서 문법화되었다고 파악한다.

강세접미사 '-프리-'를 보조동사로 보려는 견해에 이상복(1990: 61-63), 김양진(1997), 송창선(1998), 이병기(2008: 88-89) 등이 있다. 보조동사로 보는 근거는 중세 국어에서 강세접미사로 분류되는 형태들이 후기 중세 국어에서 공시적으로 동사 어간으로 쓰이면서 '강세접미사'로 분류될 때는 추상화된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 보조용언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보조적 연결어미가 개재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지만 보조용언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분류나 원리 제시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설명의 간결함이다. 보조용언으로 분류하는 것이 '강세접미사'로 처리하는 것보다 폭넓은 설명력을 가진다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 형태를 위해 예외를 두거나 원리가 설명할 수 있는 범주가 작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시적으로 변화한 경우, 공시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설명의 간결함에 도움

23) 국어 보조용언의 문법화에 대한 논의는 손세모돌(1996: 285-430), 김명희(1996: 129-146), 고영진(1997: 71-101), 호광수(1999: 394) 등이 있다. 호광수(1999: 391, 394)에서는 보조용언이 접사가 되는 현상까지를 문법화의 테두리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보조용언의 문법화를 제1단계(보조용언화 단계), 제2단계(접어화 단계), 제3단계(문법소화 단계)의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김미영(1998)은 접어화의 진전 단계를 '접어화 이전 단계(용언) -> 접어화 1단계(보조용언) -> 접어화 2단계(접어) -> 접어화 완성 이후 단계(접사)'로 구분한다.

24) 현대 국어의 '녹아지다'가 본용언 '녹다'(涸)와 '디다'(落)가 결합한 15세기 '노가디다'의 후형으로, 합성어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다. '노가디다(>녹아지다)'를 보조용언 구성 '[[녹-]+[-아디-]]'로 보고 '구'로 처리하는 종래 견해에 달리 본용언과 본용언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녹-]+[-아+디-]]'로 처리한다. 더불어 단어로 인정되는 많은 'V아디다(>V아지다)'류 어휘와 같이 '녹아 지다'도 단어로 인정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다

25) 고영근(1989: 508), 최현배(1991: 362), 김석득(1992: 1844), 고영진(1997: 91-100).

26) '프리다'를 '지다'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지다'는 피동, '프리다'는 사동을 나타내던 것인데, '지다'가 접미사로 변화한 것 같이 '프리다'도 보조용언으로 사용되던 것이 접미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근대 국어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국어 보조용언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통시적인 고찰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대 자료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 보조용언 연구는 드물다. 선행 연구 검토에서 근대 국어 보조용언 연구 성과가 거의 검색되지 않았는데, 근대 국어 보조용언 연구가 특히 미비한 이유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대국어 보조용언 연구가 미진한 것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가 더 확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근대 국어 보조용언 연구 성과가 미진한데도 근대 국어 보조용언 연구와 과제 항목을 따로 설정한 것은 근대 국어 보조용언 연구가 적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문헌 자료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가 유사한 연구 바탕을 가지고 있다. 근대 국어는 자료가 더 많고, 보조용언 형태가 중세국어보다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연구할 내용도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보조용언의 통사적 고찰 혹은 각 시대별 고찰은 보조용언의 정립 과정을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조용언이 본용언의 문법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은 보이지 않는다. 호광수(1991: 152)에서는 보조용언의 문법화를 역사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보다’ 구성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살피고 있다. 박선옥(2008)에서도 ‘버리다’와 ‘내다’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통해 중세 국어 보조용언 구문과 현대 국어 보조용언 구문의 다른 점을 밝히려 고 시도한 바 있다. 근대국어 보조용언 연구로는 권용경(2010)의 ‘-어 가다’ 구성 논의가 있다.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현대 국어 ‘-어 가다’의 특징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4. 마무리

중세.근대 국어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서 각 시기별 보조용언 사용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이 밝혀진다면 보조용언 목록 선정, 보조용언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 기술, 개별 형태의 의미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료 검색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2003년 이후 2017년까지 보조용언 관련 학위논문 가운데 50% 이상이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연구 주제의 편중은 그 분야 연구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연구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주제를 찾는 시각과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는 마음가짐들을 기대해 보려 한다.

선행연구를 인용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선행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덕구(2004). 한·일 양국어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일어일문학> 제21집. 대한일어
일문학회 pp 1-20.
- 강미경(2002). 중세 한국어 보조용언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영근(1987).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 고영근(1997).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집문당.
- 고영근(2010).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3판)>. 집문당
- 고영근·남기심(1993).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풀이씨의 경우-> 국학자료원. pp60-102.
- 권용경(2004). ‘-고 가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에 대하여. <형태론> 6권 2호. 탑출판사. 317-337.
- 권용경(2005). ‘-고 있다/어 있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에 대하여, <한국어학연보>1.
- 권용경(2011). 근대국어 ‘-어 가다’ 구성에 대하여, <한국어와 문화> 제9집. 숙명여자대학교 한
국어문화연구소. 215-249.
- 김규선 외(2003). <중세국어문법론>. 청운.
- 김기혁(1987). 국어 보조동사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김문기(1999). 중세국어 매효풀이씨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 김민수(1980). <신국어학사>. 일조각.
- 김석득(1979). 국어의 피사동, <언어> 4권 2호. 한국언어학회. 81-192.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 김성화(1992). <국어의 상연구>. 한신문화사.
- 김용석(1983). 한국어 보조동사 연구, <배달말> 8.
- 김지은(1997).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남기심·고영근(1993. 개정판).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미혜(1996). 국어의 연속 동사 구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동소현(2008). 이동동사의 문법화에 관한 일고찰: ‘이쿠’, ‘구루’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박사
학위 논문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 박덕유(2010). <중세국어문법의 이론과 실제>. 박문사.
- 박민정(2005). ‘V1-어+디다’의 통시적 변화.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 박선옥(2008). 완료상 표현의 보조동사 ‘버리다’와 ‘내다’에 대한 통시적 연구, <어문연구>
36-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59-185.
- 박성종(1984). 국어 피동 연구. 서울 석사학위 논문.
- 변정민(2001). ‘싶다’의 의미 연구, <한국어학> 제 13집. 한국어학회. 171-193.
- 서승현(1991). 용언+지다/대다 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서정수(1990). <국어 문법의 연구Ⅱ>. 한국문화사.
- 서정수(1992). <국어문법의 연구 I>
- 성광수(1976). 국어 간접 피동에 대하여,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 손세모돌(1992). 중세국어 ‘버리다’와 ‘디다’에 대한 연구, <주시경학보> 9. 탑출판사. 78-93.
- 손세모돌(1993). 보조용언의 형성에 대한 고찰, <한양어문연구> 제11집. 한양대 한양어문연구

- 회. 27-46.
- 손세모돌(1994). 중세 국어의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제24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75-217.
- 손세모돌(1995a). ‘-고 싶다’의 의미 정립 과정. <국어학> 제 26집. 국어학회. 147-169.
- 손세모돌(1995b). ‘디다’와 ‘지다’의 의미 고찰. <한양어문연구>, 한양대 한양어문연구회. 997-1018.
-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신은수(2016). 15세기 ‘V아디다’ 기원의 합성어 ‘녹아지다’, <국어학> 80. 국어학회. 229-258.
- 신현단(2015). 한국어 문법 교수지식 교육 연구:보조용언 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3장 2절~4장
-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안명철(1990). 보조동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 동아출판사. 319-330.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학연사
- 안신혜(2016). 보조용언의 문법화 양상 -"가다", "오다", "두다", "버리다"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6집. 겨레어문학회. 87-107.
- 안주호(2006). 현대국어 ‘싶다’ 구문의 문법적 특징과 형성과정. <한국어어미학>20. 한국어어미학회. 371-391.
- 양지현.황병순(2016). 중세어 ‘지-’ 구성의 현대어 수용 양상에 대해, <언어과학연구> 제 79집. 언어과학회. 229-249.
- 우인혜(1992). 용언 ‘지다’의 의미와 기본 기능, <말> 제 17집. 연세대 연세어학원 한국어학당. 39-67.
- 우창현(2004). 제주 방언 보조 용언의 문법화에 대하여: ‘-어 두-’와 ‘-어 불-’을 중심으로, <언어학> 제12권 제4호. 대한 언어학회. 103-120.
- 이관규(1992). <국어 대등구성 연구>. 서광 학술 자료사.
- 이광호(2004). <근대국어 문법론>, 태학사.
- 이기동(1987). 조동사 ‘지다’의 의미 연구, <한글> 161. 한글학회. 537-569.
- 이동혁(1998). <근대국어의 보조용언>.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 이병기(2008). 중세 국어 ‘강세접미사’와 ‘보조용언’의 상관성, <국어학> 제53호. 국어학회. 87-111.
- 이승녕(1961). <중세국어문법>, 서울: 을유문화사.
- 이영경(2005). ‘싶다’ 구문의 사적 변천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 3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25
- 이영경(2009). 중세국어 보조용언과 상 의미에 대하여, <형태론> 제11권 제2호. 497-511.
- 이유기(2007). 선어말 형태소 ‘-지-’의 형태론과 통사론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5. 국어국문학회. 119-144.
- 이정택(2001). ‘-지(디)-’의 통시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국어학> 38. 국어학회. 117-134
- 이지선(1991). 국어 보조용언의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 19세기어와 20세기어의 대비를 통하여. 서울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현희(2009). 보조용언 범주 분화와 접미사로의 이동, <국어학> 제 54호. 국어학회. 165-196.
- 임동식(2015). 한국어 보조동사 ‘-(어)지다’에 관한 소고: 어휘통사론적 접근, <언어> 제40권 제

- 4호. 한국언어학회. 661-673.
- 임흥빈(1977). 피동성과 피동구문, <논문집> 12호, 국민대학교.
- 임흥빈(1982). 국어 피동화와 통사와 의미, <국어통사의미론>. 탑출판사.
- 정언학(2002). 중세 국어 보조 용언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 정언학(2006). <상 이론과 보조 용언의 역사적 연구>, 태학사.
- 정언학(2007). 보조용언 구성의 문법화와 역사적 변화, <한국어학> 35. 한국어학회. pp 121-165.
- 정언학(2009). 보조용언의 범주 분화와 접미사로의 이동, <국어학> 통권 제 54호. pp165-196, 492-493.
- 정혜선(2010). ‘싶다’ 구문의 역사적 변화, <어문연구> 38-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69-191.
- 조세용(1994). <중세국어문법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 조오현(1984). 조동사 ‘지다’의 연구: 생성, 태, 의미, 구문구조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 최동주(2000). 국어 사동구문의 통시적 변화, <언어학> 27.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03-327.
- 최범훈(1987). <중세한국어문법론>. 이우출판사.
- 최숙이(2009). 일본어 수수보조동사문의 의미용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 논문.
- 최현배(1980). <우리말본>. 여덟 번째 고침. 정음사.
- 한세진(2005). 존경표현에 관여하는 보조동사. 조동사의 의미용법 변천: 중세후기부터 근세전기까지의 구어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 함희진(2008). ‘V1-어+지다’형 합성동사의 형성과 기원. <한국어학> 제 41호. 한국어학회. 403-429.
- 허웅(1975). <우리 옛 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서울:샘문화사.
- 호광수(1994). ‘-고’와 공존하는 보조용언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호광수(1999a). 보조용언 ‘보다’ 구성의 역사적 변천. <국어문학> 34. 국어문학회. 151-178.
- 호광수(1999b).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 <인문과학연구> 제21집.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391-409.
- 호광수(2003). <국어 보조용언 구성 연구>, 역락
- 황병순(1992). ‘V어지다’와 ‘V어하다’의 형성 원리에 대한 연구, <배달말>, 17. PP 1-36.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양진(경희대학교)

중세, 근대 국어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손세모돌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국어 보조 용언에 관한 선구적 업적들을 남겨오신 손세모돌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 있어서의 보조 용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쟁점들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면의 식견이 충분치 않은 입장이지만, 토론자의 역할에 갈음하기 위해서 이 논의에 덧붙였으면 하는 내용과 간단한 질의 사항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논문은 국회도서관 검색에서 ‘보조용언’과 ‘보조동사’로 검색되는 논문 가운데에서 목록을 정하여 연구사를 정리하셨는데 연구사를 위한 과정으로는 조금 명의를론적(onomasiology)적 관점에 치우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논문에서 ‘보조용언’과 ‘보조동사’ 연구의 쟁점으로 중세, 근대 시기 보조 용언 연구의 범주 및 구별기준, 목록 설정 등 이외에도 상적 의미, 양태 의미와 사동태, 피동태 등을 포함하고 또한 문법화 및 통시적 변화를 포함하였다면 ‘보조용언, 보조동사’ 등이 제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조용언/보조동사에 의한 상적 의미, 양태 의미 실현과 사동문(장형사동), 피동문(장형피동) 구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연구사에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 보조용언의 문법화 및 접어화와 통시적 변화상을 다룬 수많은 논의들이 이 논의 안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논문들의 전수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1차 검색을 전제로 이루어진 2차적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보조 용언과 관련되는 의의론적(semasiology) 논의들로 확장되었어야 중세와 근대의 보조 용언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강이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앞의 명의를론적 관점에서 논문을 한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조용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때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논문들이 대거 누락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조용언과 관련한 박사논문의 목록에서, 유경중(1995, 근대 국어 피동과 사동 표현 연구, 한양대 박사), 김미영(1996, 국어 용언의 접어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아대 박사), 배공주(국어 보조서술 형식 연구, 아주대 박사), 도수희(1999,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 의미론적 연구, 충남대 박사)나 홍윤기(2002, 국어 문장의 상적 연구, 경희대 박사), 박진호(2003, 한국어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양상, 서울대 박사), 한세진(2005, 존경표현에 관여하는 보조동사, 조동사의 의미 용법 변화: 중세 후기부터 근세 국어까지의 구어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 김천학(2006, 국어의 동사와 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 등은 보조용언과 관련한 주요한 논문들이나 이 발표문의 목록에서는 누락되었고 일반 논문에서도 호광수(1994; “보조용언의 범위 설정에 관한 고찰”, 1999;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 박진호(1994; 중세국어의 피동적 ‘-어 잇-’ 구문, 1998; 보조용언, 2006;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잇-’의 상적 의미, 2007; 보조용언의 전산 처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2010; 한국어 문법사에서 조동사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김미영(1996; 중세국어 ‘-어 버리다’와 현대국어 ‘-어 버리다’), 김천학(2004; 중세국어 ‘가다, 니다, 녀다’에 관한 고찰),

정언학(2007; 보조용언 구성의 문법화와 역사적 변화) 등을 포함하여 장형 사동 구문, 장형 피동 구문, 장형 부정 구문, 동사 및 형용사의 문법화, 접어화, 보조용언과 상적 의미, 양태 의미, 강조, 부정 등 다양한 의미를 다룬 논의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발표문에서 중세, 근대 국어 보조용언 관련 연구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여 총 20편(19편?)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누적된 결과는 아닌지요?

또한 보조용언에 대한 논의에 기존 중세/근대국어문법서(이승녕, 허웅, 안병희, 기주연, 홍윤표 등)나 국어사 관련 저서들(이기문, 유창돈, 최범훈 등)에서 다루어진 논의들이 연구사에서 배제된 것도 중세국어 보조용언 연구의 범위를 축소시킨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요.

둘째, 앞의 논의와 관련하여, 기존 보조용언 논의에서 비교적 주변적으로 다루어진 우언적 구성의 다양한 표현들(-ㄴ 듯하다, -ㄴ 법하다, -ㄴ 듯싶다, -ㄴ 양하다, -기 때문이다...)은 중세, 근대 보조용언 연구에서는 어떤 범위에서 어떤 수준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셋째, 3.2.1)의 4번째 단락에서 “중세 국어 보조용언 구별 기준으로 가장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서’의 개입 여부”라고 하셨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아직 ‘-어 시- / -어 스-’의 문법화가 완성되지 못하여 이의 활용형인 ‘-어 셔’에서의 ‘셔’의 용법도 분리적인지 통합적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서’의 개입 여부로 보조용언을 식별하는 것은 중세 국어의 전체 문법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지요? 즉 중세 국어에서 ‘먹어 셔’나 ‘프르러 셔’가 아직 완료나 피동적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고 있다면 이때의 ‘셔’ 자체가 보조 용언의 활용형으로서 선행 형태의 보조 용언 여부를 확인하는 기제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넷째, ‘-어 흐-’, ‘-고 흐-’, ‘-기 흐-’ 등에 사용되는 ‘흐다’류는 보조 용언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셨는데 중세국어의 ‘-어 흐-’가 현대국어의 ‘-어 하-’와 달리 보조 용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장경준(1999, 2002) 등의 논의 등을 고려할 때 이들도 중세 국어에서는 보조 용언의 논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끝으로, 보조 용언에 대한 주요 논의가 범위를 정하고 목록을 정하고 그 의미를 따지는 논의에서의 쟁점에 한정된 느낌이 있는데, 보조 용언의 음운론적 측면이나 형태론적 측면, 통사론적 측면 등의 관점에서 바라본 쟁점들은 부각된 바가 없는지, 특히 성조의 문제라든지 통사적 제약 등의 관점에서 보조 용언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족1) 배수지(2007)는 배수자(2007)의 잘못된 듯합니다.

사족2) 국어사에서 중세 국어라 하면 고려 전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보면 구결이나 이두 자료 등 차차표기로 기록된 보조 용언적 논의에 대해서도 간략한 언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족3) 논의 중, 일본어-한국어의 대조나 중국인 학습자를 고려한 보조 용언 교육 등이 포함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을 포함하게 되면 실제 다루어야 할 논문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연구사에서 과감하게 배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어/고 있다’ 문법화 연구의 쟁점과 과제

정언학(송실대학교)

1. 서론

중세국어, 근대 국어의 ‘-어 있다’ 구성과 관련하여는 ‘-어 잇-/이시-’(보조용언 구성)와 ‘-엿-/에시-’(1단계형), ‘-엇-/어시-’(2단계형)의 세 형식에 대해 그 의미 기능을 자유변이(free variant) 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 형식을 각기 다른 문법화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살필 것이다. 이 견해 차이에 따라 세 형식의 결합 제약, 문법화 정도, 의미 기능 등의 분석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어 있다’ 구성과 형용사와의 결합 제약에 대해서도 살필 것이다.

‘-고 있다’ 구성에 대해서는 이 구성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의미 기능의 시대별 변이를 분석할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타동사와 결합하여 결과상태 지속 또는 반복 지속의 의미를 지니던 ‘-고 있다’ 구성은 개화기에 ‘진행’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2. ‘-어 있다’ 문법화 연구의 쟁점과 과제

2.1. ‘-어 있다’ 구성의 단계적 변화의 문제

주지하다시피 ‘-어 있다’ 보조용언 구성은 다음의 단계적 변화를 거쳤다. 보조 용언 구성으로서의 ‘-어 있다’ 구성은 선행 용언과의 결합에서 그 분포 범위가 15세기 이래 축소되어 현재의 ‘-어 있다’ 구성으로 쓰이고 있다.

(1) 보조용언 구성 1단계 변화 2단계 변화 3단계 변화

-어 잇-/이시- > -엿-/에시- > -엇-/어시- > -엇-

위의 단계적 변화형들이 나타나는 시기를 보면 15세기 중엽까지의 정음 초기 문헌¹⁾

1) 정음 초기문헌이란 『용비어천가』(1447), 『훈민정음 언해본』(1447년경), 『석보상절』(1447), 『월인

에서는 1단계 변화형 ‘-엿-/에시-’만이 나타나지만, 15세기 중엽부터(1460년대) 15세기 말까지는 1단계 변화형 ‘-엿-/에시-’와 2단계 변화형 ‘-엇-/어시-’가 공존한다. 그리고 16세기 초부터는, 일부 보수적 표기의 문헌을 제외하면, 전면적으로 2단계 변화형 ‘-엇-/어시-’만 나타난다. 3단계 변화형 ‘-엇-’은 ‘잇-/이시-’가 ‘잇-’으로 형태가 단일화되는 개화기에 그 형태가 완성된다.²⁾

다음은 각 단계에 따른 예들을 보인 것이다. (2)는 ‘-어 있다’ 구성인데 그 의미는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이다. 각각 ‘위두해서 있으니’, ‘입고서 있으시던 녹피 옷’, ‘이 보배만 가지고서 있으면’ 정도로 볼 수 있다.

(2) 가. 娑竭羅龍王이 위두햏야 잇느니 (월석 1, 23)

나. 善慧 님버 잇더신 鹿皮 오슬 바사 짜해 식르시고 (월석 1, 16)

다. 이 보박옷 가져 이시면 (월석 8, 11)

라. 상네 굶 거프를 머구머 이시면 즉재 누리리라 (『救簡』 6, 3)

마. 스킨 가디 마고 걸디여 잇거라 (『순천』 42:13)

바. 須達이 지브 도라와 떠 무든 옷 님고 시름 햏야 잇더니 이뜻나래 舍利弗이 보고 무른대 (『釋詳』 6, 27)

위 (2라, 마, 바) 등은, 단일 상황이라면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이지만, 부사어 ‘상네’ (라) 및 문맥을 고려해 보면 긴 시간 폭에서의 반복 상황에 대한 반복 지속임을 알 수 있다. (2바)의 의미를 최동주(1995:112)에서는 “완결’이라기보다 ‘진행’의 의미에 가깝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대국어의 ‘-고 있다’가 지닌 진행의 의미인, ‘철수가 밥을 먹고 있다(먹는 중이다)’처럼, 짧은 시간 폭에서의 단일 상황에 대한 진행의 의미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2바)는 ‘이튿날’까지 이어지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 폭에서의 반복 상황에 대한 ‘지속’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진행의 의미라기보다 반복 지속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중세국어의 ‘-어 있다’ 구성이 진행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기존의 기술은 재고되어야 한다. 중세국어의 ‘-어 있다’ 구성은 결과상태 지속을 기본 의미로 하여 파생 의미인 반복 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가. 一千靑蓮이 도다 췏더니 (월곡, 4)

나. 사르미 頭巾과 신괘 햏가지니 마조 안재시니 (人巾屨同偶坐) (두초 16, 33)

다. 西入녀 ㄱ르미 使臣의 ㅅ 왜시니 (西江使船至) (두초 15, 28)

친강지곡』(1447), 『월인석보』(1459)까지를 말한다. 『능엄경언해』(1464) 등 이후의 자료에서는 1단계 형태와 2단계형이 섞여 나오고, 16세기부터는 보수적 문헌을 제외하면 2단계형 ‘-엇-/어시-’만 나타난다.

2) 2단계형은 16세 초부터 근대국어 말기까지 그 형태는 유지된다(최동주 1995 : 137). 그리고 이현희(1991 : 65)와 최동주(1995 : 138)에 의하면 3단계 변화형 ‘-엇-’의 확립은 18세기에 시작된 ‘-엇-’의 ‘ㅅ’ 경음화와 ‘-어시-’의 /이/를 언중들이 /으/로 재해석(=誤分析)하는 과정을 통하여 19세기 말에 완성된 현상이다.

- (4) 가. 두 꺾이 서르 더으는 전츠로 드므며 티티며 느랏다가 떠러디며 프레 쓰는 여러 이리 잇느니 (二꺾이 相加故로 有沒溺騰擲飛墮漂淪諸事호니 (능엄 8, 87, 1464)
- 나. 죽게 드외얏더니도 머고미 ㄴ장 도호니라 (구급간 3, 80, 1489)
- 다. 일와 理왜 다 어기니 根애 수멋디 아니토다 (능엄 1, 58)
- 라. 제 精을 덜면 火界 盛호야 사라신 제 오히려 瘡渴호며 (自耗其精호면 則火界 | 熾然호야 於其生也애 尙有瘡渴~) (능엄 8, 81)
- 마. 鸚鵡 | 시름드윈 쓰들 머것느니 총명호야 제 사 여희여슈물 스랑호놋다(두초 17, 17, 1481) (鸚鵡含愁思 聰明憶別離)
- 바. 上人아 내 이 방하 드디연 디 여듭 드리나 모디 값간도 堂前에 거러가디 아니하얏노 니 브란든 上人이 혀 僞스 알퐁 가 저습게 호라(육조 상, 23)

첫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15세기 말까지 공시적으로 공존하는 (1)의 ‘-어 잇-/이시-’ (보조용언 구성)와 ‘-엿-/에시-’ (1단계형), ‘-엇-/어시-’ (2단계형)의 세 형식에 대해 그 의미 기능을 자유변이(free variant) 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 형식을 각기 다른 문법화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입장 차이의 문제이다. 이 견해 차이에 따라 세 형식의 결합 제약, 문법화 정도, 의미 기능 등의 분석에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두 번째로 16세기부터 17세기 말까지(또는 19세기 말)는, 1단계형이 없어지므로, 보조용언 구성(-어 잇-/이시-)과 2단계형(-엇-/어시-)의 두 형식에 대해, 위와 같이, 이 두 형식을 자유변이의 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법화 단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된다.

위 두 입장의 차이에 따라 ‘-어 잇다’ 구성의 문법화 연구에 대한 논의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구 구성, 1단계형, 2단계형의 세 형식을 자유변이로 보는 입장에서는 세 형식을 ‘-어 잇다’ 구성의 의미에 포함시켜 논의를 해야 한다. 반면 세 형식이 문법화 단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 잇다’ 구성의 문법화 논의에서 1단계형, 2단계형에 대한 논의를 문법적 층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기존 논의들에서 이러한 견해 차이가 있어 왔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이 보조용언 구성 문제에 대한 자료에 천착할 때 그 거리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연관되어 제기되는 문제로 위 (1)의 단계적 변화형들에 대해 그 의미 기능을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들이 자유변이의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세 형식의 의미 기능 분석에서 더 자유롭지만, 그것들이 문법화 단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세 형식 각각의 의미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큰 문제로 대두된다.³⁾

3) 세 형식을 다르게 보는 선행 연구에서는 1단계형 ‘-엿-’에 대해, “語彙性和 文法性を 兼有하고 있는 성격(이승욱 1973:196)”의 것으로 보거나, ‘완결지속’의 ‘호야 잇다’에 비해 ‘호엿다’는 ‘지속’의 뜻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나(허웅 1977:471), 보다 추상적인 하나의 문법적 의미 단위로서의 완료상(perfect) 또는 결과상태상(resultative)(한동완 1986)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자유변이로 보는 전자의 시각에서는 보조용언 구성과 1단계형, 2단계형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된다. 반면 문법화 단계를 달리 보는 후자의 입장에서는 1단계형과 2단계형의 의미 기술은 더 이상 ‘-어 있다’ 보조용언 구성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 15세기의 1단계형 ‘-엇-/에시-’에 대하여는 보조용언 구성과 친연성이 높은 것으로 그 의미를 기술하여야 하며, 16세기부터의 2단계형 ‘-엇-/어시-’는 보조용언 구성이 단순 축약된 형식에서 더 나아간 것에 상응하는 변화된 의미를 기술해야 한다. 또한 이 2단계형의 의미 분석은 19세기 말에 확립된 과거시제 ‘-엇-’으로의 문법화 과정 위에 있는 것으로 기술해야 한다.

세 번째로 ‘-어 있다’ 구성의 결합 제약에 대한 분석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입장 차이에 따라 ‘-어 있다’ 구성의 분포에 대한 기술이 달라진다. ‘-어 있다’ 구성이 1단계형, 2단계형의 자유변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중세국어의 ‘-어 있다’ 구성은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 모두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이 논문에서의 입장과 같이 세 형식이 문법화 단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 있다’ 구성이 15세기에 제한된 소수의 형용사, 그리고 자동사 및 타동사에 두로 통합되었던 것으로 본다. 이 구성이 형용사와의 결합에서 자유로웠는지 아닌지에서 견해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다.

2.2. ‘-어 있다’ 구성의 결합 제약 문제

세 형식을 자유변이로 보는 입장의 기존 논의에서 중세국어 ‘-어 있다’ 구성은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와 자유롭게 결합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수작업 및 말뭉치로 검색한 자료를 보면 그것에 의문이 생긴다.

- (5) 가. 모미 크기 드외야 虛空에 그득호야 있다가 또 적기 드외며 (『釋詳』 6, 34)
 니브를 거더 보니 피 돛기 그득호야 잇거늘 (『三綱』 런던 烈, 11)
 나. 또 菩薩이 便安히 즈믄호야 잇거든 天龍이 恭敬호야도 깃디 아니호리도 보며 (『釋詳』 13, 21)
 魔王이 널오디 엇던 因緣으로 如來 忍辱仙人드외야 겨심 제브터 내 長常 어즈료디 즈믄호야 겨시더니잇고 (『月釋』 4, 29, 1459 『月印釋譜』)
 다. 如來 三昧에 드러 괴외호야 겨실씨 一切 大衆도 다 즈믄호얏거늘 (『釋詳』 11, 16)
 라. 그 나라해 두 菩薩摩訶薩이 이쇼디 … 더 無量無數菩薩衆에 위두호야 잇느니 (『釋詳』 9, 11)
 이 經이 智로 體를 셀씨 文殊 | 爲頭호야 겨시니 (『月釋』 11, 23)
 마. 三千世界 時常 불가 이시며 病호니 다 도호며 (『月釋』 2, 25)

중세국어 자료에서는, 동일 용언의 중복 용례는 더 있으나, 위 (5)의 용례들이 형용사와 ‘-어 있다’ 구성이 결합한 유형으로서 확인되는 것의 전부다. 이러한 5개 정도의 예

를 가지고 형용사 일반과 ‘-어 있다’ 구성이 자유로운 결합 관계를 가졌다고 기술할 수 없다. 문헌 자료에 바탕한 분석의 한계를 고려한다고 해도, (5)의 용례들에 근거해 중세 국어에서 형용사 일반과 ‘-어 있다’ 구성의 결합이 자유로웠다고 기술하기에는 결합된 형용사의 부류가 형용사를 포괄할 만한 일반성이 없다.⁴⁾(이상 줄고 2007에서 재인용)

문제는 또 있는데 위 (5)의 예들도 상태 변화가 상정되므로 형용사로 쓰였다기보다 동사로 전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각 ‘가득해져 있다가, 잠잠해져 있거든, 고요해져 계시므로, 위두해져 있나니’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5)에서 ‘-어 있다’ 구성의 의미는 ‘결과상태 지속’으로 기술할 수 있다.⁵⁾

현대국어의 ‘-어 있다’ 구성에 대한 분포 기술에서 ‘날이 흐려 있다’, ‘얼굴이 붉어 있다’ 등의 실증되는 예를 가지고 형용사와 ‘-어 있다’ 구성이 결합한다고 기술되지 않았던 것이 참고된다. 이러한 현대국어의 분석 논리를 그대로 밀고 가면, 중세국어에서도 형용사와 ‘-어 있다’ 구성의 결합은 가능하지 않았다고 기술할 수도 있다.

한편, ‘-어 있다’ 구성이 형용사 일반과 결합한다고 기술한 기존 논의는 위에서 말한 1단계형, 2단계형과 결합한 형용사까지 결합 범위에 포함시킨 기술이다. 자료를 보는 견해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현희(1991 : 65)와 최동주(1995 : 138)에 의하면 3단계 변화형 ‘-었-’의 확립은 18세기에 시작된 ‘-었-’의 ‘ㅅ’ 경음화와 ‘-어시-’의 /이/를 언중들이 /으/로 재해석(=誤分析)하는 과정을 통하여 19세기 말에 완성된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는 18세기 자료와 19세기 말까지의 자료에서 ‘잇-/이시-’의 두 이형태 중 ‘이시-’의 2음절 ‘ㅣ’가 매개모음 ‘으’로 재분석되면서 ‘있다’로 형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고 있다’ 문법화 연구의 쟁점과 과제

다음 내용은 ‘-고 있다’ 구성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다(줄고 2007 참조). 15, 16세기에 ‘-고/오 있다’ 구성은 전체 언해 자료에서 20여 개, 「청주북일면순천김씨

4) 이는 ‘어엿버 있다, 도하 있다’ 등이 실현된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5) 여기에서 1) ‘결과상태 지속’은, 한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이 시작점과 종결점을 지닌다고 할 때, ‘-어 있다’ 구성은 상황의 종결점 이후 국면에 대한 상태 지속을 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2) ‘과정 지속’(=진행)의 ‘-고 있다’ 구성은 동사가 나타내는 상황의 시작점과 종결점을 제외한, 상황 내부 국면의 상태 지속을 지시한다. 한편 “그는 요즈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에서의 ‘-고 있다’는 부사 ‘요즈음’에 의해 반복 상황을 나타내므로 3) ‘反復 持續’이라 할 수 있다. 상태 상황, 행위 상황, 완성 상황, 달성 상황 중에서 상태 상황은 상태 변화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어 있다’가 결합한 경우에 4) ‘狀態 持續’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들 넷에 ‘지속’을 쓴 이유는 넷에 共通된 ‘持續imperfective’의 相 意味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묘출토간찰」(16세기 말)에서 40여 개로 총 60여 개가 발견되는데(정언학 2002가, 나), 아래 (6)에서와 같이 ‘-고 있다’ 구성은 타동사와만 결합하고, ‘결과상태 지속, 반복 지속’의 의미를 지니며, 과정 지속(=진행)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순언』의 다양한 예에서도 ‘-고 있다’ 구성은 결과상태 지속과 긴 시간폭의 반복 상황에 대한 상태 지속 및 반복지속의 의미로 쓰였고, 짧은 시간 폭의 단일 상황에 대한 과정 지속(=진행)으로 사용된 용례는 없다.

- (6) 가. 門 밖과 가개 짓고 이셔 아츰미어든 드러 뜰에질헝거늘 (삼강, 효 7)
- 나. 그위실 아니헝고 늬 글 그르치고 이셔 (삼강, 효 15)
- 다. 뒷 가식 서리에 수머서 草木 먹고 잇거늘 (삼강, 열녀 19)
- 라. 내 유무 보고 점그도록 올오 인노라 (順諺, 71)
- 마. 沙門이 도흔 음담 먹고 ... 도흔 香 피우고 잇거니 貪欲이 언제 업스료 (석보 23, 26)
- 바. 내 지비 이셔 ... 막다히를 두르고 이셔도 두립더니 (석보 7, 5)
- 사. 내 宮殿에 드러 ... 도흔 차반 먹고 이쇼대 (석보 24, 28)

(6가)는 결과상태 지속, (6나, 다, 라)는 반복 지속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의미가 ‘진행’의 의미가 아님은 ‘남에게 글을 가르치는 중이어서, 초목을 먹는 중에 있거늘, 우는 중이노라’의 의미가 아닌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6다)를 직관적으로 보아 단일 상황에 대한 ‘진행’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지만, (6다)는 반복 상황에 대한 반복 지속의 의미이다.

전통적 논의에서 (6마, 바, 사)의 예를 들어 ‘진행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기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들로 역시 결과상태 지속 또는 반복 지속의 의미이다. 이들을 진행상으로 기술한 것은 문법상의 개념 구분이 세분화되지 못한 단계의 기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대국어와 개화기 국어에 관하여, 정언학(2004)에서는 국어사 말뭉치 자료를 통해 17~20세기 초의 ‘-고 있다’ 구성 1,100여 용례(토큰)가 검토되었다. 이 중 70여 개가 17, 18세기의 것이고, 나머지는 19세기 초 이후의 것이다. 15, 16세기에는 연결어미 ‘-고’가, 용언 어간 말음 ‘ㄹ’과 ‘y’ 뒤에서 이형태 ‘-오’를 가졌으나, 17세기 근대국어에서는 ‘-고’로만 실현된다. 이러한 형태론적 단일화는 ‘-고 있다’ 구성의 분포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있다’ 구성의 변화는 개화기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누어진다. 17, 18, 19세기 중엽까지의 ‘-고 있다’ 구성은 중세국어와 표면적으로 그 기능에서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 준다. 현대국어와 같은 짧은 시간 폭의 단일 상황에 대한 ‘진행’의 의미로 사용된 예가 없다. 자동사와 ‘-고 있다’ 구성이 결합된 예도 찾을 수 없다.

다만, 아래 (7)에서와 같이 18세기 말에 확인되는 ‘-고 있다’ 구성의 몇 용례가(「三譯總解」(1774)에서만 4개) 짧은 시간 폭의 중의적 문맥에서 ‘결과상태 지속’ 또는 ‘진행’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후 이러한 예는 19세기 중엽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7)과 같은 예로 보아 ‘진행’의 ‘-고 있다’ 구성의 출현은 검토되지 않은 자료가

연구된다면 19세기 말보다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 (7) 孔明이 속으로 ... 이 일이 이로리라 하여 심각하고 이실 제 孫權이 차 가져오라 하여 가져오다
(三譯 3, 4)

19세기 말에는 아래 (8)과 같이 ‘진행’ 또는 ‘반복 지속’의 중의적 의미를 지닌 것이 드문 편이지만 상당수 발견되기 시작한다. 물론 (8가)는 19세기 초 혹은 그 이전까지로 그 연대가 더 소급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 많은 자료가 검토되어야 한다.

- (8) 가. 무슨 말을 하라관디 움질움질 # 하고 잇노 (신재효관소리사설 2, 532)
나. 성전에서 성경을 문답하고 잇시면 (신학월보 4, 142)

아래 (9)와 같이 20세기 초의 신소설 자료에 가면 짧은 시간 폭에 대한 분명한 진행의 예가 많이 발견된다. ‘-고 있다’ 구성이 자동사와 통합한 경우의 예도 20세기 초에 몇 개가 발견된다. 따라서 ‘진행’의 ‘-고 있다’ 구성의 분명한 확립은 20세기 전후라고 할 수 있다.

- (9) 가. 신문을 보고 잇든 왕 부장은 (두견성, 110)
나. 썬의 풀을 뽑고 잇는다 (두견성, 102)
다. 아즉 시간이 못되엿기 기들느고 잇는 줌이오 (목단화, 545)

중세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은 공통의 의미로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결과상태 지속의 ‘-고 있다’ 구성은 타동사만을 선행시켰는데, 같은 결과상태 지속의 ‘-어 있다’ 구성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타동사를 선행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10)의 예들은 현대국어에서 모두 ‘-고 있다’ 구성으로 대체되었다. 이 대체의 과정은 근대국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10나, 다, 사, 아, 자) 등은 현대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으로 바뀌면 모두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예에서 역사적으로 ‘-어 있다’ 구성의 타동사 영역이 같은 의미를 지닌 결과상태 지속의 ‘-고 있다’ 구성에 의해 잠식당한 것을 알 수 있다. (10)의 나머지 예들은 ‘-고 있다’ 구성으로 바뀌면 반복 지속이나 진행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예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더 진행되어야 한다.

- (10)가. 眷屬과 晝夜애 조차 되셔 겨실썩 (능엄7, 29)
나. 初禪三天은 네 天下를 두퍼 잇고 (月釋 1, 35)
다. 閻浮提人 八萬 四千 나라홀 가져 잇더니 (釋詳 24, 10)
라. 化佛마다 五百化菩薩와 無量諸天을 드려 잇고 (월석)
마. 眞에 보물 니르와다 서르 기드려 이시니 妄念의 브툼 고디라 (永嘉 上, 78)
바. 썬 블근 머지 여름 밭갓거를 어미 디리여 이시라 흔대 (翻小 9, 25, 1518)
사. 아비 아드리 흔디 주그면 집사르미 누를 의지호야 이시료 (三綱동경 忠, 31, 15--)
아. 이 하덤에 내 아리 흔두 번 든년마룬 다 니즈니 어디 심각호야 이시리오 (翻老 上, 60)

자. 님은 모르셔도 나는 님을 미더 이셔 (自悼詞)

아래 (11가~바)의 예는 결과상태 지속의 ‘-어 있다’구성이고 (11가~바)은 같은 의미의 ‘-고 있다’ 구성의 예인데, 각각의 대응쌍이 실제로 중세국어 및 근대국어에서 확인되는 것들이다. 이런 (11)의 대응 예에서 ‘-어 있다’ 구성의 타동사 영역에서의 분포 축소 및 소멸은 결과상태 지속의 ‘-고 있다’ 구성에 의한 대체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1)가. 善慧 니버 잇더신 鹿皮 오솔 바사 짜해 식르시고 (月釋 1, 6)
 가'. 내 니블 일도 계오 싱각히 늑미 히여 주어사 넙고 이시니 (順諺, 59)
 나. 부모 상스 만나 무덤의 집 지어 잇기를 삼 년을 호고 (東國 孝 3, 82b)
 나'. 門 밧기 가개 짓고 이셔 아츰미어든 드러 붙에질흐거늘 (삼강, 효 7)
 다. 어미 업슨 샷기 주리며 치워 나날 우러 잇는가 전노라 (杜重 17, 1, 1632)
 다'. 네 유무 보고 점그도록 올오 인노라 (順諺, 71)
 라. 化佛마다 五百化菩薩와 無量諸天을 드려 잇고 (월석)
 라'. 부테 왕샤성의 데즈 삼만 팔천 드리고 겨시더니 (恩重經, 1)
 마. 님은 모르셔도 나는 님을 미더 이셔 (自悼詞)
 마'. 쉬이 히여 보내여라 너히 형대를 밧고 인노라 (順諺, 21)
 바. 아버 아드리 혼디 주그면 집사르미 누를 의지호야 이시료 (三綱동경 忠, 31)
 바'. 옛그제 보내고 선그미를 내 모뎨 의지호고 인노라 (順諺, 41)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고 있다’ 구성이 ‘진행’ 범주로 문법화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상태 지속의 ‘-고 있다’ 구성이 분포를 확대하는 것은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진행된 ‘-어 있다’ 구성의 분포 축소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음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래 도표에서 음영 부분은 역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술은 더 많은 자료의 검토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

의미	시기	중세국어 (15~16C)	근대국어 (17~19C)	현대국어 (20C~)
	선행 용언			
결과상태 지속	자동사	-어 있다	-어 있다	‘-어 있다’의 일부
	타동사	-어 있다 -고/오 있다	-어 있다 -고 있다	× -고 있다
과정 지속 (=진행)	자동사	×	×	-고 있다
	타동사	×	(-고 있다)	

15세기 중엽부터 5세기에 걸친 ‘결과상태 지속’의 ‘-어 있다’ 구성과 ‘-고 있다’ 구성의 상호 연계적 변화는 타동사 영역에서의 ‘-어 있다’ 구성의 소멸과 같은 타동사 영역에서의 ‘-고 있다’ 구성의 분포 확대로 정리된다. 그리고 ‘-고 있다’ 구성의 분포 확대

과정에서 ‘과정 지속’(=진행)이라는 새로운 의미 범주가 문법화되었으며, 이 의미 범주의 ‘-고 있다’ 구성은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에 통합되는 분포를 지니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 있다’ 구성의 진행 의미로의 변화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일이다. 그런데 ‘잇-/이시-’의 ‘있다’로의 변화와 ‘-엇-/어시-’의 ‘-엇-’으로의 변화도 이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18세기와 19세기 중엽에서의 변화 과정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자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⁶⁾

4. 결론

참고문헌

- 고영근, 1981/1998 보정판,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탑출판사.
고영근, 2004, 『한국어니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박영준, 1998. “형태소 ‘-엇-’의 통시적 변천”, 『한국어학』(한국어학회) 제8집. 67-88.
박종후, 2016, “보조용언 ‘있다’의 결합 제약과 상적 의미 해석 -본용언의 개념구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학』(국어학회) 77.
박진호, 1994. “중세 국어의 피동적 ‘-어 잇-’ 구문”, 『주시경 학보』(주시경연구소) 13.
박진호, 2003.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 양상”,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진호, 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국어학회) 60.
손세모돌, 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이기갑, 1981가. “15세기 국어의 상태지속상과 그 변천”, 『한글』(한글학회) 173, 174(어우름).
이기갑, 1981나. “씨끝 ‘-아’와 ‘-고’의 역사적 교체”, 『어학연구』 17-2.
이동혁, 1998. “근대국어의 보조용언”, 홍종선 엮음,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이승욱, 1973. 『국어문법 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이승욱, 2001. “문법화의 단계와 형태소 형성”, 『국어학』(국어학회) 37.
이현희, 1991. “국어문법사 기술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국어사 논의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장윤희, 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정언학, 2000. “15세기 국어 ‘시-’에 대한 재고”, 『국어학』(국어학회) 36.
정언학, 2002가, 『중세 국어 보조 용언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언학, 2002나. “‘-고 있다’ 構成의 文法化에 대한 通時的 研究”, 『진단학보』(진단학회) 94.
정언학, 2003. “中世國語 ‘-어 이셔 > -에서 > -어서’의 文法化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한국어문교육연구

6) 고려 가요의 ‘ㅎ고시라’형은 전통적 논의에서 ‘ㅎ고#시라’의 구 구성으로 보고 이 구성의 ‘-고 시라’는 ‘-고 있다’와 같은 의미를 지닌 구성으로 보고 그 의미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고려 가요의 ‘ㅎ고시라’형은 ‘ㅎ-고(願望)-시(주체 높임)-라’로 볼 수 있다. 장윤희(2002: 244)에서도 ‘ㅎ고시라’형을 명령형 어미 ‘-고라’의 중간에 주체 높임의 ‘-시-’가 개재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거기에서는 ‘ㅎ고#시라’ 구성일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회) 120.

정언학. 2004. “-고 있다’ 구성에서의 ‘진행’ 의미 발전 양상”, 『어문연구』(어문연구학회) 44.

정언학. 2006가. 「상 이론과 보조용언의 역사적 연구」, 탑출판사.

조항범(1998), 『註解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최동주. 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명옥. 2002. “過去時制 語尾의 形成과 變化”, 『진단학보』(진단학보) 94.

한동완. 1986. “과거시제 ‘있’의 통시문적 고찰”, 『국어학』(국어학회) 15.

허 응.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허 응. 1977.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국어 때매김법의 변천”, 『세림 한국학 논총』 제1집, (허 응 1987, 「국어 때매김법의 변천사」에 재수록, 샘문화사)

허 응. 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Klein, Wolfgang(1994), *Time in Language*, Routledge.

Smith, Carlota. 1991.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어/고 있다’ 문법화 연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황선엽(서울대학교)

이 글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대상으로 ‘-어/고 잇-’ 구성의 양상과 변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어 잇-’ 구성이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로 문법화한 것과 ‘-어 잇-’의 기능 축소와 ‘-고 잇-’의 기능 확대에 대한 논의는 국어 문법사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였으므로 선행 연구도 많고 논의도 복잡하여 이 짧은 글에서 충분히 논의하기 무리가 있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비교적 핵심적인 쟁점들을 뽑아 간명하게 정리해 주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토론자는 이 주제에 대해 평소 깊이 천착하지 않았던 까닭에 이 글에 정리된 내용들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 제기를 할 만한 형편이 아니다. 이에 이 글을 읽고 떠오른 단상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려 한다.

우선 2.1에서 자유변이 관계로 보느냐, 세 형식을 각기 다른 문법화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느냐 하는 입장의 차이를 구체적인 예를 바탕으로 좀더 소상히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서는 두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예들에서 그 입장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이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논문의 완성 과정에서 보완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보다 주의를 기울여 보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여 둔다.

2.2도 마찬가지로인데 “형용사 일반과 결합한다고 기술한 기존 논의는 위에서 말한 1단계형, 2단계형과 결합한 형용사까지 결합 범위에 포함시킨 기술이다. 자료를 보는 견해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를 바탕으로 좀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듯하다.

3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를 조금 더 고려하면 어떨까 한다.

- (6) 가. 門 밧긔 가개 짓고 이셔 아츰미어든 드러 뜰에질흐거늘 (삼강, 효 7)
- 나. 그위실 아니흐고 늣 글 꺾치고 이셔 (삼강, 효 15)
- 다. 뵈트 가식 서리에 수머셔 草木 먹고 잇거늘 (삼강, 열녀 19)
- 라. 네 유무 보고 점그도록 울오 인노라 (順諺, 71)
- 마. 沙門이 도흔 음담 먹고 ... 도흔 香 피우고 잇거니 貪欲이 언제 업스료 (석보 23, 26)
- 바. 내 지비 이셔 ... 막다히를 두르고 이셔도 두립더니 (석보 7, 5)
- 사. 내 宮殿에 드러 ... 도흔 차반 먹고 이쇼대 (석보 24, 28)

(6)의 예문들에서 (6가)는 결과상태 지속, (6나, 다, 라)는 반복 지속, (6마, 바, 사)도 결과상태 지속 또는 반복 지속의 의미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은 공통의 의미로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결과상태 지속의 ‘-고 있다’ 구성은 타동사만을 선행시켰는데, 같은 결과상태 지속의 ‘-어 있다’ 구성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타동사를 선행시키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였다. 실제 예에서는 결과상태 지속과 반복 지속을 구분하였으나 논의에서는 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같이 언급하고 있

다. 또한 2.1에서는 “중세국어의 ‘-어 있다’ 구성은 결과상태 지속을 기본 의미로 하여 파생 의미인 반복 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결과상태 지속’이 기본적이고 여기에서 ‘반복 지속’이 파생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결과 상태의 지속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박종후(2016: 158)의 견해를 가져와 보기로 한다.

(16) 관점상에 의한 상적 의미의 재해석

① [EVENT [x ACT ON y] CAUSE [BECOME [y BE AT-z]]]

ㄱ. 철수는 주말마다 한국 요리를 만들고 있다. → 사건의 반복 ⇒ [반복]

ㄴ. 영희는 요즘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 → 사건의 지속 ⇒ [습관]

② [x ACT] CAUSE [BECOME [y BE AT-z]]

ㄱ. 철수는 지금 한국 요리를 만들고 있다. → 동작의 지속 ⇒ [진행]

③ [x ACT] CAUSE [BECOME [x BE AT-y]] → 결과의 지속 ⇒ [결과상태]

ㄱ. 아이가 학교에 가 있다.

(18)

ㄱ. 철수가 천천히 옷을 입고 있다. → 동작의 지속 [진행]

⇒ [x ACT ON y] CAUSE [y BECOME [y BE AT-x]]

ㄴ. 철수가 열흘째 같은 옷을 입고 있다. → 결과의 지속 [결과상태]⁷⁾

⇒ [x ACT ON y] CAUSE [BECOME [y BE AT-x]]

(19)

철수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x ACT] CAUSE [BECOME [y BE INSIDE-x]] → 결과의 지속 ⇒ [결과상태]

박종후(2016)에서는 위와 같이 세 가지 의미를 구별하였는데 (6)에 나타난 예들은 모두 (16)① ㄱ이나 (16)①ㄴ에 해당한다. 즉 (18)ㄴ, (19)와 같은 의미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와 같이 (16)①ㄴ의 용법을 결과상태 지속이라 부른다 하더라도 15세기 문헌에서 (18)ㄴ, (19)와 같은 의미로 쓰인 예가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좀더 다양한 예를 보기 위해 정언학(2002나: 172)의 것을 가져와 보인다.

정언학(2002나)에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고 잇-’ 구성은 삼강행실도의 9개 예를 제외하면 위의 것이 전부라고 한다. 이 중 (1라)~(1마)의 예들은 혹 (18)ㄴ의 예로 파악할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1라)는 ‘[[[雪山寶窟에 드르샤] [火禪定에 드르샤] [큰 光明 펴고]] 겨시거늘]’의 구조로 파악할 수도 있다. (1마) 역시 ‘六牙白象 특시고 空中에 겨시거늘’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언학(2002나)에서도 ‘이들 예문은 모두 접속 구성과 구별이 모호’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1바)는 “魔王이 더 怒호야 十八億兵馬를 모도니 變호야 獅子]며 고미며 나비며 ㅅ야미며 온가짓 양지 ㅅ외며 불도 ㅅ호며 ㅅ도 메며 ㅅㅅ게 호며 ㅅ잡개 가져 ㅅ薩 ㅅㅅ

7) 이 문장은 (16)①ㄴ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열흘째 옷을 벗지 않고 계속 입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예인 듯하다.

(1) 가. 善容이 너고더 梵志들이 苦行을 더리호요더 煩惱를 못 떠러버리거니 沙門이 豆餠 음담 먹고 豆餠 平床 우회 웃도 모습 난 조초 7라 넙고 豆餠 香 뛰우고 잇거니 貪欲이 언제 업스료 하더니 (釋譜 23, 26)

나. 내 지피 이셔 상네 環刀이며 막다하롤 두르고 이셔도 두립더니 (釋譜 7, 5)

다. 王이 親히 가 무로더 네 내 옷 넙고 내 宮殿에 드러 내 풍류바지 드리고 豆餠 차반 먹고 衣소디 엇데 못 들고 못 보노라 하논다 (釋譜 24, 28)

라. (弗沙佛이) 雪山寶窟에 드르샤 火禪定에 드르샤 큰 光明 펴고 겨시거늘 釋迦菩薩이 藥 키라 가 보스닐시고 깃스닐며 信하며 恭敬하샤 (月釋 1, 52)

마. 普眼이 又 호 念 니르와드시니 곧 普賢이 空中에 六牙白象 튼시고 겨시거늘 보스오시니라 (南明 상, 73)

바. 菩薩이 慈心으로 호 터럭도 무우디 아니코 겨시니 빛난 양지 더욱 豆餠시니 (月釋 4, 8)

사. 手足을 배터늘 仙人이 아므라토 아니코 겨시거늘 王이 荒唐히 너겨 무쯔보디 (月釋 4, 66)

菩薩이 慈心으로 호 터럭◆ 무우디 아니코 겨시니 빛난 양◆◆◆ 豆餠시니 <월석 4: 8ab>”와 같은 문맥에 쓰인 것으로 (18L)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16)①L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1사)는 “王이 닐오디 그러면 凡夫|로다 호고 環刀 싸혀 仙人스 手足을 배터늘 仙人이 아므라토 아니코 겨시거늘 王이 荒唐히 너겨 무쯔보디 네 날 ◆하야 측하니여 <월석 4: 66b>”와 같은 문맥에 쓰인 것인데 (18L)의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접속 구성의 가능성도 있다.

삼강행실도의 예들도 마찬가지이다.

(2) 가. 門 밖과 가개 짓고 이셔 아츨미어든 드러 뜰에질하거늘 아비 怒하야 쏘 내조춘대 ㅁ술히 가개 짓고 이셔 아츨나조히 오더니 (三綱, 孝 7)

나. 그 아비 죽거늘 못 머금도 아니 먹고 하 우리 호마 죽게 드외야 섧거적 ㅁ오 이셔 三年을 소고물 먹디 아니호대 (三綱, 孝 14)

다. 王稔| 슬허 그위실 아니호고 늙 글 7르치고 이셔 넘그미 세 번 브르시며 宰相이 닐굽 번 불러도 다 아니 오고 (三綱, 孝 15)

라. 若水| 밥 아니 먹고 잇거늘 늙미 닐오디 오늘 順從호면 來日 富貴호리라 (三綱, 忠 18)

마. 李氏 두 아들 더블오 뒗 가시 서리에 수머셔 草木 먹고 잇거늘 元士 兵馬| 자괴 바다 피 해 가아 出令호디 (三綱, 烈女 19)

바. 같호로 튜려 하여늘 蘇武| 아므라토 아니코 잇거늘 큰 구데 가도고 飲食 아니 주더니 蘇武| 눈과 시욱과 먹고 잇거늘 北海스 7새 보내야 닐오디 (三綱, 忠 6)

사. 使者| 門 밖과 오래 서아 이셔 龔勝이 나와 마자 들와디 하더니 龔勝이 病 되요라 호고 잇거늘 使者| 璽書 맛디고 나사 드러 닐오디 (三綱, 忠 8)

아. 官屬이 降호라 勸하거늘 對答 아니호고 잇더니 이튼 나래 도즈기 ㅁ| 사름 브려 달앤대 (官屬勸降 開口不答~) (三綱, 忠 21)

자. 같호로 튜려 하여늘 蘇武| 아므라토 아니코 잇거늘 큰 구데 가도고 飲食 아니 주더니 蘇武| 눈과 시욱과 먹고 잇거늘 北海스 7새 보내야 닐오디 (三綱, 忠 6)

(2가)~(2바)는 (16)①L의 의미이며 (2사)~(2자) 정도만 (18L)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정언학(2002L)에서는 접속 구성에 가까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15세기 국어에서 ‘-아 잇-’은 (16)③과 (18L)의 결과상태 지속에 모두 쓰였으나 현대로 오면서 (18L)에는 쓰이지 않게 되었고 ‘-고 잇-’은 (16)①L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18

ㄴ)으로 쓰인 예는 적거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점차 (18ㄴ)의 기능을 ‘-아 잇-’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듯하다.

마지막으로 “(8)가. 무슨 말을 하랴관디 오질오질 ” 헝고 잇노 (신재효판소리사설 2, 532)”에 대하여 “물론 (8가)는 19세기 초 혹은 그 이전까지로 그 연대가 더 소급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 많은 자료가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신재효 판소리 사설은 19세기 후반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왜 이렇게 설명하였는지에 대한 보완(가령 노래 가사의 보수성 등)이 필요할 듯하다.

중세·근대 ‘뜨리다’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전망

이병기(한림대학교)

-목차-

1. 서론
2. ‘뜨리다’의 문법 범주
3. ‘뜨리다’의 결합 유형
4. ‘뜨리다’의 기원 형태
5. ‘뜨리다’의 문법화 과정
6. 결론

1. 서론

이 논문은 “중세-근대 국어 보조용언 연구의 쟁점과 과제”라는 기획 주제의 한 분야로서 ‘뜨리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⁸⁾ ‘뜨리다’는 보조용언으로 문법적 위상이 확실하지 않지만 구 및 합성동사 구성, 보조용언, 접미사 등의 문법 범주와 관련하여 동사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으며 의미적으로도 강세(강조), 타동, 사동, 완료 등 여러 의미에 걸쳐 있다. 또한 ‘뜨리다’는 ‘디다’, ‘부리다’, ‘들다’ 등 다른 보조 용언 및 강세 접사 ‘-티(치)-’ 등과 계열 관계 및 유의 관계를 가지며 보조용언으로 발달하였기에 이에 대한 고찰은 국어사적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세, 근대의 여러 보조용언 중에 ‘뜨리다’가 다른 보조용언과 구분되는 점이라면 의미적으로 “강세(강조)”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과 형태 및 문법적으로 대응하는 본용언이 따로 없고 여러 문법 범주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강세(강조) 보조용언은 김영신(1998: 31)의 설명에 따르면 음운적, 형태적, 어휘적 층위의 강조 표현들과는 달리 한 단어에 강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본용언의 의미 정도가 큼을 직접적으로 강조해 주면서 동시에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평가 태도를 나타내 준다.” 이러한 강세 보조용언으로 주로 언급한 형태는 ‘쌓다/대다, 빠지다/터지다, 버리다/치우다, 제치다’ 등이었다. 그리고 ‘뜨리다’는 보조용언으로서라기보다는 선행 동사에 강세를 두는 접사로서 접근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의미적인 접근으로 ‘강세(강조) 보조용언’을 다루기보다는 문법적으로 ‘뜨리다’의 범주적 특성과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뜨리다’와 관련하여 그간의 연구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역시 문법 범주가 무엇이나에 관한 것이었다. ‘뜨리다’의 문법 범주를 한정하기 위하여 선행 동사와의 분포적 특성과 계열 관계에 있는 형태들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고 어떤 동사에서부터 문법화하였는지, 즉 ‘뜨리다’의 기원을 추적하는 논의들도 여럿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음화와 유기음화와 관련한 음운론적 설명, 역시 홀로 본용언으로 쓰일 수 없는 선행동사에 대한 설명 등에서도 쟁점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뜨리다’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고 ‘뜨리다’의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8)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결합할 때 연결어미가 개재한다. 그러나 ‘뜨리다’는 연결어미가 개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결합도 보이며 학교문법이나 사전에서 접미사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어 뜨리다’나 ‘-뜨리-’ 대신 ‘뜨리다’로 지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논문에서는 ‘뜨리다’만으로 ‘뜨리다’를 아울러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해하고자 한다.

2. ‘뜨리다’의 문법 범주

‘뜨리다’의 문법 범주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현대국어 공시적인 범주에 대한 학교 문법적인 논의 외에도 역사적 발달 과정을 염두에 둔 논의도 있어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중세, 근대의 ‘뜨리다’에 대한 연구 쟁점과 전망에 대한 논의이지만 현대국어의 문법 범주가 근대 중세로 이어지므로 현대국어 ‘뜨리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가. 접미사

<표준>⁹⁾ 비롯한 현대국어 여러 사전에서는 ‘뜨리다’를 강조, 강세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로 기술한다. 그리고 2010년 간행된 <고대>에서는 ‘동작의 강조’ 외에 ‘동사의 동작을 하도록 함’의 뜻을 다의어로 두어 풀어 풀이하지만 역시 ‘강세 접미사’의 범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현배(1937)에서 ‘강세보조어간’으로 설명한 이후 대부분의 전통문법에서 강세접미사로 설명하고 사동이나 타동의 기능도 가진다고 설명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최현배(1937/1971: 362)에서는 ‘-치-, -뜨리(떠리, 트리)-’를 ‘힘줌 도움줄기(強勢補助語幹)’로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1937/1971)에서 ‘도움줄기’는 사동, 피동 접사는 물론 높임이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어말어미가 결합하는 모든 부분을 ‘줄기’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¹⁰⁾ 따라서 ‘도움줄기(補助語幹)’는 ‘보조용언(도움 움직씨)’과는 다른 개념이지만¹¹⁾ 접미사(뒷가지)와 선어말어미와는 그 구성 요소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¹²⁾

사동과 타동화의 기능으로 본 견해는 이경우(1981)과 송창선(1998)이 대표적이다. 이경우(1981: 242-3)에서는 다의성을 가지는 ‘떨다’나 ‘넘다’의 경우 각각의 의미에 ‘뜨리다’가 결합하여 강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떨어지게 하다”, “쓰러지게 하다”라는 완

9) 편의상 『표준국어대사전』을 <표준>으로 나타낸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역시 <고대>로 나타낸다.

10) 최현배(1937/1971: 349-365)에서는 도움줄기를 크게 10가지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통합 순서에 따라 7개 부류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하임 도움줄기(이, 리, 우, 기, 히), 힘줌 도움줄기(치, 뜨리, 트리), ②입음 도움줄기(히, 기), ③높임 도움줄기(으시), ④때 도움줄기(는, 니, 겠, 리, 앓, 었), 할수 도움줄기(겠), ⑤미룸 도움줄기(겠), 버릇 도움줄기(것), 다짐 도움줄기(것), ⑥낮춤 도움줄기(으옵, 으오, 읍, 자옵, 자오, 잡, 사옵, 사오, 삽, 습), ⑦도로생각 때 도움줄기(더)

11) 최현배(1937/1971: 403)에서 ‘힘줌 도움 움직씨(강세보조어간)’로 ‘쌍다’와 ‘대다’를 두었다.

12) 최현배(1937/1971: 672, 679)에서는 ‘풀이씨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하는 뒷가지’에서 ‘풀이씨의 여러 가지의 도움줄기(시, 앓, 겠, 더 …….)’는 다 여기에 딸린 것’이라 설명하고, ‘풀이씨 뒤에 붙어서 그 감목(資格)을 바꾸는 뒷가지’에서 ‘밝히다, 붉히다; 갓후다(가추다), 낮후다(낮추다)’ 등에서의 ‘히’, ‘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이 ‘히’, ‘후’에 대하여는 ‘도움뿌리’에 속한다는 설명이 언급되어 있어서 도움줄기, 도움뿌리, 뒷가지 등이 서로 외연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그 상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따로 필요하다.

전히 다른 의미를 나타내므로 강제 접미사가 아닌 “使役”의 기능을 가지는 접미사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송창선(1997, 1998ㄱ, ㄴ)에서는 ‘V-어 드리-’형이 ‘V’에 ‘-어 드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V-어 지-’형에서 계열적으로 ‘드리’가 ‘지’를 대치하여 사동 및 타동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이승재(1992: 68)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던 사항이다. ‘기울어뜨리다, 기울어지다’처럼 “-어뜨리-’가 통합된 어형은 ‘-어지-’가 통합된 어형의 타동 혹은 사동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간 혹은 어근에 직접 통합되는 ‘-드리-’는 강세의 의미만을 가지지만, ‘-아/어-’ 다음에 통합되는 ‘-뜨리-’는 강제 뿐만 아니라 타동 혹은 사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영근(1989: 508)에서도 역시 이러한 종류의 ‘-뜨리-’에 대해 ‘強勢’의 의미보다는 ‘他動性’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교적 최근 논의인 정주연(2013) 역시 ‘뜨리다’의 다양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접미사로 문법화되었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접미사로 보는 견해에서 제일 걸림돌은 ‘뜨리다’에 보조용언에 선행하는 연결어미 ‘-아/어’가 선행한다는 것이다. 사실 다른 전형적인 접미사 중에도 ‘기뻐하다, 바뀌치다, 커다랗다’ 등과 같이 ‘아/어’형과 통합하는 경우가 있는데(이현희 2009: 178-9 참조), 이들을 접미사로 보는 논의에서는 이들 접미사가 동사에서 문법화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은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현대국어 ‘뜨리다’에 대하여 그 분포에 따라 여러 문법 범주를 대응하기도 한다.¹³⁾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논의에서와 같이 아예 다른 범주의 가능성을 제안하기도 한다.

나. 보조용언

‘뜨리다’를 보조용언으로 한정하는 견해는 접미사로 보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뜨리다’를 보조용언으로 보는 경우와 일부 환경에서의 ‘뜨리다’를 보조용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김양진(1997: 2)에서는 현대 국어의 ‘하다, 되다’가 체언 구성의 뒤에 쓰일 때, 단어 합성의 단계에서 접사화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어, -게’의 구성 뒤에서는 보조 용언으로 인식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어’ 구성과 함께 쓰인 ‘지다, 뜨리다’는 보조 용언으로 보고, ‘-어’ 구성과 함께 쓰이지 않고 체언의 뒤에 직접 결합된 ‘지다, 뜨리다’는 합성의 구성 부분으로, 용언의 어간 뒤에 직접 결합된 ‘지다, 뜨리다’ 역시 어간 합성으로 형성되었던 것이 공식적인 생산성이 상실되면서 접사로 재해석되었다는 견해를 취한다. 그리고 김양진(1997: 7)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지다’와 ‘뜨리다’를 성격에 따라 세분한 뒤 ‘-어 지-’의 구성에서 “선행 동사로부터 예측되는 결과가 어떤 외부 작용의 결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루어지다”의 의미를 갖는 경우나(지다3, 깨 지다)¹⁴⁾, ‘-어 드리-’의 구성이 “선행 동사로 인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다”의 의미를 강조적으로 표현할 때에만(뜨리다2, 깨 뜨리다)¹⁵⁾ 진정한 보조 동사로 인정되며 이때에는 띄어 써야 한다고 하였다. 즉 선행 동사의 의미를 상태 변화의 입장에서 피동적 상황과 사역적 상황을 각각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본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김창섭(1996) 역시 ‘지다’와 ‘뜨리다’를 그 의미와 분포에 따라 세분하고 이에 따라 범주도 다르게 이해하였는데 ‘지다’를 모두 동사 ‘디다(落)’에서 온 것으로 본 것이 다르고 ‘밝아 지다’와 같이 형용사 뒤에 결합하여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의 ‘지다’만 보조용언으로 보고 나머지 ‘지다’와 ‘뜨리다’는 ‘단어형성전용요소’로서 다르게 파악하였다. 즉 ‘뜨리

13) 이에 대하여는 ‘뜨리다’의 결합 양상을 고찰하는 장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14) (19) ① 깨(어) 지다, 꺾(어) 지다, 꺼 지다, 끊어 지다, 내(어) 지다, 밀어 지다, 뺀어 지다, 어지러 지다, 찢어 지다, 풀어 지다, ...

15) ② 깨(어) 뜨리다, 꺾(어) 뜨리다, 꺼 뜨리다, 끊어 뜨리다, 내(어) 뜨리다, 밀어 뜨리다, 뺀어 뜨리다, 어지러 뜨리다, 찢어 뜨리다, 풀어 뜨리다, ...

다'가 '지다'와 짝이 되는 경우라도 접미사의 성격이 강한 '단어형성전용요소'로 보았다.

이병기(2008)에서는 '뜨리다'를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동사의 연결형과 결합하는 경우나 동사 어간에 직접 결합하는 경우나 모두 보조어간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였다. 이는 동사 어간의 유리성을 강조하여 중세 국어 강제 접사로 분류되던 형태를 실제로 동사 어간으로 볼 수 있으며 강조의 문법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보조용언으로 볼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이병기(2008)에서 고찰한 '강세접미사' 중 특히 '티(치)다', '디르다' 등은 '뜨리다'와 선행동사를 공유하여 계열적 관계에 있는데 중세국어 단계에 '뜨리다'가 동사 어간이나 연결형에 결합하고 의미가 탈색된 예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보조용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하여는 결합 유형 및 '뜨리다'의 기원 형태에 대한 논의에서 좀더 상술하기로 한다.

'뜨리다'를 보조용언으로 보는 데 주저하게 되는 것은 '뜨리다'가 본용언으로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보조용언 '쌓다, 대다, 버리다' 등과는 달리 다른 동사와의 결합에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조용언 '싫다' 역시 본용언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쌓다, 대다' 등도 본용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의미적 유연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동사로서의 존재는 보조용언의 판단 기준에 필수적이지 않다. 그리고 '생산성'에 있어서도 새로운 결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양진(1997)에는 '움츠러뜨리다, 쭈그러뜨리다'와 구분되는 '움츠러 뜨리다, 쭈그러 뜨리다' 예가 등장. 이들은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 예들로 '뜨리다'가 특정 의미 부류의 동사에는 보조용언으로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뜨리다'가 보조동사임을 부정하는 함희진(2007:385)의 논의에서도 '영희는 눈덩위를 산 위로 굴렸다(*굴러뜨렸다)'에 대해서 '뜨리다' 결합 합성동사가 <하강>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산 위로'라는 부사어와 '굴러뜨리다'가 공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굴러뜨리다'는 <표준> <고대>에도 등재되지 않았고 '굴러뜨리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뜨리다'에 대한 직관은 '뜨리다'의 생산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띄어쓰기나 휴지의 개입 등은 규범이나 학교 문법의 방향에 따라서 직관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떨어는 뜨렸다/떨어~ 뜨렸다'와 같이 어근 분리와 휴지 개입 여지가 있다는 점도 '뜨리다'를 보조용언으로 보는 견해를 지지한다.

다. 준접미사

'뜨리다'가 접미사의 성격과 보조용언의 성격을 일정 정도 공유하기 때문에 이 두 범주의 중간 범주를 새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고영근(1972/1989: 509, 591)는 '-뜨리다'가 대부분 부사형을 매개로 하여 통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동사 성격을 가지지만 통합어근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특히 '퍼뜨리다'가 아니고 '퍼뜨리다'인 것을 중시) 의미적으로 "타동성:자동성"의 대립을 가지는 '-지다'와 함께 '준접미사'로 볼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둘에도 차이가 있어서 '-뜨리다'는 어근이 제약적이어서 접사임에 틀림없지만 '-지다'는 동사나 형용사에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어서 조동사적¹⁶⁾ 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설명한다.

라. 합성동사의 후행 동사

'접미사'나 '보조용언'이 '뜨리다'에 대하여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라면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여 합성동사의 후행 동사로 파악한 논의도 있다.

16) 이 논의에서 '조동사'는 보조용언으로서 후술할 박진호(2010)의 '조동사'와는 다르다.

함희진(2007:374-6)에서는 ‘뜨리다’가 동사적 요소임을 전제한 뒤 ‘*놓아 뜨리다, *놀라 뜨리다, *먹어 뜨리다’ 등과 같이 선행 동사에 제약이 있고 ‘아이를 넘어뜨렸다/아이를 넘었다’에서와 같이 ‘뜨리-’를 제거하면 그 의미가 달라지거나 비문이 된다는 점에서 ‘뜨리다’가 보조 동사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뜨리다’의 어휘적 의미를 <하강>, <분리>, <감소> 등으로 분석한 뒤 ‘합성동사의 제2동사로서 어근’ 즉 합성동사의 후행동사로 보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비판은 결합 양상을 고찰하는 자리에서 하기로 한다. 물론 ‘뜨리다’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라고 한다면 합성동사의 후행동사라는데 동의하기 어렵지만 ‘뜨리다’ 결합어를 합성동사로 이해하여야 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일깨워 준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어찌보면 다음 김창섭(1996) 논의를 더욱 발전시킨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마. 단어형성전용요소

김창섭(1996: 103-111)은 ‘지다’(落)가 역사적으로 소극화와 유연성의 상실을 겪어 오음으로써 현대국어에서 보조동사, 단어형성 전용 요소의 모습을 보이며 때로는 접미사의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한다.¹⁷⁾ 형용사와 결합하는 ‘밝아 지다’류는¹⁸⁾ 선행 형용사의 제약이 없고 대동사화와 대등접속 구성이 가능하여 이 때의 ‘지다’는 보조동사로 보았다.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와 결합하는 ‘지다’를 ‘이루어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공시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읽어 지다’류와 그렇지 않은 ‘부서지다’류로 나누고 이때의 ‘지-’는 단어형성 전용 요소로 보았다.

김창섭(1996: 199)에서 정의한 ‘단어형성 전용요소’는 “굴절형이나 단어가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특수화된 의미를 가지고서, 자립성이 없이 다른 어기의 앞이나 뒤에 나타나 단어 형성에만 쓰이는 단어와 파생접사의 중간적 요소”이다. 여기서 ‘부서지다’류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동사가 지시하는 동작이 누구의 의지나 힘에 의해 일어나는 동작으로 여겨질 수 없는 경우(-에 의해’, ‘일부러’가 개재될 수 없는 경우, 간드러지다/*간드러뜨리다)’를 제외하면 모두 ‘넘어지다/넘어뜨리다’, ‘부서지다/부서뜨리다’ 등과 같이 ‘뜨리다’ 결합 동사가 짝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읽어지다’류가 ‘이루어짐’이라는 함수적인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해 ‘부서지다’류는 ‘V1-어+지’ 전체로서 어휘적 의미를 표현하고, 넓은 의미의 공간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동사들만 V1으로 취하고, V1이 사·피동사일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전체로서 어휘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은 전술했듯이 합성동사적인 성격인데 ‘부서지다’류에 대응하는 ‘부서뜨리다’류의 ‘뜨리다’는 접미사적 성격이 강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병기(2008)에서는 이들 범주 및 용어들에 대하여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거나 도입하는 것은 그에 맞춰 전체 체계의 새로운 수립을 고려하지 않는 한 지양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용언+보조용언 구성, 합성동사, 어기+접사’라는 기존 문법 범주 틀 내에서 후기 중세 국어 ‘강세 접미사’의 문법적 위상”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현대국어 ‘뜨리다’의 문법 범주를

17) ‘소극화’는 예를 들어 ‘들다’의 사용 영역이 ‘들어가다’, ‘들어오다’에 대체됨으로써 본래 동사의 쓰임이 위축되는 현상을 말하며 ‘유연성의 상실’은 예를 들어 ‘치--+어’가 본래의 동사 ‘치-’와의 유연성을 완전히 잃는 것을 말한다. 문법화 내지는 어휘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는 여러 단계의 변화 모습을 가지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김창섭(1996: 105, 각주34)에서도 공시적인 기술이기는 하지만 ‘지-’가 “문법의 어떤 더 깊은 층위에서는 하나의 존재이지만, 구체적인 문장 속에 쓰일 때는 국어 통사론의 어떤 구조적인 사정에 의해, 보조동사나 합성동사의 V2가 된다고 이해하고 싶다.”라고 밝히고 있다.

18) 김창섭(1996)에서는 ‘읽어지다’류, ‘부서지다’류만 명명하였는데 여기서는 형용사에 결합하는 보조용언의 경우도 편의상 ‘밝아 지다’류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논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 논의는 현대국어 ‘뜨리다’의 범주를 확정하는 목적이 아니고 문법사적인 변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현대국어 ‘뜨리다’가 이들 다양한 범주에 걸쳐 있다는 것과 이러한 다양성은 역사적 변화의 소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음 논의로 이어가기로 한다.

3. ‘뜨리다’의 결합 유형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뜨리다’의 문법 범주와 범주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어떤 요소와 결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런저런 목적으로 ‘뜨리다’의 결합 유형을 정리한 바를 살펴 보고 결합 유형의 고찰로부터 얻어진 ‘뜨리다’의 속성을 연계하여 이해하기로 한다.

‘뜨리다’가 선행 동사와 결합하는 양상은 그 분포와 의미에 있어서 매우 불규칙한 양상을 보인다. 정주연(2013)은 이러한 불규칙한 양상을 고찰하고 사전에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규칙한 양상을 설명하는 것은 ‘뜨리다’의 범주 및 역사적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뜨리다’에 관한 다른 목적의 논의에서도 먼저 그 결합 양상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였다.

‘-뜨리다’ 결합 유형을 살펴 분류하고자 한 논의는 고영진(1997), 김양진(1997), 조일규(1997/2011), 송창선(1997, 1998 ㄱ, ㄴ), 함희진(2007), 정주연(2013) 등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들 논의는 『우리말큰사전』을 비롯하여 <표준>, <고대> 등 당시 간행된 사전의 등재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뜨리다’ 결합어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⁹⁾ 이는 사전의 규모와 집필 방침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식적으로 결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어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이 장에서는 분류 기준별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분류 기준

(1) 의미

가. 결합어에서 ‘뜨리다’의 의미-강세, 사역, 기타: 김양진(1997)

나. 결합어 전체의 의미-<하강>, <분리>, <감소>, <기타>: 함희진(2007: 383)²⁰⁾

(2) 문법적 환경:

가. 아/어 결합 여부 및 선행동사 형태의 불완전성(고꾸라뜨리다, 널브러뜨리다): 김창섭(1996), 고영근(1972/1989), 함희진(2007: 381), 정주연(2013: 217)²¹⁾

나. V1 및 전체 결합어의 품사: 함희진(2007: 380)²²⁾, 정주연(2013: 220), 조일규

19) 예를 들어 <표준>에서 대상 어휘를 추출한 함희진(2007)은 117개이고 <고대>에서 대상 어휘를 추출한 정주연(2013)은 비표준어, 북한어 등을 제외하고도 150개이다. 참고로 정주연(2013:216)에 따르면 <고대>는 북한어를 신지 않았기 때문에 ‘-뜨리다’에 대한 방언이 3개, 비표준어가 6개 등재되어 있으며 <표준>에는 방언 3개, 비표준형 18개, 북한어 31개가 등재되어 있다

20) 함희진(2007: 384)은 대상 어휘 117개 중 <하강> 의미 39개, <분리> 의미 29개, <감소> 의미 29개, <기타>로 20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하강>, <분리>, <감소> 의미가 ‘지다’ 및 ‘뜨리다’의 의미 자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내뜨리다’가 왜 <하강>인지, ‘꺾(여)뜨리다’가 왜 <분리>인지 등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기타> 의미 항목 20개도 전체 17%가 넘는 것이어서 <뜨리다> 결합어의 의미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는 듯하다.

21) 정주연(2013)은 ㄱ. V-뜨리다, ㄴ. V의 일부분-뜨리다(가든그뜨리다) ㄷ. V의 ‘-아/어’활용형 -뜨리다로 분류하고 ㄹ. 부사-뜨리다(마주뜨리다), ㅁ. 명사-뜨리다(합뜨리다)의 유형도 제시했다.

22) 자동사+뜨리: 가울어뜨리다, 기울어뜨리다, 늘어뜨리다, 시들어뜨리다 // 타동사+뜨리: 굴러뜨리다,

(1997/2011)

(3) '지다' 등과 계열 관계 - 김창섭(1996), 고영진(1997), 송창선(1998ㄱ, ㄴ)

기준 (1)가 - 김양진(1997)

① 강세 의미('쁘리다' 기원)

- 닥뜨리다, 들이뜨리다, 걸뜨리다²³⁾, 곱뜨리다²⁴⁾, 들뜨리다, 밀뜨리다, 쏟뜨리다, 잣뜨리다, 치뜨리다, 흘뜨리다, ...
- 써내뜨리다, 뺨어뜨리다, 움츠려뜨리다, 쭈그러뜨리다 ...

② 강세, 사역, 하강 의미('들-(滴)+-이-' 기원)

- '기울어뜨리다, 거꾸러뜨리다, 내려뜨리다, 넘어뜨리다, 떨어뜨리다, 망가뜨리다, 미끄러뜨리다, 부서뜨리다, 부러뜨리다, 빠뜨리다, 자빠뜨리다, 흐트러뜨리다, 허물어뜨리다, ...

③ 강세, 사역 의미('들-(成, 生)+-이-' 기원)

- 구부러뜨리다, 누그러뜨리다, 오그라뜨리다, 오무라뜨리다, 움츠려뜨리다, 으스러뜨리다, 일그러뜨리다, 짜부라뜨리다, 쪼그라뜨리다²⁵⁾

기준 (1)나 - 함희진(2007: 384)

① <하강>

거꾸러뜨리다, 굴러뜨리다, 기울어뜨리다, 넘어뜨리다, 내려뜨리다, 늘어뜨리다, 떨어뜨리다, 밀어뜨리다. 빠뜨리다, 허물어뜨리다; 잣뜨리다, 쏟뜨리다 등

② <분리>

깨뜨리다, 꺾어뜨리다. 끊어뜨리다, 널브러뜨리다, 뚫어뜨리다; 바수뜨리다, 열뜨리다, 흘뜨리다 등

③ <감소>

까부라뜨리다, 꺼뜨리다, 누그러뜨리다, 사그라뜨리다; 가무뜨리다, 무질뜨리다

④ 기타

까무러뜨리다, 소스라뜨리다, 헝클어뜨리다, 가든그뜨리다, 다닥뜨리다, 떨뜨리다, 밀뜨리다, 합뜨리다

기준 (2)가 - 정주연(2013 : 217)

① V-뜨리다: 걸뜨리다, 밀뜨리다, 잣뜨리다, 떨뜨리다, 열뜨리다...

물어뜨리다 등등 대다수// 형용사+뜨리: 곱뜨리다, 비뚤어뜨리다, 정주연(2013: 220)은 자동사에 '뜨리다'가 결합하여 타동사가 되는 예로 '엎뜨리다-엎드러뜨리다'를 추가하였다.

23) '걸쳐서 아래로 늘어뜨리다' '하강'의 의미가 있으므로 김양진(1997:5)의 분류와는 달리 '들다'와 관련지어야 할 듯.

24) <표준>에서는 '곱뜨리다'를 "고부라지게 하다"의 뜻을 갖는 '고부라뜨리다'의 준말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역시 김양진(1997:5)의 분류와는 달리 '사역'의 의미를 갖는다.

25) 하강의 의미가 없는 사역 (김양진 1997:5). '-어 들다["(스스로) 어떤 상태로 되다, (스스로) 어떨 상태가 이루어지다" 또는 "어떤 일이 (저절로) 생기다"와 같은 의미의 자동사]'와도 계열관계. 구부러지다(수동)-구부러뜨리다(사역)-구부러들다(능동). 이러한 '들다(成, 生)'의 사역형 '들이다/뜨리다'에서 '뜨리다' 발달한 것으로 보고 어두 자음의 경음화로 '상태의 변화' 및 '사역성' 외에 '강조'의 의미를 갖게 됨.

(들뜨리다, 내뜨리다, 치뜨리다)

② V의 일부분-뜨리다: 가든그뜨리다, 거든그뜨리다, 떠둥그뜨리다

③ V의 '-아/어'활용형 -뜨리다:

(1) 뚫어뜨리다, 밀어뜨리다, 얹어뜨리다, 시들어뜨리다, 형클어뜨리다, 허물어뜨리다, 비뚫어뜨리다 ...

(2) 고부라뜨리다, 깡그러뜨리다, 널브러뜨리다, 누그러뜨리다, 수그러뜨리다, 어지러뜨리다, 오그라뜨리다; 거꾸러뜨리다, 까무러뜨리다, 몽그라뜨리다, 바그라뜨리다, 사그라뜨리다, 아스러뜨리다, 얼크러뜨리다 ...

④ 부사-뜨리다: 마주뜨리다

⑤ N-뜨리다: 합뜨리다

이 유형 분류에서 ③(2) 유형은 결합 양상에서 매우 특이하다. 김계곤(1996)은 이들 결합어들의 선행동사들에 대하여 '리'로 끝나는 동사(고부리다, 구부리다, 꼬부리다, 오그리다, 오므리다, 움츠리다, 짜그리다, 찌그리다)가 '뜨리다' 앞에서 '아/어'와 결합할 때는 '라/러'로 나타나는 특수한 부사형으로 설명하였다. 난다고 하면서 V1을 "로 보았다. 하지만 김창섭(1996: 109, 각주37)에서는 '꼬부라들-, 수그러들-, 우그러들-, 움츠러들-, 쭈그러들-' 등의 V1은 사동사 '꼬부리-, 수그리-, 우그리-, 움츠리-, 쭈그리-' 등과 비교하면 자동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함희진(2007: 382)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이들이 사동사이므로 사동접사 '-이-'를 제거한 '*꼬불-, *수글-, *움출-, *쭈글-' 등의 재구형 내지는 '우글-' 형용사를 V1으로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이현희(1987: 139-140)에서 '두드러지다'가 동사 '두들다'라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어형이라는 점에서 '돋-'에 접미사 '-을-'이 결합한 '*두들'을 재구한 것에 기댄 것이다. 이현희(1987)에서는 이에 더하여 중세국어의 동사 '잇-'(虧), '눅-'(稀), '옥-'(陷)이 현대국어의 '이지러지다', '누그러지다', '우그러지다'와 대응되는데 '우그러지다'와 '우글다'는 실제로 문증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구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접미사 '-을/을-'의 존재는 '잇글-(잇-)'(奪), '*빚글-(빚-)'(橫), '베플-(베프-); '니를-(니르-)', '우를-(우르-)', '프를-(프르-), 누를-(누르-)'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값+을(갓글)>*거꿀+어+뜨리]

정주연(2013: 218)에서는 함희진(2007)의 논의에 대하여 '깡그리다, 널브리다, 수그리다' 등의 선행 어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형태가 존재하는 어휘에 대해서도 '*깡글다, *널블다, *수글다' 등을 설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나 현재 존재하는 선행 어기의 대다수가 '기울-, 밀-, 시들-, 비뚫-, 떨-' 등과 같이 '르' 말음 어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르'말음 용언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 하였다. 한편 송창선(1998: 11)에서는 '누그러지다, 누그러뜨리다, 구부러지다, 구부러뜨리다' 등이 서술어 '누그리다(누그럽다), 구부리다'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상징어 '누글누글, 구불구불'에서 동사 '*누글-, *구불-'을 재구하고 이들 동사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정주연(2013: 226)에서도 '누그러지다, 누그러뜨리다'가 '누글누글'이라는 상태부사를 선행 요소로 하여 각각 "그러한 특성을 가진 동작이나 상태가 됨"이라는 의미와 "특정 대상에 대해 그러한 특성을 가진 동작을 하거나 상태가 되게 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기준 (2)나 - 함희진(2007: 380), 정주연(2013: 220)

① (자동사) 옆뜨리다 - 늘어뜨리다, 시들어뜨리다, 옆드러뜨리다, 기울다 - 기울어

뜨리다 등

② (형용사) 비뚫다 - 곱뜨리다, 비뚫어뜨리다 등

③ (타동사) 고부리다 - 고부라뜨리다, 엉클다 - 엉클어뜨리다, 끊어뜨리다 등 다수

기준 (3)-송창선(1998), 정주연(2013: 225)

① ‘-아/어 뜨리-’와 ‘-아/어 지-’가 교체되는 유형

거꾸러뜨리다, 구부러뜨리다, 늘어뜨리다, 떨어뜨리다 등등

② ‘-뜨리-’와 ‘-치-’가 교체되는 유형

끼뜨리다, 들이뜨리다, 떨뜨리다, 밀뜨리다, 닥뜨리다 등등

③ 관련된 쌍이 없는 유형

빼뜨리다, 시들어뜨리다, 어지러뜨리다, 얼뜨리다, 젖뜨리다, 치뜨리다, 가든그뜨리다,
가무뜨리다 …

송창선(1998ㄱ, ㄴ)에서는 ‘-뜨리-’의 형성 과정을 염두에 두고 ‘뜨리다’와 계열 관계에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지다’와 교체 가능 유형, ‘-치-’와 교체 가능 유형, 관련된 쌍이 없는 유형 이렇게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지다’와 대립되는 타동화의 기능과 ‘지다’를 바탕으로 한 ‘뜨리다’ 결합형의 형성 과정을 논의하였다. 고영진(1997: 92-94)에서는 선행동사를 ‘뜨리다’와 ‘지다’가 교체되는 유형, ‘지다’만 결합하는 유형, ‘뜨리다’만 결합하는 유형으로 목록화하였다. 송창선(1998ㄱ, ㄴ)의 논의에서와 같이 ‘뜨리다’는 결합 안 되고 ‘지다’만 결합하는 유형이 많다는 점에서 ‘뜨리다’의 생산성이 ‘지다’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다’를 보조용언과 단어구성요소로 구분한 김창섭(1996)의 논의와도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지다’만 결합하는 유형 중 일부는 ‘어’가 거의 개재되지 않는 ‘치’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송창선(1998ㄱ, ㄴ)의 유형 I 과 유형 II 를 의미 기능적으로는 같이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 ‘뜨리다’의 기원 형태

‘뜨리다’의 직접적인 기원 형태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고 아직 모두가 수궁하는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공통적으로 동사에서 기원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뜨리다’가 본동사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연결어미 ‘-아/어’를 선행한 형태가 대다수이고 접두사가 통합한 것으로 보이는 ‘뜨리다’ 동사들도 보이기 때문이다. ‘뜨리다’의 기원 형태로서 상정하는 동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이며 이들 동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대국어의 ‘뜨리다’가 형성되었다는 논의도 있다.

가. 뻘-(拂)+ -으-(사동접미사)

이승재(1992: 67-72)에서는 ‘뜨리다’가 ‘뻘-(拂, 撥)’(상성)에 사동접미사 ‘-으-’가 결합하여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추정은 ‘뜨리다’가 기원적으로 동사 어간에서 문법화하였다는 점과 ‘뜨리’의 ‘ㄷ’이 ‘ㅌ’에서 발달한 것이라는 점²⁶⁾, 그리고 ‘뜨리’에는 사동 접사

26) ‘뜨리’가 ‘트리’로 경음화되었다는 것이 ‘ㅌ’인 이유라고 하였다.

‘-이-’가 화석화되어 있거나 그 동사 어간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충족하는 동사를 찾은 결과이다. 이 ‘떨-’이 현대국어에서 ‘떨-’과 ‘털-’로 반사되어 있으므로 ‘-뜨리-’와 ‘-트리-’에서의 ‘ㄷ:ㅌ’의 대응을 보여주며 방언에서 ‘뜨리’가 ‘떠리’와 ‘떼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정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떨-’에 역시 ‘ㄷ’ 발음 동사의 사동사인 ‘사르-(使生)’, ‘이르/이르-(使起)’에서 보이는 사동 접사 ‘-으/으-’가 통합한 형태 ‘떠르-’가 ‘뜨리’의 기원형태라고 보았다. 이 논의는 방언분사형에서 모음 ‘ㅣ’와 ‘ㅡ’의 공존, 그리고 ‘ㅡ’와 ‘ㅣ’의 공존을 논거로 ‘떠르’가 ‘뜨리’로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문헌 자료를 통한 입증은 하지 못하였다.

나. 뻘리다(破)

곽충구(1994: 17-22)는 북부방언에서 강세 접미사 기능을 하는 ‘질그다, 찢그다; 띠리다; 떼리다’의 어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들 어형이 기원적으로 중세국어 ‘디르다(<지르다>[刺])’와 ‘뻘리다(뻘리다)[破>打]’에서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질그다, 찢그다(함남)’는 ‘디르다’에서 온 것이고 ‘띠리다(평안)’는 ‘디르다’와 ‘뻘리다’에서 변화하여 하나의 형태소로 합류한 것으로 보았으며 ‘-떼리다(함북)’ 및 현대 중부방언의 ‘뜨리다’는 ‘뻘리다’가 접사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강세접미사로의 문법화는 ‘디르다’, ‘티다’, ‘뻘리다’가 모두 [동작상의 힘줄] 즉 [강세]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는 데서 의미적 유연성을 가지며 합성동사 형성, 보조용언 기능 단계를 거치고 [강세]의 의미자질이 극대화되면서 접미사화한 것으로 설명한다.

송창선(1997) 역시 곽충구(1994)의 설명에 동의하면서 다음의 예를 찾아 보충했다.

머리를 남기 다 이저 뻘리니 도저기 주기니라(碎首於木賊殺之命) <동국 열녀 4: 58>²⁷⁾

곽충구(1994), 송창선(1997)은 중세국어 ‘뻘리다’가 “떼리다, 치다”보다는 “부수다”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조용언으로 문법화하는 시기에는 현대국어와 같은 “떼리다, 치다”의 뜻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송창선(1997, 1998ㄱ, 1998ㄴ)에서는 이러한 의미 변화에 따라 ‘뻘리다’가 강세접미사 ‘-티(치)-’와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는 어미 없이 동사끼리 결합하는 어간의 유리성²⁸⁾이 사라진 시기였기 때문에 ‘-티(치)-’와는 달리 연결어미 ‘-아/어-’에 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다. 디-(落)+-이-(사동접미사)

27) 함희진(2007: 379)에서는 이에 대해 ‘이저뻘리다’를 ‘이지러지게 부수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합성동사로 보았다. ‘잇-’도 ‘碎’, “깨뜨리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뻘리다’가 보조 용언의 기능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함희진(2007)의 견해대로 합성동사일 수도 있는데 설사 합성동사라 하더라도 보조용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있다’ 뒤에는 중세국어에서부터 *‘뜨리다’는 아니지만 ‘디다’, ‘뻘리다’와 같은 보조용언이 결합한 예가 많이 보인다. 터 닷가든 집 지우물 지즈루 이저 브릴가 잇기노라(堂構惜仍虧) <杜詩16:9a>, 이저 딘 울흘 가시를 가져다가 바 튀오고 갖고로 딘 돌흔 藤草이 버므로물 依賴헛엿도다(缺籬將棘拒 倒石賴藤纏) <杜詩20:10a>

28) 중세 이전에 어간이 어미가 개재되지 않고 어간에 직접 결합하는 특징에 대하여는 이기문(1972) 남풍현(2004), 이선영(2002/2006), 이병기(2008), 박진호(2010) 등등에서 언급되었던 것으로 중세 이전에 합성어 뿐만 아니라 통사적 결합에서도 어간이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간의 ‘遊離性’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뜨리’를 현대국어 ‘힘줌’ 접미사로 파악한 조일규(1997/2011: 307-8)는 ‘아/어’를 매개로 ‘뜨리다’와 결합하는 어기(밑말)가 대부분 ‘지다’와도 결합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지다’의 고형인 ‘디다(落)’에 사동접미사 ‘-이-’ 결합하여 현대의 ‘뜨리다’가 된 것으로 추론하였다. 중세국어에서 사동접미사가 결합한 ‘디-’는 그렇지 않은 자동사 ‘디-’가 평성인 것과 달리 상성의 성조를 가지고 후행하는 어미의 ‘ㄱ’을 ‘ㅇ’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디오) 송철의(1997: 849-850)의 설명과 같이 [tij]의 음성형을 가지며 ‘디이’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디이->*디리->-떠리->-뜨리-’의 변천 과정을 상징하고 ‘-떠리-’는 경상 방언의 ‘깨떠리다, 꺼떠리다, 늘어떠리다’ 등에서 흔적을 찾았다. 그리고 ‘*디리->-떠리-’의 과정에서 ‘-떠리-’가 된소리 되기에 힘입어 ‘힘줌’의 의미 기능(뜻바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았다. 역시 중세, 근대 자료에 문증되는 양상을 통하여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라. 뜰-(落)+-이-(사동접사)

함희진(2007)은 현대국어 ‘뜨리다’를 ‘*뜰+-이-’의 구조로 파악하고²⁹⁾ 그 기원을 ‘뜰-(落)+-이-(사동접사)’로 설명하였다. 이는 현대국어 ‘뜨리다’ 결합 동사를 분석하여 ‘뜨리다’가 타동사로서 <하강>, <분리>, <감소>의 의미를 기본으로 갖는다는 점과 역시 <하강>의 의미를 가지는 ‘지다’ 결합 동사와 V1을 공유한다는 점, 그리고 각각 <사동, 타동성>과 <피동, 자동성>의 의미로 짝을 이룬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중세국어 ‘뜰다’가 의미 기능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며 음운론적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개재되는 ‘ㅅ’을 고려하여 ‘뜨리-’, ‘트리-’로 반사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후술할 김양진(1997)의 논의에서 ‘뜨리다’ 결합어의 의미를 ①<강세> ②<강세>, <사역>, <하강> ③<강세>, <사역> 으로 나뉘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함희진(2007: 383-6)에서 정리한 ‘뜨리-’류 동사들은 ‘<하강>, <분리>, <감소>’의 의미만으로는 수긍하기 어렵고, 다른 부가 의미 없이 ‘동작에 힘을 가함’ 정도의 의미로만 파악되는 예들도 있다. 그런데 ‘산 아래로 굴러뜨리다.’는 되는데³⁰⁾ ‘산 위로 굴러뜨리다’가 안 되는 이유로 ‘뜨리다’가 <하강>의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지적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곱씹을 필요가 있다.

함희진(2003, 2007: 391-392)에서는 ‘뜰다’가 후행하는 동사로 ‘글희뜰다, 것뜰다, 너르뜰다, 뜨르뜰다, 벗뜰다, 뜯뜰다, 뿌뜰다, 찢뜰다, 섧뜰다, 씹뜰다, 엮뜰다, 찌뜰다, 헤뜰다, 헐뜰다’를 열거하고 ‘뜰다’가 현대국어 ‘뜨리다’와 의미적으로 관련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다음 예는 이를 바탕으로 보완한 것들이다.

- ① ㅅ르미 부러 드트리 ㄱ득ㅎ며 一切 草木이 다 ㄱ뜰드라(吹扇塵沙彌闍世界 爾時大地一切卉木 藥草諸樹花果枝葉 悉皆摧折碎落無遺) <釋詳23:20a>
- ② 一切 大地에 잇는 諸山이 一時에 드러쳐 떠디고 다 ㅅ르드르며(一切大地所有諸山 一時震裂悉皆崩倒) <釋詳23:19a>
- ③ 바핻 ㄱ긱 ㅅ니 魑魅ㅣ ㅅ오 언 짜히 ㅅ르드르니 雲嵐ㅅ 어드운 디 ㅅ도다(爆嵌 魑魅泣 崩凍嵐陰晦) <杜詩25:12a>
- ④ 忠臣의 말스문 애와터 ㅅ스미 니르왓고 烈士는 ㄱ므를 ㅅ뜰이놋다 (忠臣辭憤激

29) 고영진(1997: 99, 각주90)에서도 ‘-뜨리-’를 ‘뜰+이’로 분석하였는데 ‘뜰’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은 따로 하지 않았다.

30) <표준>에 북한어로 ‘굴러뜨리다’가 등재되어 있는데 “굴러가게 하거나 또는 세계 굴리다.”로 뜻풀이를 하고 예로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돌을 굴러뜨리다<조선말대사전>’를 들었다.

烈士涕飄零) <杜詩24:8a>

⑤ 주검 너흐러 뼈와 고기와 헤드루은 法倒를 가즐비시니(嚼嚙死屍하야 骨肉이 狼藉은 譬法倒也 하시니) <法華2:111b>

모두 15세기 예들인데 ‘들다’에 선행하는 동사가 ‘겪-, 프르-, 뜯-, 헤-’ 등으로 다양하며 ‘것들-’이 한문 ‘摧折’에 대응하여 합성동사로 파악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사동형 ‘뜯들이눗다’의 경우는 대응 한자 ‘飄零’이나 맺구 위치의 동사가 소위 ‘강세접미사’가 결합한 ‘애와터, 니르왈고’를 참고하면 ‘들이-’가 강세 의미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마. 복수 기원

곽충구(1994)에서는 방언형에 따라 ‘디르다’와 ‘쁘리다’에서 기원을 찾고 있지만 중앙 방언의 ‘뜨리다’는 ‘쁘리다’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복수 기원설은 아니다. 하지만 곽충구(1994)의 기술과 상관없이 ‘디르다’도 현대국어 ‘뜨리다’ 결합어에 결합된 예가 있어 참고가 된다.

- ① 걱디 못하게 하다 (折難) <語錄初26b> 1657어록해_초간
- ② 썻디러 힐난하다 (折難) <語錄改30a>1669어록해_개간
- ③ 브르지르다(撤折) <漢淸文鑑 354b>³¹⁾

‘折難’에 대하여 중국어 속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록해』 초간본(1657)에서는 ‘것디 못하게 하다’로 풀이하였는데 1669년 개간본에서는 ‘썻디러 힐난하다’로 수정되었다. 뜻풀이에서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切’의 대응 어휘가 ‘겪다’에서 ‘썻디르다’로 바뀐 점이 흥미롭다. ‘切’은 “‘것거 움겨와 (折轉來) <語錄初18a><語錄改32a>”, “것글 절 折 <類舍七28b>”에서처럼 ‘겪-’이 기본형인데 ‘힐난하다’와 같이 쓰이면서 어두 경음화와 함께 강세 의미를 부가하는 ‘디르’가 부가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상 ‘썻디르다’는 현대국어에서 ‘거꾸르뜨리다, *꺾어 뜨리다’에 대응된다. 그리고 ‘브르지르다’는 ‘부러뜨리다’에 대응된다.

복수 기원설의 대표적 견해는 김양진(1997)이다. 김양진(1997:5-6)에서는 ‘쁘리다’ ‘들다(落, 滴)’의 사동형, ‘들다(成, 生)’의 사동형, 이 세 어형이 통합되어 {뜨리-}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누그러뜨리다’ 류와 ‘누그러들다’ 류가 사역과 능동의 관계를 보이는 점을 근거로 이때의 ‘뜨리-’는 ‘들-’의 사동형에서 기원한 것으로 본 점이 다른 논의에서 볼 수 없었던 주장이다.³²⁾

31) 곽충구(1994: 9)에서는 ‘브르지르다’의 ‘브르’를 ‘브르다(飽)’와 같은 것으로 보고 ‘브르돈다’ 등의 어휘를 통해 ‘돌출되도록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간으로 후행동사 ‘지르다’는 선행동사의 동작성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동작이 일어나도록 하다]라는 [사동성]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다른 어휘일 듯. 참고-분지르다, 부러뜨리다, 부러뜨리다. // 불렛지그다(평북), 불거띠리다, 부러띠리다(평북) 곽충구(1994:9-12)는 중세국어 ‘디르-딜ㅇ’이 함남방언에서 ‘지르-질ㄱ(-질그)’로 재구조화했다고 봄. 지르다[관통하다, 찌르다(刺), 지르다(打)] ‘그 다리를 짓피어 뼈를 브르지르나 <경향보감 3:304>’ ‘십여명이 돌입하야 집을 헐고 모든 쫓나무를 브르지르며 브스질넛다더라 <1907경향신문>’

32) 앞에서 현대 국어의 ‘-어 지-’ 구성이 갖는 다양성이 중세 국어의 ‘디다(落, 蹶)’와 ‘지다(願, 請)’가 음운 변화에 의해 중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과 ‘-어 뜨리-’ 구성이 갖는 다양성이 ‘쁘리다(打)’, ‘들다(滴)’의 사역형, ‘들다(成, 生)’의 사역형들이 음운 변화에 의해 중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입증하였다.(김양진 1997: 6)

(1) ‘쁘리다’ 기원-강세 의미

① 닥뜨리다, 들이뜨리다, 걸뜨리다³³⁾, 곱뜨리다³⁴⁾, 들뜨리다, 밀뜨리다, 쏟뜨리다, 잣뜨리다, 치뜨리다, 흘뜨리다, ...

② 썩내뜨리다, 뻘어뜨리다, 움츠려뜨리다, 쭈그려뜨리다³⁵⁾, ...³⁶⁾

(2) ‘뜰-(滴)+-이-’ 기원 - 강세, 사역, 하강 의미 → ‘디다(落, 蹶)’ 결합형과 의미적 연결
‘기울어뜨리다, 거꾸러뜨리다, 내려뜨리다, 넘어뜨리다, 떨어뜨리다, 망가뜨리다, 미끄러뜨리다, 부서뜨리다, 부러뜨리다, 빠뜨리다, 자빠뜨리다, 흐트러뜨리다, 허물어뜨리다, ...

(3) ‘뜰-(成, 生)+-이-’ 기원 - 강세, 사역 의미 → 보조동사 ‘지다(請, 願)’와 의미적 연결
구부러뜨리다, 누그러뜨리다, 오그라뜨리다, 오무라뜨리다, 움츠려뜨리다, 으스러뜨리다, 일그러뜨리다, 짜부라뜨리다, 쪼그라뜨리다 ³⁷⁾

지금까지 ‘뜨리다’의 기원 형태를 밝히려는 여러 논의를 살펴 보았다. ‘뜨리다’의 기원 형태가 확실하지 않고 문증되는 예도 드물어서 선행 어기와의 결합 양상과 의미 그리고 계열 관계에 있는 형태들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적 추론에 의한 논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헌 자료에서 더 많은 예들을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뜨리다’ 뿐만 아니라 선행동사들도 형태 및 의미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단순한 검색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예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병기(2008)에서는 중세국어 ‘강세접미사’들을 대상으로 선행 동사의 목록과 출현 빈도를 제시한 바 있다. 대부분의 ‘강세접미사’들이 대략 공통되는 선행어기들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뜨리다’의 선행동사도 이를 참고하여 추적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뜨리다’의 기원어를 찾아나가거나 위에서 제안한 여러 기원동사들을 검증해 보는 작업이 유효할 것이다.

5. ‘뜨리다’의 문법화 과정

동사의 문법화 및 ‘뜨리다’의 발달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설명하는 ‘뜨리다’의 문법화는 대부분 ‘동사 > (합성동사) > 보조용언 > 접사’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동사 기원 접사나 어미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뜨리다’의 문법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지다’와의 관계에 기반한 별도의 과정을 설정하는 설명이 한 축을 이룬다.

33) ‘걸쳐서 아래로 늘어뜨리다’ ‘하강’의 의미가 있으므로 김양진(1997:5)의 분류와는 달리 ‘뜰다’와 관련지어야 할 듯.

34) <표준>에서는 ‘곱뜨리다’를 “고부라지게 하다”의 뜻을 갖는 ‘고부라뜨리다’의 준말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역시 김양진(1997:5)의 분류와는 달리 ‘사역’의 의미를 갖는다.

35) 쭈그러들다-쭈그러뜨리다-쭈그러지다

36) 김양진(1997: 5)의 강세적 의미 예. 이들은 ‘사역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지다’와 계열 관계도 안 가지는 것으로 봄. ‘쁘리다’ 기원. 그런데 이들은 어떤 고유한 접사 정보를 가지고 생산적인 결합관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화석적 요소로 합성어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37) 하강의 의미가 없는 사역 (김양진 1997:5). ‘-어 들다[“(스스로) 어떤 상태로 되다, (스스로) 어떨 상태가 이루어지다” 또는 “어떤 일이 (저절로) 생기다”와 같은 의미의 자동사]’와도 계열관계. 구부러지다(수동)-구부러뜨리다(사역)-구부러들다(능동). 이러한 ‘뜰다(成, 生)’의 사역형 ‘들이다/뜨리다’에서 ‘뜨리다’ 발달한 것으로 보고 어두 자음의 경음화로 ‘상태의 변화’ 및 ‘사역성’ 외에 ‘강조’의 의미를 갖게 됨.

가. 동사 > 합성동사 > 보조용언 > 접사

호광수(1999/2003): 선행용언의 형태가 불확실하지만 ‘-아/어’를 개재하고 있으므로 ‘뜨리다’는 보조용언에서 접미사로 발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곽충구(1994: 18-19): ‘무너뜨리다, 깨뜨리다, 부서뜨리다, 떨어뜨리다’ 등은 ‘뿌리다’가 접미사화하기 이전에 선행 어간 ‘*물-, 깨-, 부스-, 떨-’에 ‘뿌리가’가 통합된 복합어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破]의 의미는 약화되고 [강세]의 의미 자질이 극대화되면서 점차 보조용언화하고 이어 그것이 어간에 고착되어 접사적 기능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한글맞춤법> 22항에서 예시한 ‘부딪뜨리다, 쏟뜨리다, 젖뜨리다, 찢뜨리다; 합뜨리다’ 등은 ‘-뜨리다’가 생산적인 접미사로 자리 굳히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이들 어휘는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용인되는 것으로 보았다.

고영진(1997: 84-100): ‘도움풀이씨의 뒷가지 되기’라는 절 제목 아래 ‘뜨리’가 보조용언에서 접미사로 문법화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지다’의 문법화 과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병기(2008: 105-107): 보조용언과 ‘강세접미사’의 여러 공통점은 사실 그 문법화의 과정에서 예견된 것이었다. 고영진(1997: 84-100)은 문법화의 한 과정으로서 ‘으뜸풀이씨→도움풀이씨→뒷가지’와 같은 과정을 상정하고 접미사로서까지 문법화한 예로 ‘-뜨리-’를 들었다. 이러한 견해는 호광수(2003)에서도 수용하였는데 김미영(1998)의 논의를 첨가하여 보조용언과 접미사 사이에 접어화 단계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문법화의 방향성을 생각하면 중세 국어 ‘강세접미사’에 대하여 문법화 중간 단계인 보조용언에 해당하는 문법적 위상을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향성은 모든 용언의 문법화에서 단일하게 발견되지는 않으며 바로 접사로 문법화하거나 합성동사를 형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 구성이 경계의 약화를 통해 파생어나 합성어가 된다면 중간 성격의 경계를 갖는 보조용언이 사이에 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현대국어 ‘-치-’와 같은 강세접미사를 염두에 둔 것인데 ‘뜨리다’의 경우는 아직 문법과 과정 중에 여러가지 단계를 공시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지다’ 구성에서 유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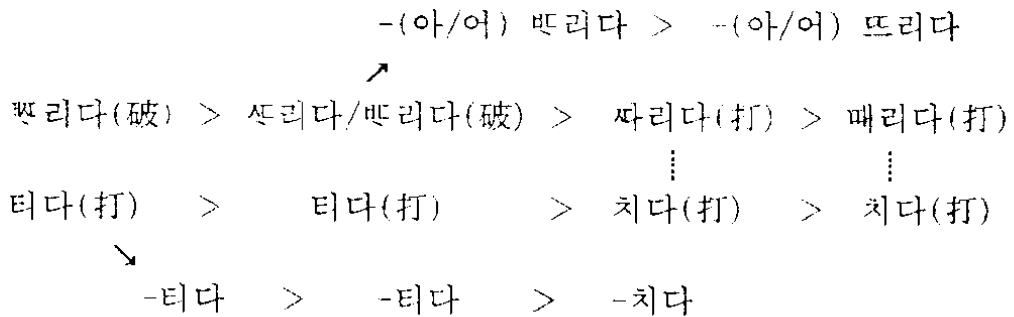
이승재(1992: 68): ‘기울어뜨리다, 기울어지다’처럼 “-어뜨리-’가 통합된 어형은 ‘-어지-’가 통합된 어형의 타동 혹은 사동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뜨리-’가 ‘-어지-’의 타동향 혹은 사동향임을 뜻하는바 ‘부러뜨리-’의 자동향을 語根 ‘*불-(혹은 *부르)-’라고 하는 것보다 어간 ‘부러지-’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共時的 기술에서는 ‘*불-’과 같은 語根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예는 아주 많은 편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은 통시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단어형성 차원의 설명이지만 ‘지다’ 결합어를 기반으로 ‘뜨리다’ 결합어가 도출되었다는 설명으로 이후 논의들에 영향을 미쳤다.

김창섭(1996: 109-111): ‘자빠지다’에서 ‘자빠뜨리다’가 도출되었다고 보는 이승재(1992)의

논의를 확대하여 ‘지다 : 뜨리다 = 움츠러지다: X1 = X2 : 부서뜨리다’와 같은 비례식을 가지고 유추에 의해 ‘움츠러뜨리다’, ‘부서지다’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논의는 통시적인 문법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뜨리다’를 보조용언이나 접미사로 규정한 논의는 아니지만 자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는 타동사와 결합한다는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뜨리다’ 결합어의 생성을 설명하고자 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송창선(1997, 1998)은 이러한 유추에 의한 형성에 입각하여 통시적으로 ‘지다’ 결합이 이루어진 뒤 이에 유추되어 ‘뜨리다’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한다

송창선(1997: 14): ‘쁘리다’가 “깨뜨리다, 쪼개다”의 의미가 아닌 “때리다”의 의미로 사용된 근대국어 시기 ‘뜨리다’가 발달한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티’와 달리 연결어미가 결합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말큰사전』에서 ‘그르뜨리다 → 그르치다’, ‘구부러치다 → 구부러뜨리다’와 같이 ‘치다’ 결합어를 ‘뜨리다’ 결합어의 잘못이나 방언으로 풀이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다수 있어 이 둘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며 ‘뜨리다’의 문법화에 ‘티’의 존재도 영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³⁸⁾

송창선(1998 ㄱ): ‘-어 지다’ 대응 유형(I), ‘-치-’ 대응 유형(II), 무대응 유형(III)으로 나누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첫째 유형의 경우 ‘뜨리’의 기능은 타동화이며 생성 시기는 ‘-어 지다’가 자동화로 기능하게 된 이후라고 설명한다.³⁹⁾ 이와 관련하여 송창선(1998 ㄱ: 6)은 ‘늘다 : 늘어뜨리다 : 늘어지다’의 의미 관계를 고찰한 결과 ‘늘어뜨리다’는 ‘늘다’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고 ‘늘어지다’와 관련이 있으므로 ‘늘어지다’에 대한 대응 형태로 ‘늘어뜨리다’가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림> 송창선(1997: 17, 1998 ㄱ, ㄴ)에서 제시한 ‘뜨리다’ 문법화 과정

이들 논의에서 ‘지다’ 대체 유형은 타동과 사동의 기능을, 근대국어 ‘티(치)’ 대체 유형은 강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문법화 과정을 염두에 둔 설명과는 달리 ‘지다’ 구성에서 유추에 의하여 ‘뜨리다’가 발달하였다고 보는 논의는 강제보다 타동, 사동의 기능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다. ‘뜨리다’ 문법화와 관련된 기타 주목할 논의

38) 송창선(1997)에는 중세에는 ‘뿌리다’가 ‘디다’와 짝이 되어 ‘뜨리다’의 기능으로 사용되었으리라는 설명도 보인다.

39) 송창선(1998: 20)에서는 ‘뜨리다’ 결합어의 20% 정도가 ‘지다’와 대응되지 않고 이들만 ‘강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승재(1992)는 방언에 따라 ㄱ와 ㄴ의 대응을 고려하여 ‘뜨리다’의 기원 동사를 추적하였다. 이는 방언의 공간적 분포를 통시적 변화 과정에 사상시키는 일반적인 국어사 연구 방법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보강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

곽충구(1994)는 ‘디르다, ㅼ리다, 티다’가 공통의 의미자질이 극대화되어 지역별로 각기 문법화하여 남아 있지만 이들로부터 문법화한 강제접미사들이 문법 기능과 의미에 있어서 차이를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전적 의미만을 고려하면 ‘내뜨리다/내치다’, ‘망그뜨리다/망그지르다’ 등이 유의 관계를 가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치환되지 않는 문맥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방언마다 결합어의 형태적인 차이뿐만 의미적인 차이에서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다음의 설명은 ‘뜨리다’의 문법화를 고찰할 때 꼭 참고하여야 할 부분이다.

“가령 평안방언에서는 ‘불거티다’와 ‘불거(리)띠리다’가 공존하지만, 중부방언에서는 ‘불거티다’에 대응될 만한 ‘부러치다’는 쓰이지 않는다. 역시 평안방언의 ‘자빠티다’나 함남방언의 ‘엎어찢그다’에 대응될 만한 ‘자빠치다’나 ‘엎어지르다’는 중부방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각 접미사의 의미 기능이 다소간 방언차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접미사로의 문법화 과정이 각기 달리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곽충구 1994: 22)

박진호(2010)에서는 보조용언과 선어말어미의 중간 과정으로 ‘조동사’ 설정을 주장하였다. 동사에서 보조용언으로 그리고 다시 선어말어미로 발달할 때 독자적 어절 능력의 상실과 활용 능력의 상실이 항상 동시에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지 않고 독자적 어절 능력의 상실이 먼저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중간 과정으로서 ‘조동사’를 설정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조동사’는 동사의 문법화 과정에서 보조용언과 선어말어미의 중간 단계로서 독자적 어절 형성 능력은 상실되었는데 활용 능력은 남아 있는 단계이다. 이 논의에서는 15세기 띄어쓰기는 휴지 등으로 독자적 어절 형성 능력을 판단할 수 없는 ‘-어ㅎ-’(깃거ㅎ스븨니와)와 ‘-거지-’ 등을 ‘去聲不連三’의 성조 율동 규칙을 기준으로 조동사 구성으로 보았으며 연결어미가 개재하지 않는 ‘습’의 경우도 이러한 검증을 통해 ‘조동사’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助動詞’라는 용어는 일본 문법에서 선행하는 동사의 활용형을 결정하는 특징을 가진 ‘助動詞’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이에 대한 다른 명칭의 부여는 열어 두었다. 논의 과정 중 중세 국어 어절 단위를 분석하기 위해 성조율동규칙을 활용하였다는 점이 참고가 된다.

6. 결론

가. ‘뜨리다’의 특징- 본용언 불확실(유연성 상실), 유사 기능(특히 강제) 형태 다수(버리다, 쌓다, 대다, 여러 강제접미사 등), 기능의 다양성(강제, 사동-타동, 완료), V1 형태 다양, 기능 상 짝이 되는(대립되는) 계열 형태 존재

나. ‘뜨리다’ 특징을 아우르고 연계할 수 있는 설명 시도되었고 많은 부분 설명이 되었지만 이 논의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다. 결합상의 속성과 의미 기능에 따라 ‘뜨리다’에 대한 다의어적인 접근이 필요함.

라. ‘뜨리다’ 결합어 150여개에 대한 개별적 어휘사, 방언 연구를 토대로 ‘뜨리다’ 전체에 대한 문법사 기술이 필요함.

마. 개별적인 어휘에 대한 추적을 시작하고 많은 예문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지만 이 논의에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음.

참고논저

- 강성일(1972), 「중세국어 조어론 연구」, 『동아논총』 9, 동아대학교, 213-328.
- 강은국(1993), 『조선어 접미사의 통시적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고영근(1972),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2)-통합관계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5-4(48호). [고영근 (1989: 535-571)에 채수록(통합관계의 양상)]
- 고영근(1989), 『國語 形態論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고영근·남기심(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풀이씨의 경우-』, 국학자료원.
- 곽충구(1994), 「強勢 接尾辭의 方言形과 그 文法化 過程에 대하여-북한지역의 방언자료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22, 서울대 국어교육과, 1-25.
- 구본관(1996/1998), 『15세기 국어 과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구본관(1997), 「의미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류에 대하여-15세기 국어 과생접미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29, 113-140.
- 권재일(1986),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복합문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15, 195-215.
- 권재일(1987), 「의존 구문의 역사성-통사론에서 형태론으로」, 『말』 12, 5-24.
- 김기혁(1991), 「형태 통어적 구성과 중간 범주」, 『동방학지』 71,72, 연세대 국학연구원, 233-258.
- 김계곤(1996),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박이정.
-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⁴⁰⁾
- 김미영(1998), 『국어 용언의 접어화』, 한국문화사.
- 김양진(1997), 「‘-어 지’, ‘-어 드리’ 구성의 형태·통사론적 비교 연구」, 한국어학회 제 111차(1997.11.16) 발표문.
- 김영신(1998), 「강조 보조용언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유범(2005), 「중세국어 ‘-받/-원(월)’의 형태론과 음운론」, 『한국어학』 26, 25-65.
- 김유범(2005/2007), 「중세국어 ‘-거지이다’, ‘-거지라」, 『국어 문법형태소의 역사적 이해』, 박이정, 229-242.
- 김정대(1990), 「‘아, 게, 지, 고’가 명사구 보문소인 몇 가지 증거」, 『주시경학보』 5, 탑출판사, 130-135.
- 김창섭(1990), 「零派生과 意味轉移」, 『주시경학보』 5, 『한국어형태론연구』, 태학사.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연구(국어학총서21)』, 태학사.
- 김창섭(1997), 「합성법의 변화」, 『국어사연구(전광현·송민 선생 화갑기념 논총)』, 태학사.
- 김홍수(1983), 「‘싶다’의 통사·의미 특성」, 『관악어문연구』 8,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57-190.
- 남풍현(2004), 「시상의 조동사 ‘在/ㅈ/거’의 발달」, 『국어국문학』 138, .
- 류시중(1995), 「한국어 보조용언 범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박선옥(2005),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역락.
- 박진호(1995), 「논항 공유 현상의 유형론과 통시론」, 『국어학회 공동연구회(1995. 12.14) 발표문』.
- 박진호(1998), 「보조용언」,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139-164.
- 박진호(2010), 「韓國語 文法史에서 助動詞 概念의 定立을 위하여」, 『새로운 국어사 연구론』, 경진, 270-282.
- 손세모돌(1992), 「중세 국어의 ‘브리다’와 ‘디다’에 대한 연구」, 『주시경학보』9, 78-93.
-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송창선(1994), 「국어 {-이-}계 접미사의 타동화 기능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창선(1997), 「‘-(아/어) 드리’의 기원」, 『문학과언어』 18, 문학과언어연구회, 1-20.
- 송창선(1998ㄱ), 「‘-(아/어)드리’의 기능 연구」, 『어문학』 63, 한국어문학회, 1-21.
- 송창선(1998ㄴ), 「‘-(아/어) 드리’와 ‘-치’의 기능 연구」, 『언어과학연구』 15, 언어과학회, 169-195.
- 송철의(1992),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국어학총서 18)』, 태학사.
-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집문당.⁴¹⁾

40) 김무림(2004:277-8)에서는 근대국어 보조용언 목록을 예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드리’는 물론이고 ‘지’도 없다.

41) 심재기(1982:400-1)에서는 제3군 동사화소 중에 ‘-드리/뜨리/트리-’를 들고 “㉞은 원래 動詞의 不定形을 先行素로 결합하여 그 선행의미의 完了性和 卑俗性を 아울러 반영하였는데, 어떤 것은 縮約

- 안명철(1990), 「보조동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319-330.
- 양정호(1991), 「중세 국어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연구』 105.
- 유필재(2005), 「후기중세국어 ‘용언어간+용언어간’형 복합용언의 성조와 재구」,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23-252.
- 李江魯(1967), 「파생접사 ‘-지’의 형태론적 연구」, 『인천교육대논문집』 2, 1-16.
- 李敬雨(1981), 「派生語形成에 있어서의 意味變化」, 『국어교육』 39,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15-256.
- 이동혁(1998), 「근대국어의 보조용언」, 『근대국어문법의 이해』, 박이정, 441-469.
- 이병기(2008), 「중세 국어 ‘강세접미사’와 ‘보조용언’의 상관성」, 『국어학』 53, 87-111.
- 이선영(1992), 「15세기 국어 복합동사 연구」, 『국어연구』 110.
- 이선영(2002/2006), 『국어 어간복합어 연구(국어학총서53)』, 태학사.
-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국어연구』 133.
- 이승욱(1974), 「동사어간형태소의 발달에 대하여」, 『진단학보』 38, 진단학회, 151-181.
- 이승욱(1977), 「문법사의 몇 문제」, 『국어학』 5, 국어학회, 1-44.
- 이승재(1992), 「融合形의 形態分析과 形態의 化石」, 『주시경학보』 10, 주시경연구소, 59-80.
- 이유기(2007), 「선어말 형태소 ‘-지’의 형태론과 통사론-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5, 119-144.
-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 李賢熙(1985), 「‘-하디’ 語詞의 性格에 대하여—누리하디類와 엇디하디類를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2, 221-248.
- 李賢熙(1986), 「中世國語의 用言語幹末 ‘-하-’의 性格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I』, 탑출판사, 233-246.
- 李賢熙(1987), 「중세국어 ‘-들겁-’의 형태론」, 『진단학보』 63, 진단학회, 133-150.
- 李賢熙(1995), 「‘-아저’와 ‘-良結」,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411-428.
- 李賢熙(1997), 「중세국어의 강세접사에 관한 일고찰」, 『韓國語文學論考(崔泰榮 敎수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707-724.
- 이현희(2009), 「보조용언의 범주 분화와 접미사로의 이동」, 『국어학』 54, 165-196.
- 임홍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이병근 외 편(1991: 183-226) 재록].
- 장윤희(2006), 「중세국어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관련된 몇 문제」, 『國語學論叢(李秉根先生退任紀念)』, 태학사, 633-641.
- 정승철(2007), 「피동사와 피동접미사」, 『진단학보』 104, 127-146.
- 정언학(2001), 「중세 국어 보조용언 연구-‘V-어 V’, ‘V-고 V’ 구성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일규(1997/2011), 『파생법의 변천 I』, 박이정.
- 조일규(2005), 「근대국어에 나타난 힘줄 풀이씨 뒷가지의 파생 양상」, 『한글』 267, 63-88.
- 한재영(1999), 「중세국어 복합동사 구성에 관한 연구」, 『어학연구』 35-1, 123-149.
- 함희진(2007), 「{뜨리-}의 범주와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34, 369-401.
- 허 웅(1975), 『우리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호광수(2003), 『국어 보조용언 구성 연구』, 역락.
- 황병순(1992), 「‘V어하다’와 ‘V어지다’의 형성원리에 대한 연구」, 『배달말』 17, 1-36.
- 황병순(1998), 「중동사(구문)의 형태·통사적 특성·상복합동사설정을 위해」, 『배달말』 23, 79-98.

現象이 심하게 일어났다.”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심재기(1982: 375-7)에서는 접미사 ‘-치-’를 제1군 제2류 동사화소로 설명하고 있다.

“중세·근대 ‘뜨리다’ 보조 용언 연구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박용찬(대구대학교)

발표자는 중세·근대 국어 보조 용언 ‘뜨리다’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뜨리다’의 문법 범주, 결합 유형, 기원 형태, 문법화 과정 등으로 나누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보조 용언 ‘뜨리다’를 포함해 보조 용언의 문법화에 깊은 관심을 두지 못했던 토론자에게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듣다 보니 ‘뜨리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해 토론자 또한 몇 가지 궁금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그것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뜨리다’에 대한 사적 고찰은 먼저 ‘(-)뜨리다(<(-)뜨리다)’의 최초 출현형 및 그것의 용법 확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뜨리다(<(-)뜨리다)’는 근대국어 후기에나 산발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어형이므로 당시의 실제 용법을 확인하여 그 문법적 위상 및 그 전후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뜨리다(<(-)뜨리다)’의 기원 형태, 문법화 과정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 발표자는 보조 용언 ‘(-)뜨리다(<(-)뜨리다)’의 기원 형태를 무엇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떠르-[뺨-[拂]+ -으-(사동접미사)]’는 그 어형 자체가 문중되지 않을뿐더러 ‘떠르-’가 ‘뜨리-’로 변화하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쁘리->쁘리)’는 중세·근대 국어에서 보조 용언으로 쓰인 듯한 예가 “머리를 남과 다이저 뿌리니”<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4:48L> 단 하나에 그칠 뿐만 아니라(이 또한 보조 용언으로 쓰였는지 불분명함.) ‘쁘리->쁘리)’가 ‘뜨리-’로 변화하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디르-<지르-[刺]’, ‘다이[디-[落]+ -이-(사동접미사)]’, ‘들이-[들-[落]+ -이-(사동접미사)]’, ‘들이-[들-[成]+ -이-(사동접미사)]’ 들 또한 중세·근대 국어 문헌에서 보조 용언으로 쓰인 예가 잘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통시적 어형 변화 과정도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현대국어 ‘뜨리다’의 의미와 결합 양상의 차이를 근거로 복수 기원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증거가 될 만한 예도 중세·근대 국어 문헌에서 찾아내기 힘듭니다.

셋째, 현대국어의 ‘(-)뜨리다’를 보조 용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접미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 그 의미를 서로 다르게(다른 방식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컨대 보조 용언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어떤 문법적 의미 및 양태적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 용언이란 준문법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문법적 의미 및

양태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뜨리다'가 '강제', '사역', '하강', '분리', '감소'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해 왔는데, 그것이 보조 용언으로서의 의미인지 접미사로서의 의미인지 그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강', '분리', '감소' 등은 문법적인 의미보다는 어휘적 의미에 가까운 데다가 '강제', '사역', '하강', '분리', '감소' 등의 의미가 다 동일한 문법 범주상의 의미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넷째, 현대국어의 '-뜨리다'를 뭉뚱그려 하나의 문법화 과정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뜨리다'는 기원적으로 보조 용언이 문법화한 것으로서 현대국어 공시적으로는 접미사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토론자가 보기에 현대국어에서 '뜨리다'를 보조 용언으로 파악하기는 아주 어렵지 않은가 한다.(결합상의 제약으로 그 결합어가 150여 개에 그칩.) 그러나 현대국어 '-뜨리다'의 의미 및 세부 결합 제약을 고려할 때, 결합 유형에 따라 '-뜨리다'의 문법화 과정을 달리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용언의 활용형('아/어 결합형')에 결합한 '-뜨리다'는 보조 용언이 문법화하여 접미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주로 동사 어간에) 결합한 보조 용언은 문법화와 상관없이 접미사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보조 용언 구성의 '-어#뜨리다'에서 '뜨리다'가 보조사로 재분석되어 동사 어간에 결합하면 생산적인 접미사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한 곽충구(1994:18~19)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뜨리다(<(-)뜨리다)'의 문법화 과정을 파악할 때에도 각 시기별로 '(-)뜨리다(<(-)뜨리다)'의 결합 유형별 출현 양상을 파악하여 그것의 문법화 과정 및 단계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 용언의 문법화 과정 및 그에 따른 범주 구분 연구의 쟁점과 과제

- ‘-어디-’, ‘-어흐-’, ‘-거지-’를 중심으로 -1)

박진호(서울대 국문과)

1. 보조용언 및 관련 개념 정리

1.1. auxiliary

- ㉠ 절(clause)의 술어(predicate)를 보조하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면서(시제-상-양태-증거성, 주어 등의 논항과의 일치, diathesis/태 등), ㉡ 술어에 부착되지 않고 별도의 음운론적 단어를 이루는 요소.
- 즉 ㉠' 의미·기능상으로는 문법요소(활용어미)에 가깝고 ㉡' 형식적으로는 자립적 단어에 가까운 요소.
- ㉢ 그 자체가 어느 품사에 속하는지, 어느 품사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임.
따라서, 해당 언어의 품사 체계의 어느 것에도 소속시키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음.
- ㉣' 보조의 대상: ‘auxiliary’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다른 것을) 보조하는”을 뜻하나, 언어학 용어로서는 아무것이나 보조한다고 해서 ‘auxiliary’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술어(특히 동사)를 보조하는 것만을 ‘auxiliary’라고 함.

1.2. auxiliary verb

- auxiliary이되, 해당 언어의 품사 체계에서 ㉣동사(verb)에 속하는 것, 또는 ㉡다른 품사보다는 동사에 가장 가까운 것.
- 영어에서 진행을 나타내는 ‘be V-ing’의 ‘be’, 완료를 나타내는 ‘have p.p.’의 ‘have’ 등은 ㉣의 예임. 활용 양상이 동사와 동일함.
- 영어의 ‘can’, ‘will’, ‘shall’, ‘must’ 등은 ㉡의 예임. 활용 양상이 일반 동사와 꽤 다르기는 하나, 영어의 품사 체계에서 다른 품사보다는 동사에 가장 가까움.

1.3. 조동사(助動詞)

- 두 가지 이해 방식이 있음.
①이해 1: [[助動] 詞], 즉 “동사를 보조하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
②이해 2: [助 [動詞]], 즉 “(뭔가를) 보조하는 동사”로 이해하는 것.
- ①은 auxiliary의 개념에 가까움. 일본 학계의 이해 방식.
- ②는 auxiliary verb의 개념에 가까움. 한국 영문법 학계의 이해 방식.
- ①은 그 자신의 지위/정체에 대해 말하는 바가 없고, ②는 무엇을 보조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바가 없음. “동사를 보조하는 동사”라는 의미를 나타내려면 ‘助動動詞’([[助動] 動詞])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듯.
- ①의 의미의 ‘助動詞’와 계열관계를 이루는 단어 ‘助數詞’:

1) 본 발표는 박진호(2010)을 바탕으로 약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수량을 나타내는 말을 보조하는 요소. 예: 쯤, 가량; 약, 무려, 물경, 겨우

- 일본, 한국 학계에서 흔히 ‘助詞’라고 부르는 것은, 어원적인 의미만 고려하면 “(뭔가를) 보조하는 요소”인데, 실제로는 “명사/체언을 보조하는 요소”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보조 대상을 더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助名詞’([[助名] 詞])가 더 나올 수도 있음.
- 일본 학계에서 ‘助動詞’의 의미: 일본 학계에서는 ‘助動詞’를 [[助動] 詞]로, 즉 “동사/용언(본용언)을 보조하는 요소”로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활용하는 요소”라는 의미도 포함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보통임. 이를 반영하면 “助動 活用語”라는 의미임. 또한 본용언과 별도의 어절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용언에 붙어서 그 전체가 하나의 어절을 형성한다는 조건도 포함시켜서 이해함. 즉 “助動 活用 附屬語”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하고 있음.
- 예컨대 일본 고전어에서 ‘ゆかざりき’라는 형태는 ‘ゆか(동사 ゆくの 미연형) + ざり(否定 조동사 ず의 연용형) + き(과거 조동사 きの 종지형)’로 분석됨. 조동사는 그 자체가 활용어이며, 그 앞의 용언이 특정 형태(종지형, 미연형, 연용형, 연체형, 이연형)를 취할 것을 요구함. 否定 조동사 ‘ず’는 그 앞의 용언이 미연형일 것을 요구하고, 과거 조동사 ‘き’는 그 앞의 용언이 연용형일 것을 요구함. 조동사 뒤에 조동사가 올 때에는, 물론 뒤의 조동사의 요구에 따라 앞의 조동사가 활용을 함. 맨 뒤의 조동사는 문장 내의 기능에 따라 적절히 활용함.

1.4. 보조동사, 보조용언

- 용어 자체에 무엇을 보조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동사/용언을 보조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
- 일본 학계에서 ‘助動詞’와 ‘補助動詞’의 의미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㉔본용언을 보조하고 ㉕그 자신이 활용하는 요소라는 점
차이점: 조동사는 부속어(본용언에 붙어서 그 전체가 어절을 이룸)이나 보조동사는 본용언과 별도로 독자적인 어절을 이룸.

1.5. 분류 기준

- 보조용언 및 관련 개념들을 정의하고 서로 구분할 때 여러 요인/기준이 관여하고 있음.
- ① 자립적 대 의존적
①' 독자적으로 음운론적 단어(어절)를 형성하느냐 아니냐
② 그 자신이 활용하느냐(활용의 주체인가)
②' 그 자신의 품사가 무엇인가: 활용하는가, 동사처럼 활용하는가 형용사처럼 활용하는가
③ 무엇을 보조하느냐: 용언 대 체언 대 수사; 용언 중에서도 동사 대 형용사
- 세밀하게 보면 ①과 ①'의 변수는 차이가 있음. 예컨대 의존적(발화에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요소와 공기해야 함)이면서 독자적으로 어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음. 예: 보조용언
즉, 보조용언도 완전히 자립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본 발표에서 ‘자립적’이라는 말은 ‘본용언과 독자적으로(자신 및 이에 딸린 부속어들에 의해) 어절을 형성할 수 있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로 함. 다시 말하면 ①과 ①'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논함.
- 마찬가지로 ②와 ②'도 세밀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활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뭉뚱그려서 논하기로 함.

1.6. 분류 기준의 값들의 조합

- 보조용언 및 관련 범주를 논할 때 ㉓의 기준에 대해서는 ‘용언을 보조하는 것’으로 값이 고정되어 있지만, ㉑과 ㉒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각 최소한 2개의 값이 가능하며, 조합하면 4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 ㉑자립적, 활용: 보조용언
- ㉑자립적, 활용 안 함: auxiliary이되 자신의 품사적 지위는 동사/용언이 아닌 것.
Austronesia 제어 등에서 흔히 보임.
동사를 보조하되 그 자신이 활용하지 않는 것은 auxiliary라는 명칭 대신 particle이라 불리기도 함.
- ㉒의존적, 활용: 독자적으로 어절을 이룰 수 없어 본용언에 붙어서 실현되나, 그 자신이 활용의 주체로서 활용하는 요소.
한국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으나, 일본 학계의 ‘助動詞’가 이에 해당함.
- ㉒의존적, 활용 안 함: 어미, 특히 선어말어미
- 변수 ㉑에 대한 값과 변수 ㉒에 대한 값이 완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값의 조합들이 실제로도 존재할 가능성이 꽤 있으므로, 한국어를 비롯한 특정 언어에서 모든 조합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㉑과 ㉒에 비해 ㉑과 ㉒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 왔음.
- 본 발표의 주된 주장: 한국어에서 ㉒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일본 학계에서 ‘助動詞’라 불려 왔으므로, 더 나은 명칭이 제안될 때까지 ‘助動詞’라 부르겠다.
- ㉑만큼 두드러진 것은 아니나 ㉑의 범주도 인정할 수 있다.

2. 보조용언 및 관련 요소의 문법화 단계

2.1.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통설

- 문법화 논의에서 흔히 상정하는 발달 단계
동사(verb) > 보조동사(auxiliary verb) > 접어(clitic) / 접사(affix) / 어미(ending)
-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도식은 흔히 다음과 같이 표현됨.
본용언 > 보조용언 > 선어말어미
- 그러나 제1절에서 말한 ㉑과 ㉒의 기준을 고려하고, 이들 기준에 대한 값의 여러 조합이 가능함을 고려하면 위의 도식은 더 정밀화될 필요가 있음.
- [본용언 > 보조용언 > 선어말어미]의 도식을 기준별 값으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음.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준 0: 서술 대 보조	서술	보조	보조
기준 ㉑	자립적	자립적	의존적
기준 ㉒	활용	활용	비활용
명칭	본용언	㉑보조용언	㉒선어말어미

표 61 : [본용언>㉑보조용언>㉒선어말어미]의 발달 도식

- 위 표의 2단계는 1.5.에서 말한 ㉑에 해당하고 3단계는 1.5.에서 말한 ㉒에 해당함.
-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㉑이나 ㉒ 같은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있음.

2.2. 세분화된 발달 단계 1

- ㉠과 ㉡ 사이에 ㉢ 단계를 추가한 도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0: 서술 대 보조	서술	보조	보조	보조
기준 ①	자립적	자립적	자립적	의존적
기준 ②	활용	활용	비활용	비활용
명칭	본용언	㉠보조용언	㉢	㉡선어말어미

표 62 : [본용언>㉠보조용언>㉢>㉡선어말어미]의 발달 도식

- 보조용언과 비슷하되 활용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에 해당할 것임.
- 활용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나 몇 개의 활용형만 가능한 보조용언들이 있는데, 이들은 ㉠에서 ㉢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예: -고 나-: ‘나서’, ‘나니’, ‘났더니’, ‘나면’ 정도로 활용이 제한되어 있음.
-ㄴ가/나 보-: ‘보다’, ‘봐’, ‘봅니다’, ‘보오’, ‘보네(요)’ 정도로 활용이 제한되어 있음.
-르까 보-: ‘보다’, ‘봐’, ‘봅니다’ 정도로 활용이 제한되어 있음.
- 그러나 이들 요소는 활용 능력의 상실과 더불어 자립성도 함께 상실되는 경향이 있어서, ㉢의 단계에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금세 ㉡로 지위가 변할 가능성이 높음.
- 중세어에서 종결형 뒤에 오는 ‘마른’, 현대어에서 종결형 뒤에 오는 ‘그러’, 중세어에서 연결형 뒤에 오는 ‘만덩’ 등도 ㉢의 범주에 소속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들은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나, 자립적인지 의존적인지가 좀 불분명함.
- 일본어에서 종결형 뒤에 오는 ‘が’, ‘けど’, ‘けれども’, ‘ので’, ‘から’, 연결형(て형) 뒤에 오는 ‘から’ 등도 ㉢의 범주에 소속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들 역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나, 자립적인지 의존적인지가 좀 불분명함.

2.3. 세분화된 발달 단계 2

- ㉠과 ㉡ 사이에 ㉣ 단계를 추가한 도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0: 서술 대 보조	서술	보조	보조	보조
기준 ①	자립적	자립적	의존적	의존적
기준 ②	활용	활용	활용	비활용
명칭	본용언	㉠보조용언	㉣조동사	㉡선어말어미

표 63 : [본용언>㉠보조용언>㉣조동사>㉡선어말어미]의 발달 도식

- ㉣조동사로 볼 만한 요소들이 한국어의 역사에서 종종 발견됨.
- 제3절에서는 ㉠보조용언에 가까운 조동사를, 제4절에서는 ㉡선어말어미에 가까운 조동사를 살펴봄.

3. 보조용언에 가까운 조동사

3.1. -어디- > -어지-

- 본 발표에서는 본용언 '디-'로부터 ㉠보조용언으로의 문법화 과정보다는 ㉡보조용언으로부터 ㉢조동사로의 문법화 과정에 초점을 맞춤.
- 형용사에 '-어디-'가 붙으면 그 전체는 동사처럼 활용함. 타동사에 '-어디-'가 붙으면 그 전체는 자동사처럼 활용함. 따라서 '-어디-' 뒤의 어미는 '-어디-' 앞의 본용언이 취한 것이 아니라 '디-'가 취한 것이 분명함. 즉 '-어디-'의 '디-'는 활용의 주체로서 그 자신이 활용을 하여 어미를 취하는 것으로 간주됨.
- '디-'의 후대형 '지-'는 자립성(독자적 어절 형성 능력)이 매우 떨어짐.
'-어'와 '지-' 사이에 휴지를 두어 발음할 수 없음.
'-어'와 '지-' 사이에 보조사를 삽입하기가 쉽지 않음.
표기법상 '-어'와 '지-'를 붙여 씀.
- 다만, 중세어나 근세어 단계에서 '디-'>'지-'의 자립성/의존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음.
- '-어디-'>'-어지-' 앞의 용언이 따로 쓰이지 않게 된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것도 '디-'의 자립성 상실에 기여했을 것.
예: 넘어지-, 쓰러지-, 사라지-, 부러지-, 떨어지-
(이들 중 일부는 '-어뜨리-'형과 공존하나, 본용언이 독자적으로 쓰이지는 않음.)
- 현대어의 '-어지-'는, 활용 능력은 온전히 지닌 채 자립성은 거의 상실했으므로, ㉡보조용언 단계를 벗어나 ㉢조동사 단계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판단됨.

3.2. -어하- > -어하-

3.2.1. 현대어의 '-어하-'

- 주로 심리 형용사에 붙어서 심리 동사를 만듦.
예: 기쁘-→기뻐하-, 슬프-→슬퍼하-, 좋-→좋아하-, 싫-→싫어하-
- '하-'가 활용의 주체임은 분명함. 형용사에 '-어하-'가 붙으면 동사처럼 활용함.
- '-어하-'의 '하-'는 자립성이 꽤 떨어짐.
'-어'와 '하-' 사이에 휴지를 넣어 발음할 수 없음.
표기법상 '-어'와 '하-'를 붙여 씀.
단, 보조사의 삽입은 가능함: 기뻐는 하-
- 현대어의 '-어하-'는, 활용 능력은 온전히 지닌 채 자립성을 상당히 상실했으므로, ㉡보조용언과 ㉢조동사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판단됨.

3.2.2. 중세어의 '-어하-'

- 현대어의 '-어하-'에 비해 아직 문법화가 훨씬 덜 진행되어 ㉡보조용언 단계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음.
- 표기법, 보조사 삽입, 휴지 삽입 등의 테스트는 중세어에 적용하기 어려움.
- 성조 올동 규칙이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음.
'깃거헝가니와' <月釋8:93a>가 '平去去去平去'의 성조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깃거'와 '헝가니와'가 각각 별도의 어절이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음.
'깃거헝가니와'가 하나의 어절이라면 去聲不連三의 규칙이 적용되었을 것임.

3.3. ‘-거지-’

- ‘지-’는 기원적으로 [바람, 소망, 욕구]를 나타내는 용언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 중세어의 연결어미 ‘-고저’는 기원적으로 ‘고/연결어미’, ‘지/용언’, ‘어/종결어미’의 결합으로 추정됨.
 <참고> 종결어미 ‘-어’는 ‘-오려’에서도 볼 수 있음. 중세어에서 ‘-오리라’와 ‘-오려’가 동일한 의미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오려’의 ‘-어’가 기원적으로 종결어미였음을 시사함. 나중에 뒤에 ‘-고’가 덧붙어서 ‘-(으)리라고’ > ‘-(으)르라고’와 ‘-(으)려고’로 쓰이게 되었고, 이 둘이 혼효된 ‘-(으)려고’도 쓰이게 됨.
- 조선후기 시가 자료에 흔히 나타나는 ‘-고지고’는 ‘고/연결어미’, ‘지/용언’, ‘고/종결어미’의 결합으로 이해됨.
- ‘-고’와 ‘지-’ 사이의 긴밀도는 고려 중기로 올라가면 15세기보다 느슨했던 듯. 석독구결에서는 ‘-ㅁㅂㅅ’와 같이 ‘-고’와 ‘저’ 사이에 다른 요소(‘ㅂ’)가 끼어들어 있는 형태도 보임.
- 15세기에는 (‘-고저’와 같은 고정된 구조체를 제외하면) ‘지-’ 앞에는 ‘거’나 ‘가’가 옴. 보통의 경우 ‘가’는 ‘거’와 ‘오’의 융합형이나, ‘지-’ 앞에서는 이 둘이 자유변이를 보임. ‘지-’는 1인칭 주체의 소망을 나타내므로, 1인칭 표지인 ‘오’의 유무가 변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서 자유변이를 보이게 된 듯.
- 이전 시기에는 ‘-거’로써 어절을 끝맺는 일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15세기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V-거’와 ‘지-어미’가 각각의 어절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V-거지-어미’ 전체가 하나의 어절을 이룬다고 보아야 함. 즉 15세기의 ‘지-’는 본용언과 독자적으로 어절을 형성할 능력이 없음.
- ‘지-’가 활용 능력이 있는지는 분명치는 않으나, 그 뒤의 어미가 허라체 평서형의 ‘-라’와 허쇼셔체 평서형의 ‘-이다’로 제한된다는 점, 허라체 평서형 어미의 형태가 ‘다’가 아니라 ‘라’라는 점 등은 본용언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지-’가 활용의 주체로서 이들 어미를 취했다고 보아야 할 듯.
- 그러나 ‘지-’가 활용할 때 취할 수 있는 어미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문법화의 진전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15세기의 ‘-거지-’의 ‘지-’는 <표 3>의 도식에서 ㉠조동사 단계의 끝 무렵, 즉 ㉡선어말어미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쯤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음.

3.4. 이두의 ‘有’

- 이두의 ‘有’ 앞에는 ‘爲’, ‘是’가 오는 일이 많으며 ‘去’나 ‘白’이나 ‘置’가 ‘爲/是’와 ‘有’ 사이에 끼어들기도 함. ‘白’과 ‘置’ 둘이 함께 끼어들기도 함. 즉 다음과 같은 형태소 연결체가 흔히 보임.

	‘爲’ 결합형	‘是’ 결합형
有~	爲有~ (869예)	是有~ (6예)
去有~	爲去有~ (16예)	是去有~ (138예)
白有~	爲白有~ (628예)	是白有~ (79예)
置有~	爲置有~ (10예)	是置有~ (112예)
白置有~	爲白置有~ (3예)	是白置有~ (27예)

표 64 : 이두 ‘有’의 결합 양상

- ‘有’ 앞에 오는 요소들은 모두 그 자체로서 어절을 끝맺지는 않는 요소임. 따라서 ‘有’ 앞의 부분과 ‘有’ 및 그 뒤의 부분이 각각 별도의 어절을 이룬다기보다는 그 전체가 하나의 어절을 이루는 것으로 보임.
- <표 4>의 연결체 뒤에는 ‘乙’, ‘乎矣’, ‘亦’, ‘去乎’, ‘去等’, ‘去乙’, ‘在’, ‘在如中’, ‘在果’, ‘在等以’, ‘如乎’, ‘如可’, ‘旡’, ‘昆’, ‘沙餘良’, ‘等以’, ‘置’, ‘而亦’, ‘臥乎~’, ‘臥乎所’, ‘臥乎等用良’, ‘良尔’, ‘齊’ 등의 어미(구조체)가 있음. 이 중에는 ‘爲’나 ‘是’ 뒤에는 곧장 結合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결합한다 하더라도 頻度가 높지 않은 것들이 꽤 있음. 다시 말해서 이 어미(구조체)들은 ‘有’에 특징적으로 뒤따르는 것이지, ‘爲’나 ‘是’에 특징적으로 뒤따르는 것은 아님. 이런 점에서 이들 어미(구조체)를 취하는 주체는 ‘爲’나 ‘是’라기보다 ‘有’인 것으로 보임.
- 이 ‘有’는 의존적이나 활용의 주체라는 점에서 조동사로 볼 수 있음.
- 이것을 염두에 두면, 한글 문헌의 ‘-잇-’에 대해 ‘-아/어’의 省略이라든지 어미 ‘-오/우’의 介在를 상정하기보다는 그냥 용언 ‘두-’ 바로 뒤에 조동사 ‘잇-’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간단한 처리임.
- 고대어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동사 앞에 오는 본용언이 아무 어미도 취하지 않거나 어말어미를 취하지 않는 일이 꽤 있었던 듯함. 이를 감안하면 ‘-습-’의 문법화의 초기 단계와 관련하여 고광모(2013)에서는 본용언과 ‘-습-’의 결합이 합성 용언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았으나, 본고의 관점에서는 고대어에서 본용언과 ‘-습-’의 결합은 조어법적인 결합이 아니라 본용언과 조동사의 통사적 결합이었다고 생각됨.

4. 선어말어미에 가까운 조동사

4.1. -잇-

4.1.1. ‘-잇-’과 그 뒤의 어미의 결합의 특징

- 현대어의 ‘-잇-’이 의존적이라는 것, 독자적 어절 형성 능력이 없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음.
- 보통의 문법 기술에서 ‘-잇-’은 활용의 객체로 간주될 뿐, 활용의 주체로 인식되는 일이 거의 없음. 즉 ‘먹었다’는 동사 ‘먹-’의 활용의 주체로서 어미 ‘-잇-’과 ‘-다’를 취한 것으로 기술됨.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음.)
- 그런데 ‘먹었느냐’에 대해 동사 ‘먹-’이 활용의 주체로서 어미 ‘-잇-’, ‘-느-’, ‘-냐’(또는 이 둘을 뭉뚱그려서 ‘-느냐’)를 취했다고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먹-’이 과거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잇-’을 취했는데, 과거시제와는 관련이 없는(심지어 모순된다고도 할 수 있는) ‘-느-’를 ‘먹-’이 취할 이유가 무엇인가? (‘-느-’를 ‘먹-’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잇-’이 취했다고 보면 문제가 해결됨.)
- 형용사에 ‘-잇느냐’가 결합된 경우를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함. 형용사는 본래 ‘-느-’계 어미를 취할 수 없음(좋으나, *좋느냐). 그런데 ‘좋았느냐’는 가능함. 형용사 ‘좋-’이 ‘-느-’ 또는 ‘-느냐’를 취했다고 기술하기가 어려움. (‘-느-’를 ‘좋-’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잇-’이 취했다고 보면 문제가 해결됨.)
- 통설은, 형용사 자체는 ‘-느-’계 어미를 취할 수 없지만, 형용사 뒤에 ‘-잇-’이 결합되면 ‘-느-’계 어미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임. 그러나 이 설명은 불필요하게 궁색하며, ‘-느-’계 어미를 취하는 핵심 열쇠를 ‘-잇-’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쓸데없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데 불과함.

- 요컨대, ‘-었-’은 ㉠조동사(의존적이지만 활용의 주체)로서 그 뒤에 오는 어미를 취한다고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함.

4.1.2. 문법화의 관점에서 본 ‘-었-’의 결합적 속성

- ‘-었-’이 ‘-느-’계 어미를 취하는 현상은, ‘-었-’의 기원적 구성이 ‘-어 잇-’이고 ‘잇-’이 ‘-느-’(<-느-)계 어미를 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음. ‘잇-’의 결합적 속성이 문법화 뒤에도 남은 것임.
- 중세어 ‘-어 잇-’의 ‘잇-’은 ㉡보조용언임. ‘-어 잇-’이 문법화됨에 따라 음운적으로 축약·삭감을 겪고 의미적 측면에서도 변화(상적 의미 > 시제적 의미)를 겪었으나, 형태적 결합 속성은 크게 변하지 않고 남은 것임.
- 문법화의 제 부면에서의 변화가 항상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는 것은 아님. (pace 이승욱, 한동완, 정언학)
cf. 생명체의 老化를 구성하는 제 부면의 변화도 항상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는 것은 아님. 나이에 비해 머리가 빨리 세거나 주름이 빨리 생기는 사람도 있고, 나이에 비해 피부가 탱탱한 사람도 꽤 있음. 기억력, 시력, 청력, 근력, 골밀도, 소화력, 치아의 건강도 등 노화의 제 지표는 거칠게/장기적으로 보면 상관관계가 있지만, 미시적으로 항상 착착 보조를 맞추어 변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님.
- 어떤 요소의 문법적 지위/범주를 결정할 때 음운, 의미, 형태, 통사 등 제 부면에서의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이들 속성이 서로 어긋날 때에는 형태·통사적 속성을 가장 중시해야 함. 형태·통사적 속성은 다시 말해 결합적 속성임. 단어 내부에서 형태소간의 결합에 관한 속성 및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결합에 관한 속성임.
- ‘-었-’의 문법적 지위/범주를 결정할 때에도 결합적 속성을 가장 중시해야 함. ‘-었-’은 문법화되기 이전에 ‘잇-’이 활용의 주체로서 ‘-느-’계 어미를 취할 수 있었고, 문법화가 상당히 진전된 현대어에서도 여전히 ‘-느-’계 어미를 취할 수 있음.
- 따라서 <표 3>의 도식에서 아직 ㉠조동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거나, (백보 양보해도) ㉠조동사와 ㉡선어말어미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게했-’으로부터 문법화된 ‘-겠-’도 형용사 뒤에 붙든 동사 뒤에 붙든 상관없이 ‘-느-’계 어미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활용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조동사로 볼 수 있음.

4.2. -습-

- 주지하다시피 ‘-습-’은 동사 ‘습-’(習)에 기원을 두고 있음.
- 15세기 공시적으로, ‘-습-’은 완전히 의존적임. 앞의 본용언과 함께 하나의 어절을 이룸.
- 활용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어떤 용언 뒤에 ‘-습-’이 붙었다고 해서 어미를 취하는 속성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음. 즉 ‘V+습+E’라는 어절에서 V가 E를 취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전혀 없으며, 굳이 ‘-습-’이 E를 취한다고 볼 필요가 없음.
- 그러나 음운론적 측면, 특히 성조의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짐. 동사 ‘뵈-’(R)에 ‘-습-’이 붙었을 때 성조올동규칙에 따르면 ‘RHLH’로 실현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RLHH’(용가 7)로 실현됨(김성규 2007, 2009a, 2009b). 이것은 ‘-습-’이 성조 실현에 있어서 선행 용언에 종속된 어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용언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요컨대 15세기의 ‘-습-’은 1.5.에서 말한 ①과 ②의 기준을 적용해도 이미 선어말어미가 되었다고 보기에 손색이 없으나, 성조의 측면에서는 아직 독자적인 용언의 성격이 남아 있는 것임. 문법화의 제 부면에서의 변화가 항상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도 알 수 있음.
- 모든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5세기에는 ‘-습-’이 이미 ㊸선어말어미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으나, 이보다 이른 시기에는 아직 그 이전 단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15세기나 석독구결에서 ‘-습-’은 거의 항상 용언 어간 바로 뒤에 붙으나, 그렇지 않은 예도 소수나마 있음.
善男子 3 {是} 月光王 1 已 {於}過去 七 十千劫 七 中 3 七 龍光王佛法 七 中 3 十 3 3 四住 七 開士 七 爲 {爲} 入 七 十 1 七 我 1 八住 七 菩薩 七 爲 {爲} 入 七 十 1 八 白 1 入 3 今 3 1 {於}我 3 前 3 十 3 3 大師子 吼 七 十 3 十 1 1 <구인11:20-22>
“되다”를 의미하는 ‘-니 爲 {爲} 入 七 十 1 1 七’에 ‘- 1 八 白 1 入 3 3’가 붙어 있음. ‘1’는 15세기의 ‘-더-’와 비슷한 요소로 추정되나, ‘1 八’의 정체는 未詳. ‘1 八’ 뒤에 어절 경계가 있다면 ‘- 八’은 보조용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절 경계가 없다면 조동사라 할 수 있음.

5. 맺는 말

- ‘-었-’ 등의 요소를 선어말어미로 간주하는 견해는 한국 문법학계에서 그리 오래 된 것이 아님. ‘보조어간’ 등으로 간주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음.
- 일본 문법 학계에서 현재 조동사로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음. 山田孝雄는 해당 요소들을 ‘複語尾’라 부르기도 했음. 이들을 助動詞로 보는 전통은 橋本進吉에서 비롯된 것.
- 이들 요소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은, 이들이 중층적/복합적/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듯. 자립적 > 의존적, 활용의 주체 > 활용의 객체 등 여러 측면에서 문법화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음.
- 이러한 성격을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학자가 좀 더 정밀한 개념적 장치를 가지고 현상을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본용언>보조용언>선어말어미]라는 기존 문법화 도식은 너무 거칠. 보조용언과 선어말어미 사이에 중간 단계를 설정하는 개념적 정밀화, 단계의 세분화를 통해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을 좀 더 정밀히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풀이씨의 경우』, 서울: 국학자료원.
- 김성규(2007), 중세국어의 형태 분석과 성조,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19-45.
- 김성규(2009a), 15세기 한국어 성조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 56, 서울: 국어학회, 3-31.
- 김성규(2009b),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4-37.
- 南豊鉉(2004), 시상의 조동사 ‘在/ㄹ/겨-’의 발달, 『국어국문학』 138, 서울: 국어국문학회, 5-34.
- 박진호(2010), 韓國語 文法史에서 助動詞 概念의 定立을 위하여, 전정예 외, 『새로운 국어사 연구론』, 270-282.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佐藤武義(초판 1977, 5판 1983), 助動詞, 佐藤喜代治 編, 『国語学研究事典』, 東京: 明治書院, 147-149.

永野賢(초판 1980, 재판 1982), 助動詞, 国語学会 編, 『国語学大事典』, 東京: 東京堂出版, 523-524.

山口明穂(2001), 助動詞, 山口明穂・秋本守英 編, 『日本語文法大事典』, 東京: 明治書院, 350-351.

山口明穂(2007), 助動詞, 飛田良文・遠藤好英・加藤正信・佐藤武義・蜂谷清人・前田富祺 編, 『日本語学研究事典』, 東京: 明治書院, 223-225.

吉田金彦(초판 1971, 4판 1982), 助動詞, 松村明 編, 『日本文法大事典』, 東京: 明治書院, 332-334.

“보조 용언의 문법화 과정 및 그에 따른 범주 구분 연구의 쟁점과 과제 - ‘-어디-’, ‘어흐-’, ‘-거지-’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이금영(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기본적으로 [본용언>보조용언>선어말어미]라는 기존 문법화 도식에서 벗어나 보조용언과 선어말어미 사이에 중간 단계를 설정하는 개념적 정밀화와 단계의 세분화를 통해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을 좀 더 정밀히 포착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조용언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해 보지 못한 까닭에 소소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발표자께서는 “한글 문헌의 ‘뒷-’에 대해 ‘-아/어’의省略이라든지 어미 ‘-오/우’의 介在를 상정하기보다는 그냥 용언 ‘두-’ 바로 뒤에 조동사 ‘잇-’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간단한 처리”라고 하였는데, 뒷부분의 ‘-습-’에 대한 설명을 보면 ‘뒷-’ 역시 합성어와 같은 “조어법적인 결합이 아니라 본용언과 조동사의 통사적 결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이 본래부터 ‘본용언과 조동사의 통사적 결합’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면 몰라도 조동사 ‘잇-’ 자체가 보조용언 구성에서 발달된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통사적 결합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잇-’을 조동사로 설정한다면, 본동사 ‘잇-’ 이외에도 ‘이시-/시-’가 있고, 그 밖에도 ‘-어 잇-’, ‘-었-’ 등의 보조용언 내지는 조동사 (또는 조동사와 선어말어미 사이의 단계에 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것이 또한 문법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만일 ‘뒷-’이 보조용언의 구성에서 발달된 것으로 본다면 공시적으로는 아니어도 통시적으로는 ‘-아/어’ 결합형을 상정해야 될 터인데, ‘-엇- > -었-’, ‘-에시- > -어시’ 등의 발달 과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생략형으로 보는 것이 또한 합리적인 것인지 여쭙습니다.

2. “중세어의 ‘-어흐-’는 현대어의 ‘-어하-’에 비해 아직 문법화가 훨씬 덜 진행되어 ㉠보조용언 단계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대국어의 ‘-어하-’가 더 문법화된 만큼 그 분포도 더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대어의 ‘-어하-’는 주로 심리 형용사에 통합되나 중세어의 ‘-어흐-’는 아래 (1)과 같이 형용사 이외에도 동사에 두루 통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ㄱ. 말슴 퍼 호문<두초 8:19>

ㄴ. 내 그런 뜨들 몰라 흐댕다 흐야늘<석보 24:32>

3. 현대국어의 ‘물러나다, 솟아나다’ 등을 1) 합성어로 보는지 아니면 보조용언 구성으로 보는지, 2) 만일 이것들이 현대국어에서 합성어로 처리된다면 중세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는지, 혹은 3) 보조 용언 '-어 나-' 구성에서 합성어로 발달된 것으로 보는지, 만약 3)이라면 그러한 변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4부

개인 발표

20세기 전반기 의문형 어미의 의미 기능 실현 양상

이소훈(서울시립대)

1. 머리말

본 연구는 20세기 전반기에 나타난 의문형 어미의 의미 기능 실현을 통해 19세기 말~20세기 초 종결어미화된 어미들의 현대국어로 이어지는 변화 양상을 살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시기에 반말어미들이 형성되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 어미들이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말이라 함은 본디 형태상 완전하지 못한 어형을 가리키는 것인데(김영옥 1997), 근대국어 이후에 출현한 반말어미는 형태론 절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로 통사론적인 절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한 것이다(이소훈 2017). 또한 통사 구성에서 종결어미화한 것이 있는데, 이 어미들은 ‘해’체라는 범주로 묶이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이 외에도 ‘해’체에는 ‘-군’과 같이 기존의 종결어미 형태가 축약되거나 ‘하계’체에서 의미 기능이 변한 형태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체 어미들이 종결어미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이 가진 양태 의미 때문으로 이 기능은 현대국어로까지 거의 이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어미들은 문맥에 따라 다시 변화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미 기능의 변화 과정은 사용 양상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의문문은 ‘정보의 요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화자의 무지’가 바탕이 된다. 대부분 기존 체계의 의문형 어미는 양태 의미가 나타나지 않지만 ‘-는가’, ‘-군까’의 경우 양태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 어미들은 중세국어에서 간접의문에 쓰이던 것이 직접의문에도 쓰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은숙(2011)은, ‘-군까’는 기원적으로 동명사형 어미 ‘-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양태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 ‘-는가’는 간접의문, 자문에 쓰일 때 양태 의미가 드러나는데 기원적 요소로부터 나오는 특성이 아닌 그것이 사용되는 환경을 통해 얻어진 특성이라 하고 ‘-는가’가 직접의문에 쓰일 경우 양태 의미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는가’는 20세기로 오면 그 의미 기능이 분화되어 화제도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의문형 어미는 기원적 요소가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태만으로는 양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해’체 어미가 형성된 후로는 의문형 어미에 양태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대부분 양태 어미인 ‘해’체는 구어에서 실현되는데, 특히 ‘-는가’, ‘-군까’의 경우 변화 양상이 담화 상황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20세기 전반기 구어체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헌 자료로 신소설과 근현대소설, 근현대희곡에 나타나는 대화 자료, 음성 자료로 1930년대 유성기에 녹음된 연극 자료와 1930년대~1950년대 영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양태 어미의 의미 기능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양태 어미의 의문법 실현 양상

연결어미 등에서 종결어미화된 양태 어미는 인식 양태 어미와 행위 양태 어미로 나뉜다.

이중 인식 양태 종결어미는 대체적으로 평서형 어미로 분류되고 행위 양태 종결어미는 청유형, 명령형 어미로 분류된다. 인식 양태는 화자가 가진 정보에 대한 화자의 태도이므로 평서문으로 실현되는데, 평서형 어미만이 아니라 의문형 어미로도 실현되기도 한다. 그것은 종결어미가 가진 양태 의미에 따라 의문형 어미로 실현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1) ㄱ. [김승지] 오날은 불의 줄형이야 공연이, 남의게 썰려서, 이리저리, 혼참을 쏘뎨 거든…… <귀의성637>

ㄴ. 「그러길래 말야. 계속이가 어떻게 눈이 높다구 그렇지만 여왕님이 되려 보잘 것 없는 무사의 무릎에다 최경례를 하는 걸 이 눈으로 봤으니깐 기적이거든.」 정신은 여담정 노릇이나 하는 듯이 무안에 취한 계속의 얼굴을 꿰뚫을 듯이 노려본다. <永遠의微笑 117>

(1)의 ‘-거든’, ‘-거들랑/걸랑’)과 같은 경우는 의문문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평서문으로만 실현된다.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르쳐 주거나 자랑을 할 때 쓰이는 어미인 ‘-거든’, ‘-거들랑/걸랑’은 [무지]가 아닌 [확실성]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문문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²⁾ 그러나 다음 어미들은 의문문으로 실현된다.

(2) ㄱ. 이건 왜 이래, 패시너리, 오, 승을 속이고 감쪽같이 허 승 부인입시오 하고 학교에도 가고 예배당에도 점잖을 때 보시게? 흥, 고런 소갈머리를 가지니깐 겁이란 하등 동물이란 말이다. <흙 3 267>

ㄴ. 「아니야 안 노아 자고 가요 응 …… 자고 … 나 돈 줘 주어」 「돈? 내가 돈이 있어 보이니?」 「돈 소리가 절녕절녕 나는데?」 미상불 P의 포켓 속에서는 아까부터 잔돈소리가 각금 잘낭거렸다. <레디메이인생 538>

ㄷ. 그렇건만 계속은 ‘오면 왔지 저희들이 어쩌려고? 겁날 게 뭐야.’ 하고 안간힘을 썼다. <永遠의微笑 279>

ㄹ. 이윽고 그는 나를 향하여 「미안하지만 너 한 번만 더 갔다 올래?」 하고 나즉이 묻는 것이다. <생의반려 246>

(2ㄱ, ㄴ)은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것이고 (2ㄷ)은 융합형 연결어미에서, 그리고 (2ㄹ)은 통사 구성 ‘-ㄹ라고#해’³⁾에서 종결어미화한 것이다. 그런데 대답을 요구하는 (2ㄷ)과 달리 (2ㄱ, ㄴ, ㄷ)은 의문문 형태이지만 대답 즉 정보를 요하는 의문문이 아니다.⁴⁾ 박재연(2005)는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인식 양태의 의미영역⁵⁾ 중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의 의미 영역은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1) 20세기 전반기 문헌 자료에서는 종결어미 ‘-거들랑/걸랑’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거들랑’의 경우 연결어미만 확인된다.

2) 박재연(2005)는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화자의 앎의 척도)’에 대하여 [무지]는 0%, [확실성]은 100%이고, 가능성 판단은 0~50%, 개연성 판단은 50~100% 사이라 하였다.

3) 이소훈(2017) 참조.

4) (1ㄱ)의 ‘-게’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정보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말투이다.

5)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박재연 1999)

ㄱ. 정보의 확실성 정도: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ㄴ. 정보의 출처: [지각], [추론], [인용]

직접인 관련을 맺는데, 의문문의 본질을⁶⁾ ‘정보의 요구’로 파악하는 것은 의문문에 대한 통보적 해석(communicative interpretation)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화자의 무지’로 파악하는 것은 의문에 대한 양태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획득 방법’이나 ‘정보의 내면화 정도’를 나타내는 양태 요소가 사용된 평서문도 의문문과 간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요소가 상향억압을 가지고 질문의 효과를 갖는 문장에 사용될 때 화용론적으로 유사의문문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의 양태적 의미 판단을 나타내는 듯한 현상이 존재하는 의문형 어미 ‘-ㄴ가’와 ‘-ㄴ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문형 어미의 자격을 가진다고 하였다.⁷⁾

유사의문문(pseudo-interrogative)이란 전형적인 의문문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평서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박재연 2005). 즉 질문의 효과는 화용론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문법적으로 의문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양태 어미류들이⁸⁾ 판정의문문으로만 사용되지 설명의문문이나 선정의문문으로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러한 어미들이 ‘화자의 무지’를 표현하지 않아서이다.⁹⁾

그러나 인식 양태 어미들이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다. (2ㄷ)은 판정의문문이지만 ‘화자의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유사의문문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태 어미들은 “언제 올래?”, “왜 왔지?”, “집이 얼마나 작은데?”와 같이 설명의문문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자의 무지’를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대답을 요하는 경우 의문문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유사의문문의 경우 확인, 동의를 구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양태 어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의 종결어미 ‘-게’, ‘-ㄴ래’, ‘-려고’, ‘-ㄴ데’는 평서문과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선정의문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¹⁰⁾ ‘-게’의 경우¹¹⁾ [의도], [확인](시험 질문에 사용되어 청자가 알고 있는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ㄱ)은 [의도]를 나타내지만 반어적인 물음이다. ‘-ㄴ데’는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 등의 의미가 나타나고, ‘-려고’는 [의심]과 [반문]의 의미가 나타난다. ‘-ㄴ래’는 [의도]의 의미를 갖지만 (2ㄷ)에서 보듯 완곡한 요청의 의미도 드러난다(박재연 2006).¹²⁾ (2ㄱ, ㄴ, ㄷ)의 예는 ‘화자의 무지’에서 나온

ㄷ. 정보의 내면화 정도: [이미 앎], [새로 앎]

ㄷ.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 [기지가정], [미지가정]

6) 의문문의 본질은 전통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데 있다고 하였으나 Lyons(1977)은 의문문은 명령문 같은 요청의 일종이 아니라 화자의 무지의 표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입장은 상반되는 주장이라기보다 하나의 사실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화자가 담화에서 자신이 어떤 사태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표현하는 주된 목적은 청자에게서 해당 정보를 구하기 위함일 것이기 때문이다(박재연 2005).

7) ‘-ㄴ가’, ‘-ㄴ까’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무지이며 화자의 어떠한 판단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의문형 어미와 달리 ‘의심’이나 ‘추측’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이들이 모두 독백문 종결어미라는 사실과 연관되므로, 다른 의문형 어미와 달리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측면이 미약하기 때문에 화자의 지식 상태와 관련된 양태적 성격이 부각되는 것이다(박재연 2005). 그러나 ‘-ㄴ가’, ‘-ㄴ까’가 언제나 독백문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청자에게 질문할 때에도 이러한 양태 의미는 드러난다.

8) 박재연(2005)에서 논의한 양태 종결어미는 ‘-네, -구나, -군, -다면서’이다. 이 외에 의문형 어미 ‘-ㄴ가, -ㄴ까’가 논의되었다.

9) ‘-지’는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으로 실현된다.

10) “언제 가게?”, “뭐 먹을래?”, “뭐 하려고?” “왜 왔는데?”, “올래, 말래?”와 같이 설명의문문과 선정의문문이 나타날 수 있다.

11) 이현정(2014)에서는 종결어미 ‘-게’는 의도, 예상 결과, 추론, 판단의 근거, 반어적 진술,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반어적 진술은 의문문에서는 반어적 물음으로 나타난다.

12) [의도]가 완곡한 요청으로 표현되는 것은 선어말어미 ‘-겠-’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다.

질문은 아니므로 (2ㄱ, ㄴ, ㄷ)은 유사의문문이다. 그러나 (2ㄷ)은 유사의문문이라 할 수 없다. (2ㄱ, ㄴ, ㄷ)은 ‘화자의 무지’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답을 요하지 않는 반면 (2ㄷ)은 ‘화자의 무지’에서 비롯되었으며 대답을 요하기 때문이다.

박재연(2005)에서 다루고 있는 ‘-네’, ‘-구나’, ‘-군’의 경우는 [새로 앎]의 의미므로 알고 있음이 전제된 것이고 ‘-다면서’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확인만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이미 알고 있음이 전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네’와 ‘-구나’, ‘-군’은 성격이 좀 다르다. ‘-네’는 평서문에 급히올림(↑) 억양을 취하면서 동의, 확인을 구하는 의문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유사의문문만이 나타난다. 그러나 ‘-구나’, ‘-군’은 ‘-네’와 같은 유사의문문도 실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실현된다. “너 합격했구나?”(↑)와 같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추측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요할 때도 쓰이기 때문이다.¹³⁾ 이것이 평서문일 경우는 추측한 사실을 단정 짓거나 어떠한 사실을 추측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네’는 눈으로 지각한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문으로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양태 의미가 없는 ‘하계’체 평서형 어미인 ‘-네’가 양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네’에 결합되어 있는 ‘-느-’의 영향이다. 19세기까지 ‘-네’에 결합된 ‘-느-’의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현재지각] 양태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네’는 양태 의미가 없는 ‘하계’체 평서형 어미 ‘-네’와 양태 의미가 있는 ‘해’체 평서형 어미 ‘-네’로 분화되었다(이소훈 2017).

- (3) ㄱ. [오] 황 서방은 더 사름 온 것을 알지도 못헛슬걸이오 <황금탑 546>
- ㄴ. 그 청년은 아주 미안한 듯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 놀아서는 안 될걸?」 「어떡허나 할 수 없지?」 <환희 60>
- (4) ㄱ. 허 나눈 그런 잔말소리 듯기 슬여 올 쟈 되면 어련히 올라고 이리 지축을 허나 <재봉춘 415>
- ㄴ. [계] 그는 녀너마시고 한봉이 일이나 잘 되게헛서요 제야 설마 본국갓가온디 엇달라고요 <송뢰금 3>
- ㄷ. 「무얼 어떻게요 징역이나 지면 상팔자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고.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요. 콩밥이라도 굶는 것보다 안 날라고.」 하고 병 있는 듯한 젊은이가 역시 병 있는 듯한 젓먹이를 기어 나가지 못하게 붙들면서 웃는다. <흙 1 107>

통사 구성에서 종결어미화한 ‘-르걸’은 동의, 확인을 구하는 유사의문문만 실현되고, ‘-르라고’¹⁴⁾는 유사의문문으로도 실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타난다. ‘-르걸’은 화자가 추측한 것을 청자에게 동의 또는 확인을 얻으려 할 때 의문문으로 사용되어서 판정의문문으로만 실현된다. ‘-르라고’는 동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정의문문으로만 나타나는데, 대답을 요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실현된다. (3ㄱ)은 ‘해요’체 ‘-르걸요’인데 평서문인지 유사의문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문장부호가 표시되지 않은 신소설의 경우 평서문과 유사의문문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소설이 쓰인 당시에는 유사의문문

13) 이 경우 “너 합격했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너 합격했구나(↑), 그렇지(↑)?”와 “너 합격했구나(↓), 그렇지(↑)?” 또는 “너 합격했구나(↗).”는 다르다. 앞의 ‘합격했구나’는 물음이고 ‘그렇지’를 통해 되묻는 것이지만, 뒤의 두 경우 ‘합격했구나’는 추측한 사실을 단정 짓거나 추측을 하고 ‘그렇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14) ‘-르라#하고’의 융합형이다(이소훈 2017).

이 실현되었는지 알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유사의문문은 평서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ㄴ)은 물음표가 있으므로 의문문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문맥을 보면 동의, 확인을 구하고 있지만 반드시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의문문이다. (4)의 ‘-르라고’는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부정적인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가벼운 물음의 뜻이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즉 가벼운 물음이 나타날 때는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4ㄱ)은 부정적인 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표현으로 종결어미가 아닌 연결어미이다.¹⁵⁾ (4ㄴ)은 신소설 자료로 문장부호가 없기 때문에 평서문인지 유사의문문인지 구분되지 않는데, ‘-르라고’는 의문형 어미로 실현되기도 한다. “설마 저 밥을 혼자 다 먹을라고?”와 같은 경우, 상대의 대답을 요하므로 의문문이고 어미로는 의문형 어미이다. 그런데 이 시기 의문형 어미는 확인되지 않는데, 근현대소설 자료인 (4ㄷ)의 경우 평서문이지만 문맥에 따라 유사의문문, 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이와 같이 유사의문문이 나타나는 것은 청자로부터 동의, 확인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곳에 나타나는 동의, 확인은 종결어미 자체가 가지는 본연의 의미는 아니다. 문맥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확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와 다르다. 평서문에 올림 억양을 수반함으로써 청자에게 동의, 확인을 구하는 표현이 된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확인을 요청하는 표현으로 박재연(2005)에서 논의한 ‘-다면서’를 보자.

(5) ㄱ. 「무섭다면서?」 「무섭긴 해도 안 잊히는 걸 어짜하요? 세상 사람들이 그이를 숭보면 듣기가 싫어.」 하고 순례는 웃는 듯, 우는 듯 낯을 감춘다. 그는 웃는 채 우는 것이었다. <흙 2 152>

ㄴ. [평] 등불도 업시 왔다며 그년 죽은 송장인지 엇지 아라 그년이 무엇이 못맛당히 죽는단 말이나 <빈상설 148>

‘-다면서’도 확인을 요청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앞의 어미들과 달리 ‘-다면서’는 평서형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다면서’가 확인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인용 구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인데, 국립국어원(1999)에 따르면 다짐을 받거나 빈정거리는 뜻이 있다. 그러나 다짐을 받는 의미의 경우 종결어미이나 빈정거리는 의미일 때는 연결어미이다.¹⁶⁾ 빈정거리는 의미의 ‘-다면서’는 국립국어원(1999)의 풀이와 달리 ‘-다고 했으면서’와 같이 ‘-다고 하면서’의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¹⁷⁾

‘-다면서/다며’는, 종결어미로 쓰일 때는 급히올림(↑) 억양이 수반되면서 대답을 요하나 연결어미로 종결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올림(↗) 억양이 수반이 수반되며 대답을 요하지 않

15) 융합형 연결어미 ‘-르라고’가 종결어미화한 것이다.

16) 연결어미일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다고 하면서’가 줄어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고 했으면서’가 줄어든 것으로 이것은 그렇게 말한 데 대하여 따져 묻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국립국어원 1999).

17) ‘-다면서’의 축약형인 ‘-다며’는, 연결어미 첫 번째 의미 ‘-다고 하면서’일 경우에는 ‘-다고 하며’로 환원되나 두 번째 의미 [빈정거림], [따져 물음]의 ‘-다고 했으면서/하면서’일 경우에는 본 형태로 환원되지 않는다. 즉 빈정거림의 ‘-다고 하며’, ‘-다고 했으며’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빈정거림]의 ‘-다면서’보다 좀 더 융합한 정도가 강한 것이다. 융합 정도를 보면, 연결어미 첫 번째 의미 ‘-다면서’, ‘-다며’는 융합한 형태가 아니지만 두 번째 의미인 [빈정거림]의 ‘-다면서’부터 융합 정도는 약하게 형성된다. 이보다 [빈정거림]의 ‘-다며’가 융합한 정도가 좀 더 강한 형태이며 종결어미 ‘-다면서’, ‘-다며’는 융합형이다. ‘-다며’가 ‘-다면서’보다 좀 더 융합되는 이유는, ‘-며’는 연결어미로만 쓰이지 종결적 용법으로도 쓰이지 않는데 [빈정거림]의 ‘-다면서’는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는다. 그러므로 종결어미 ‘-다면서/다며’는 의문형 어미이며 이것이 실현된 문장은 의문문이고, 연결어미가 종결적 용법으로 실현된 문장은 유사의문문이다. (5ㄱ)의 ‘-다면서’는 문헌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종결어미, 연결어미의 종결적 용법으로 해석 가능하다. (5ㄴ)의 ‘-다며’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한데, 종결어미로 해석할 경우 의문형 어미이다.

그런데 의문형 어미 ‘-다며’는 ‘-다면서’의 준말인 것과 달리 ‘-며’와 ‘-면서’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않다. 그것은 ‘-며’와 ‘-면서’는 각각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¹⁸⁾ 한 가지 뜻만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면서’는 종결적 용법으로 쓰여¹⁹⁾ 평서문,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데 반해, ‘-며’는 그렇지 않고 연결어미로만 쓰인다. 더불어 ‘-며’에는 ‘-요’도 결합되지 않는다. 연결어미에서, 종결적 용법으로도 쓰이지 않고 ‘-요’도 결합되지 않지만 인용 구성의 융합 형태로는 실현되는 것은 ‘-며’와 ‘-니’이다.²⁰⁾ 그러나 연결어미 ‘-니’가 결합된 ‘-다니’의 경우 평서형과 의문형으로 실현되고 ‘-요’가 결합되는 것과 달리 ‘-다며’는 의문형으로만 실현되고 ‘-요’도 결합되지 않는다.²¹⁾

[확인]은 인용 구성 형태에서 많이 나타난다. ‘-다니’의 경우 의문형 어미 ‘-니’와 결합한 제1유형과 연결어미 ‘-니’와 결합한 제2유형을 나누어서 살펴야 하는데,²²⁾ 제2유형이 전부 융합 형태인 것과 달리 제1유형은 융합 형태보다 결합 형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어쩔 그렇게 예쁘다니?”와 같은 형태는 제1유형 가운데 환원되지 않는 융합형이다. 이들의 의미는 제1유형에서는 [놀람], [감탄], [못마땅함], [걱정] 등의 의미가 나타나고 제2유형에서는 [확인(발화 자체에 대한 물음)]의 의미가 나타난다.

(6) ㄱ. 가기는 엇의로 가라고 하시더냐 그럭 너가 잇스면 그년을 다리고 재미있게 못 살갬다되 <치악산 下 52>

ㄴ. 同腹第: (실적 우서 보고) 저거두 자네가 同무가 아니냐 말야.

第三友: 그러치, 그래! 竹馬故友라니! <회곡_難破>

ㄷ. [계] 요란시러운 것이 다 무엇이오 더 량반이 엇저녁에 우리집에서 잔 량반인 되 싱세를 쓰구려

[선] 그게 무슨 소리아 싱세를 쓰다니 지금 세상에 세바지홀 사람이 누구 잇나 <황금탑 86>

ㄹ. 「아아니, 어디루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다니요? 이 두 바퀴 자동차를 타구 왔지요」 하고 동혁은 제 다리를 탁 쳐 보인다. <常綠樹 2 281>

제1유형 ‘-다니’는 의문형 어미 ‘-니’가 결합된 것이므로 의문형으로만 나타난다. (6ㄱ)의 ‘-다디’는 ‘-니’ 자리에 ‘-디’가 결합된 형태이다. (6ㄴ, ㄷ, ㄹ)은 제2유형 ‘-다니’로

18)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며’와 ‘-면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며: 1.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따위를 나열할 때 쓰는 연결 어미. 2. -면서

-면서: 1.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며₂

2.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19)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는 과정을 보면, 연결어미, 종결적 용법, 종결어미로 나눌 수 있다(이소훈 2017).

20) 20세기 전반기에는 ‘-니’는 종결적 용법으로 실현된다(이소훈 2017).

21) 평서형 어미 ‘-다니’의 경우도 평서문이라기보다 감탄문이다.

22) 이소훈(2013) 참조.

(6ㄷ, ㄹ)과 같이 의문형은 상대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므로 앞 말이 반복된다.

(7) ㄱ. 「변호사가 되려면 고등문관시험을 치러야 한다지?」 <흙 1 36>

ㄴ. 「오ㄱ 일로담판이 부도…… 불구에 국교가 단절…… 일본은 동병준비가 다되었
다고…… 이것 참 재미있게 되었고나 갑오년 일청전징에 평양 누구는 마테 슝빅
기를 어뎃다더니 이번싸흠에는 너가 아마 큰슈가나는게야 자—마누라도 한잔잡
수소 이술먹으면 부쟈가된다오」 어 <두견성1>

ㄷ. 「언젠가 즈네가 날더러 인싱은 작란이 아니라고, 나는 인싱을 희룡으로 본다고
그랬지? 마치메하게 싱각지를 안는다고?」 「글세 그런 일이 잇던가.」 <무정 3
616>

(7)의 인용 구성에서 온 ‘-다지’, ‘-다고’의 경우도 ‘-다면서’와 달리 평서형 어미로도 실현된다. 이금희(2014)는 ‘-다지’, ‘-다고’, ‘-다면서’가 의문형으로 쓰일 때 인용 구성에서 왔으므로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을 청자에게 확인하는 의문문에 쓰이나, 이 세 어미에 공통적으로 [확인]의 의미가 들어갔다고 해서 교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형태는 그것이 사용되는 화용적인 조건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²³⁾ 이것은 인용 형식에서 문법화된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다른 종결어미와 달리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가 나타나고 그 정보의 출처가 어미의 의미 기능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발화와 현재 발화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용법과 의미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확인]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화용적 조건에 따라 용법과 의미도 달라지게 되므로 의문문 사용 양상 역시 다르다. ‘-다면서’의 경우 박재연(2005)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판정의문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다지’의 경우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에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다고’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 외에도 선정의문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어미와 통사 구성에서 종결어미화한 양태 어미 가운데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어미는 일반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의미에 따라 평서문으로만 실현되는 경우만 있는가 하면 의문문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다면서/다며’와 같이 의문문으로만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평서문, 유사의문문, 의문문 순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²⁴⁾ 그리고 의문문으로 나타나는 종결어미만이 의문형 어미라 하겠다.

3. ‘하계’체 의문형 어미의 의미 기능 분화

‘해’체가 하나의 화계를 형성하기 전에는 ‘해’체 어미들은 ‘해라’체, ‘하계’체와 함께 쓰였

23) ‘-다면서’는 외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는 경우와 청자에게 정보를 얻어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다고’는 이미 한 발화에 대해 되묻는 질문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메아리 의문문, 반복 질문, 받음 질문’ 등으로 불리는 종결어미로 ‘따짐, 못마땅함, 의아함’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다지’는 정보 내용이 청자를 통한 것이 아닌 제삼자에게 얻은 것일 때만 가능하다(이금희 2014). ‘-다니’도 화용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교체되어 쓰이지 않는다.

24) 이 부분은 더 연구가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평서문과 유사의문문으로만 나타나는 경우 유사의문문은 급히 올림(↑) 억양을 수반한다. 그러나 의문문까지 실현되는 경우 유사의문문은 올림(↗) 억양을 취하고 급히 올림(↑) 억양을 취하는 것은 의문문이다.

다. 즉 ‘해’체는 다른 화계와 혼용되어 쓰이다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서 분리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하계’체의 일부 형태가 문맥에 따라 의미 기능이 달리 실현되고 한 형태에서 의미 기능이 분화됨으로써 ‘하계’체와 ‘해’체로 나누게 되었다(이소훈 2017). ‘호소’체에서 ‘하계’체로 이어진 평서형 어미 ‘-네’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의문형 어미를 논의하기 전에 ‘-네’의 의미 분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계’체 평서형 어미 ‘-네’는 ‘-느-’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로 ‘-느-’에는 더 이상 기능이 없다. 그런데 이 시기 ‘-네’에 양태가 실현되면서 ‘하계’체의 ‘-네’와 ‘해’체의 ‘-네’ 분화하게 된다. 이때 ‘-네’가 양태 의미를 떨 수 있었던 것은 선어말어미 ‘-느-’ 때문이다. 19세기 ‘호소’체 평서형 어미 ‘-넋’은 완전한 융합형이라 보기 어렵다. ‘-느-’의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형용사의 경우 ‘-느-’가 결합되지 않는 형태도 출현하기 때문이다. 즉 19세기는 ‘-느-’의 기능이 불완전한 시기로 이로 인해 다른 형태들이 출현 가능했던 것이다.

- (8) ㄱ. 홍식: (저옥이민망한 듯이) 선후책이란 별것 아닐세 오즉 자네의 결심과 단행에 있다고 생각하네 <희곡_밋처가는 處女>
- ㄴ. 노는 사람들은 필경 모다 왔슬가 흐네 그러나 문간에 순검들이 쏘 잇슬 터이니 연설도 도치마는 순검의 셔실은 실로 아니웁네 여보게 그 말 말게 자기가 범범만 아니흐면 그만이지 순검이 상관 잇나 <설중매 6>
- ㄷ. (마) 밧서 히가 넘어갓네 셔방님 제가 갓다가 립일 쏘 오갓습니다 <구의산 上 88>
- ㄹ. 「참 조흔 것인데요」 이런 말을 하다가 나는 쏘 쓸쓸한 생각이 일어난다 저것을 보는 안해의 心中이 어찌할가? 하는 疑問이 문득 일어남이라 <빈처 176>

‘해’체의 ‘-네’는 [새로 앓]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미 [새로 앓]의 의미를 가지는 ‘-구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앓]의 ‘-네’가 고착될 수 있었던 것은 [추론]에 의해 정보 표현을 하는 ‘-구나’와 달리 ‘-네’는 ‘지각’에 의해 정보 표현을 하기 때문이다. ‘-구나’도 [지각]을 통하여 정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네’는 지각의 시점이 현재임을 분명히 명시하는 데 반해 ‘-구나’는 지각의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다(박재연 2006). ‘-네’가 지각 시점이 현재임을 명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어말어미 ‘-느-’에 기인한다. 이에 대비되는 것은 지각 시점이 과거인 ‘-더-’이다. 결국 ‘-느-’와 ‘-더-’의 대비가 ‘해’체의 ‘-네’와 ‘-데-’의 대비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하계’체 ‘-네’는 ‘-느-’의 의미가 사라진 융합형이므로 ‘-네’와 ‘-데’의 양태 의미는 대비를 이루지 않는다. (8ㄱ, ㄴ)은 ‘하계’체로 ‘-네’에는 양태 의미가 없고,²⁵⁾ (8ㄷ, ㄹ)은 ‘해’체로서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소훈 2017).

의문형 어미 ‘-느가/나’, ‘-느까’도 이와 같이 ‘하계’체 어미에서 의미 분화되어 ‘하계’체와 ‘해’체로 나뉜다. ‘-느가’와 ‘-느까’는 기원적으로 동명사형 어미 ‘-느’과 ‘-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느까’의 경우 중세국어에서도 ‘-느’이 본래 가지고 있는 [추측], [가능성], [능력], [의도] 등의 양태 의미가 나타나나 ‘-느가’의 ‘-느’은 시제 특성과 무관하게 사용된다. 고은숙(2007/2011)은 간접의문에 쓰인 ‘-느가’가 [회의]나 [의심] 등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간접의문이라는 특정 구조에서 오는 것이지 ‘-느가’ 자체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느가’, ‘-느까’는 상위문 서술어의 영향을 받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유사한

25) ‘-데’는 하계체라 하더라도 ‘-더-’에 의해 양태 의미가 드러난다.

쓰임을 갖는 일이 많아지자 둘 다 화자의 [의심]이나 [회의], [추측] 등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함께 다뤄져 왔다는 것이다. 간접의문 구성의 영향을 받은 ‘-ㄴ가’, 그리고 ‘-ㄴ까’는 직접의문에서 질문, 자문 등으로 쓰이면서 오늘날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현대국어에서도 ‘-ㄴ가’는 간접의문과 직접의문 모두 나타난다. 근대국어 시기까지 ‘-ㄴ가 하고’와 같은 구성으로 실현되었던 간접의문문은, 현대국어에서는 의문형 어미 ‘-냐’가 쓰이면서 ‘-냐 하고’가 축약된 ‘-냐고 ……’ 형식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ㄴ가/나’, ‘-ㄴ까’가 간접의문으로 실현될 경우 ‘-ㄴ가 하다’, ‘-ㄴ가 보다’, ‘-ㄴ가 싶다’ 구성으로 나타나는 데(이소훈 2017), ‘-ㄴ가 보다’는 19세기에 출현하고 ‘-ㄴ가 싶다’는 20세기에 출현한다.

(9) ㄱ. (조 계집애가 아마 계속이를 피어내는 앞잡이인가 보다.) 하고 경자의 뒷모습을 노리며 어둠침침한 상점의 추녀 밑으로 바싹 붙어서 걸었다. <永遠의微笑 83>

ㄴ. 니기 특의 처음 생각은 죽기를 더욱 낫흔 감옥이 아니면 참슈딕[斬首臺]나 교딕[絞臺]나 그런 흉악흔 데로 잡아가는가 십다가 이런 데로 오기는 성시 의외라 <비행선 13>

(10) ㄱ. (판서) 허 이것 얼마 만인가 그리 언제 나왔던가 어서 이리 안게 <금국화 5>

ㄴ. 위험하다. 마치 창기 같지 않는가! 세상 계집이란 오롱이조롱이다. 제 아무리 한 년이라고 해도 모두 한 판이다. <남편의 책임>

‘-ㄴ가’ 그리고 축약형인 ‘-냐’의 간접의문문은 평서문 구성으로 나타나며 자문 내지 [추측], [회의]의 양태 의미를 띤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성의 경우 양태 의미가 의문형 어미 ‘-ㄴ가/나’에 있다기보다 ‘~ 한다’, ‘~ 보다/싶다’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즉 보조형용사 ‘보다’, ‘싶다’는 화자의 인식, 마음 등을 표현하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ㄴ가’ 뒤에 ‘한다’가 올 경우에도 화자의 의지가 표현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보다, 싶다, 한다’가 생략되면 자문 내지 양태 의미는 문맥에서 유지되어 ‘-ㄴ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9)는 ‘-ㄴ가 보다’, ‘-ㄴ가 싶다’ 구성의 간접의문문이고 (10)은 직접의문문으로, (10ㄱ)은 양태 의미가 없는 ‘하계’체이고 (10ㄴ)은 자문 내지 [회의]의 ‘해’체이다. 이렇게 ‘-ㄴ가/나’는 직접의문문의 경우 의미가 분화되어 화계도 나누어진다. 특히 자문의 경우 ‘하계’체로는 실현될 수 없는데 그것은 ‘하계’체는 낮춤이지만 어느 정도 예우를 해주는 말투로 청자가 상정이 되었을 때 실현되는 화계이기 때문이다.

근대국어 시기까지 ‘-ㄴ가’는 중간 등급 의문형 어미로 간접의문문과 직접의문문에 쓰인다. 즉 직접의문문에서도 질문과 함께 자문도 ‘흐소’체로 실현되는 것이다.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중간 등급에 쓰이던 ‘흐소’체의 어미들은 ‘하계’체로 이어지지만 자문에 사용되던 의문형 어미는 ‘하계’체가 아닌 ‘해’체에 포함된다. 그것은 중간 등급 ‘하계’체 성격의 변화와 관련된다. 근대국어 시기까지 중간 계급은 청자 대우 실현에 있어서 중립적인 특성을 지닌 어미였지만(고은숙 2011), 19세기 이후 신분제도의 붕괴와 계층의 분화로 인해 ‘해’체를 비롯해 다양한 화계가 형성됨으로써 ‘하계’체의 성격은 변화한다. 즉 낮춤이지만 아주낮춤보다 상대를 예우함으로써 청자를 상정되었을 때만 실현되는 화계로 바뀌고 중립적인 특성은 ‘해’체와 ‘해라’체로 일부 이동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자문을 비롯한 양태 의미는 드러나는 어미는 ‘해’체로 실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계’체는 청자를 낮춤보다 예우함으로써 화자

에게도 권위가 부여되고 권위적인 말투가 되어 양태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 계열의 ‘-고’의 경우, 현대국어에서는 의고체 외에 쓰이지 않는데, 이것은 자문 외에는 양태를 가진 ‘해’체로는 나타나지 않고 ‘하계’체로만 실현된다.²⁶⁾ 그렇기 때문에 ‘-고’는 ‘-요’가 결합되지 않아 ‘해요’체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요’가 결합되면 청자가 상정되기 때문에 자문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11) ㄱ. 갑니다, 하고 어엿이 나오다가 뒤돌파서서, 한 말씀만 더 할까 하다 못하였읍니다. <흙 3 353>

ㄴ. [부] 글세 말이다 애 네 안질을 그래도 못 곳치고 여러달 되면 가도 오도 못하고 엇지헛니 아마 도로 원산으로 나가는 것이 울홀가 보다 <송퇴금 3>

‘-르까’는 ‘-르’ 자체에서 나타나는 양태 의미가 있으므로 사실만을 묻는 질문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르까’는 ‘-르가’보다 [추측],²⁷⁾ [의심], [회의], [가능성], [의도], [의지] 등의 양태 의미가 다양하다. 간접의문의 경우 ‘-르까 하다’, ‘-르까 보다’, ‘-르까 싶다’ 구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르까’의 경우 ‘-르가’와 달리 ‘해’체와 ‘하계’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하계’체 어미들에서는 양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데 ‘-르까’는 ‘-르’ 자체에 양태 의미가 있으므로 ‘-르까’ 역시 양태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르까’는 ‘하계’체로 실현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12) ㄱ. 朴: ……(상략) 何如間 나는 모르겠네, 자네게 맞겨서는 나중엔 더것이 잘되고 못 되는 것은 제 분부이니까 망할 것도 업거[][] 그저 자네 힘 밋는껏 잘 지도나 해 주게 …(중략)… 글세 소용업는 말은 두만두라는데도 저럴 까답이 잇슬가…… <三千五百兩>

ㄴ. 채호방은 자다가 썸스결긋치 불의지변을 만나 발스길이 쌍에 달시 업시 잡혀가 관가 쓸아리에 끌어 업디려 잇노라니 당상에서 텃동긋흔 호령이 나오는데 「네 죄를 내가 모를까」 채호방이 고기를 조으며 꺾눈으로 힐끗 쳐다보니 다른 사름이안이라 곳 리시찰이 로기를등々히씩고 안젓는지라 <화의혈3>

ㄷ. 「어느새 집이 들어 가긴 싫으니 우리 산보나 갈까?」 경자는 책보를 들고 나오는 계속을 꼬였다. <永遠의微笑>

ㄹ. 에그 잘되었지 쓰지 쓰 조런 망헌 년 싱트집이 무에야 불썸지 안은 굴썸에 연긋 나올까 금들이가 어린이 알고 그럴가 잘히지 잘히서 이제도 그싸위 더로운 형실을 썸 할가 아모리 눈갈 썸어진 늑인들 이제두 헛며 썸짓고 잇는데 <행락도 586>

ㅁ. 「내가 오해를 헛 것이나 아닐까」 하고 다시금 후회도 하였다. <永遠의微笑>

(12ㄴ, ㄷ, ㄹ, ㅁ)은 ‘해’체로, 그 중 (12ㄴ)은 질문이라기보다 [의심]의 양태 의미를 가

26) 근대국어 시기 직접의문의 질문으로 주로 쓰인 예는 대부분 ‘-고’였다(고은숙 2011).

27) 고은숙(2007/2011)은 20세기 이후로는 ‘-르가’에 [추측]의 의미가 나타날 때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화자가 수행할 행동에 대한 청자의 의견을 묻는 기능이 활발하게 사용되어 현대국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진 호령이다.²⁸⁾ (12ㄷ, ㄹ)은 청자에게 하는 말로, (12ㄷ)은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질문이지만 (12ㄹ)은 맥락에 따라 청자에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자문 내지 독백이 될 수 있다. (12ㄱ)은 독백이다.

그런데 (12ㄱ)은 ‘해’체인지 ‘하계’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양태 어미 ‘-지’의 경우 ‘해’체 어미지만 ‘하계’체, ‘해라’체에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이다. ‘-지’와 연결해 본다면 양태 의미를 가진 ‘-ㄹ까’는 ‘해’체이고 ‘하계’체와 혼용되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ㄹ까’는 본디 ‘하계’체 어미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해’체에 포함되면 기원적으로 ‘-ㄹ’의 의미 기능이 있는 의문형 어미의 자리는 비게 된다.

양태 의미의 유무에 따라 기능이 분화한 ‘-ㄴ가’와 달리 ‘-ㄹ까’는 형태상의 특징으로 기능은 분화되지 않고 의미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중세국어시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요소는 필연적으로 양태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계’체의 ‘-ㄹ까’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ㄴ고’와 마찬가지로 의고체이지만 ‘-ㄹ꼬’ 역시 ‘-요’가 결합된 ‘해요’체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방증할 수 있다. 즉 자문 외에는 ‘-ㄹ꼬’는 ‘해’체라기보다 ‘하계’체이다. 다만 ‘하계’체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의향을 묻는 ‘-ㄹ까’ 정도이다. ‘하계’체는 자체가 권위적이므로 ‘하계’체로 실현될 때에는 ‘해’체로 실현될 때보다 억양이 더 낮게 실현된다고 하겠다.

(13) ㄱ. [왕] 봉남이가 벌써 왔는가요 [강] 아직 안이왔습시다만은 <두견성 16>

ㄴ. 「그럼 도야지두 낙방인갑쇼? 그럼 도루 실구 가는갑쇼?」 <도야지 44>

(14) ㄱ. 「어떻게 여기서, 낮게 할 수 없을까요?」 하고 애원하는 것을 동혁은 「안 돼요. 한약으론 안 돼요!」 <常綠樹>

ㄴ. 택시 운전기사: 선생님, 더 기다릴갑쇼? 아, 염치도 좋은 양반일세.
예. 아이고 돈이고 뭐고 이리 냅쇼. <영화_서울의 휴일>

‘-ㄴ가’와 ‘-ㄹ까’는 ‘-요’ 외에 다른 요소가 결합된 형태가 나타난다. ‘-(이)ㅂ쇼’가 결합된 ‘-ㄴ갑쇼’와 ‘-ㄹ갑쇼’가²⁹⁾ 그것이다. 그리고 ‘-ㄹ까나’가 있는데, 이 어미들은 상대의 의향을 묻는 데 쓰인다. ‘-(이)ㅂ쇼’는 명령형 어미 ‘-ㅂ쇼’, 즉 ‘합쇼’체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으나 ‘해요’체를 이룬 ‘-요’처럼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ㅂ쇼’는 ‘해’체의 모든 어미에 결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소훈 2017). ‘합쇼’체나³⁰⁾ ‘-(이)ㅂ쇼’는 주로 하인들이나 상인들이 주인, 내지 손님에게 쓰는 말투로서 비격식적이고 공손함과 친근함을 준다. 그러나 신분체가 없어지고 ‘하십시오’체가 자리 잡고 ‘해요’체가 널리 쓰이면서 그 사용 빈도는 줄게 되었다. ‘-ㄹ까나’는 ‘하계’체의 명령형 어미 ‘-게’에 조사 ‘-나’가 결합한 ‘-게나’와 같이 ‘선택’의 의미를 가진 조사 ‘-나’가 결합한 형태로 화자나 청자의 의향은 간접적으로 묻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게나’는 확인되지만 ‘-ㄹ까나’는 확인되지 않는다.

‘-ㄴ가’, ‘-ㄹ까’와 같이 간접의문에 쓰이다가 직접의문에 쓰이게 된 ‘-ㄴ지’, ‘-ㄹ지’는

28) ‘-ㄹ까’의 경우, ‘-ㄹ’이 가지는 양태 의미로 인해 “네 이 놈 바른 대로 대지 못할까?”와 같이 의문문이 아닌 문장도 나타난다.

29) 고광모(2000)에서는 ‘-(이)ㅂ쇼’를 높임을 표시하는 보조사로 보고 있다.

30) ‘합쇼’체는 새로운 어미가 아니라 ‘하십시오’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나온 ‘합시오’가 축약된 어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쇼’체라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 계층 중심으로 사용된 사회방언이라 할 수 있다. ‘-(이)ㅂ쇼’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하계’체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 동사구 내포문에 쓰이던 ‘-니지’, ‘-르지’는 뒤의 상위문 동사가 생략되면서 종결어미화한다. 이금희(2016)는 자문이나 감탄할 때 쓰이는 종결형은 완전한 종결어미로 문법화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종결어미로 문법화가 이루어진 것은 완곡하게 물어보는 상황에서라 하였다. 즉 ‘-니지’ 뒤에 ‘모르다’를 삽입해도 없을 때의 문장과 큰 의미 차이가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니가’나 ‘-르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³¹⁾ 그렇기 때문에 동사 ‘모르다’의 삽입 여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니지’가 완전한 종결어미로 판단되지 않는 것은 [막연함]의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 이금희(2016)은 의문에 [막연함]이란 의미 자질이 느껴지는 것은 상위문 서술어가 무엇인지와 상황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 억양을 어떻게 수반하느냐에 따라 [막연함]의 의미는 실현되지 않고 [빈정거림] 등의 의미가 생길 수 있다. [빈정거림]의 의미 등이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의 종결어미로 보아야 하는데 한 형태에서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 종결어미 여부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 (15) ㄱ. 홍수를 그 자리에 때려 눕히고도 싶고 그를 칭찬하고 위해 주고도 싶다. 「얼른 말을 이어라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고사리>
 ㄴ. 참으로 영철 씨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는 의심이 그를 못견딜 만큼 처량하게 한다. <환희 166>
 ㄷ. 각별히 너부와 군부에 신척흐음이 엇더흐올지 흐고 알외엇더니 <독립신문 1987. 4. 13.>
- (16) ㄱ. 봉 「글세요 어딴 출입을 흐셨는지요 잠간 단여오시마고 가신 지 얼마 아니 됩니다」 <안의성 93>
 ㄴ. 신앙(信仰)이 학문이 아닌 것은, 농학사나 농학박사라야만, 농사를 잘 지을 줄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닐는지요. <常綠樹>

(15ㄱ)은 평서형으로 쓰인 것인데, 이것은 종결어미가 아니라 도치된 문장으로서 연결어미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15ㄴ, ㄷ)의 동사구 내포문 어미인데 상위문 동사 ‘하다’가 생략되면 종결어미가 된다. (16)은 ‘해요’체인데, 여기서 ‘-요’를 생략하면 억양에 따라 뒤가 생략된 느낌을 준다. 즉 [막연함]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해요’체에서는 이러한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자 대우를 수행하는 ‘-요’가 결합되면 청자가 명확히 상정됨으로써 자문 기능이나 [막연함]의 의미는 없어지고 완곡한 의문이 되는 것이다.

‘해요’체 ‘-니지요’는 정중한 물음에 사용된다(고은숙 2011). 또한 현대국어 ‘-니지’, ‘-르지’는 형태상으로는 ‘해’체에 속하지만 화계는 ‘해’체보다 높게 실현된다. 이와 같이 ‘-니지(요)’, ‘-르지(요)’가 정중한 물음 내지 화계가 형태보다 높게 실현되는 것은 사용 양상에서 비롯된 것인데, 간접의문이라는 사용 환경에서 나온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가 가진 [부드러움], [공손성]이 더해졌기 때문인 것이다.

‘-니지’, ‘-르지’는 ‘-니가’, ‘-르까’와 달리 ‘하계’체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니지’의 경우 양태 어미로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간접의문문에 쓰였던 이 어미들의 화계가 다르게 형성된 것은 중세국어에서도 직접의문문에 쓰였던 ‘-니가’, ‘-르가’와 달리 ‘-니지’, ‘-르지’

31)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몰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몰라.”

는 근대국어 시기까지 간접의문문이나 연결어미로만 쓰였기 때문에 20세기에 이르도록 청자 대우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던 ‘-ㄴ지’, ‘-ㄴ지’는 ‘해’체에 속하게 되었다(이소훈 2017).

‘-ㄴ까’와 달리 ‘-ㄴ지’는 ‘-ㄴ지’와 유사한데 그것은 ‘-ㄴ가’의 경우 ‘하계’체에서는 양태 의미가 나타나지 않지만 ‘-ㄴ지’는 양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없이 모두 ‘해’체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ㄴ지’, ‘-ㄴ지’ 외에도 ‘-ㄴ는지’ 형태가 나타난다. 이 어미들은 유사한 문법적 특성과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타나는 환경도 비슷하다. ‘-ㄴ지’에 ‘-ㄴ-’가 결합한 ‘-ㄴ는지’는 현재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³²⁾

(17) ㄱ. 이 세상을 툭툭 털어도 단지 한 사람인 저의 애인이, 저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는지 몰랐다. <常綠樹 2 319>

ㄴ.이렇게 된 바에 무엇을 속이겠소. 터놓고 말이지 사실 내겐 비싼 흥정이었소. 자량이 아니라 나도 그 길엔 상당히 밝기는 하나 설마 그런 흥이 있을 줄이야 뉘 알았겠소. 온전히 훌리운 셈이지. 그까짓 지갑쥘 털리운 거야 아까울 것 없지만 몸이 괴로와 못 견디겠단 말요. 허구헌날 병원에만 단기기두 창피하구, 맥주가 직효라기에 날마다 와서 컸으나 이몸이 언제나 개운해 질는 진..... <薔薇 病들다>

이금희(2016)은 ‘-ㄴ지’나 ‘-ㄴ는지’는 ‘-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화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ㄴ지’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화자의 의문에 대해서는 ‘-ㄴ지’, ‘-ㄴ는지’ 모두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확실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ㄴ는지’는 가능하지만 ‘-ㄴ는지’, ‘-ㄴ지’는 불가능하고, 실제 경험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ㄴ는지’, ‘-ㄴ는지’는 가능한 데 반해 ‘-ㄴ지’는 불가능하며, 화자가 막연히 가정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ㄴ지’, ‘-ㄴ는지’는 가능하지만 ‘-ㄴ지’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다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나타내는 경우 세 가지 표현 모두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현실 사건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누구의 경험인지에 따라 실현 가능한 어미가 다른 것으로, 확신이 강할 때는 ‘-ㄴ지’가, 확신의 정도가 떨어질 때는 ‘-ㄴ는지’, ‘-ㄴ지’가 쓰이는 것이다. 그리고 [추측]의 경우에서도 ‘-ㄴ지’는 [확신]이 강할 때, ‘-ㄴ는지’, ‘-ㄴ지’는 [확신]의 정도가 떨어질 때 쓰며, ‘아프다’와 같이 화자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에서는 ‘-ㄴ지’만이 쓰이고 제삼자의 경험일 때는 세 형태 모두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³³⁾

이렇게 형태적으로 유사한 세 어형이 쓰이는 환경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양태 의미 때문인데 특히 ‘-ㄴ’은 기원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미 기능을 현대국어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³⁴⁾

(18) 「내 혼이 네 머리 위로 жу야장턴 도라단이며 네 가슴을 황々 짓찌며 혼탄흔는 양

32) 과거 사건은 ‘-었-’이 결합한 ‘-었는지’가 쓰인다.

33) 이금희(2016) 참조.

34) 이 외에 ‘-ㄴ’을 포함하고 있는 ‘-ㄴ쏘나’, ‘-ㄴ쏘가’ 등은 기원적으로 ‘-ㄴ’이 가지고 있는 양태 의미가 나타난다.

을 보고야 말겠다 하고 발악々々 울며 덩뵈여 보이노 응 요망스러운지고」 <화의
혈 6>

‘-르까나’처럼 ‘-르지’ 역시 ‘-고’가 결합한 ‘-르지고’가 있는데, ‘-르까나’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의고형인 이 어미는 의문형 어미가 아닌 감탄형 어미이고 ‘해라’체이다. 감탄 내지 강조를 표현한다.

4. 억양에 의한 의미 기능 실현 양상

‘해’체와 ‘하계’체, 그리고 ‘하오’체의 일부 어미들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실현시킨다. ‘-어’를 비롯한 ‘해’체의 일부 어미와 ‘하오’체의 ‘-오’에서는 두 개 이상의 문장 종결법이 실현되고, ‘하계’체 일부 어미는 ‘해’체에 포함된다. ‘-어’를 제외한 ‘해’체의 일부 어미들이 여러 문장 종결법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계’체와 ‘해’체 두 가지 청자 대우법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형태에서 의미 기능이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문장 종결법과 청자 대우법이 실현되는 종결어미를 김태엽(1999)은 통용종결어미라 하고 이것은 통용종결어미가 문법화를 거친 종결어미라는 사실에서 그 기능의 연원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즉 보조동사와 후행문의 서술어에 결합된 종결어미에 의해 문장 종결법이 실현되는데, 보조동사와 후행문의 삭제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이상의 문장 종결법 실현 기능이 본동사에 결합된 어미와 선행문에 결합된 어미로 문법 기능이 이전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법 기능의 이전은 끊어짐의 수행-억양의 얽힘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곧 문법화는 발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화용 상황이 결국 새로운 통사를 낳게 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르’에 의해 양태 의미가 생기는 어미를 제외하고 인식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미들이 실현하는 문장 종결법은 일반적으로 평서법이고 평서형 어미가 된다. 그런데 인식 양태 의미를 가진 평서형 어미들이 의문형 어미로, 즉 의문법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의미 기능 때문이다. 즉 하나의 형태가 문맥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유사 의문문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억양을 수반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 종결어미에서 양태 의미가 드러나는 현대국어에서는 억양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오미라이해영(1994)은 억양은 문법적 기능과 화용적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즉 문미 억양에 따라 서법이 달라지고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화용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박기영(2009), 권성미(2010)에서도 양태 어미들이 억양에 따라 의미 기능이 달리 실현된다고 하였다. 즉 이러한 양태 어미들은 그것의 의미 기능에 따라 억양이 달리 실현되는데, 억양이 다르게 수반됨으로써 양태 어미들이 다양한 의미 기능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억양이 수반되는 것은 ‘해’체가 형성되면서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양태 의미에 따라 억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대국어를 보면, ‘해’체의 억양은 ‘하계’체나 ‘해라’체 억양보다 문미가 올라간다.³⁵⁾ 그러나 기본적인 억양이 변화한 것은 ‘해’체가 형성되고 활발하게 쓰이게 된 이후이다. 당시 영상 자료를 보면 대사가 어색하게 들리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 의하는 것으로 현대국어의 억양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 남성들 간의 ‘하계’체와 ‘해’체의 억양은

35) 억양은 화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화계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억양을 비교해 볼 때 ‘해’체 어미가 문미에서 제일 높다. 이것은 권위적인 말투와 관련이 있다.

거의 차이가 없는데 ‘하계’체와 ‘해’체의 억양 차이는 ‘해’체가 활발하게 쓰이는 양상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이것은 계층마다 차이가 난다.

종결어미에서 양태 기능이 생기면서 다른 화계의 어미에서도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 어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답니다’, ‘-단다’, ‘-우’ 등과 같은 어미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어미들은 양태 어미는 아니다. 본래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미들은 문장 차원에서 그 의미 기능이 실현된다. 그러나 ‘-답니다’, ‘-단다’, ‘-우’ 등은 형태 자체만으로는 양태 의미가 드러나지 않고 담화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어미에서 표현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양태라 할 수 있지만 양태 어미는 아니다. 그런데 모든 문장 종결법이 실현되는 ‘-우’를 제외하고 의문형 어미 자체에서는 양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양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5. 맺음말

‘해’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해’체를 이루는 대부분의 어미들이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어말어미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 기능은 많은 부분이 종결어미로 이동되어 종결어미에서 양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양태는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인식 양태를 가진 종결어미의 경우 대체적으로 평서형 어미로 평서문을 실현한다. 그런데 이 어미들이 맥락에 따라 기능을 변화시키면서 의문문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이 어미들이 가진 양태 의미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어미들이 의문형 어미가 되어 의문문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거든’과 같이 평서문만 실현시키는 어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미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한다. 즉 평서형 어미로서 평서문을 실현시키는 어미, 평서형 어미로서 유사의문문을 실현시키는 어미, 의문형 어미로서 의문문을 실현시키는 어미로 나눌 수 있는데, ‘-다면서/다며’의 경우 평서형 어미는 실현되지 않고 의문형 어미만 나타난다.

‘해’체의 어미들은 형성되고 바로 하나의 체계를 이룬 것이 아니다. 어미들이 형성된 초기에는 ‘해라’체와 ‘하계’체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때 ‘하계’체의 어미 일부가 그 의미 기능이 분화되면서 화계도 나누어지게 되었다. 평서형 어미 ‘-네’와 의문형 어미 ‘-ㄴ가’, ‘-ㄴ까’가 그것이다. ‘-ㄴ가’의 경우 ‘-네’와 같이 양태 의미 유무에 따라 화계가 나뉘지만 ‘-ㄴ까’는 본래 ‘-ㄴ’이 가지고 있는 양태 의미로 인해 양태 어미로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ㄴ까’ 역시 ‘하계’체와 ‘해’체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어미와 같이 간접의문에서 쓰이다가 직접의문에 사용하게 된 ‘-ㄴ지’, ‘-ㄴ지’, ‘-ㄴ는지’는 ‘하계’체로 실현되지 않고 ‘해’체로만 실현된다.

종결어미에 여러 기능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억양에 의해 가능해진다. 즉 의미 기능에 따라 억양이 다르게 수반됨으로써 문법 기능 또한 다르게 실현되는 것이다. 양태 의미에 의해 기능이 다르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문법 기능에 따라 억양이 달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양태 의미에 따라 기능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억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계’체와 ‘해’체의 구분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 고광모(2000), “상대 높임의 조사 ‘-요’와 ‘-(이)쇼’의 기원과 형성 과정”, 『國語學』 第36輯, 국어학회.
- 고은숙(2011),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변천』, 한국문화사.
- 권성미(2010),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나타나는 억양의 중간언어 연구”, 『한국어교육』 2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영옥(1997), 『문법형태의 연구방법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박이정.
- 김태엽(1999), “국어 통용종결어미에 대하여”, 『현대문법연구』 18, 현대문법학회.
- 박기영(200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결어미의 억양 교육 방안 -특히 양태 의미에 따른 억양 차이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4집, 우리어문학회.
-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국어학회.
- 박재연(2005),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제41권 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오미라·이해영(199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억양 교육”, 『한국어교육』 5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금희(2014), “確認 疑問法 終結語尾 ‘-다면서, -다고, -다지’의 活用的 條件과 意味”, 『어문연구』 4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금희(2016), “국어 어미 ‘-니지’의 문법화와 통사적·의미적 특징”, 『韓民族語文學』 第73輯, 한민족어문학회.
- 이소훈(2017),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소훈(2013), “‘-다니’類에 대하여”, 語文研究 158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 이현정(2014), “종결어미적 용법의 ‘-게’에 대한 고찰 -의미와 통사·화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19집 3호, 한국언어연구학회.

“20세기 전반기 의문형 어미의 의미 기능 실현 양상”에 대한 토론문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발표문은 의문형에 초점을 두고 19세기 말~20세기 초 ‘해’체 종결어미의 형성과정을 밝히고자 한 연구로, 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해’체 종결어미들은 주로 양태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된 것이며, 그 중 특정 양태 의미를 가진 평서형 어미들은 의문형으로도 쓰일 수 있다.
2. 양태 의미의 실현 여부에 따라 ‘하게’체와 ‘해’체 어미가 분화되었다.
3. 양태 의미와 문말 억양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19세기 말~20세기 초 ‘해’체 종결어미의 형성 과정은 ①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②평서형 어미의 의문형으로의 기능 전이, ③‘하게’체와 ‘해’체의 분화라는 세 가지 주된 변화를 포함하는데, 해당 변화들의 결정적 요인이 결국 양태 의미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쭙보고자 합니다.

[질문1]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박재연(1999)의 양태 분류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박재연(1999)에서 설정한 인식 양태의 하위분류(각주5)가 ①~③의 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되는지가 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사의문문 혹은 의문문에 쓰일 수 있는 ‘해’체 어미들의 기본적인 양태 의미가 무엇인지가 먼저 정리되고, 그 후 어떤 양태 의미가 어떤 유형의 의문문으로 기능 전이를 가능케 하는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논지가 더 살아날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2장의 내용 전체가 박재연(1999)에서 언급한 현대국어의 인식 양태를 19세기 말~20세기 초 자료에 적용하는 흐름을 취하고 있으므로,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도 박재연(1999)의 분류에 따라 기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2] (2)에 대한 해석을 보면, ‘-게’, ‘-는데’, ‘-려고’가 쓰인 (2ㄱ)~(2ㄷ)은 유사의문문에 해당하고, ‘-르래’가 쓰인 (2ㄹ)은 화자의 무지를 드러내므로 의문문에 해당한다고 하여, 평서형 어미의 의문형으로의 기능 전이에도 어미별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르래’가 갖는 ‘화자의 무지’라는 양태 의미로 인해 의문형으로의 기능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ㄱ)~(2ㄷ)과 (2ㄹ)을 구별하는 기술 부분을 보면, ‘화자의 무지’라는 양태 의미가 특정 어미의 고유한 의미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논문의 다른 부분에서는 (2ㄱ)~(2ㄷ)의 어미들 역시 의문형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¹⁾

1) 3쪽에서 유사의문문에 쓰이는 어미에 대해 “그것은 이러한 양태 어미류들이 판정의문문으로만 사용되지 설명의문문이나 선정의문문으로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 기술과 역시 3쪽의 “-게, -르래, -려고, -는데”는 평서문,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선정의문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기술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게’, ‘-는데’, ‘-려고’는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며 화자의 무지를 드러내는 의문문에 쓰일 수 있습니다.

- | | |
|--|---------------------------------|
| 예1) ㄱ. 벌써 집에 <u>가게</u> ? (무지O/X, 판정/유사) | ㄴ. 언제 집에 <u>가게</u> ? (무지O, 설명) |
| 예2) ㄱ. 철수는 벌써 집에 <u>가는데</u> ? (무지X, 유사) | ㄴ. 언제 집에 <u>가는데</u> ? (무지O, 설명) |
| 예3) ㄱ. 벌써 집에 <u>가려고</u> ? (무지O/X, 판정/유사) | ㄴ. 언제 집에 <u>가려고</u> ? (무지O, 설명) |
| 예4) ㄱ. 이제 집에 <u>갈래</u> ? (무지O, 판정) | ㄴ. 언제 집에 <u>갈래</u> ? (무지O, 설명) |

이 글의 논지에 따르면, 예1)이 비꼬기 위한 의도의 발화라면 화자의 무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사의문문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판정의문문으로 해석됩니다. ‘언제’와 공기하면 설명의문문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미들도 마찬가지로인데, 그렇다면 의문형으로의 기능 전이를 가능케 하는 양태 의미라는 것이 특정 어미의 고유한 의미가 아니라 문맥에 따라 발생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예1)에서 ‘-게’는 화자의 의도를 묻는 어미인데 이러한 고유의 의미는 어떤 문맥에서도 사라지지 않지만, 이 문장이 청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가의 여부는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3] 결론에서(15쪽) “즉 평서형 어미로서 평서문을 실현시키는 어미, 평서형 어미로서 유사의문문을 실현시키는 어미, 평서형 어미로서 의문문을 실현시키는 어미로 나눌 수 있는데” 라고 하였는데,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어미의 목록이 제시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4] 논문의 구성과 관련하여, 2장, 3장, 4장은 어떻게 보면 각각 별도의 논문으로 구성될 만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편의 논문으로 묶는다면 연결 관계가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장 부분은 현재는 다소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20세기 초 구어 자료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내용이 좀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9세기 고전 산문 작품에 반영된 국어 한자음의 양상에 대하여

이준환(창원대 국문과)

1. 들어가며

이 글은 19세기 고전 산문 작품에 반영된 국어 한자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그간 국어사 연구 자료로 이용해 왔던 중세국어 시기나 근대국어 시기의 刊本 자료에서 볼 수 없었던 현실 한자음을 뽑아 이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태 접해 왔던 한자음과는 다른 모습을 지니는 한자음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初學書·諺解書·韻書·字典 등을 중심으로 한 한자음 연구에서 벗어나 한자음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그간의 근대국어 한자음에 관한 연구는 이돈주(1977), 정경일(1984, 1989, 2002, 2004), 이승자(2003), 이준환(2003, 2004, 2006) 등의 韻書 한자음에 관한 연구, 이기동(1982), Rainer Dormels(1994), 이돈주(1997), 최미현(2006가, 2006나) 등의 字典 한자음에 관한 연구, 이돈주(1979), 김주필(2008), 이준환(2015) 등의 初學書의 한자음에 관한 연구, 최미현(2007, 2009) 등의 醫書 한자음에 관한 연구, 이준환(2007가, 2007나) 등의 諺簡의 한자음에 관한 연구, 河野六郎(1968), 南廣祐(1973), 정경일(2006)과 신아사(2006), 이준환(2008, 2011가, 2011나, 2012) 등의 한자음 전반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자음 연구는 대개 한자와 음이 병기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제는 이런 형태로 된 새로운 자료의 출현이나 발굴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새로운 한자음 자료를 만나는 데에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하겠다.

이런 면에서 한자와 음이 병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전 산문 작품에 쓰인 한자어들의 표기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한자음을 가지고서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한자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언어에서의 한자음 사용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이준환(2015)에서 17·18세기 고전 산문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고찰해 본 결과 이들 텍스트에서 새로운 한자음을 다수 추출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이렇게 추출된 한자음 가운데에는 한자음 자료를 확충하고 국어 한자음의 체계와 층위를 살펴보는 데에 유용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어 한자음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고전 산문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한자음들이 국어 한자음 연구를 하는 데에 가치가 크다고 하겠으므로,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준환(2015)의 연속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19세기 고전 산문 작품에 반영된 한자음을 대상으로 하여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한자음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들의 국어 한자음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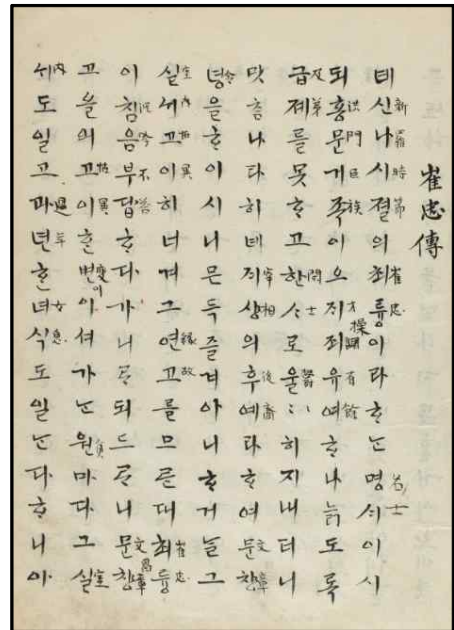
※ 고찰 대상 작품

- ① 『전운치전(全雲致傳)』(1847): 경판 37장본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

는 것이다. 이 판본은 경판본 가운데 가장 선행하는 最古本이다. 최고본인데도 존재가 뒤늦게 파악되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경판 37장본 이외에 일사본, 신문판본, 『전우치전(田禹治傳/田羽致傳)』 계열의 나손본 등이 전해진다. 이 중 일사본은 경판 37장본을 필사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바 있다(김현양 2010: 303). 김현양(2010)에 의해서 판독과 校注가 이루어진 바 있다.

- ② 『징세비티록(懲世否泰錄)』(1856): 낙선재 48장본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임치균 외(2009)에 의해서 판독과 교주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main.jsp>)에서 원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 ③ 『홍길동전』(1860): 경판본 30장본으로 프랑스 파리 동양어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이다. 金東旭 編 『景印 古小說板刻本全集』 五에도 경판본이 실려 있다. 김현양(2010)에 의해서 판독과 교주가 이루어진 바 있다.

- ④ 『최충전(崔忠傳)』(1873): 東京大學 小倉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崔致遠과 관련된 이야기로 제목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쓰여 있고, 한자어의 경우 한글 오른쪽에 한자를 병기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中村庄次郎(나카무라 쇼지로)의 기록에 따르면 明治 6년(1873)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에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그림 11] 小倉文庫 소장 『崔忠傳』

- ⑤ 『낙성비룡(洛城飛龍)』(18××): 2책 129장(권1 63장, 권2 66장)으로 된 필사본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임치균 외(2009)에 의해서 校注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본이 고려대학교에 『성룡전(星龍傳)』이란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內題에 「낙성비룡」으로 되어 있으며 필사가 癸卯年(1843?)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 소설을 번역한 것일 가능성이 높는데 아직 원전이 확인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은 고려대 소장본과 비교하여 볼 때 한문 직역체로 보이는 특색이 드러난다.

- ⑥ 『숙영낭자전』(18××): 김동욱 소장 58장본인 『낭자전』, 김광순 소장 48장본인 『수경낭자전』, 김광순 소장 50장본인 『수경낭자전』, 경판 28장본 『숙영낭자전』 등이 있는데, 김동욱 소장 『낭자전』을 저본으로 삼아 자료를 추출하였다. 『낭자전』은 이상구(2010)에 의해 판독 및 교감이 이루어진 바 있다. 김동욱 소장본은 박종수 편(1991), 『羅孫本 筆寫本古小說資料叢書』 26과 『羅孫本 筆寫本古小說資料叢書』 27에 실려 있고, 김광순 소장본은 김광순 편(1993), 『金光淳所藏 筆寫本 韓國古小說全集』 19에 실려 있다.

- ⑦ 『계희반정록』: 인조반정을 다룬 책으로 『계축일기』의 후편과 같다는 면에서 『계축일기』의 이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정은임 2005: 1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main.jsp>)에서 원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 책은 1785년의 자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작품의 맨 마지막

에 실려 있는 “을스 추칠월 십일일지 동서 필셔흐나 글시 망측 보시느니 놀너 보시옵쇼
서 을스 추칠월일 번너흐다”와 같은 筆寫記의 ‘을스’가 1905년 乙巳年을 가리키는 것으
로 보이고, 이곳에 반영된 언어의 양상을 볼 때 18세기 자료보다는 19세기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 19세기 자료에 포함하였다.

이들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교주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정확한 판독을 기하여
한자음을 추출한 후, 이를 중세국어 한자음 및 근대국어 한자음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들 한자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이전 시기의 간본 자료에서 볼 수 없었던 한자음 자료

고전 산문 작품에 실린 한자어를 보면 우리가 여태 이용해 왔던 중세국어 시기나 근대국
어 시기의 간본 자료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한자음이 적지 않게 나온다. 이와 같은 한자음
은 한자음 연구뿐만 아니라 국어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들이다. 따라서 이런 한
자음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들 자료 가운데에는 국어 한자음과 漢語 사이의 일반적인 대응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자
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 둘 모두 국어사
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이 중 전자는 어떤 한자가 실제로 국어 한자음과 한어와의
일반적인 대응 관계에 따른 한자음을 실제로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고, 후자는 국어 한자음의 다채로운 특색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2.1. 일반적인 대응 양상에 부합하는 한자음

(1) 『전운치전』

- ① 디살(地煞)[煞: 山開二入鏹生(所八切)]<3ㄴ>: ‘煞’의 음이 生母와 山韻의 통상적 대응 양
상에 따른 ‘살’임을 알 수 있다. 다른 고전 산문 작품에 이 한자음을 볼 수 있는 예가
꽤 있기는 하나 諺解書 등의 간본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¹⁾
- ② 방추(棒錘)[錘: 止合三平支澄(直追切)]로<6ㄴ>: ‘錘’의 음이 澄母와 支韻의 통상적 대응
에 부합하는 ‘뉘>추’의 변화를 거친 것임을 알 수 있다. 『訓蒙字會』(1527)에서는 ‘퇴’로
주기되어 있다.
- ③ 빅총마(白驄馬/白摠馬)[驄: 通合一平東淸(倉紅切)][摠: 通合一上董精(作孔切)]를<18ㄴ>:
‘驄’ 또는 ‘摠’의 한자음이 ‘총’임을 알 수 있다. ‘총’은 ‘총→총’과 같이 치찰음 아래에서
-/j-/가 첨가된 것이다. 이와는 상반되게 17~18세기 고전 산문 작품 중에는 『육신록』에
서 ‘도동관(都摠管)’과 같이 성모와 운모 모두 통상적인 대응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
이는 것이 관찰된다(이준환 2015: 362, 376).
- ④ 풍도옥(豐都獄)[豐: 通合三平東敷(敷空切)]에<22ㄴ>: ‘豐’의 음이 敷母와 東韻의 통상적
인 대응 양상에 부합하는 ‘풍’임을 보여 준다. 『엄씨효문청행록』, 『완월회맹연』, 『윤하정
삼문취록』 등의 ‘풍도’, ‘풍도옥’, ‘풍도지옥’에서 이 음의 쓰임을 널리 볼 수 있다.

1) 『후수호던』의 ‘턴강디살(天罡地煞)’, ‘디살성(地煞星)’, 『완월회맹연』의 ‘지솔이화(地煞罹禍)’, ‘디살
변화(地煞變化)’를 등에서 ‘煞살’을 볼 수 있다.

(2) 『징세비탁록』

- ① 화신(和珣)[珣: 升人切, 音申《集韻》]이<17>: ‘珣’의 음이 『集韻』의 반절인 升人切에서 기대되는 ‘신’임을 보여 주는 최초의 예이다.
- ② 선연(嬋娟)[嬋: 山開三平仙A禪(市連切)][娟: 山合三平仙影(於緣切)]헌<5>: ‘嬋’의 음이 禪母와 仙韻의 통상적인 대응 양상에 따른 ‘선’이고, ‘娟’의 음이 影母와 仙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따른 ‘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 ③ 순나(巡邏)[邏: 果開一去箇來(郎佐切)]헌더니<14>: ‘邏’의 음이 來母와 歌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따라 ‘라>나’를 반영하였거나, 치조 비음화를 반영하여 ‘나’로 표기하였거나, 근대 국어 시기의 ‘ㄹㄹ’을 ‘ㄹㄴ’으로 표기하는 경향에 따른 표기로 보인다. 諺解書 등의 간본 자료에서는 이 한자의 음을 보기 어렵다.
- ④ 절강부(浙江府)[浙: 山開三入薛A章(旨熱切)]에<17>: ‘浙’의 음이 章母와 仙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절’임을 보여 주는 최초의 예이다.
- ⑤ 표기장군(驃騎將軍)[驃: 效開三去笑A並(毗召切)]<17>: ‘驃’의 음이 並母와 宵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표’임을 보여 주는 최초의 예이다.
- ⑥ 남함(吶喊)[喊: 咸開一上感曉(呼覽切) || 咸開二上謙匣(下斬切) || 咸開二上謙曉(呼謙切)]허며<18>: ‘喊’의 음이 曉母와 覃韻, 咸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함’임을 보여 주는 예이다. 『方言類釋』(1778)에 ‘吶喊 남함’이라는 예가 보이는데, 이 말이 실제로 쓰이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 ⑦ 슈훈(醺醺)[醺: 臻合三平文曉(許云切)]을<35>: ‘醺’의 음이 曉母와 文韻의 통상적인 대응 양상에 부합하는 ‘훈’임을 보여 주는 예이다.

(3) 『홍길동전』

- ① 풍도성(豐都城)[豐: 通合三平東敷(敷空切)]의<12>: 『전운치전』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 ② 함거(轎車)[轎: 咸開二上謙匣(胡黠切)]의<15>: ‘轎’의 음이 匣母와 咸韻의 통상적인 대응 양상에 부합하는 ‘함’임을 보여 주는 예이다. 諺解書 등의 간본 자료에서는 이 글자의 한자음을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서 다른 고전 산문 작품에 ‘함거’가 쓰인 예가 일부 보인다.
- ③ 학창의(鶴氈衣)[氈: 宕開三上養昌(昌兩切)]<29>: ‘氈’의 음이 昌母와 陽韻의 통상적인 대응 양상을 따라 ‘창>창’임을 보여 주는 예이다.
- ④ 선연(嬋娟)[嬋: 山開三平仙A禪(市連切)][娟: 山合三平仙影(於緣切)]헌<5>: 『징세비탁록』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4) 『낙성비룡』

- ① 빙딩노라(娉婷嫋娜²⁾)[婷: 梗開四平青定(特丁切) || 梗開四上迥定(徒鼎切)][娜: 果開一上哿泥(奴可切)]<8>: ‘婷’의 음이 定母와 青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딩’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예로 고소설 이외의 다른 국어사 자료에서는 보기 힘든 한자음이다. ‘娜’는 泥母와 歌韻의 통상적인 대응과 泥母와 來母의 교체와 관련하여 ‘나’가 ‘라’로 쓰였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고소설 이외의 다른 국어사 자료에서는 보기 힘든 한자음이다.
- ② 오유(遨遊)[遨: 效開一平豪疑(五勞切)]허라<16>: ‘遨’의 음이 疑母와 豪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오’임을 알 수 있는 예이다. 이 음은 『완월회맹연』의 “오유(遨遊)허믈”, “오류(遨遊)허여”, 『윤하정삼문취록』의 “오유방낭(遨遊放浪)허논” 등의 예를 제외한 다른 국어사 문헌에서는 보기가 어렵다.
- ③ 박공(搏拱)[拱: 通開三上腫見(居悚切)]이<24>: ‘拱’의 음이 見母와 鍾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따라 ‘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2) 원 입력 자료에는 ‘氷貞裊那’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고려할 때 적합지 않은 면이 있다.

(5) 『숙영낭자전』

- ① 월궁항이(月宮姮娥)[姮: 曾開一平登匣(胡登切《集韻》)]가<40ㄱ>: ‘姮’이 匣母와 登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따라서 ‘홍>항’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예이다.

(6) 『계해반정록』

- ① 오성(鰲城)[鰲: 效開一平豪疑(五勞切)]과<1ㄴ>: ‘鰲’의 음이 疑母와 豪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오’임을 알 수 있는 예이다.
- ② 서성(徐渚)[渚: 梗開三上靜心(息井切)]<3ㄱ>: ‘渚’의 음이 心母와 耕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성’임을 알 수 있는 예이다.
- ③ 뉴숙(柳瀟)[瀟: 通合三入屋心(息逐切)]이<3ㄴ>: ‘瀟’의 음이 心母와 東韻3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숙’임을 알 수 있는 예이다.
- ④ 순노(巡邏)[邏: 果開一去箇來(郎佐切)]호여<8ㄴ>: ‘邏’에 관해서는 『징세비티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데, /·/ > /ㅏ/의 변화에 따라 ‘ㅏ’가 ‘·’로 표기된 것이다.
- ⑤ 김언황(金彦滉)[滉: 宕合一上宕匣(胡廣切)]으로<9ㄴ>: ‘滉’의 음이 匣母와 唐韻 合口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예이다.
- ⑥ 님희군(臨海君) 진(埈)[埈: 臻開三平眞心(息鄰切) ㄹ 資辛切, 音津《集韻》]이<10ㄴ>: ‘埈’의 음이 心母의 통상적인 대응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集韻』의 資辛切[精母 眞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진’이었음을 알 수 있는 예이다.
- ⑦ 환혁(煊赫)[煊: 山合三平元曉(況袁切)]호여<11ㄱ>: ‘煊’의 음이 曉母와 元韻 合口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환’이었음을 알 수 있는 예이다.
- ⑧ 서경주(徐景肅)[肅: 職由切, 音周《玉篇》]<13ㄱ>: ‘肅’의 음이 職由切[章母 尤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주’였음을 알 수 있는 예이다.
- ⑨ 권진(權縉)[縉: 臻開三去震精(卽刃切)]을<16ㄱ>: ‘縉’의 음이 精母와 眞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진’이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⑩ 원억(冤抑)[冤: 山合三平元影(於袁切)]지<16ㄴ>: ‘抑’의 음이 影母와 元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원’이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⑪ 교리 니강(李苙)[苙: 江開二平江見(古雙切)]<21ㄴ>: ‘苙’의 음이 見母와 江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강’이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⑫ 니조좌량 민심(閔苾)[苾: 思林切, 音心《集韻》]<21ㄴ>: ‘苾’의 음이 『集韻』의 반절 思林切[心母 侵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심’이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⑬ 윤숙(尹璠)[璠: 通合三入屋心(息逐切)]의<24ㄴ>: ‘璠’의 음이 心母와 東韻3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숙’이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2.2 성모가 일반적인 대응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자음

(1) 『낙성비룡』

- ① 회희(談諧)[談: 蟹合一平灰溪(苦回切)]<36ㄱ>: 溪母인 ‘談’의 한자음이 溪母의 일반적 대응과는 달리 ‘회’임을 보여 주는 예이다. 『全韻玉篇』의 ‘괴俗회’의 俗音 ‘회’가 현실음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談’가 ‘회’란 음을 갖게 된 데에는 聲符인 曉母의 ‘灰’의 음에 유추되었을 수 있다. 諧聲字 가운데에 喉音 성모를 지니지 않는 것 가운데 ‘恢[溪母]’, ‘盍[溪母]’ 역시 ‘회’란 음을 갖는 양상을 보인다.

(2) 『계해반정록』

- ① 능창군(綾昌君) 전(佺)[佺: 山合三平仙淸(此緣切)]과<19ㄱ>: ‘佺’의 음이 仙韻의 통상적인 대응에는 잘 부합하나 次淸인 淸母가 평음으로 대응하는 ‘전’이었음을 보여 주는 예

이다. 淸母 가운데 此를 반절 상자로 하는 것 가운데 평음으로 대응하는 예로는 ‘雌조’, ‘俊전’ 등을 들 수 있다.

2.3. 운모가 일반적인 대응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자음

(1) 『징세비터록』

① 납함(呐喊)[呐: 山合三入薛B泥(女劣切)]<18ㄴ>: ‘呐’이 仙韻의 일반적 대응 양상에 맞지 않게 ‘납’이란 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는 『方言類釋』(1778)에 ‘呐喊 납함’이 보이는 것과 일치한다. 음운 정보를 가지고서는 ‘납’이란 음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聲符인 ‘內’는 『集韻』에 諾答切이란 반절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諧聲字들을 보면 ‘納·納[覃韻]’ 등과 같이 ‘납’을 지니는 글자들이 많다.³⁾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곳의 ‘납’이란 음은 聲符 및 諧聲字에 유추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⁴⁾

(2) 『계해반정록』

① 아들 질(祗)[祗: 止開三平脂章(旨夷切) || 止開三平支羣(巨支切)]을<9ㄱ>: ‘祗’이 支韻의 일반적인 대응 양상에서 벗어나 마치 臻攝의 眞韻 入聲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예이다. 성부 ‘至’를 포함하는 眞韻의 ‘埵’, ‘姪’, ‘窒’ 등이 ‘질’이란 음을 갖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이나, 광해군의 아들을 避諱의 대상으로 삼아 본음이 아닌 ‘질’이란 음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③ 원두포(元斗杓)[杓: 效開三平宵A幫(甫遙切)]<13ㄴ>: ‘杓’이 宵韻의 일반적인 대응 양상과는 다르게 구개성 介音이 탈락한 ‘포’로 나타나는 예이다. 17~18세기 고전 산문 작품 속에서는 ‘杓표’와 같이 介音이 잘 드러난 음이 관찰되는 것(이준환 2015: 377-378)과 차이가 있다.

3.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자음의 모습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전 산문 속의 한자음 중에는 중세국어 한자음과 漢語 사이의 일반적인 대응 관계에 기반하여 한자가 지닌 聲母와 韻母에 관한 정보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한자음들이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聲母와 韻母의 정보로는 도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모습의 현실 한자음이 아래와 같이 반영되어 있다. 양적으로 볼 때 이에 해당하는 한자음이 훨씬 풍부하다. 이들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해 왔던 한자음 자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한자음이다. 따라서 국어 한자음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연구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3.1. 성모의 양상이 다른 경우

(1) 『징세비터록』

① 비답(批答)[批: 蟹開四平齊滂(匹迷切)]<2ㄴ>: ‘批’는 次淸의 滂母로 중세국어 한자음은

3) ‘內’를 聲符로 하는 한자들은 ‘내’, ‘납’, ‘눌’ 등의 음을 지니는데, 이 중 ‘납’이란 음을 지니는 경우가 가장 많다.

4) 이 ‘납’이란 음은 『한한대자전』(민중)에 ‘납’이란 음이 실려 있어서 현대에도 전승되어 있다.

‘피’인데 이곳에서 보듯이 ‘비’란 음이 보인다. 이 글자가 ‘비’란 음으로 읽힘은 『韓佛字典』(1880)에서 확인되는데, 이보다 빨리 소설 작품에는 ‘비’란 음을 보여 준다.⁵⁾ ‘피>비’와 같이 평음화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全韻玉篇』의 한자음이 ‘비’임을 고려하여 규범음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최충전』

- ① 문창(文章)[章: 宕開三平陽章(諸良切)]<1ㄱ>~문창현(文章縣)의<2ㄴ>: 章母의 ‘章’의 중세국어 한자음은 ‘장’인데, 이와 달리 격음화된 ‘창’으로 쓰인 예들이 있다.
- ② 옥제(玉帝)의[帝: 蟹開四去霽端(都計切)]<35ㄱ>: 端母의 ‘帝’의 음이 중세국어 자료에서의 ‘테’와 달리 격음화된 ‘테’를 보인다.
- ③ 정(淸)이[淸: 梗開三平淸淸(七情切)]<43ㄱ>: 淸母의 ‘淸’이 중세국어 한자음 ‘청’과 달리 평음인 ‘정’으로 쓰인 예가 보인다.

(3) 『숙영낭자전』

- ① 접첩(疊疊)[疊: 咸開四入帖定(徒協切)]<10ㄱ>: ‘疊’은 定母로 중세국어 한자음은 ‘텨’인데, 이곳에서는 이와 달리 평음인 ‘접’으로 나타난다. ‘텨>첩>접’ 또는 ‘텨>텨>첩’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한자음으로 생각된다.
- ② 더경질색(大驚失色)[失: 臻開三入質書(式質切)]<30ㄱ, 56ㄱ>: ‘失’은 書母로 중세국어 한자음은 ‘실’인데 이곳에서는 성모가 파찰음인 ‘질’로 나타나 일반적인 대응 양상과는 거리가 있다. 書母는 ‘ㅅ’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ㅈ점’, ‘ㅊ점’과 같이 ‘ㅈ’으로 대응하는 예들이 있기도 하다. 다만 이들은 聲符인 ‘占점[章母]’에 의한 유추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참고로 삼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런데 『康熙字典』을 보면 『六書本義』에 “與佚軼通”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 이를 보면 失이 佚[以母/定母], 軼[以母/定母]과 통용자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康熙字典』을 보면 ‘佚’는 前漢의 『揚雄傳』에서 迭[定母]과 통용자로 쓰인 경우도 있다. 迭’은 중세국어 한자음에서는 ‘달’이다. 이런 면을 고려하면 ‘失’이 ‘질’의 음을 갖는 것은 통용자들과의 관계가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고, 諧聲字 가운데 ‘疾질’, ‘秩달>질’과 같은 빈도가 높은 글자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⁶⁾

(4) 『계해반정록』

- ① 덩담수(鄭栲壽)[栲: 咸開一平覃泥(那含切)]의<17ㄴ>: 泥母의 ‘栲’은 『신증유합』에서는 통상적인 대응에 따라서 ‘남’으로 실려 있으나 이곳에서는 이와는 달리 ‘담’으로 나타난다. 비음 성모가 장애음 성모로 나타나는 것으로 원인을 알기가 쉽지 않다.

3.2 운모의 양상이 다른 경우

(1) 『전운치전』

- ① 무류(無聊)[聊: 效開四平蕭來(落蕭切)]허여<3ㄴ>~무류(無聊)허거니와<5ㄴ>: ‘聊’는 중세국어 한자음은 ‘료’인데 이처럼 ‘류’를 보이는 예가 있다. 效攝의 한자음 가운데에서는 운모가 /π/로 대응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效攝의 일반적인 대응 양상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류’란 음을 지니게 된 것은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을 듯하다.

5) 고전 소설 가운데 『완월회맹연』에도 ‘비담’이란 말이 세 차례 쓰여서, 여기에서도 ‘批’를 ‘비’로 읽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그러나 ‘失’이 이들 글자의 聲符에 해당하는 글자이고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라는 점에서 주저되는 면이 있다.

첫째는 “力求切, 音驩. 木名《集韻》”과 같이 『集韻』을 보면 나무의 이름으로 쓰일 때에는 力求切에 해당하는 음을 지님을 알 수 있는데, 이 반절은 流攝의 尤韻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라 ‘류’란 음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聊’와 같은 聲符를 지니는 글자 가운데 ‘柳’와 같이 流攝 尤韻에 속하는 것이 있다.⁷⁾ ‘柳’는 사용 빈도도 높다는 점에서 ‘聊’가 ‘柳’의 영향을 받아 ‘류’란 음을 지니게 된 것일 수도 있다.⁸⁾

- ② 부작(符籀)[籀: 梗開三入陌從(秦昔切)]<4ㄴ>~부작(符籀)을<8ㄱ>: 梗攝에 속한 여러 韻 가운데에 핵모음이 /ㅏ/를 보이는 것은 없다. 이런 점에서 ‘籀작’은 이채로운 한자음이라 하겠는데, 간본 자료에서도 “저주하는 부작을 퇴침 속에 감초와<續明義錄 1:22 ㄱ>(1778)” 및 “이 하늘의 하소언혀여 설원케 하시므로 하늘 부작을 엇어 왓시니<太上感應篇圖說諺解 5:17ㄴ>”과 같이 실제로 ‘작’이란 음이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작’이란 음의 출처를 反切에서 찾기는 쉽지 않은데, 陌韻에 속하는 ‘籀’이 前漢~魏晉南北朝에는 鐸部에 속하는 것으로(丁邦新 1975: 242) /-ak/에 해당하는 운모를 지니는 것과 유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古音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 ③ 디미(大罵)[罵: 假開二上馬明(莫下切) || 假開二去禡明(莫罵切)]<6ㄴ>~디미(大罵)<36ㄴ>: ‘罵’가 ‘미’란 음을 보이는 것은 『신증유합』에서부터 보이는 ‘매’가 /·./의 변화에 따라 ‘미’로 표기된 결과이다. 假攝의 한자음 가운데서는 운모가 /ㅏ/인 것은 없다. 漢語音韻史에서도 假攝의 한자음에 운미 /-j/가 첨가된 예는 보이지 않고 현대 한어 방언에서도 이런 예는 보이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곳의 ‘매’는 하향성 활음 /-j/가 첨가된 국어 내부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 ④ 어류(如流)[如: 遇開三平魚日(人諸切)]혀여<4ㄱ>, 현황(眩慌)[眩: 山合四平先匣(胡涓切) || 山合四去霰匣(黃練切)]혀여<8ㄴ>, 변신(變身)[變: 山合三去線幫(彼眷切)]혀여<36ㄴ>: ‘如여→어’, ‘眩현→현’, ‘變변→변’과 같이 구개성 개음 /-j-/가 탈락한 예가 보인다. 구개성 개음의 탈락 현상이 先韻에서는 보이지 않고, 仙韻과 魚韻에서도 牙喉音을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한자음은 한자음 대응상의 문제로 보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어 내부적인 현상으로 간주해 두기로 한다.
- ⑤ 득죄(得罪)혀여<1ㄱ>: ‘罪’는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달리 ‘죄→죄’와 같이 구개성 介音이 첨가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자음이 刊本 자료 중에서는 ‘대죄<續明義錄 1:32a>(1778)’, ‘원죄라<敬信錄諺釋 10b>(1796)’에서 보이는데, 필사본 자료에서 많이 관찰되는 모습을 보인다.
- ⑥ 삼일뉴과(三日遊街)[街: 蟹開二平佳見(古賸切)]를<4ㄱ>: 佳韻의 ‘街’는 운미 /-j/를 지닌 蟹攝에 속하는 것인데도 운미가 나타나지 않고 開口字인데도 合口字와 같이 원순성 介音 /-w-/가 첨가되어 있다. 중세국어 한자음은 ‘개<훈몽자회>(1527)’인데, “므슴 街가巷 향이며 므슴 사릅의 집에 이심을 보며<增修無冤錄諺解 2:6ㄱ>(1792)”에서 보듯이 ‘가’란 음이 보인다. 佳韻은 上古의 支部에서부터 中古의 佳韻을 거쳐 近代의 皆來韻에 이르기까지 모두 운미 /-j/를 지니고 있던 것이었으나, 明清代를 거쳐 現代에 이르며 麻沙韻이 되면서 /-a/와 같이 운미 /-j/가 탈락한 운모로 바뀌게 되었다(王力 1985/1997: 459-460).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란 음은 明清代 이후의 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아닐까 싶다. 개구자인데도 원순성 介音 /-w-/가 첨가된 것은 국어 내부적 현상으로 보이는데, 喉音에서 이 현상이 잘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牙喉音 성모에서 보이는 공통점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7) 이 이외에도 국어사 문헌에서의 쓰임이 확인되지 않지만 ‘聊’, ‘柳’, ‘柳’ 등이 더 있는데, 이들도 모두 流攝 尤韻에 속하는 것들이다.

8) 오늘날의 자전에 『명문대옥편』과 『동아새한한자전』에는 ‘류’란 음이 제시되어 있다.

- ⑦ 곤뇌(困惱)[惱: 效開一上皓泥(奴皓切)]호므로<5ㄱ>, 고희(怪異)호도다<11ㄴ>: ‘腦’는 중세국어 한자음 ‘노’와 달리 운미 /-j/가 첨가된 것으로, 『전운치전』 이외의 다른 산문 속에는 ‘뇌’를 보이는 예가 많이 있다. ‘怪고’는 ‘怪괴 → 고’와 같이 중세국어 한자음과 달리 운미가 탈락한 형태의 한자음을 보이는 것으로 국어에서의 구개성 활음 첨가 및 탈락 현상과 관련된 현상으로 보인다.
- ⑧ 일벼(一變)[變: 山合三去線B幫(彼眷切)]<14ㄴ>: ‘變’은 양성 운미 /-ㄴ/이 탈락한 음을 보이는 예가 있다.

(2) 『징세비티록』

- ① 안둔(安屯)[屯: 臻合一平魂定(徒渾切)]호고<46ㄱ>: 魂韻은 운모가 ‘운’과 ‘운’ 두 가지 형태를 보이는데, ‘屯’은 중세국어 한자음이 ‘둔’이었으나, 이와는 다른 ‘둔’이란 음이 이곳에서 보듯이 관찰된다. 현대 사전에서 『명문대옥편』에 ‘둔’이란 음이 실려 있음을 보면 이곳의 음은 현실적으로 유통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集韻』을 보면 “徒困切, 音頓, 亦姓.”과 같은 정보가 실려 있는데, 이때는 ‘頓’과 동음이 되는데 이것이 ‘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홍길동전』

- ① 건간(近間)[近: 臻開三上隱羣(其謹切)]<3ㄱ>, 그췌(擧措)[擧: 遇開三上語見(居許切)]를<8ㄴ>: ‘近’과 ‘擧’가 중세국어 한자음인 ‘근’, ‘그’와 달리 ‘건’, ‘그’와 같이 표기된 예가 보인다. ‘近’이 속한 臻攝의 欣韻에서는 入聲韻에서 ‘근’과 같이 운모가 /얼/로 대응하는 것이 있으나 舒聲韻에서는 /언/으로 대응하는 것은 없다. 이는 마치 ‘巾건’과 같이 眞韻 乙類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眞韻은 주모음이 /e/이고 欣韻은 주모음이 /ə/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둘 모두 국어에서는 /j/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건’은 ‘근’과는 층위를 달리하는 한자음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반해 ‘擧’가 ‘그’로 나타나는 것은 ‘그’가 한자음 음절 유형에 없는 것으로 낮은 한자음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擧措’를 비롯하여 ‘擧’를 포함한 한자어에서 ‘擧’의 음이 ‘擧措[거: -], ‘擧事[거: -], ‘擧沙[거: -]와 같이 장음으로 실현됨을 고려하면 이곳의 ‘그’는 /거: /와 /그/ 사이의 음성적 유사성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近間’의 ‘近’이 ‘거’로 나타나는 것도 /근/과 /건/ 사이의 음성적 유사성에 말미암은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② 초한(軺軒)[軒: 山開三平元曉(虛言切)]도<12ㄴ>: 元韻에서 운모가 /안/으로 나타나는 것은 ‘晚만’과 같이 唇音 合口字에서만 보이는 양상이다. 3등 乙類인 元韻은 1등 寒韻과 주모음이 /a/로 같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고(周法高 1973), 魏晉代까지는 寒韻과 元韻이 갈라지기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모음은 같았던 것으로 보임을 감안하면(丁邦新 1975: 246), 古音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③ 도량(度量)[量: 宕開三平陽來(呂章切)]이<3ㄱ>, 협훈(狹)[狹: 咸開四入帖匣(侯夾切)]<3ㄱ>, 언유(緣由)[緣: 山合三平仙以(與專切)]로<19ㄱ>: ‘量량 → 량’, ‘狹협 → 협’, ‘緣연 → 언’과 같이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달리 구개성 介音이 탈락한 한자음이 관찰된다.
- ④ 무죄(無罪)[罪: 蟹合一上賄從(徂賄切)]호<6ㄱ>: 앞의 『전운치전』의 기술과 같다.
- ⑤ 고이(怪異)[怪: 蟹合二去怪見(古壞切)]히<4ㄱ>, 고이(怪異)히<5ㄴ>, 하인스(海印寺)[海: 蟹開一上海曉(呼改切)]를<8ㄴ>, 전폐(全廢)[廢: 蟹合三去廢非(方肺切)]혀<14ㄴ>, 조석저전(朝夕祭奠)[祭: 蟹開三去霽精(子例切)]을<28ㄴ>: ‘怪괴 → 고’, ‘海희 → 하’, ‘廢폐 → 퍼’, ‘祭제 → 저’는 중세국어 한자음과 달리 운미가 탈락한 형태의 한자음을 보이는 것들이다. 현대국어 한자음 가운데에 이런 한자음이 없는 것을 보면 국어의 구개성 활음 첨가 및 탈락 현상과 관련된 현상으로 보인다.
- ⑥ 활빈당(活貧黨)[活: 山合一入末匣(戶括切)]이라<9ㄴ, 10ㄱ>~활빈당(活貧黨)<12ㄴ>, 병

입고항(病入膏肓)[肓: 宕合一平唐曉(呼光切)]<15>, 희환(稀罕)[罕: 山開一上旱曉(呼旱切)]호물<27>: ‘활활→할’, ‘肓황→항’, ‘罕한→환’은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달리 원순성 介音이 탈락하거나 첨가된 예이다. 漢語에서는 이들 한자의 음이 습구가 開口가 되거나 開口가 습구가 된 현상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는 국어 내부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선행 자음이 /ㅎ/인 것들에서 이와 같이 원순성 介音의 탈락 및 첨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해 둘 만한데, ‘肛황<馬經抄集諺解>(17세기)’와 같은 언해본뿐만 아니라 ‘降황<녹신록>’과 같이 고전 산문 작품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볼 수 있다(이준환 2015: 366).

- ⑦ 부귀(憤氣)[憤: 臻合三上吻奉(房吻切)]를<6>: ‘憤부’는 양성 운미 /-ㄴ/이 탈락한 한자음을 보이는 것이다.
- ⑧ 병니골슈(病入骨髓)[入: 深開三入緝日(人執切)]<14>: ‘入니’는 성모의 대응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만 입성 운미 /-ㄷ/이 탈락한 한자음이다.
- ⑨ 좌탄(坐榻)[榻: 咸開一入合透(吐盍切)]의<20>: ‘榻탄’은 입성 운미 /-ㄷ/이 양성 운미 /-ㄴ/으로 반영된 예이다. 같은 攝의 한자음은 아니지만 18세기 고전 산문 작품에서도 ‘轄할→한<무목왕정충록>’과 같이 입성운이 양성운처럼 나타나는 예가 있어서(이준환 2015: 370-371), 참고가 된다.
- ⑩ 풍족(豊足)[豊: 通合三平東敷(敷隆切)]호니<23>: 이는 ‘豊풍→훈’과 같이 양성 운미 내에서 /-ㅇ/이 /-ㄴ/으로 교체된 예이다. 이런 양성 운미 사이의 교체는 17세기~18세기 고전 산문 작품에서도 상당히 널리 나타나는데, ‘簡간→강’, ‘汙변→병’, ‘見견→경’, ‘鶻견→경’과 ‘瑗원→왕’에서 보듯이 山攝의 것들에서 상당히 널리 보이는 것들이었다(이준환 2015: 370-371).

(4) 『최충전』

- ① 텃지괴신(天地鬼神)[鬼: 止合三上尾見(居偉切)]이<7>, 위논(議論)[議: 止開三去寘B疑(宜寄切)]호여<14>, 임위(任意)[意: 止開三去志影(於記切)]로<35>: 微韻의 ‘鬼’는 중세국어 한자음 ‘귀’와는 달리 ‘괴’를 보여 마치 開口字 ‘氣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誤記의 가능성도 있으나 습口字가 開口字와 같이 반영된 모습을 보이는 예라고 하겠다. 이에 비해서 支韻의 ‘議’와 之韻의 ‘意’는 모두 開口字이나 습口字와 같이 ‘위’로 나타나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중세국어 한자음에서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開口와 습口的 반영에서 혼란을 겪는 예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어 음운사에서 이들의 開음이 바뀐 일은 보이지 않고, 之韻은 開口韻만으로 이루어진 韻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국어 한자음 내부적인 현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② 고이(怪異)[怪: 蟹合二去怪見(古壞切)]<1>, 옥더(玉帝)[帝: 蟹開四去霽端(都計切)]<35>, 차례(次例)[例: 蟹開三去祭來(力制切)]로<40>, 쥬제(躊躇)[躊: 遇開三平魚澄(直魚切)]호거늘<7>~쥬제(躊躇)호더니<22>~쥬제(躊躇)홀<46>, 근체(近處)[處: 遇開三上語昌(昌與切)]로<15>, 쇼데(小姐)[姐: 遇開三去御精(將預切)<集韻>]로<24>~쇼데(小姐)드려<30>: 蟹攝 皆韻의 ‘怪고’, 齊韻의 ‘帝더’, 祭韻의 ‘례려’는 모두 구개성 운미 /-j/를 지니고 있는 것이나 이처럼 운미가 탈락한 예들이 관찰된다. 반면에 遇攝 魚韻의 ‘躊제’, ‘處체’, ‘姐데’는 운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나 운미 /-j/를 지닌 예들이 관찰된다. 이 중 魚韻의 ‘躊제’는 같은 운의 ‘諸’가 ‘저’와 ‘제’란 음을 모두 보이고, ‘猪’가 ‘데<번역소학 19:9>, 훈몽자회 상:10>’에서와 같이 중세국어 한자음에서도 운미 /-j/가 첨가된 형태를 보임을 감안하면 이곳의 한자음이 魚韻의 특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5) 『낙성비룡』

- ① 상계(相距+) [距: 遇開三上語羣(其呂切)]<2>: 魚韻에 속하는 ‘距’의 중세국어 한자음

은 ‘겨’인데, 이곳에서는 ‘겨’와 같이 구개성 개음 /-j-/가 첨가된 한자음이 보인다. 魚韻에서 聲母가 牙喉音에 속하는 것들은 韻母가 /여/가 아닌 /어/로 대응하는 것이 국어 한자음의 특색인데,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 ② 슈유당단(壽夭長短)[夭: 效開三平宵B影(於喬切) || 效開三上小B影(於兆切)]<36ㄴ>: 宵韻의 ‘夭’는 중세국어 한자음이 ‘요’로 이 韻에서는 韻母가 /유/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유’는 이채로운 한자음이다.⁹⁾
- ③ 무류(無聊)홀<29ㄱ>: ‘聊’가 ‘료’가 아닌 ‘류’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전운치전』(1847)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¹⁰⁾
- ④ 상시(生時)[生: 梗開二平庚生(所庚切) || 梗開三去映生(所敬切)]나<35ㄱ>: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싱’과 같이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상’으로 나타나는데, 마치 宕攝의 운에서나 볼 수 있는 양상이다. 모음의 대응만을 생각한다면 하향 이중 모음 /·i/가 상향 이중 모음 /ㅏ/로 대체된 예라 하겠다. 그런데 『康熙字典』에 보면 《韻補》 叶師莊切, 音商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 이를 보면 漢語에서 ‘生’이 宕攝 陽韻의 ‘商’에 해당하는 음과 協韻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상’이란 음을 지녔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양상이 국어 한자음에서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관심을 가지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⑤ 무궁(無窮)[窮: 通合三平東羣(渠弓切)]호더니<9ㄱ>, 휘루(揮淚)[淚: 止合三去寘A來(力遂切)]<12ㄴ>~휘루(揮淚)호야<19ㄱ>~쌍늪(雙淚+ㅣ)<23ㄴ>, 하슈(下手)[下: 假開二上馬匣(胡雅切) || 假開二去禡匣(胡駕切)]티<28ㄴ>~하쳐(下處)로<34ㄱ>¹¹⁾: 東韻의 ‘窮’은 중세국어 한자음 ‘궁’과는 달리 구개성 개음 /-j-/가 첨가된 ‘궁’을 보이고, 麻韻2의 ‘下’는 중세국어 한자음 ‘하’와는 달리 구개성 개음 /-j-/첨가된 ‘하’를 보인다. 이에 반해 支韻의 ‘淚’는 중세국어 한자음 ‘류’와는 달리 구개성 개음 /-j-/가 탈락한 ‘루~누’를 보인다. ‘窮’은 東韻 乙類에 해당하는 것인데 ‘궁’은 마치 甲類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개음의 수의적 첨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한자음이라 하겠다. ‘下’가 ‘하’를 보이는 것은 국어 내부적인 개음의 수의적 첨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麻韻 가운데 牙喉音의 경우는 /-a>/-ia/와 같이 구개성 개음이 생겨난 근대 한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淚’가 ‘루’를 보이는 것은 遇攝 虞韻 乙類나 流攝 侯韻에서 볼 수 있는 한자음 유형을 보이게 된 것인데, 구개성 개음의 탈락으로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¹²⁾
- ⑥ 귀법(句法)[句: 流開一平侯見(古候切) || 流開一去候見(古候切) || 遇合三去遇見(九遇切) || 遇合三平虞羣(其俱切)]<20ㄱ>, 우인(爲人)[爲: 止合三平支B云(遠支切)]을<25ㄱ>~우인(爲人)이<38ㄱ>, 관겨(關係)[係: 蟹開四去霽見(古詣切)]티<33ㄱ>, 즈셔(仔細)[細: 蟹開四去

9) 고전 산문 작품 가운데에서도 『엄씨효문청행록』과 『윤하정삼문취록』에는 ‘슈요장단~슈요장단’, 『명주보월빙』에는 ‘슈요당단’에서 보듯이 ‘유’를 보이는 예가 없다.

10) 실제 문헌을 보면 ‘작류’와 같이 분명히 ‘류’로 씌어 있다.

11) 임치균 외(2009: 138)에서는 이를 ‘하쳐’로 관독하였으나 ‘하’와 같이 틀림없는 ‘하’로 표기되어 있다.

12) ‘淚’는 ‘淚 눈물 누<아학편>(1813)’, ‘락루 浴淚<국한회어>(1895)’, ‘淚 눈물루<부유독습>(1908)’, ‘淚 눈물 루<역대천자문>(1910)’ 등에서 보듯이 근대국어 이후의 자료에서는 ‘루’란 음을 보인다. 중세국어 한자음과 같이 ‘류’를 보이는 것은 ‘촉류 燭淚<국한회어>(1895)’에 국한된다. 그리고 ‘淚 눈물 루<부별천자문>(1913)’에서처럼 ‘뤼’를 보이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의 규범음을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류>루’를 보이는 것으로 脂韻의 ‘黹’가 더 있다. 그리고 중세국어 한자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支韻의 ‘嫖’, ‘黹’ 역시 현대국어 한자음이 ‘루’로 ‘*류>루’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예이다.

霽心(蘇計切)]¹³⁾히<35ㄱ>13): ‘匂’는 중세국어 한자음이 ‘구’인데 이곳에서 보듯 운미 /-j/가 첨가된 ‘귀’가 보인다. 이처럼 ‘匂’가 ‘귀’로 읽히는 것은 『장수경언해』(16세기)의 ‘글귀~글뉘’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음이 계속해서 쓰이어 19세기 자료 중 『兒學編』(1813)에 ‘匂 글귀 구’와 같이 훈에 실려 있고, 『韓佛字典』(1880)에는 ‘匂 귀’가 실려 있다. ‘爲’는 중세국어 한자음과 달리 운미 /-j/가 탈락한 ‘우’로 나타나는데, 다른 곳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한자음이다. 모두 齊韻에 속하는 ‘係’와 ‘細’는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계’, ‘세’와 같이 운미 /-j/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하나 모두 운미가 탈락되어 있다. 같은 운의 ‘黎’, ‘黎’가 ‘려’와 같이 운모가 /ㄹ/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지어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⑦ 부귀빈천(富貴貧賤)[貧: 臻開三平眞並(符巾切)]과<9ㄴ>: ‘貧’은 『칠장사 유합』(1664)에 ‘가난 빙’과 같이 음이 ‘빙’으로 달려 있어 중세국어 한자음 ‘빈’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곳에서 보듯이 19세기에도 ‘빙’이 쓰이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6) 『숙영낭자전』

① 오장육보(五臟六腑)[腑: 遇合三上麌非(方矩切)]<27ㄴ>: 虞韻의 ‘腑’는 중세국어 한자음 ‘부’와 달리 운모가 /ㄴ/인 ‘보’로 나타나는데, 이는 虞韻의 핵모음이 /ㅜ/로 나타나는 통상적인 대응과 부합하지 않는 예로, 마치 같은 攝의 模韻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虞韻 가운데 성모가 唇音과 莊組에 해당하는 것들은 근대 한어에서 模韻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한자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洪武正韻』에 보면 “斐古切, 音甫”와 같은 정보가 실려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합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腑보’는 근대적 층위의 한자음을 반영한 한자음으로 생각된다.

② 아취옥면(夜醉玉面)[夜: 假開三去禡以(羊謝切)]<12ㄱ>, 못칙(妙策)[妙: 效開三去笑明(彌笑切)]<37ㄴ>: 麻韻3의 ‘夜’와 宵韻3의 ‘妙’는 각각 구개성 介음이 탈락한 ‘아’와 ‘모’를 보여 준다. 한어 음운사에서 麻韻3과 宵韻3에서 구개성 介음이 탈락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국어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구개성 介음의 탈락으로 보아야 하리라 생각된다. ‘妙’와 같은韻에 속하는 ‘票’를 방언에서 ‘포’로 발음하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관찰되는데,¹⁴⁾ 이들이 성모가 唇音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못칙’은 후행하는 ‘칙’과의 연쇄에서 중철 표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③ 죄(罪)[蟹合一上賄從(徂賄切)]<1ㄱ>~유죄(有罪) 무죄(無罪)는<24ㄱ>: ‘罪’는 중세국어 한자음 ‘죄’와는 달리 ‘죄’로 나타나 齒音 아래에서의 상향성 介음의 첨가를 보인다.

④ 츠단(綵緞)[綵: 蟹合一上海淸(倉宰切)]을<5ㄴ>, 고니(怪異)[怪: 蟹合二去怪見(古壞切)]¹⁵⁾히<16ㄴ>, ㅁ월(梅月)[梅: 蟹合一平灰明(莫杯切)]<20ㄴ>, 가유(開諭)[開: 蟹合一平哈溪(苦哀切)]¹⁶⁾히<25ㄱ>, 노성(雷聲)[雷: 蟹合一平灰來(魯回切)]<56ㄱ>: 蟹攝 哈韻의 ‘綵’, 灰韻의 ‘梅’, ‘雷’, 皆韻의 ‘開’는 모두 구개성 운미 /-j/를 지니는 것이 정상적이고 중세국어 한자음의 양상도 그러하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듯이 /-j/가 탈락한 것들이 다수 관찰된다.

⑤ 뇌비(奴婢)[奴: 遇合一平模泥(乃都切)]<12ㄴ>, 모양(模樣)[模: 遇合一平模明(莫胡切)]을<33ㄱ>, 주제(躊躇)[踰: 遇開三平魚澄(直魚切)]¹⁷⁾히<25ㄴ>, 何면목(何面目)[何: 果開一平歌匣(胡歌切)]<291>, 월궁향이(月宮姮娥)[娥: 果開一平歌疑(五何切)]<40ㄱ>, 各별(各別)[各: 宕開一入鐸見(古落切)]<23ㄴ>, 의탁(依託)[託: 宕開一入鐸透(他各切)]¹⁸⁾히<48ㄴ>.

13) 이곳의 ‘즈셔히’는 ‘즈세히’와 거의 엇비슷한 빈도로 쓰인다.

14)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는 ‘포’를 ‘표(票)’의 강원, 경상, 전남, 평북, 함경 방언으로 실어 놓고 있다(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883729&viewType=confirm#).

뉘명(陋名)[陋: 流開一去候來(盧候切)]으로<24ㄱ>~뉘명(陋名)을<24ㄴ>: 遇攝 模韻의 ‘奴’, ‘模’, 魚韻의 ‘踏’, 果攝 歌韻의 ‘何’, ‘娥’, 宕攝 唐韻의 ‘各’, ‘託’, 流攝 侯韻의 ‘陋’는 핵모음 다음에 /-j/를 지니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이 운미 /-j/를 지니는 것들이 다수 관찰된다. 이들은 모두 하향성 /-j/가 첨가된 예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한어 음운사에서 이와 관련될 만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국어 내부적 요인에 의해 생긴 음으로 파악된다. ‘躡제’에 관해서는 『최충전』에서 기술한 바대로다.

- ⑤ 용천금(龍泉劍)[劍: 咸開三去黻見(居欠切)]<10ㄴ>, 음용(斂容)[斂: 咸開三上琰來(良冉切)]
 || 咸開三去豔來(力驗切)]<13ㄱ>: 咸攝 鹽韻의 운모는 갑류는 /염/으로, 을류는 /염/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서 ‘劍’과 ‘斂’은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각각 ‘검’과 ‘렴’이란 음을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듯이 모두 /음/으로 운모가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이 모두 去聲 또는 上聲으로 현대국어 한자음에서 ‘검:’, ‘렴:’과 같이 모두 장음으로 실현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ㄱ:/와 /-/의 음성적 유사성에 의해 형성된 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斂’의 경우는 ‘렴>념>염~엄’과 같은 수의적인 구개성 개음의 탈락을 매개로 한 것이 아닌가 싶다.
- ⑥ 신향(新行)[行: 宕開一平唐匣(胡郎切)] || 梗開二平庚匣(戶庚切)]<10ㄴ>, 박향(陪行)<11ㄱ>: ‘行’은 唐韻과 庚韻의 복수음을 지니는데, 이들韻에서는 ‘향’이란 음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 의미를 고려할 때 이곳의 ‘行’은 ‘형’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i/가 /ㅑ/로 대치된 한자음을 보인다.
- ⑦ 훈환(後患)[後: 流開一上厚匣(胡口切)] || 流開一去候匣(胡邁切)]<24ㄱ>: 侯韻은 자음 운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 운인데 ‘훈’과 같이 비음 운미를 지닌 한자음이 관찰된다.
- ⑧ 지위(眞僞)[眞: 眞開三平眞A章(側鄰切)]<25ㄱ>, 미망(憫憫)[憫: 臻開三上軫B明(眉殞切)]
 ㅎ나<11ㄴ>, 피연(必然)[必: 臻開三入質A幫(卑吉切)]<21ㄴ>: 眞韻은 平上去聲에서는 운미 /-ㄴ/을 지니고 入聲에서는 /-ㄹ/을 지니는 것이나, 운미가 모두 탈락한 ‘眞지’, ‘憫미’, ‘必피’와 같은 한자음이 보인다.
- ⑨ 단금포(唐錦鋪)[唐: 宕開一平唐定(徒郎切)]<51ㄱ>, 박련(勃然)[勃: 臻合一入沒並(蒲沒切)]<23ㄱ>: 唐韻은 운미가 /-o/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이와는 달리 /-ㄴ/으로 반영된 ‘唐단’과 같은 예가 보인다. 앞의 『홍길동전』에서 보이는 ‘豊꾼’의 기술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痕韻 入聲은 운미가 /-ㄹ/로 나타남이 마땅하나 ‘勃박’과 같이 중세국어 한자음 ‘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예가 있다. 따라서 입성운과 양성운의 교체를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핵모음은 /·/ > /ㅑ/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계해반정록』

- ① 폐(廢)[廢: 蟹合三去廢非(方肺切)]치<4ㄱ>, 은혜(恩惠)[惠: 蟹合四去霽匣(胡桂切)]를<3ㄱ>, 장개(狀啓)[啓: 蟹開四上薺溪(康禮切)]훈디<24ㄱ>: 蟹攝 廢韻의 ‘廢’, 齊韻의 ‘惠’, ‘啓’는 모두 개음 /-j-/를 지닌 것들로 중세국어 한자음에서는 /-j-/를 충실히 반영한 음을 보이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이를 탈락시킨 음이 관찰된다. 현대국어 한자음에서 /예/, /례/를 제외하고는 모음을 [에]로 읽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이와 관련된 현상이 활발히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국어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개음 /-j-/의 탈락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근대 한어 이후에 蟹攝의 祭韻, 廢韻, 齊韻이 개음 /-j-/를 잃는 현상이 일어났음을 감안하여 보면 이 예들은 이와 같은 漢語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직하다.
- ② 허경궁(惠慶宮)[惠: 蟹合四去霽匣(胡桂切)]괴<27ㄴ>: 齊韻은 운미 /-j/를 지니고 있는 것이나 이곳에서 보듯 이것이 탈락한 ‘허’란 음으로 나타나는 예가 있다.
- ③ 덩은(鄭蘊)[蘊: 臻合三平文影(於云切)]이<4ㄱ>: 合口韻인 文韻의 운모가 보이는 통상적인 대응 양상에 따르면 ‘蘊’의 한자음은 ‘운’이 되어야 할 텐데 이 글자의 중세국어 한

자음은 ‘은’이다. 이는 魂韻의 聲符 ‘畧은’과 諧聲字 ‘溫은’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는 것처럼 ‘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④ 최유후(蔡裕後)[蔡: 蟹開一去泰清(倉大切)]<24ㄱ>: 泰韻 開口字인 ‘蔡’는 중세국어 한자음이 ‘채’이나 이곳에서 보듯이 撮口字와 같이 ‘최’로 나타나는 예가 있다.
- ⑤ 신견진(辛慶晉)[慶: 梗開三去映溪(丘敬切)]<13ㄴ>: 庚韻의 ‘慶’은 ‘경’과 같이 운미가 /-o/으로 반영됨이 정상이나 이곳에서 보듯이 /-ㄴ/으로 나타나는 예가 있다. 梗攝의 운미가 구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견’은 이런 운미의 성격을 드러내 주는 예일 가능성이 있다.

3.3. 성모와 운모 모두 양상이 다른 경우

(1) 『계해반정록』

- ① 츠(筍)[筍: 咸開二入洽知(竹洽切)]호여<6ㄱ>: ‘筍’은 운모가 咸韻 入聲이고 성모가 知母 2등이므로 통상적인 국어 한자음의 양상에 따른다면 ‘*답~*탑’ 정도의 음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세국어 한자음에서는 『訓蒙字會』(1527)에 주기된 것과 같이 ‘잡’으로 나타나 성모의 양상이 통상적인 양상에서 벗어난다. 이는 근대 한어의 舌上音의 正齒音화를 반영한 결과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訓蒙字會』에는 근대 한어의 변화가 다수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계해반정록』에는 『訓蒙字會』 한자음과는 다른 ‘츠’란 음이 실려 있는데, 이는 성모에서는 漢語에서의 正齒音화를 반영하면서 운모에서는 입성 운미가 탈락되어 있고 ‘ㄱ → ㆍ’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漢語의 입성 운미의 소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국어에서의 /·/ > /ㄱ/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대적 층위의 한자음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3.4. 국어 음운 변화와 관련한 한자음의 변화

(1) 『전운치전』

- ① 고히(怪異)[異: 止開三去志以(羊吏切)]호도다<11ㄴ>: 以母인 ‘異’는 ‘히’란 음을 지닐 근거가 漢語에서는 보이지 않는데도 이처럼 ‘히’를 지닌다. 이는 유성음 사이에서 /ㅎ/ 탈락 현상이 있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본음을 혼동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 ② 시진(澌盡)[澌: 止開三平支A心(斯義切)]호거늘<35ㄱ>: 支韻인 ‘澌’는 『三韻聲彙』 등의 운서와 『全韻玉篇』의 한자음에서는 ‘식’로 쓰이던 것인데, 이곳에서 보듯이 ‘시’로 나타난다. 이는 자음 아래에서의 /-ㄴ/ > /-ㄷ/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2) 『홍길동전』

- ① 지위(指揮)[揮: 止合三平微曉(許歸切) || 吁韋切, 音輝<集韻>]<8ㄴ>: 曉母인 ‘揮’가 중세국어 한자음 ‘휘’와는 다른 ‘위’를 보이는 예가 보인다. 『集韻』에 보면 吁韋切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일 수 있으나 반절상자인 ‘吁’가 云母뿐 아니라 曉母의 음도 지니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저되는 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 ② 말유(挽留)[挽: 山合三上阮微(無遠切)]치<28ㄱ>: 元韻의 ‘挽’은 양성운인데도 불구하고 입성운과 같은 한자음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음을 갖게 된 원인을 漢語에서 받

견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만류 → 말류’와 같이 유음화가 일어난 것을 인지하고, ‘溜’를 ‘류 → 유’와 같이 적은 것이 섞이면서 ‘말유’와 같이 표기된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3) 『숙영낭자전』

- ① 실허(膝下)[膝: 臻開三入質A心(息七切)]의 <1ㄱ>, 비조직석(非朝則夕)[則: 曾開一入德精(子德切)]<9ㄴ>, 칭찬(稱讚)[稱: 曾開三平蒸昌(處陵切) || 曾開三去證昌(昌孕切)]<38ㄱ> ~ 칭찬(稱讚)<41ㄱ> ~ 칭양(稱揚)<49ㄴ>: ‘膝’은 眞韻 甲類인데도 중세국어 한자음은 ‘슬’로 나타나 乙類와 같은 양상을 보였는데, 이곳에서 보듯이 甲類에 부합하는 양상을 보이는 ‘실’이 관찰된다. ‘슬’과는 별도로 ‘실’이란 음이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19세기에 들어서 이 음이 관찰된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이 ‘실’은 치찰음 아래에서의 전설모음화에 따라서 생겨난 음으로 이해된다.¹⁵⁾ 登韻 入聲의 ‘則’이 ‘직’을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치찰음 아래에서의 전설모음화에 따라 생긴 음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蒸韻의 ‘稱’은 ‘층’으로 나타나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稱’은 중세국어 한자음 ‘칭’과 달리 ‘층’을 보이는데, 이는 마치 乙類의 글자들에서 보이는 양상을 지니게 된 것이다. 19세기 이전의 『육신록』에서 ‘稱층’이 관찰된 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대 한어에서 蒸韻이 耕韻, 登韻과 더불어 庚靑韻[-əŋ]이 된 것과는 잘 대응하고 있어서 근대 한어적 층위를 반영한 음일 수 있다(권인한 1997: 323, 김무림 2006: 124, 이준환 2015: 374 참고).
- ② 요지현(瑤池宴)[宴: 山開四上銑影(於殄切) || 山開四去霰影(於甸切)]<2ㄱ, 3ㄱ, 27ㄴ>: 影母의 ‘宴’은 중세국어 한자음인 ‘연’과는 달리 ‘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음을 보일 근거를 漢語에서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모음 사이에서의 /ㅎ/의 탈락 현상에 대한 과도 교정이 일어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 ③ 기절(氣絶)[氣: 止開三去未溪(去既切) || 止開三去未曉(許既切)]허던이<24ㄱ>, 시기(猜忌)[猜: 蟹開一平哈清(倉才切)]허고<55ㄱ>: 微韻의 ‘氣’는 중세국어 한자음 ‘기’와는 달리 ‘기’를 보이는데, 이는 자음 아래에서의 /-ㄱ/ > /-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猜’는 哈韻인데도 불구하고 止攝에서와 같은 ‘식’란 한자음을 보이던 것인데, 이곳에서 보듯이 ‘시’로 나타난다. 이는 자음 아래에서의 /-ㄱ/ > /-ㄱ/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猜’가 ‘식’란 음을 갖게 된 것은 『唐韻』, 『集韻』 등에 이 글자에 “音僖”와 같은 음과 관련한 정보가 실려 있는데, ‘僖’가 哈韻의 倉才切뿐만 아니라 之韻의 息吏切도 반절로 취하는 복수음자였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
- ④ 절단(決斷)[決: 山合四入屑見(古穴切)]코<37ㄱ>: 見母의 ‘決’은 중세국어 한자음 ‘결’과는 달리 ‘절’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어의 ㄱ구개음화에 따른 음으로 판단된다.
- ⑤ 선판(懸板)[懸: 山合四平先匣(胡涓切)]을<33ㄴ>: 匣母의 ‘懸’은 중세국어 한자음 ‘현’과는 달리 ‘선’으로 나타나는데, 漢語에서는 이와 같은 음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국어의 ㅎ구개음화에 따른 음으로 판단된다.
- ⑥ 할림(翰林)[翰: 山開一平寒匣(胡安切) || 山開一去翰匣(侯汗切)]<55ㄱ>: 양성운인 寒韻의 ‘翰’이 ‘한’이 아닌 ‘할’로 반영된 것은 전술한 『홍길동전』의 ‘말유(挽留)’와 같이 ‘한림 → 할림 → 할림’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즉 유음화와 來母를 ‘ㄹ → ㅇ’으로 적은 것이 복합된 표기로 판단된다. 이 문헌에서 이와 같은 유음화 현상이 있었음은 ‘실령지허(神靈之下)<55ㄱ>’에서 여실히 볼 수 있다.

(4) 『계해반정록』

- ① 한의길(韓希吉)[希: 止開三平微曉(香衣切)]이<2ㄴ>: 曉母의 ‘希’는 중세국어 한자음 ‘희’

15) 다른 자료 가운데에서 『국한회어』(1895)에서는 ‘슬갑 膝匣’, ‘슬하 膝下’, ‘슬하자손 膝下子孫’과 같이 ‘슬’을 보이는 예뿐만 아니라 ‘간실 澗膝’, ‘굴실 屈膝’, ‘容膝 용실’, ‘학실 鶴膝’, ‘무릅실 膝’과 같이 ‘실’이란 음을 보이는 예들이 다수 실려 있다.

와는 달리 ‘의’를 보이는데, 이는 모음 사이에서의 /ㅎ/ 탈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증찬(稱讚)[稱: 曾開三平蒸昌(處陵切) || 曾開三去證昌(昌孕切)]_ㅎ시니<31ㄱ>: 앞의 『숙영낭자전』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4. 복수 한자음의 사용 실태 확인

국어 한자음 가운데에는 하나의 한자에 둘 이상의 음을 보이는 예들이 많이 있는데, 19세기 고전 산문 작품을 보면 이런 복수 한자음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다수 관찰된다. 이와 관련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운치전』

- ① 경각간(頃刻間)의<8ㄱ>: ‘刻’은 『廣韻』 등의 운서에서는 복수 한자음을 지닐 근거가 보이지 않으나, ‘꺅’ 이외에도 ‘꺅’이란 음을 보인다. 이 음은 『註解千字文』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이준환(2015: 374)에서는 이와 같은 구개성을 지닌 曾攝의 운미 /-k/에 의해 핵모음과 운미 사이에 구개적인 하향성 개음이 첨가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 가능성 이외에도 한어 음운사에서 입성 운미의 소실이 이루어지면 德韻은 근대 한어에서 齊微韻[-ei]이나 皆來韻[-ai/-iai]에 속하게 되었는데, ‘刻’은 皆來韻[-iai]에 속하여 운미 /-j/를 갖게 되었는데, ‘꺅’은 이 운미를 반영한 한자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꺅’에 비해 ‘꺅’은 근대적 층위를 반영한 한자음이라 할 수 있으며, 『三韻聲彙』 등의 운서나 『全韻玉篇』에서 ‘꺅’으로 주음하고 있는 것은 이런 근대적 층위의 음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2) 『징세비티록』

- ① 호광성(湖廣省)[省: 梗開三上梗生(所景切) || 梗開三上梗心(息井切)]<1ㄱ>~운남성(雲南省)<4ㄴ>~운남성(雲南省)의<13ㄴ>: ‘省’은 ‘살피다’의 의미일 때에는 息井切에 해당하는 ‘성’, ‘禁署(관청)’의 의미일 때에는 所景切(生上聲)에 해당하는 ‘싱’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이곳의 ‘省’은 지방 행정 구획을 이르는 것인데, 이때는 ‘싱’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호광성’, ‘운남성’에서 보듯이 ‘싱’으로 읽히고 있으나 ‘운남성’에서 보듯이 ‘성’으로 읽히고 있는 예도 있어서 혼란을 보여 준다.

(3) 『홍길동전』

- ① 반향(半晌)[响: 宕開三去漾書(始亮切) || 宕開三去漾曉(許亮切) || 宕開三上養曉(許兩切) || 宕開三上養書(書兩切)]<4ㄴ>: 중세국어 자료에서는 『訓蒙字會』에 실린 ‘상’과 같이 書母에 대응하는 음만이 보였으나 이곳에서 보듯이 曉母에 대응하는 음도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병환(病患)도 쾌차(快差)[差: 假開二平麻初(初牙切) || 止開三平支初(初宜切) || 蟹開二平皆初(初皆切)]_ㅎ실<5ㄱ>~신병이 쾌차(快差)_ㅎ고<18ㄱ>: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差’에 ‘츠’란 음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 > /ㅈ/에 따라 ‘차’를 ‘츠’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차’는 ‘어그러지다, 다르다’의 의미일 때 사용되는 음이고 ‘병이 낫다’의 의미일 때에는 ‘채’를 쓰는 것이 타당하나(『全韻玉篇』), 이곳에서 보듯이 뜻에 맞지 않게 ‘차 → 츠’란 음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시각(時刻)[刻: 曾開一入德溪(苦得切)]<5ㄴ>~시각(時刻)을<24ㄱ>: 앞의 『전운치전』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 ④ 철삭(鐵索)[索: 宕開一入鐸心(蘇各切) || 梗開二入陌生(山責切)]<12ㄱ>~철삭(鐵索)이<16ㄴ>: ‘索’은 ‘노’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삭’으로 읽는 것이 타당한데, 이곳에서 보듯이

의미에 걸맞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초헌(軺軒)[軺: 效開四平蕭端(丁聊切) || 效開三平宵以(餘昭切)]을<17ㄱ>: ‘軺’의 음이 端母와 蕭韻의 통상적인 대응 양상에 따라 ‘쇼’임을 보여 준다. 음운 정보를 고려할 때 ‘쇼>쇼’와 같이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훈몽자회』에서는 ‘들고지 요’와 같이 훈과 음이 주기되어 있어 以母의 음이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全韻玉篇』에서는 ‘요俗쇼’와 같이 실려 있는데 이는 端母와 以母의 성모를 갖는 복수음자인 이 글자의 한자음 중 以母에 대응하는 한자음이 규범음으로 인식되고 ‘쇼>쇼’의 변화를 거친 端母의 음이 俗音으로 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4) 『최충진』

- ① 차복(差復)허려니와<8ㄱ>: 이곳의 ‘差’는 ‘병이 나옴’의 의미로 쓰였는데 의미에 맞지 않게 음이 ‘차’로 나타난다.
- ② 번복(反覆)을[反: 山合三平元敷(孚袁切) || 山合三上阮非(府遠切)]<47ㄴ>: 元韻의 ‘反’은 중세국어 한자음에서는 ‘반’을 보이는 경우가 압도적이고 『논어언해 2:49ㄴ』에서만 ‘번’을 한 차례 보인다. 元韻은 운모가 /연/과 /안/ 모두를 보이므로 이 둘 모두 元韻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자가 元韻의 ‘翻’과 통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翻’은 ‘번’으로 읽혀 왔으므로 이에 영향을 받아 ‘反’이 ‘번’이란 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集韻』과 『韻會』를 보면 “部版切, 翻上聲”과 같은 정보가 실려 있는데, 이는 ‘反’이 평성인 ‘翻’과 기본적으로 같되 성조만 상성으로 다름을 드러낸 것이다.

(5) 『낙성비룡』

- ① 반향(半响)[响: 香兩切, 音響<<篇海>>]~半晌[响: 宕開三去漾書(始亮切) || 宕開三去漾曉(許亮切) || 宕開三上養曉(許兩切) || 宕開三上養書(書兩切)]<2ㄱ>: ‘响’은 중세국어 한자음에서는 ‘상<<훈몽자회 상:1ㄱ>>’만이 보였으나 이곳에서 보듯이 ‘향’이란 음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이 글자의 書母뿐 아니라 曉母에 대응하는 음도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¹⁶⁾
- ② 扃탕(扃愴)[扃: 效開三平宵B徹(敕宵切) || 效開三平宵B昌(尺招切)]홀<7ㄱ>: ‘扃’은 중세국어 자료에서는 한자음의 실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글자의 한자음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왜어유해 하:44ㄱ』(1781)의 ‘초창 扃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왜어유해』에서는 설두음은 ‘ㄷ, ㅌ’, 설상음은 ‘ㅈ, ㅊ’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昌母와 분간이 되지 않아 이것이 徹母의 음을 반영한 것인지 昌母의 음을 반영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곳의 ‘扃탕(扃愴)’도 昌母의 한자음이 과도교정되어 ‘扃’이 되었을 수 있어 판단하기 어렵기는 하나 徹母인 ‘愴’의 한자음을 ‘탕’으로 달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扃扃’도 徹母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③ 경각(頃刻)의<8ㄱ>: 앞의 『전운치전』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 ④ 항오(行伍)[行: 宕開一去宕匣(下浪切) || 梗開二平庚匣(戶庚切) || 梗開二去映匣(下更切) || 宕開一平唐匣(胡郎切)]를<22ㄱ>: ‘行伍’에서와 같이 ‘行’이 ‘줄’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항’으로 읽힘을 보여 준다.

(6) 『숙영낭자전』

- ① 덕탁(大澤)[澤: 梗開二入陌澄(場伯切) || 宕開一入鐸定(闕各切)]<54ㄴ>~덕택(大澤)이<55ㄱ>: ‘澤’은 중세국어 한자음에서는 ‘탁’이란 음만이 관찰되는데, 이곳에서 보듯이 ‘탁’이란 음도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음은 『集韻』, 『韻會』, 『正韻』 등에 반영되어 있

16) 이 작품 이외에도 『후슈호전』, 『엄씨효문청행록』, 『윤하정삼문취록』, 『완월회맹연』 등에 ‘반향’이란 말이 꽤 쓰이는 것이 확인된다.

는 達各切에 대응하는 음이다.

(7) 『계해반정록』

① 박중종(朴承宗)[承: 曾開三平蒸禪(署陵切) || 蒸開三上拯章(諸仍切, 音蒸 水名/音蒸之上聲) <集韻>] <8ㄱ>: ‘承’은 중세국어 한자음 ‘승’과 달리 파찰음인 ‘증’으로 대응하는 예가 관찰된다. 현대 자전 가운데에도 『명문』에는 ‘물 이름’, 『민중』에는 ‘건지다, 구제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증’이란 음이 제시되어 있다. 이 음은 『集韻』에 제시된 정보에 따라 章母인 ‘蒸’과 같은 음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承’이 『集韻』의 음을 반영한 ‘증’이란 음도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세국어 자료 중 禪母에서 ‘ㄷ’으로 대응하는 것은 李敦柱(1995: 325)에서 지적한 ‘杓작~자<<훈몽자회 예산본>>’¹⁷⁾을 비롯하여 聲符인 ‘勺작<<훈몽자회, 신증유합>>’가 諧聲字인 ‘勺작<<훈몽자회>>’에 그친다. 따라서 ‘承증’은 이처럼 ‘ㄷ’으로 대응하는 글자들과 더불어 연구가 필요한 예라 하겠다.

② 포풍(暴風)[暴: 通合一入屋並(蒲木切) || 效開一去號並(薄報切)] <23ㄱ>: ‘暴’는 『全韻玉篇』에 따른다면 ‘맹렬하다, 침입하다, 마르다’의 의미일 때에는 ‘포’로 읽히고 ‘햇볕에 말리다, 나타나다, 나타내다’의 의미일 때에는 ‘폭’으로 읽힌다. 따라서 ‘暴風’의 ‘暴’를 ‘포’로 적은 것은 의미에 걸맞게 사용된 예라고 하겠다.

5. 나오며

참고 문헌

- 姜信沆(2003), 『韓漢音韻史 研究』, 태학사.
- 權仁瀚(1997), 「한자음의 변화」, 『국어사 연구』, 태학사, 83-344.
- 權仁瀚(2005),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 권인한(2006), 「중세국어 한자음」,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57-94.
- 權仁瀚(2009), 『中世 韓國漢字音의 分析의 研究<資料篇>』, 박문사.
- 김무림(2006), 「한국 한자음의 근대성(1)-반영 양상의 종합-」,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2006, 89-132.
- 김주필(2006), 「자석류 문헌의 원순모음화와 구개음화」, 『어문학논총』 25, 국민대학교 어문학 연구소, 87-109.
- 김현양 옮김(2010), 『홍길동전·전우치전』, 문학동네.
- 南廣祐(1973), 『조선(이조) 한자음 연구 - 임란전 현실 한자음을 중심으로』, 일조각.
- 南廣祐(1995), 『古今漢韓字典』, 인하대 출판부.
- 申雅莎(2006), 「韓漢音研究」, 北京大學 博士論文.
- 이기동(1982), 「전운옥편에 주기된 정속음에 대하여-전청자의 성모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23, 민족어문

17) 그러나 <동중본>에서는 ‘H삭’으로 나타난다.

- 학회, 511-528.
- 이돈주(1977),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속음자에 대하여」, 『이승녕 선생 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 李敦柱(1979), 『訓蒙字會 漢字音 研究』, 전남대 박사논문.
- 이돈주(1997), 「전운옥편의 正·俗 한자음에 대한 연구」, 『국어학』 30, 국어학회, 1-34.
- 李敦柱(2003), 『韓中漢字音研究』, 태학사.
- 이돈주(2006), 「한국의 속음한자 중 /k~h/음의 교체 문제」,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335-372.
- 이상구 주식(2010), 『원본 속향전·속영낭자전』, 문학동네.
- 이승자(2003), 『조선조 운서 한자음의 전승양상과 정리규범』, 역락.
- 李潤東(1997), 『韓國漢字音의 理解』, 형성출판사.
- 이준환(2003), 「三韻聲彙 漢字音 聲母體系 考察」, 성균관대 석사논문.
- 이준환(2004), 「韓國漢字音 複數音字의 傳承 樣相과 그 意味(1)-『華東正音通釋韻考』의 現實音系의 성격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349-379.
- 이준환(2005), 「근대 운서에 주기된 복수음자와 현대한자음」, 『국어학』 46, 국어학회, 67-95.
- 이준환(2006), 「漢字音 俗音의 발생과 意味와의 關聯性」, 『語文研究』 124, 韓國語文教育研究會, 57-81.
- 이준환(2007가), 「舌音系 漢字音의 口蓋音化-諺簡 漢字音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4, 한국어학회, 301-335.
- 이준환(2007나), 「고유어와 한자어 구개음화의 상관성」, 『국어학』 49, 국어학회, 33-68.
- 이준환(2008), 「근대국어 한자음의 체계와 변화」, 성균관대 박사논문.
- 이준환(2011가), 「16세기 후반·17세기 國語 漢字音 韻母의 대응 양상 및 특징(1)」,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189-219.
- 이준환(2011나), 「16세기 후반·17세기 國語 漢字音 韻母의 대응 양상 및 특징(2)」, 『大東文化研究』 74, 성균관대 大東文化研究院, 255-286.
- 이준환(2012), 「18세기 국어 현실 한자음의 대응 및 변화 양상」, 『口訣研究』 28, 구결학회, 191-233.
- 이준환(2015), 「17-18세기 고전 산문 작품 속의 국어 한자음의 모습」, 『언어와 정보 사회』 2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43-384.
- 임치균·박순임·허원기·이지영 교주(2009), 『낙성비룡·문장풍뉴삼덕록·징세비덕록』, 한국학중앙연구원.
- 鄭卿一(1984), 「奎章全韻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 鄭卿一(1989), 「華東正音通釋韻考 漢字音 聲母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 정경일(2002), 『한국운서의 이해』, 아카넷.
- 정경일(2004), 『조선후기 운서 한자음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정경일(2006), 「근대국어 한자음」,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95-176.
- 정은임 교주(2005), 『계축일기』, 이회문화사.
- 최미현(2006가), 「한국 한자음의 이중음 연구」, 동의대 박사논문.
- 최미현(2006나), 「『전운옥편(全韻玉篇)』에 반영된 지섭(止攝)의 양상에 대하여」,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213-231.
- 최미현(2007), 「『언해태산집요』에 반영된 한자음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새얼어문논집』 19, 새얼어문학회, 127-145.
- 최미현(2009), 「『동의보감』 탕액편에 반영된 한자음 연구」, 『한말연구』 24, 한말연구학회, 267-286.
- Rainer Dormels(1994), 「옥편류의 한자음 비교연구 - 전운옥편, 新字典, 漢韓大辭典 大字源 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118, 서울대.
- 王 力(1985),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한국어 역: 權宅龍(1997), 『중국어 음운사』, 도서출판 대일.)
- 李珍華·周長楫(1999),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 丁邦新(Ting, Pang-hsin)(1975), Chinese Phonology of Wei-Chin period: Reconstruction of the finals as reflected in poetry. Taipei: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special publications No. 65.

周法高(1973),『漢字古今音彙』,香港:中文大學出版社.

周法高(1984),『中國音韻學論文集』,香港:中文大學出版社.

伊藤智ゆき(2002),『朝鮮漢字音の研究』,東京大學 博士論文.

平山久雄(1967),「中古漢語の音韻」,『言語-中國文化叢書 1』,東京:大修館書店, 112-166.

河野六郎(1968),『朝鮮漢字音の研究』,天理:天理時報社.

“19세기 고전 산문 작품에 반영된 국어 한자음의 양상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김세환(영남대)

이 논문은 간본에서 발견되는 한자음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19세기의 필사본 자료에서 한자음을 추출하여 연구한 것으로 연구 자료의 확대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당대의 현실 한자음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한자음에 대한 연구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자음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입장이므로, 연구과정에 대한 지엽적인 궁금증을 아래에 제시함으로써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전운치전>을 비롯하여 5개의 자료는 판독 및 교주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는데, 2쪽의 <최충전>과 <계희반정녹>은 그러한 설명이 없어서, 필사에 대한 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2. 4쪽 ① 화신(和珅)에서, ‘珅’이 음이 『集韻』의 반절인 升人切에서 기대되는 ‘신’임을 보여주는 최초의 예라고 하였는데, 최초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가 국어사 자료에서 처음 보인다는 의미인지, ‘신’으로 발음되는 것이 처음 발견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페이지에서 ④ 절강부(浙江府)의 설명에, “‘浙’이 章母와 仙韻의 통상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절’임을 보여주는 최초의 예”라는 것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이라면 ‘전’ 또는 ‘전’이 아닌지요.

3. 4쪽 ‘③ 순라>순나(巡邏)’의 설명에서 “‘라>나’를 반영하였거나, 치조 비음화를 반영하여 ‘나’로 표기하였거나, 근대 국어 시기의 ‘ㄹㄹ’을 ‘ㄹㄴ’으로 표기하는 경향에 따른 표기로 보인다.”라고 하였는데, 마지막 설명에서 ‘ㄹㄹ’이나 ‘ㄹㄴ’의 표기가 ‘순나’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ㄴㄹ>ㄴㄴ’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설명에 의문이 듭니다.

4. 6쪽과 7쪽에 걸쳐서 평음화된 ‘피>비, 청>정, 첩>첩’ 등이 나타나고, 격음화된 ‘장>창, 데>테’가 나타나는데, 이들에 한자음 또는 국어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관된 차이가 있는지요.

5. 8쪽 이하에서 운모의 양상이 다른 경우를 정리하여 보면 다른 운모에 영향을 받은 것(8쪽의 1번(료>류)), 중국의 고음에 영향을 받은 것(8쪽 2번), 국어 내부의 현상(8쪽 3번은 j첨가(ㄹ(마)>미), 4번은 j탈락(여>어), 6번은 w 첨가(가>과), 9쪽 1번은 어>으 상승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형화가 가능할는지요, 그렇다면 또다른 유형들도 발견되는지 궁금합니다.

6. 8쪽의 5번과 12쪽의 3번 ‘죄>죄’는 12쪽에서 “‘罪’는 중세국어 한자음 ‘죄’와는 달리 ‘죄’로 나타나 齒音 아래에서의 상향성 ㅅ음의 첨가”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기상의 혼기로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19세기에는 ‘외’는 단모음 ö나 이중모음 we로 발음되었는데, 이중모음 we로 발음되었을 경우, ‘죄’와 ‘죄’의 모음은 동일하게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약 단모음 ö라면 ‘죄’는 ‘yö’로 볼 수 있어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7. 한자음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도교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한자음이 변화하면서 j, w 반모음이 탈락하거나, 첨가되는 변화가 있으니, 근대의 한자음에서 없던 반모음을 첨가하거나, 있던 반모음을 탈락시키는 경우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 12쪽의 5번 ‘노비>뇌비’, ‘모양>뫼양’ 등은 첨가의 예이고, 9쪽의 ‘祭제>저’, 13쪽의 ‘혜경궁>혀경궁’ 등은 탈락의 예입니다. 그리고 j가 첨가된 ‘노비>뇌비, 국별>꺇별’ 등은 이-역행동화와의

관련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논의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서없이 궁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洞里名の 形成과 變遷에 관하여

朴秉喆(서원대 교수)

1. 서론

1.1. 연구의 의의 및 범위

지명은 대상이 되는 땅의 자연지리적인 특성이나 사회문화적인 가치 부여에 의하여 命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노루목’이라는 지명은 대상 지형의 특성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기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리고 민주화를 갈망하던 민중의 투쟁이 이루어진 곳을 ‘민주광장’이라 한 것은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명명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명명되어 언중의 호응을 얻은 지명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다.

지명의 保守性과 관련하여 미국의 주 명칭 중 상당수가 원주민의 언어라는 점을 예로 들곤 한다.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이전에 부여된 미시간(큰 물), 미시시피(물의 제왕), 아칸소(赤人), 테네시(큰 굴곡의 덩굴), 아이오와(졸린 사람들), 켄사스(그라운드 부근의 산들바람), 일리노이(완벽한 인간), 켄터키(암흑과 유형의 땅)..... 등이 동리명도 아닌 주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뉴질랜드의 행정구역 명칭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¹⁾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지명은 어떠한가? 광역자치단체의 명칭 중 고유어지명은 ‘서울’밖에 없고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인 시·군명은 한자어지명 일색이다. 조선시대까지 동면, 서면, 남면, 북면 등과 같이 治所를 중심으로 부여했던 면 명칭이 오늘날 지형지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명된 경우가 많아지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한자어지명이다. 행정지명으로 활용하는 동리명 또한 한자어지명이 다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동리명의 경우 행정용으로 文語에서 사용할 때와는 달리 노인층의 口語에서는 그 원초형인 고유어지명이 활용되고 있다. ‘釜谷’에 산다고 하지 않고 ‘가마실’에 산다고 하거나 ‘古巖洞’을 ‘고래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행정지명에서 지명의 원초형을 어떤 식으로든 보존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명도 면명도 아닌 동리명이다. 동리명의 탐구야말로 우리나라 지명의 근원적 형태를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동리명의 형성과 변천을 탐구하는 작업은 한국지명이 지닌 특성을 알아냄은 물론 미래 지명 설계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三國史記』地理志를 비롯한 현전하는 지명 관련 자료에서 우리는 삼국시대 이후 전국의 郡縣名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동리명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은 영조 때인 1757년~1765년 사이에 간행된 『輿地圖書』(이하 『輿圖』)이다. 그러므로 고대 그리고 중세국어 자료에서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동리명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전면

1) 윤흥기(2006)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행정구역 명칭 중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명칭에서는 유럽식 지명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나 기초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county(군) 명칭에서는 마오리식 지명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10개의 행정구역 명칭 중 타라나키와 오타고가 원주민의 언어인 마오리어 지명이며, 군에 해당하는 121개 county의 명칭 중 마오리어 지명이 68개로 56.2%, 유럽식 지명은 53개로 43.8%라 하였다.

적인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²⁾

고대나 중세지명이 아닌 근대지명에서 확보된 동리명을 바탕으로 그 형성과 변천을 탐구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문헌에 제시된 명칭과 대응되는 傳來地名 즉 俗地名과의 관계 파악을 통하여 동리명 나아가 한국지명의 형성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 또한 동리명 형성 이후 그 변천을 살피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시대상황이 명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학계는 지나치리만큼 고대지명의 탐구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문제만을 제기한 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허다하다. 이는 확실하고 분명한 자료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모든 분야의 연구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관심은 믿을 만한 자료 즉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동리명은 문헌자료와 이에 대응하는 구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엄격한 자료이다. 믿기 어려운 느슨한 자료가 아니라 검증된 자료의 성격을 지닌 근대지명 자료 즉, 동리명 검토를 통한 객관적인 이론 도출, 이를 바탕으로 한 중세 그리고 고대지명 연구로의 확대를 위해서도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발표는 최근 발표자가 깊은 관심을 갖게 된 동리명 연구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함에 있다.

1.2. 堤川の 郡縣名과 面名 沿革

제천은 월악산, 소백산 그리고 치악산에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지역으로 충청북도 북부에 위치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이하 『新增』)의 <建置沿革>조에서는 “本高句麗奈吐郡 新羅改奈堤 高麗初改堤州 成宗十四年置刺史 穆宗八年罷之 顯宗九年屬原州 睿宗元年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例改今名爲縣監”³⁾와 같이 그 연혁을 설명하였다. 또한 奈吐·奈堤·義川·義原 등을 그 군명으로 제시하였다.

『新增』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행정지명은 郡縣名이다. 군이나 현 아래에 위치하는 행정지명이 면명이고 그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 동리명이다. 이들 지명을 중세국어 자료에서는 단편적으로 접할 수 있으나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자료는 근대국어 시기의 지명 자료이다. 현전하는 자료 중 전국 각 군현의 동리명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문헌이 『輿圖』라 했는데 면명 또한 그러하다. 이 자료에서는 제천의 경우 맨 앞에 제천현 疆域을 표현한 채색지도를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이 『輿地圖』이다. 그리고 『輿地書』에서는 坊里를 필두로 道路, 建置沿革, 縣名, 形勝, 官職, 山川, 堤堰, 倉庫, 驛院, 關陜, 樓亭, 寺刹, 古蹟,

2) 『輿圖』 이전의 자료에서도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洞里村名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국어 시기의 자료인 『新羅村落文書』에 보이는 沙害漸村, 薩下知村 등이 단편적인 자료이며, 16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한 각 군의 읍지에서 동리명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동리명을 전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은 『輿圖』이다. 그후 『戶口總數』, 『朝鮮地誌資料』 등에서 전국의 동리명을 확인할 수 있다.

3) “본래 고구려의 奈吐郡인데 신라에서 奈堤로 고쳤고, 고려 초에 堤州로 고쳤다. 성종 14년(995)에 刺史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에 파하였고, 현종 9년(1018)에 원주에 붙였고, 예종 원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朝 태종 13년(1413)에 규례에 따라 지금 이름으로 고치어 현감을 만들었다.”

人物 등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제시되기도 했던 城池, 姓氏, 風俗, 陵寢, 壇廟, 公廡, 物産, 橋梁, 牧場, 烽燧, 塚墓, 鎭堡, 名宦, 旱田, 水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俸廩, 軍兵 등은 생략되었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소위 行政 내지는 法定 洞里名에 대한 역사적 검토이다. 그러므로 행정 내지는 법정 동리명만을 제시한 자료가 검토 대상이다. 『輿圖』(1757~1765) 이후 간행된 자료 중 검토 대상 문헌은 『忠淸道邑誌』(이하 『忠誌』)(1835~1849(제천현지 편찬연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이하 『舊名』)(1912),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이하 『新舊』)(1917) 등이다. 이들 자료에는 행정을 위한 동리명만이 제시되어 있어 『朝鮮地誌資料』(이하 『朝誌』)에 등재된 지명과는 성격이 다르다.

『朝誌』를 살펴보면 각 면별로 지명의 종별을 나누었는데, 제천군 金城面의 경우 里洞名, 部落名, 部曲名, 酒幕名, 古驛名, 寺刹名, 廟名, 山岳名, 峙名, 谿谷名, 河川名, 渡津名, 洑名, 名所名, 城址名 등으로 분류하였다. 지명의 종별은 각 면마다 특성을 감안하여 분류하였다. 堤川市 淸風面의 경우 金城面에서 볼 수 없는 市場名, 嶺名, 原坪名, 池沼名, 古蹟名 등이 보이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이든 지명의 종별 중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이 행정지명이라 할 수 있는 里洞名이며 그 다음에 마을이름인 部落名을 제시하였다. 이 자료는 한자표기 지명과 대응되는 언문표기 지명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朝誌』의 里洞名은 『新舊』의 洞里名과 사실상 일치한다. 1914년 일제에 의해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 『新舊』이다. 그 후 부분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지명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1917년 錦繡面과 城山面을 통합하여 金城面이라 한 것과 飛鳳面을 淸風面이라 한 것이 그 예이다. 『新舊』에는 제천군의 면 명칭이 12개⁴⁾가 제시되어 있으나 『朝誌』에는 10개⁵⁾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近左面과 近右面을 통합하여 鳳陽面으로, 城山面과 錦繡面을 통합하여 金城面으로 개편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邑內面을 제천면으로, 飛鳳面을 淸風面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반영되었다. 면 명칭에는 변동이 있었지만 그 하위 행정단위인 동리명은 정확히 일치한다.⁶⁾ 이런 점을 감안하면 『朝誌』의 동리명은 1914년의 개편 결과를, 면명은 ‘지정면’⁷⁾제를 포함한 본격적인 면제 시행이 이루어진 1917년 이후의 개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⁸⁾

4) 邑內面, 白雲面, 城山面, 松鶴面, 近左面, 近右面, 飛鳳面, 水山面, 錦繡面, 寒水面, 德山面, 水下面 (12개 면)

5) 堤川面, 金城面, 淸風面, 水山面, 德山面, 寒水面, 水下面, 白雲面, 鳳陽面, 松鶴面(10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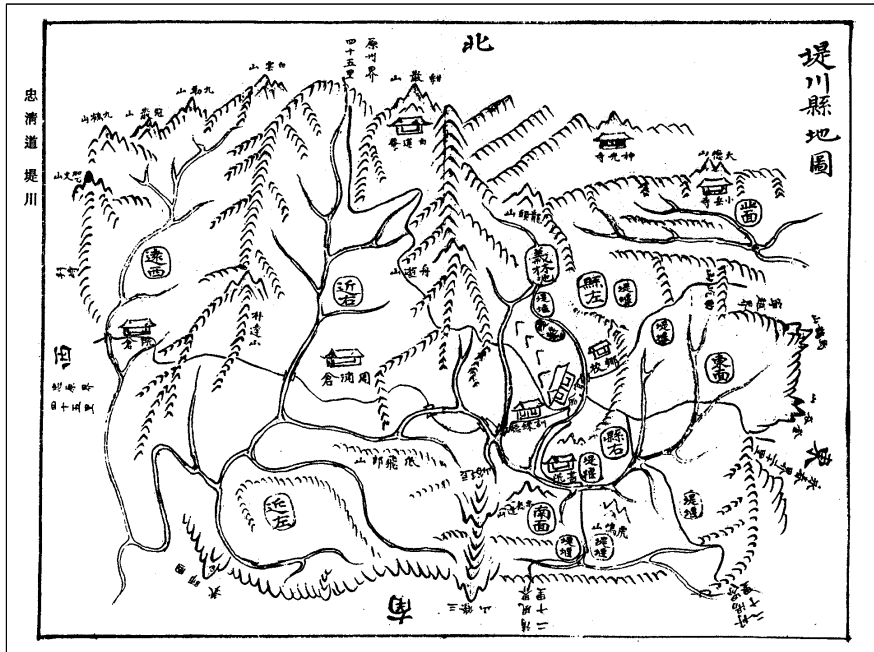
6) 『新舊』에 제시된 12개 면의 동리명 수는 邑內面 12개, 白雲面 8개, 城山面 8개, 松鶴面 8개, 近左面 6개, 近右面 13개, 飛鳳面 15개, 水山面 16개, 錦繡面 18개, 寒水面 10개, 德山面 8개, 水下面 15개 도합 137개이다. 이들 동리명은 『朝誌』의 里洞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통합이 이루어진 金城面 26개는 城山面 8개와 錦繡面 18개가, 鳳陽面 19개는 近左面 6개와 近右面 13개가 합해져 그대로 이동된 것이다. 다만 배열순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7) 조선총독부는 1917년 6월 9일자로 총독부령 제34호 「면제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때 일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보호하려는 의도 하에 만들어진 것이 ‘지정면’이다. 지정면은 특별행정구역으로 府에 가까운 특권을 부여하였으며, 면장은 일본인을 임명할 수 있게 하였고, 상담역을 둘 수 있으며 起債[재정차관]도 할 수 있게 하였다.

8) 『朝誌』 제천군 편은 1917년 개편 결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그 작성 연대는 1917년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朝誌』의 필사, 작성 연대에 대하여 임용기(1995: 156~157), 신종원(2010: 5~6) 등은

『朝誌』의 동리명 자료와 『新舊』의 그것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본고에서는 간명하게 동리명만이 제시된 『新舊』의 그것을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하지만 『朝誌』에는 里洞名은 물론 部落名을 한자로 표기한 후 각각에 대응되는 俗地名을 ‘諺文’이라는 칸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언문 칸에 제시된 속지명은 동리명의 근원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유어지명이 한자어지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논의 과정에서 이들 자료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본고에서 기초자료로 삼은 『輿圖』와 『忠誌』에는 각 군현의 지도가 맨 앞에 부착되어 있다. 이 지도에는 면의 위치도 사각형 모양을 한 동그라미 안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坊里조에는 면명을 제시한 후 그 아래에 동리명을 적어 놓았다. 『輿圖』의 경우 동리명과 함께 關門부터의 거리, 戶數와 남녀 인구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忠誌』에서는 면명을 큰 글씨로 제시한 후 그 아래에 행을 분할하여 해당 면의 위치와 특징을 동서남북의 접경과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설명한 후 각 里의 명칭을 제시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輿圖』의 지도를 통하여 제천현의 면명과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 『輿圖』의 堤川縣 지도

위 지도에서 보듯 제천에는 縣左面, 縣右面, 東面, 南面, 近左面, 近右面, 遠西面, 北面 등 8개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輿圖』의 면명은 『忠誌』에 그대로 이어졌으며 『舊名』에서는 遠西面이 西面으로 고쳐졌을 뿐 다름이 없다. 이들 면 명칭이 대폭 변경된 것은 『新舊』에

1911년 봄부터 1911년 12월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특정 지역 자료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자료를 대상으로 검토한 김순배(2013: 33~34)에서는 1917년 지정면제 실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필사, 작성 시기에 따라 이 자료의 편찬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편을 대상으로 한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와서인데 縣左面, 縣右面 그리고 東面을 통합하여 邑內面이라 하였고 西面을 白雲面, 南面을 城山面, 北面을 松鶴面이라 하였다. 다만 近左面과 近右面은 그 명칭이 유지되다가 1920년 9월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통합, 鳳陽面으로 변경되었다.

1914년 제천군에 병합된 청풍군⁹⁾의 면 명칭도 水下面을 제외하고 모두 변경되었다. 邑內面이 飛鳳面으로, 近南面과 遠南面이 통합되어 水山面으로, 北面과 東面이 통합되어 錦繡面으로, 遠西面に 忠州郡 德山面 일부를 병합하여 寒水面으로, 遠西面의 일부를 忠州郡 德山面 대부분에 병합하여 堤川郡 德山面으로 변경하였다. 堤川市의 면 명칭 연혁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輿圖』	『忠誌』	『舊名』	『新舊』	현재 ¹⁰⁾
[堤] 東面	[堤] 東面	《堤》東面	《堤》邑內面	<堤> 시내 동 지역
[堤] 南面	[堤] 南面	《堤》南面	《堤》城山面	<堤> 金城面
[堤] 北面	[堤] 北面	《堤》北面	《堤》松鶴面	<堤> 松鶴面
[堤] 近右面	[堤] 近右面	《堤》近右面	《堤》近右面	<堤> 鳳陽面
[堤] 近左面	[堤] 近左面	《堤》近左面	《堤》近左面	
[堤] 遠西面	[堤] 遠西面	《堤》西面	《堤》白雲面	<堤> 白雲面
[堤] 縣右面	[堤] 縣右面	《堤》縣右面	《堤》邑內面	<堤> 시내 동 지역
[堤] 縣左面	[堤] 縣左面	《堤》縣左面		
【清】邑內面	【清】邑內面	《清》邑內面	《堤》飛鳳面	<堤> 淸風面
【清】遠南面	【清】遠南面	《清》遠南面	《堤》水山面	<堤> 水山面
【清】近南面	【清】近南面	《清》近南面		
【清】遠西面	【清】遠西面	《清》遠西面	《堤》寒水面	<堤> 寒水面
			《堤》德山面	<堤> 德山面
【清】近西面	【清】近西面	《清》近西面	《堤》飛鳳面	<堤> 淸風面
				<堤> 水山面
【清】北面	【清】北面	《清》北面	《堤》錦繡面	<堤> 金城面
				<堤> 水山面
【清】水下面	【清】水下面	《清》水下面	《堤》水下面	<堤> 淸風面
				<忠> 東良面 ¹²⁾
《忠》德山面	(忠) 德山面	《忠》德山面	《堤》寒水面	<堤> 寒水面
			《堤》德山面	<堤> 德山面

<표 1> 堤川市의 面 名稱 沿革

2. 縣右面의 동리명과 그 변천

9) 청풍군은 원래 고구려 때의 沙熱伊縣을 신라 경덕왕 때 淸風으로 고쳐 제천군의 領縣이 되었다. 1018년(고려 현종 9)에는 忠州에 예속되었고 후에 監務를 두었는데, 1317년(충숙왕 4)에 郡知事가 되었다. 1660년에 府로 승격, 1895년(고종 32)에 郡이 되었다가 1914년 제천군에 병합되었다.

10) 도농복합도시인 현재의 堤川市는 縣左面, 縣右面 그리고 東面이 도시지역으로 발전하였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다. 현재의 동명은 朴秉喆(2016)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면명의 경우 변화의 큰 줄기만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대강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11) 각 面名 앞에 제시된 약호는 각각 【清】←청풍부, 【清】←청풍현, 《清》←청풍군, [堤]←제천현, 《堤》←제천군, <堤>←堤川市, 《忠》←충주군, (忠)←충주목, <忠>←忠州市 등을 표현한 것이다.

12) 水下面 지역 중 沙器里, 鳴梧里, 咸巖里, 瑞雲里, 浦灘里, 好雲里 등 6개 리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1929년에 제천군 寒水面에 편입되었다가 1987년에는 中原郡 東良面에 이관되었다. 그 후 1995년 시군통합에 의해 현재 忠州市 東良面 관할지역이 되었다.

2.1. 縣右面의 동리명 자료

『忠誌』를 비롯한 제천의 읍지에서 縣右面의 위치에 대하여 제천현의 治所가 위치한 지역이며 동쪽으로 東面과 접하고 서쪽으로 近右面과 접하며 남쪽으로 남면과 접하고 북쪽으로 縣左面과 접한다고 하였다. 동서간 거리가 10 리이며 남북간 거리는 7 리라 하였고 伐乙山의 좌우가 된다고 하였다. 현재 南泉洞, 花山洞, 東峴洞, 靑田洞, 下所洞, 新百洞, 榮川洞 지역으로 제천의 중심부와 그 우측에 속한다. 각 문헌에 보이는 縣右面의 동리명과 전래지명 그리고 현재의 동명을 정리하여 보이면 <표 2>와 같다.¹³⁾

	輿圖(9)	忠誌(9)	舊名(10)	전래지명 ¹⁴⁾	현용 동명
大寺洞里	○1			한사/한절, 절산[사산]	南泉洞
渴馬洞里	○2	○2		갈마골 갈매	花山洞
書堂洞里	○3	○3		남당	花山洞
花山里	○4	○4	○3	꽃매, 곰배산, 갈매	花山洞
百畝里	○5			백배미	東峴洞
東門外里	○6	○7		동문밖 동문거리	東峴洞
靑田里	○7	○8	○8	딛들, 청전들	靑田洞
坪里	○8			딛들, 청구평	靑田洞
所近里	○9	○9		소근이, 고른이, 고운이, 소리	下所洞
寒寺里		○1		한사/한절, 절산[사산]	南泉洞
官前里		○5	○2	유실 구렁넘어	新百洞
百夜里		○6		백배미, 본백	東峴洞 新百洞
越百里			○1	백배미, 신백, 월백	新百洞
書堂里			○4		花山洞
沙川里			○5	모라내, 모랏내, 모란	花山洞→ 榮川洞
下所里			○6	바깥고른이	下所洞
上所里			○7	웃고른이	靑田洞
邑部里			○9		東峴洞
本百里			○10	백배미	東峴洞

<표 2> 縣右面 관련 동리명

2.2. 縣右面 동리명에 대한 고찰

『輿圖』와 『忠誌』에는 9개 동리명이 등재되어 있고 『舊名』에는 10개가 보인다. 세 문헌에 모두 나오는 것은 花山里와 靑田里 2개이며 ‘花山’과 ‘靑田’은 현용 동명의 전부요소로도 쓰이고 있다. 현재의 법정동명인 南泉洞, 東峴洞, 新百洞, 榮川洞 등의 전부요소 南泉, 東峴,

13)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왼쪽 칸에 문헌에 나오는 모든 동리명을 제시하기로 한다. 우측으로 나아가면서 『輿圖』, 『忠誌』, 『舊名』 순으로 제시한 후 한자어지명인 동리명의 근원형이라 할 수 있는 전래지명과 현재 해당 지역이 속해 있는 동명을 제시하기로 한다. 해당 문헌에 출현하는 동리명에 만 ○를 하고 그 옆에는 각 문헌에 제시된 순서를 숫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14) 여기에 제시할 전래지명은 『朝鮮地誌資料』(1911),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1971), 충청북도의 『地名誌』(1987), 제천문화원 『義林文化』 제6집(제천 지명편)(1991)과 『堤川 마을誌』(1999) 등의 검토와 여러 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집한 것이다. 대부분의 항목은 한역지명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지만, 논의의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속지명도 일부 제시하기로 한다.

新百, 榮川 등은 『輿圖』, 『忠誌』, 『舊名』에서 찾을 수 없다. 이들 동명은 1914년 이후 부여된 명칭이다. 다만 下所洞의 전부요소 ‘下所’는 『舊名』에 보이므로 그 이전에 부여된 명칭이다.

『輿圖』와 『忠誌』에는 里名이 9개로 동수인데 『輿圖』의 大寺洞里와 百畝里가 『忠誌』에서는 각각 寒寺里와 百夜里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輿圖』의 坪里가 제외된 반면 『忠誌』에 官前里가 등재되었다. 大寺洞里→寒寺里의 경우는 大寺洞里에서 중복된 후부요소 洞을 제거하면 大寺里:寒寺里로 대응된다. 결국 大:寒의 대응관계로 ‘크다’의 뜻을 지닌 ‘하다’의 관형사형 ‘한’을 『忠誌』에서 음역하여 ‘寒’으로 옮긴 것이다. 차자표기의 원리에서 보면 ‘寒’은 음가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大’는 혼독자로 볼 수 있다. ‘大田’의 원초지명 즉 전래지명이 ‘한밭’이었듯이 큰 절이 있었기에 이 지역을 ‘한절골’이라 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후대로 오면서 한사리, 한사동, 대사동, 대사동리 등으로 불린 것으로 볼 수 있다.

『輿圖』의 ‘百畝里’와 『忠誌』의 ‘百夜里’는 모두 전래지명 ‘백배미’를 배경으로 형성된 한자 어지명이다. 예전에 이곳에 백 배미의 논이 있어 붙여진 명칭이며 관련 명칭으로 ‘백배미다리[白夜橋]’가 있다. ‘배미’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구획지은 논을 세는 단위명사이다. ‘배미’를 표현함에 있어 ‘夜’를 활용한 것은 그 새김이 ‘밤’이기 때문이다. ‘밤’에 ‘-이’를 붙여 ‘바미→배미’를 형성해 낼 수 있기 때문에 ‘畝’보다는 ‘夜’가 근원형의 발음 ‘배미’를 표현하는데 적절했기에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百夜里’는 『忠誌』에만 보이며 『舊名』에 와서 越百里와 本百里로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本百里리는 본래의 백배미[百夜里] 지역을, 越百里는 백배미[百夜里] 너머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本百里는 오늘날 東峴洞 지역이며 월백리는 新百洞 지역이다. 新百이라는 전부요소는 越百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本百인 ‘백배미[百夜]’가 먼저 있었고 후대에 형성된 동리의 명칭이 그 너머에 있는 越百이기 때문이다.

『輿圖』와 『忠誌』의 渴馬洞里와 東門外리는 『舊名』에서 제외되었다. 東門外리는 『舊名』 시기에 邑部里로 편성되었다가 현재 東峴洞에 속해 있다. 渴馬洞里는 현재 花山洞에 속하는 지역으로 고유지명어 ‘갈매’를 배경으로 ‘渴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후행요소 ‘매’는 ‘되[山]’의 변이형인데 음역하여 ‘馬’로 옮겼다. 선행요소 ‘갈’ 역시 음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輿圖』와 『忠誌』의 ‘所近里’는 『舊名』의 시기에 하소리와 상소리로 분할되었다. 상소리는 오늘날 靑田洞, 하소리는 下所洞에 속한다.

오랜 생명력을 지니며 쓰이고 있는 花山洞의 전부요소 ‘花山’은 이 지역에 있는 산이름 “곶매, 갈매, 곶배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명칭이다. 산의 형상이 곶배와 같이 생겨 곶배산이라 명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곶배란 고무래의 제천방언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곡식을 그 러모으고 퍼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에 쓰는 ‘丁’ 자 모양의 기구. 장방형이나 반달형 또는 사다리꼴의 널조각에 긴 자루를 박아 만든다.” 와 같이 풀이하였다. ‘丁’자를 아래쪽에서 보면 끝이 가늘게 튀어나온 모양인데 이를 일컬어 ‘곶(串)’이라 하는데 화산의 전래지명 중 ‘곶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육지가 바다를 향해 돌출한 지형을 ‘곶’이라 함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곶’은 고지, 꼬지,

꼬치, 코지, 꼬챙이…… 등으로 변이, 확장되어 쓰이는 어사로 장산꽃, 호박고지, 꼬치백반, 십지코지…… 등에서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화산의 근원형 ‘꽃매’의 ‘꽃’도 ‘串’으로 추정된다.¹⁵⁾ 한역과정에서 ‘꽃’은 ‘串’ 또는 ‘岬’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花’로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花’의 새김이 ‘꽃’이기 때문이며 이는 의역 중 雅譯¹⁶⁾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花山洞과 더불어 『輿圖』 이후 오늘날까지 쓰이는 명칭 靑田洞의 ‘靑田’은 해당 지역에 들이 넓게 펼쳐져 있어 생겨난 지명이다. 『輿圖』에만 보이는 坪里도 靑丘坪, 後坪[←뒫들]등을 배경으로 형성된 지명이다. 그러나 청전의 근원형인 고유어지명을 찾을 수 없어 어떤 특징을 지닌 들이었기에 청전이라 하였는지 알기가 어렵다. 현재의 靑田洞 지역은 縣右面에 속했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소리를 병합하여 읍내면에 편입되었다.

현재의 榮川洞은 제천시내 자리 잡은 제천 시내의 중앙 남쪽에 위치한다. 마을 앞쪽에 흐르는 내에 모래가 많아 모래내, 모라내, 모랏내, 모란내, 모란 등의 명칭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래지명 ‘모래내’를 배경으로 형성된 한자어지명 ‘沙川’이 『舊名』에 보이며 오늘날 강저지구대 앞에 놓여있는 다리의 명칭도 沙川橋이다. 모라내, 모라내다리 등이 각각 사천, 사천교 등의 한자어지명으로 바꾸었지만 모라내 또는 모랏내의 변이형인 ‘모란내’의 ‘모란’이 현용 마을명칭으로 쓰이고 있으며 모란마을회관도 있다. 이 지역의 동명을 榮川洞이라 한 것은 1949년인데 그 이전인 1940년에 부여된 명칭 ‘榮町’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결국 榮川洞은 근거 없이 등장한 榮町의 ‘榮’이 전래지명 모라내를 배경으로 형성된 沙川의 ‘沙’ 자리에 끼어들어 생겨난 명칭이다.

下所洞은 제천시내의 중앙에서 서쪽에 위치한다. 인접하여 북동 방향에 위치한 현재의 靑田洞 지역과 더불어 『輿圖』와 『忠誌』에서는 所近里라 하였으나 『舊名』에서는 上所里와 下所里로 분리되었다. 전래지명 소근이, 소리, 고른이, 고운이 등으로 불리던 남서쪽 지역이 下所洞이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당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읍내면에 편입되어 하소리라 하였으며 1980년 시 승격과 함께 下所洞으로 후부요소를 개칭하였다.

현재 南泉洞은 제천시내 중앙의 동쪽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縣右面에 속했던 지역으로 큰 절이 있었으므로 한사, 한사리, 한사동, 大寺洞里 등으로 불렸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읍내면 화산리로 폐합되었다가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 南泉洞으로 분리되었다. 분리 당시 부여된 전부요소 ‘南泉’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현재의 東峴洞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東門外里, 立泣峴, 白夜里를 병합하여 읍내면 읍부리라 칭했던 지역이다. ‘邑部’라는 명칭을 통하여 제천의 중앙에 위치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東峴’이라는 명칭은 1946년 동제 실시에 따라 東門外에서 ‘東’을 立泣峴에서 ‘峴’을 가져다 만든 것이다.

15) 오늘날 화산은 이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그 원형을 보존하지 못하고 크게 훼손되었다. 하지만 제천 향교 뒷산인 애뒤산(324.5미터)의 산줄기가 남쪽을 향하여 북천사가 위치한 산으로 그 줄기가 이어지고 제천시교육지원청 뒷산으로 이어지면서 ‘꽃’을 연상케 하는 흔적이 남아있다.

16) 박병철(2004: 9)에서 고유어지명의 한역화 유형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다. 雅譯이란 고유지명어과 동음 또는 유사음을 보다 肯定的인 뜻과 대응되는 한자로 옮긴 것을 말한다.

현재의 新百洞은 東峴洞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越百里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官前里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新百’이라는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읍내면으로 편입되면서 부여된 명칭이다.

3. 東面の 동리명과 그 변천

3.1. 東面の 동리명

『忠誌』를 비롯한 제천의 읍지에서 東面の 위치에 대하여 동쪽으로 永春의 蛾洋河之와 金山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縣右面에 접하며 남쪽으로는 영춘의 금산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북면에 접한다 하였다. 동서간 거리는 13 리이고 남북간 거리는 10 리이며 虎鳴山이 남쪽의 고개에 접하여 있고 그 북쪽에 釜谷山이 있으며 鳥鵲山이 동쪽에 있고 橋谷峴이 그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제천의 중심, 동쪽에 위치한 頭鶴洞, 黑石洞, 高明洞 지역이다. 각 문헌에 보이는 동리명과 전래지명 그리고 현재의 동명을 정리하여 보이면 <표3>과 같다.

	輿圖(9)	忠誌(10)	舊名(12)	전래지명	현용 동명
松峙里	○1	○2	○12	솔티	頭鶴洞
黑石里	○2	○3	○11	검은돌	黑石洞
謁山里	○3			알뫼/알미	頭鶴洞
白楊洞里	○4			뱅골	高明洞
松峴里,	○5	○1	○7	소재	高明洞
曾溪里	○6	○6	○5	증계/징계	高明洞
鷹洞里	○7	○8		매골	頭鶴洞
風吹里	○8	○9		바람부리	頭鶴洞
釜谷里	○9	○10	○1	가맛골/가마실	頭鶴洞
上風里			○2	웃바람부리	頭鶴洞
下風里			○3	아랫바람부리	頭鶴洞
鷹洞			○4	매골/맛골	頭鶴洞
寒泉里		○7	○6	찬우물/차나물	高明洞
白楊洞			○8	뱅골	高明洞
三距里			○9	세거리	高明洞
酉谷里		○4	○10	알뫼/알미	頭鶴洞
白巖洞里		○5		뱅골	高明洞

<표 3> 東面 관련 동리명

3.2. 東面の 동리명에 대한 고찰

『輿圖』에 제시된 동리명은 9개이며 『忠誌』에는 10개, 『舊名』에는 12개가 등재되어 있다. 松峙里, 黑石里, 松峴里, 曾溪里, 釜谷里 등 5개리는 3개의 문헌에 모두 보이는 지명이다. 謁山里는 『忠誌』 이후 酉谷里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래지명 ‘알뫼’를 ‘謁山’으로 한역하였다가 ‘酉谷’으로 교체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謁’은 ‘알뫼’의 선행요소 ‘알’을 음역한 것이고 ‘酉’는 ‘알’과 연상되는 것이 ‘닭’이므로 닭을 새김으로 하는 한자 ‘酉’를 가져다 쓴 것이다. 후행요소 ‘뫼’는 지명어에서 ‘뫼’ 또는 ‘미’라는 변이형으로도 자주 나

타나는 것으로 ‘山’을 뜻하는 고유어이다. ‘谷’은 ‘山’의 일부이자 산 중에서 촌락이 자리하는 위치이기 ‘알뫼’를 ‘酉谷’이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白楊洞里는 白巖洞里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중으로 부여된 후부요소 ‘-里’를 생략하고 白楊洞으로 쓰기도 하였다. 모두 근원형인 전래지명 ‘뱅골’을 한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지명이다. ‘매골’을 근원형으로 하는 鷹洞里 역시 『舊名』에 와서 이중으로 부여된 후부요소 ‘-里’를 생략하고 鷹洞으로 간략화하였다. 風吹里는 『忠誌』까지 쓰였음을 알 수 있는데 『舊名』에서 上風里와 下風里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전래지명 ‘바람부리’를 의역하여 ‘風吹’라 하였다가 뒤에 해당 지역을 상하로 분리하면서 上風과 下風으로 명명한 것이다.

寒泉里와 三距里는 『輿圖』에서 보이지 않던 지명이다. 후대로 오면서 증가된 동리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三距里는 세 개의 거리가 만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리이기에 부여된 명칭으로 보인다. 한자어지명 ‘寒泉’의 전래지명은 ‘찬우물/차나물’이며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샘 또는 우물은 해당 지역의 중요 지형지물이므로 명명의 소재가 된 것이다.

東面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읍내면으로 편입된 지역이다. 현재 제천시 頭鶴洞, 黑石洞, 高明洞 등으로 동명이 정착되었다. 『輿圖』에서 『舊名』 시기까지 연면히 쓰였던 5개 지명 松峙里, 黑石里, 松峴里, 曾溪里, 釜谷里 중 오늘날 동명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黑石’뿐이다. 근원형인 전래지명 ‘검은돌’의 흔적이 ‘黑石’에 담겨 있는 것이다. 솔티, 소재, 증계, 가막골, 알뫼, 바람부리, 뱅골, 찬우물 등 이 지역 지명의 근원형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가는 운명에 처해 있다. 또한 이들 지명을 배경으로 형성된 한자어지명조차 대부분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輿圖』 이후 『舊名』까지 쓰였던 동리명 중 ‘黑石’만이 현재의 동명 ‘黑石洞¹⁷⁾’으로 쓰이고 있고 ‘頭鶴’과 ‘高明’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등장한 명칭이다. 당시 ‘고명리’라는 명칭은 삼거리, 증계리, 한천리, 송현리와 백양동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부여한 것이다. 동리뿐만 아니라 東面, 縣右面, 縣左面이 통폐합되어 읍내면이 되었으며, 1917년 제천면 고명리, 1940년 제천읍 고명리 그리고 1980년 시 승격에 따라 법정동인 고명동이 되었다. 전부요소 ‘高明’은 ‘찬우물/차나물[寒泉]’ 뒤쪽에 있는 ‘高明山’에서 가져온 것이다.

‘頭鶴’ 또한 1914년 등장한 동리명의 전부요소이다. 이 지역이 학들의 머리 쪽에 해당하므로 ‘頭鶴’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1914년 당시 상풍리, 하풍리, 응동, 유곡리, 부곡리를 병합하고, 단양군 어상천면의 자작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두학리라 하였다. 어상천면에서 편입되었던 自作里는 1940년 제천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었고 시 승격 이후 자작동이 되었다.

4. 遠西面の 동리명 형성과 변천

4.1. 遠西面の 동리명 자료

『忠誌』에는 遠西面の 위치에 대하여 “동쪽으로 近左面に 접하며 서쪽으로 原州의 拜峙¹⁸⁾

17) 黑石洞은 1914년 통합 당시 송터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읍내면에 편입되었다. 검은 빛깔의 돌이 많다는 것이 명명의 근거가 되었다.

에 접하고 남쪽으로 忠州의 柯亭子에 접하며 북쪽으로 原州의 社林에 접한다. 남북 간 거리는 50리이며 동서 간 거리는 15리이다. 舟遊山이 동쪽에 있으며, 空梓所가 서쪽에 있다. 白雲山이 북쪽에 있으며 天登山이 남쪽에 있다.¹⁹⁾”고 하였다.

제천의 서쪽에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이 지역을 『輿圖』와 『忠誌』에서는 遠西面이라 하였고 『舊名』에는 西面이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이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白雲山의 명칭을 활용하여 白雲面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輿圖』와 『忠誌』에는 각각 21개, 『舊名』에는 23개, 『新舊』에는 8개의 동리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遠西面 동리명과 함께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輿圖(21)	忠誌(21)	舊名(23)	신구(8)	현용 동리명	관할시군면	전래지명
大峙里 25/31/32	大峙	大峙里		愛連里	遠西面→西面→白雲面(1914)	한티
藏金垞里 13/26/27	長琴垞	長琴里		愛連里		장금터
夏然里 8/11/19	夏然			愛連里		알연
埵古介里 27/31/32	埵古介			愛連里		질고개/지루고개
周論里 11/19/20	酒論	酒論里		茅亭里		수론/술론
葛山里 77/177/171	葛山			平洞里		갈뫼/갈미
王堂里 22/52/56	旺堂	旺堂里		茅亭里		왕당
宮坪里 4/7/10				放鶴里		궁뜰
富壽洞里 7/15/16	富壽洞	夫水里		放鶴里		부수골
放鶴橋里 26/25/27	放鶴橋			放鶴里		방아다리
牛音谷里 9/21/24	遇音谷	牛 ²⁰⁾ 音里		放鶴里		음실
遇慶里 26/40/42	遇慶	牛耕里		道谷里		우경
花山里 34/80/95	花山	花山里		도곡리		꽃뫼
汗杉浦里 2/5/9	漢三浦	汗三浦里		道谷里		한삼재
空梓 3/9/10	空梓	公才里		道谷里		공재 궁뜰
花堂里 1/3/4	花堂	花塘里	花塘里	花塘里		꽃당이/꽃댕이
德洞里 3/6/8	德洞	德洞	德洞里	德洞里		
竹串里	竹串	竹串里		花塘里		대꼬지

18) ‘뱃재’ 또는 ‘梨峴’이라고도 하며 堤川市 白雲面 화당리 호두나무배기에서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로 넘어가는 고개임. 신라 경순왕이 조석으로 이 재에 올라 절을 했다하여 ‘拜峙’라 하였다 함.

19) 東接近左面 西接原州之拜峙 南接忠州之柯亭子 北接原州之社林 南北五十里 東西十五里 舟遊山在其東 空梓所在其西 白雲山在北 天登山在其南

2/3/4					
屈破里 7/13/15	屈坡			雲鶴里	굴바위
龍山洞里 8/16/18	龍山	龍山里		雲鶴里	용산골
次道里 15/21/23	釵道里	次道里		雲鶴里	찾대/차도리
	倉里	倉里		平洞里	창말
		茅亭里	茅亭里	茅亭里	
		吉峴里		愛連里	
		愛連里	愛連里	愛連里	
		小浦里		花塘里	작은개
		方下里	放鶴里	放鶴里	
		道谷里	道谷里	道谷里	
		雲鶴洞	雲鶴里	雲鶴里	
			牛洞里	平洞里	

<표 4> 遠西面 관련 동리명

4.2. 遠西面 동리명의 형성과 변천

『輿圖』와 『忠誌』에는 각각 21개의 동리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한 항목만 다른 명칭이고 20개 항목은 동일명칭이다. 『輿圖』에 등재되었던 ‘宮坪’이 삭제되고 ‘倉里’가 『忠誌』에 새롭게 등재되었다. 동일한 명칭으로 볼 수 있는 20개 동리명 중 두 문헌에 동일한 한자 표기로 등재된 것은 大峙, 戛然, 埵古介, 葛山, 富壽洞, 放鶴橋, 遇慶, 花山, 空梓, 花堂, 德洞, 竹串, 龍山(洞) 등 13개이다. 그리고 한자 표기를 달리한 것은 藏金堡/長琴堡, 周論/酒論, 王堂/旺堂, 牛音谷/遇音谷, 汗衫浦/漢三浦, 屈破/屈坡, 次道/釵道 등 7개 동리명이다. 고유명사 표기에서 동음자로의 교체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遠西面の 동리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輿圖』에서 표기했던 한자를 버리고 『忠誌』에서 동음의 다른 한자로 교체한 것 중 藏金堡→長琴堡²¹⁾와 周論→酒論²²⁾의 경우 동리명의 배경이 된 설화나 어원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은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輿圖』와 『忠誌』에 보이는 대부분의 동리명은 원초형인 전래지명을 한역하여 형성된 것이다. 대응 관계를 보면 大峙:한티, 戛然:우연이, 埵古介²³⁾:질고개/지루고개, 葛山:갈뫼/갈미, 富壽洞:부수골, 放鶴橋:방아다리, 花山:꽃뫼, 花堂:꽃당이/꽃댕이, 竹串:대꼬지, 藏金堡/長琴堡:장금터, 周論/酒論:수론/술론, 王堂/旺堂:왕당(←서왕당←성황당), 牛音谷/遇音谷:음실, 汗衫浦/漢三浦:한삼재, 屈破/屈坡:굴바위, 次道/釵道:찾대/차도리, 宮坪:궁뜰, 倉里:창말 등과 같다.

20) 『新舊』에는 ‘羽’로 표기되어 있음.

21) 장금-터【마을】 애련 동남쪽에 있는 마을. 신라 때 우륵(于勒)이 제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춤, 노래, 가야금을 가르쳤다 함.

22) ‘수론/술론’은 왕당이 동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술론’에서 ‘술:酒’의 대응을 연상하고 ‘周→酒’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23) ‘질고개/지루고개’는 긴 고개이므로 선행요소는 음역, 후행요소는 의역하여 ‘吉峴’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음.

遠西面の 동리명 중 원초형인 전래지명을 바탕으로 음역의 방식을 활용한 경우는 戛然:우연이, 埵古介:질고개/지루고개, 藏金堡/長琴堡:장금터, 王堂/旺堂:왕당(←서왕당←성황당), 牛音谷/遇音谷:음실, 屈破/屈坡:굴바위, 次道/釵道:차대/차도리 등이다. 그리고 의역의 방식을 활용한 경우는 大峙:한티 花山:꽃뫼 등이며, 음역과 의역을 동시에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데 葛山:갈뫼/갈미, 富壽洞:부수골, 放鶴橋:방아다리, 花堂:꽃당이/꽃댕이, 竹串:대꼬지, 周論/酒論:수론/술론, 汗杉浦/漢三浦:한삼재, 宮坪:궁뜰, 倉里:창말 등이다.

음역과 의역을 동시에 활용한 예 중 지명어의 후부요소로 흔히 쓰이는 뫼/미, 골, 다리, 들, 등은 의역하여 각각 山, 洞, 橋, 坪, 里 등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遠西面 동리명의 경우 의역의 방식보다 음역한 경우가 우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의 동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이들 자료를 통하여 동리명을 명명할 때 전래지명인 속지명의 음상을 존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舊名』에는 23개의 동리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16개는 『忠誌』와 일치하는 명칭이고 7개는 새로운 명칭이다. 『忠誌』와 일치하는 동리명 중 한자 표기를 달리한 것이 7개, 동일한 것이 9개이다. 후자에 속하는 것은 大峙, 長琴²⁴⁾, 酒論, 旺堂, 花山, 德洞, 竹串, 龍山, 倉 등이며 전자에 속하는 것은 富壽洞→夫水里, 遇音谷→牛²⁵⁾音里, 遇慶→牛耕, 漢三浦→汗三浦, 空樛→公才, 花堂→花塘, 釵道→次道 등이다. 이중 漢三浦→汗三浦와 釵道→次道는 『輿圖』의 표기로 복귀한 것이며 다른 항목들은 비교적 획수가 적어 쉽게 느껴지는 한자로 교체되었다. 『忠誌』에는 등재되었으나 『舊名』에 삭제된 동리명은 戛然, 埵古介, 葛山, 放鶴橋, 屈坡 등이다.

『舊名』에 새롭게 등재된 동리명은 茅亭, 吉峴, 愛連, 小浦, 方下, 道谷, 雲鶴 등 7개이다. 이 중 ‘吉峴’은 ‘질고개/지루고개’를 음역하여 ‘埵古介’라 하던 것이 교체된 것이며, ‘愛連’은 ‘戛然’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方下’는 ‘放鶴橋’의 ‘放鶴’이 유사음으로 교체된 것이다. 그리고 ‘小浦’는 전래지명 ‘작은개’를 배경으로 의역한 것이다. 한편 茅亭²⁶⁾, 道谷, 雲鶴²⁷⁾ 등은 전래지명을 배경으로 삼지 않고 직접 한자로 조어한 한자어지명이다. ‘戛然’을 발전시킨 ‘愛連’과 전래지명에 바탕을 두지 않고 형성된 이들 3개의 동리명은 현용되는 명칭이다. 『輿圖』와 『忠誌』에 등재된 22개의 동리명 중 花塘(←花堂)과 德洞 2개만이 현용된다는 점과 비교된다. 이는 전래지명을 주로 음역하여 만든 한자표기 동리명이 폐기되고 한자를 활용, 직접 조어한 한자어 동리명이 주로 쓰이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래지명 즉 속지명은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되고 새롭게 형성된 한자어지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新舊』를 통하여 1914년 행정구역 개편 결과 제천군 西面은 그 명칭이 白雲面으로 변경되고 23개의 동리가 8개로 통합,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8개의 명칭 중 『輿圖』 이후 계속 사용된 花塘(←花堂)과 德洞, 『舊名』에서 등장한 茅亭, 愛連, 道谷, 雲鶴 그리고 ‘方下’에서

24) 3음절 ‘長琴堡’에서 말음이 생략됨.

25) 신구에는 ‘羽’로 표기되어 있음.

26) 이 지역에 ‘茅亭閣’이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명명함.

27) 白雲山과 九鶴山 아래에 위치하므로 白雲과 九鶴의 말음을 절취하여 ‘雲鶴’이라 함.

복귀한 ‘放鶴’ 등 7개는 앞선 시기의 문헌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新舊』에 새롭게 등장하는 동리명은 ‘牛洞’²⁸⁾이나 후에 ‘平洞’으로 교체되어 현용되고 있다. 현재 白雲面은 이들 8개 리에 1989. 1. 1. 충주시 山尺面에서 편입된 院月里를 포함하여 9개 리를 관할하고 있다.

5. 水下面의 동리명과 그 변천

5.1. 자료제시

淸風縣을 고구려 때에는 沙熱伊縣이라 하였다. 沙熱伊縣의 현청 소재지가 瑞雲里였음을 감안할 때 이를 중심으로 한 옛 수하면 지역이 沙熱伊縣의 중심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가장 이른 시기에 편찬된 『輿圖』에서 수하면의 동리명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청풍부의 8개 면 중 水下面의 동리명 수가 가장 많은 9개이다. 반면에 邑內面은 4개, 東面 5개, 遠南面 6개, 近南面 6개, 遠西面 7개, 近西面 3개 北面 7개 등이었다.

『輿圖』를 통하여 수하면 9개 동리 중 가장 많은 가구수와 인구수를 보여주는 곳이 沙熱伊縣의 현청이 있었다고 하는 瑞雲里이다. 수하면의 면소재지가 일제강점기에는 眞木里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芳興里에 있었다고 한다. 『輿圖』 편찬 시기인 영조대에 방흥리는 동리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가구 수와 인구수를 알 수 없으나 진목리의 경우 35가구에 남자 40명, 여자 50명이었던 것으로 『輿圖』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비해 瑞雲里는 현저히 많은 85가구에 남자 101명, 여자 133명의 인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고구려 시기 이후 瑞雲里가 沙熱伊縣의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시기에 가장 번성했던 지역으로 볼 수 있으나 수하면은 1929년에 해체되어 동북부 지역은 청풍면에 편입되었고 서남부 지역은 한수면 관할이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수면 관할 지역은 1987년 中原郡 東良面에 편입되었다. 충주호 설치와 더불어 생활권이 달라지는 등 이런저런 사정이 고려되어 청풍부 8개 면 중 수하면은 폐지와 더불어 분할되는 등 행정구역의 변화가 심했던 지역이다.

水下面에는 영조 때 편찬된 『輿圖』에 長善里, 查五倫里, 丹頓里, 黃道里, 眞木亭里, 沙器幕里, 鳴梧里, 咸巖里, 瑞雲里 등 9개 동리명이 보인다. 『忠誌』에는 咸巖里가 烏椒田里로 바뀌어 올라있고 浦灘里가 추가되어 10개 동리명이 보인다. 1912년에 간행된 『舊名』에서는 15개로 늘어난 동리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동리명이 『新舊』를 거쳐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의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 4>로 제시하기로 한다.

輿圖(9)	忠誌(10)	舊名(15)	新舊(15)	現用 洞里名(15)	관할 시·군, 면	전래지명
長善里 15/39/61	長善里	長善里	長善里	長善里	水下面→ 水下面	어리실, 뽕나무골, 달랑고개, 줄바위
查五倫里 35/81/82	查伍倫里	查伍里	查伍里	查伍里	(1914)→ 淸風面	

28) 『新舊』에 제천군 白雲面 牛洞里는 白雲面 사무소 소재지이며 제천군 西面 平洞里였음을 표현하였다. ‘平洞’과 ‘牛洞’은 『輿圖』, 『忠誌』, 『舊名』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명칭이다.

丹頓里 30/81/40	丹屯里	丹頓里	丹頓里	丹頓里	(1929)	단돈
黃道里 66/71/89	黃道里	黃石里	黃石里	黃石里		한돌, 한뜰, 황뜰
眞木亭里 35/40/50	眞木亭里	眞木里	眞木里	眞木里		참나무골
沙器幕里 32/40/50	沙器幕里	沙器里	沙器里	沙器里	水下面→ 水下面	사기막, 사그막
鳴梧里 7/18/20	鳴梧里	鳴梧里	鳴梧里	鳴梧里	(1914)→ 寒水面	매우재, 명오, 명오재
咸巖里 65/73/122	烏椒田里	咸巖里	咸巖里	咸巖里	(1929)→ 東良面(中 原郡/忠 州市)	오초앗, 한바우, 함바우
瑞雲里 85/101/13 3	瑞雲里	瑞雲里	瑞雲里	瑞雲里	(1987/19 95)	서른, 서룬, 서운, 능골
	浦灘里	浦灘里	浦灘里	浦灘里		개여울
		好雲里	好雲里	好雲里	水下面→ 水下面 (1914)→ 淸風面 (1929)	
		後山洞	後山里	後山里		살여울
		芳興洞	芳興里	芳興里		머뉘산, 머누리산, 면산
		婦山里	婦山里	婦山里	淸風面 (1929)	
		伍山里	伍山里	伍山里		오미, 오매

<표 4> 水下面 관련 동리명

5.2. 『舊名』 이전의 동리명에 대한 검토

영조대에 편찬된 『輿圖』에는 9개, 헌종대에 편찬된 『忠誌』에는 10개의 동리명이 올라있다. 『忠誌』에 추가된 동리명은 浦灘里이다. 두 문헌에서 완전하게 일치되는 동리명은 長善里, 黃道里, 眞木亭里, 沙器幕里, 鳴梧里, 瑞雲里 등 6개이며, 동일한 음이지만 다른 한자로 표기된 것은 查五倫里/查伍倫里와 丹頓里/丹屯里이다. 모두 둘째 음절의 한자가 五/梧, 頓/屯과 같이 동음이자로 표기되었다. 후대에 오면서 사오륜리의 ‘오’는 『忠誌』의 ‘梧’를, 단돈리의 ‘돈’은 『輿圖』의 ‘頓’이 쓰이고 있다.

『輿圖』에 올라있던 咸巖里는 『忠誌』에서 烏椒田里로 대체되었다. 咸巖과 烏椒田은 행정동리명을 두고 경합했던 명칭이다. 『忠誌』에서만 烏椒田으로 나올 뿐 전후의 모든 문헌에서는 咸巖으로 되어있다. 오늘날까지도 咸巖과 烏椒田은 각각 전래지명 오초앗과 한바우로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행정동명으로는 咸巖만 쓰이고 있다. 咸巖이 烏椒田을 누르고 법정동리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마을의 면적, 인구수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된 것이다. 또한 발음경제 원리와 의미경쟁도 고려되어 咸巖으로 정해진 것이다. 咸巖이 烏椒田에 비해 음절이 짧아 발음경제의 원리에서 우위에 있다 할 것이며 巖이 뜻하는 목적함에서 오는 믿음 등이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忠誌』에 새로 등장한 동리명으로 浦灘里 1개가 있다. 전부요소 浦灘은 전래지명 ‘개여울’

을 한역하여 생성된 한자어지명이다. 개여울이라는 고유어지명은 이 마을 앞에 흐르는 개울에 여울이 있어 붙여진 명칭이다. 낱말 개울과 개²⁹⁾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개울의 축약형 ‘개’를 ‘浦’로 ‘여울’을 ‘灘’으로 옮겨 한자어지명 浦灘을 만든 것이다. 浦灘里는 『舊名』 그리고 『新舊』를 거쳐 현재까지 활용되는 법정동리명이다.

『忠誌』의 동리명이 『舊名』에 계승된 10개 중 완전하게 일치할 보이는 것은 長善里, 鳴梧里, 瑞雲里 浦灘里 등 4개이다. 查伍倫里, 眞木亭里, 沙器幕里 등 전부요소가 3음절이었던 것은 모두 2음절어로 단순화되었다. 앞에서 밝혔지만 丹屯里는 丹頓里로, 烏椒田里는 威巖里로 복귀하였다.

『輿圖』와 『忠誌』의 黃道里가 『舊名』에 黃石里로 교체된 것은 흥미로운 예이다. 한자어지명 黃道 또는 黃石의 근원형은 ‘한돌’이다.³⁰⁾ 전래지명 ‘한돌’은 한[大]+돌[石]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명칭은 이 지역에는 큰 돌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근원형 한돌은 한똥, 황돌³¹⁾, 황똥 등으로 변이되었고 ‘돌’은 발음을 탈락시킨 ‘도’로 발전하여 ‘황도’가 형성되었다. 이를 음역하여 『輿圖』와 『忠誌』에서 黃道라 하였다가 『舊名』에서는 둘째 음절의 근원형 돌을 의역하여 黃石이라 한 것이다. 黃道는 음역의 방식만 적용되어 형성된 한자어지명이나 황석은 음역과 의역이 모두 활용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根源形 ‘한돌’이 ‘黃石’으로 정착된 것은 전부요소 ‘한’이 유사음 ‘黃’으로 음역되고 후부요소 ‘돌’은 의역에 의해 ‘石’으로 한역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舊名』에 새로 등장한 동리명은 好雲里, 後山洞, 芳興洞, 婦山里, 伍山里 등 5개가 있다. 마을의 위치가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에 자리 잡은 경우 洞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里를 후부요소로 삼았다. 이들 5개 동리명은 『新舊』를 거쳐 현재까지 법정동리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제 한자어지명인 법정동리명의 근원이 되었던 고유어지명 즉 전래지명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한돌:黃石/黃道와 개여울:浦灘은 제외하고 연관성이 파악되는 명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종 지명 관련 문헌에 長善里는 긴 골짜기 안에 자리 잡은 마을이기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長은 길다와 대응되나 善은 이 지역의 전래지명 어리실, 뽕나무골, 달랑고개, 줄바위 등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查伍倫의 查伍는 전래지명 사호륜을 음역하여 查五倫 또는 查伍倫이라 하던 것을 간략화한 형태이다. 사호륜, 사오, 새오리가 무슨 뜻을 지니는지 알 수 없으나 음역에 의한 한자어화가 이루어진 예라 할 수 있다. 丹屯 또는 丹頓으로 표기된 단돈리는 이 지역에서 붉은 흙을 캐므로 부여된 명칭이다. 赤土라고도 하는 이 흙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이나 마루에 칠하여 붉은 색이 나게 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붉다는 뜻을 지닌 ‘丹’에 촌락을

29) 개울: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
개: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30) 지명어 해석을 위하여 근원형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黃石의 원초적인 형태를 한[大]+돌[石]로 보지 않고 제천문화원(1999: 202)에서는 황씨들이 세운 돌이라 하여 황(黃)+돌[石]로 설명한 경우가 있다. 이는 황석을 바탕으로 생겨난 지명전설로 보인다.

31) 한[大]이 ‘황’으로 변한 것은 한쇼(←한[大]+쇼[牛])>황소, 한새(←한[大]+새[鳥])>황새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뜻하는 후부요소 ‘돈’³²⁾이 결합되어 혼종어지명 ‘단돈’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眞木里를 眞木亭里라 한 것은 嚴城遷과 딱지소를 조망할 수 있는 옥녀봉 능선 끝자락에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수물 이전에 진목리를 비롯한 그 일대에 흐르는 강을 격강이라 했는데 엄성벼루[嚴城遷]³³⁾는 가장 풍광이 좋은 곳이어서 “격강의 제일강산”이라 하였다. 이런 연유로 수려한 강산을 조망할 목적으로 정자를 세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자는 《輿圖》가 편찬된 정조 시기에도 있었으므로 당시의 동리명이 眞木亭里였다. 『舊名』 이후 단순화된 형태 眞木을 전부요소로 삼았는데 이는 전래지명 참나무골의 ‘참나무’를 한역한 것이다.

鳴梧里는 오동나무가 많았고 그래서 새들이 많이 날아와 울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라 한다. 鳴梧에서 전래지명으로 매우재가 있는데 鳴梧에서 발전된 형태인지 매우를 배경으로 음역어 鳴梧가 생성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威巖里의 전래지명은 한바우 또는 함바우이다. 마을 앞 강가에 너럭바위를 비롯한 큰 바위들이 잇대어 있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한[大]은 변이형 ‘함’을 음역하여 ‘威’으로 ‘바위’는 의역하여 ‘巖’으로 한역하여 ‘威巖’이라는 한자어지명을 생성하였다. 함암리에 속한 마을로 ‘오초앗’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지명 ‘烏椒田’이 생성되었는데 ‘오초’는 음역, ‘앗’³⁴⁾은 의역하였다.

瑞雲里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沙熱伊縣, 통일신라의 淸風縣 현청이 있었던 곳이었으므로 긴 역사를 지닌 동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전래지명은 서른, 서룬, 서운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瑞雲을 배경으로 서른, 서룬 등이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瑞雲이 음역어인지 알기 어렵다.

마을 뒤에 큰 산이 있으므로 後山洞, 며느리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므로 婦山里라 하였다. 後山洞에 대응되는 전래지명은 찾을 수 없으나 ‘婦山’에 대응되는 고유어지명으로 며느리산, 며느리산, 면산 등이 있다. 伍山里는 다섯 봉우리가 둘러 있는 안이 되므로 오미 또는 오매³⁵⁾라 하였다. 전래지명 오미는 혼종어이므로 ‘미’만을 ‘山’으로 옮겨 오산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다.

5.3. 『新舊』 이후의 동리명에 대한 검토

『新舊』의 동리명은 1914년에 이루어진 행정구역 통폐합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수하면 동리명의 경우 『舊名』에 제시되었던 15개 모두가 『新舊』에 계승되었다. 통폐합이 전혀 없이 완전하게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舊名』에서 후부요소가 洞이었던 것은 모두 里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後山洞과 芳興洞이 後山里와 芳興里로 된 것이 그것인데 이는 농어촌 지역의 동

32) 전래지명에서 ‘돈’ 또는 ‘돔/듬/똥/똥’은 촌락을 뜻하는 후부요소로 활발하게 쓰이는 어사이다. 새말을 신돈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가운데말을 중돈<음성군 맹동면 본성리>이라 하는 것을 비롯하여 갓돈, 내돈, 외돈, 본돈…… 등과 같은 예가 있다. ‘돈’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는 ‘돔/듬’ 또는 ‘똥/똥’도 양지돔, 음짓돔, 아랫돔, 윗돔, 큰돔, 작은돔, 새돔, 너매돔, 평돔, 생이돔, 건네똥, 큰똥, 감나무안똥, 안똥, 새똥, 갓똥, 잣똥, 골똥…… 등의 예에서 보듯 그 쓰임이 활발하다.

33) 벼루는 『용비어천가』에 ‘벼루’로 나오는 데 “淵遷.쇠벼.루<龍歌 3: 13>”가 그 예이다. 벼루에 대응되는 한자는 ‘遷’이다. ‘벼루>벼루[遷]’는 물 언덕 돌길로 낭떠러지 아래에 물이 흐르는 강이나 내가 있고 그 위에 놓인 험난한 길을 뜻한다.

34) ‘앗’은 ‘밭’이 변화된 형태로 피밭골>피밭골>피앗골을 통하여 ‘밭>밭>앗’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35) 산을 뜻하는 고유어 ‘뫼’의 변이형 미, 매, 메 등이 지명의 후부요소로 흔히 쓰였다.

리명 후부요소를 하나로 통일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³⁶⁾

행정구역의 변화도 없었으며, 『舊名』의 15개 동리명이 『新舊』에 그대로 계승되었고 이들 15개 동리명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保全되고 있다. 그러나 1929년 수하면이 해체되면서 長善里, 查悟里, 丹頓里, 黃石里, 眞木里, 後山里, 芳興里, 婦山里, 伍山里 등 9개리는 청풍면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리인 沙器里, 鳴梧里, 威巖里, 瑞雲里, 浦灘里, 好雲里 등은 한수면 관할이 되었다.

청풍면에 편입되었던 9개리는 현재까지 그 관할이 바뀌지 않았으나 한수면에 편입되었던 6개리는 1987년 행정구역 개편 때 中原郡 東良面에 편성되었다. 그 후 1995.1.1. 충주시와 증원군이 통합되어 현재는 忠州市 東良面 관할이 되었다. 특히 沙熱伊縣의 현청이 있었다고 하는 瑞雲里도 청풍면에 속하지 못하고 충주시 관할이 되었다. 현재 東良面의 법정동리가 13개임을 감안할 때 청풍부 수하면 지역이었던 6개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이른다 하겠다.

7. 結論

제천의 동리명을 대상으로 그 형성 배경과 변천을 탐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현용 동리명의 근간은 『輿圖』 이전에 확립되었으나 『新舊』에 와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忠誌』 그리고 『舊名』에도 새로 등장하는 동리명이 있기는 하나 그 수가 많지 않아 대체로 『輿圖』를 답습하였다.
2. 근원형인 속지명을 바탕으로 한자표기 지명 내지는 한자어지명이 형성되었는데 『輿圖』, 『忠誌』, 『舊名』의 경우 고유어지명의 형태 구조가 적절히 고려되어 한자화하였다. 예컨대, 花山[←꽃피], 下所[←아랫소근이], 古巖[←고라미/고래미], 新月[←새월이], 牟山[←모산 <못안], 黑石[←거문돌] 등에서 보듯 음역의 경우든 의역의 경우든 구성요소의 어순이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3. 1914년 행정구역 개편 결과가 반영된 『新舊』에 새로 등장한 동리명의 경우 명명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도 있고 우리말 문법 구조에 어긋나는 것도 있다. 예컨대, 南泉은 1949년 화산동을 분동하면서 예전의 한사리/한사동[大寺洞里] 지역에 붙여진 명칭으로 명명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특히 榮川은 沙川의 선형요소 '沙' 자리에 근거 없이 명명했던 '榮町'이라는 왜식 지명의 '榮'을 가져다 넣은 것이다. 頭鶴은 해당 지역의 지형지물 명칭을 가져다 썼다고 하나 '학의 머리'를 배경으로 하였다면 '鶴頭'라 함이 우리말 문법 구조와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
4. 傳來地名 즉 俗地名을 漢字化하면서 屬性地名인 후부요소는 意譯하였다. 반면에 性格要素인 전부요소의 경우 『輿圖』를 비롯한 이른 시기의 문헌일수록 音譯하였다. 전부요소를 음

36) 『舊名』에는 後山洞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新舊』에는 『舊名』의 後山里가 後山里로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新舊』의 착오가 아닌가 한다. 芳興里의 경우 『舊名』의 芳興洞이 芳興里로 되었다고 표현하여 착오가 없다.

역한 것은 원초적인 음성 형태를 보존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서 의역에 의한 동리명의 한자어화가 진행되었다. 나아가 전래지명을 배경으로 삼지 않고 직접 한자로 동리명을 造語하여 命名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5. 屬性地名인 후부요소를 意譯한 예로 골:洞/谷, 곳/꼬지:串, 다리:橋, 돌:石, 들/뜰:坪, 마루:宗, 말:里, 뫼/매/미:山/谷, 바위/바우:巖, 밭/앗:田, 우물/물:泉, 실:谷, 재/고개:峴峙, 절:寺, 터:垜, 터:峙----- 등이 있다.

6. 性格要素인 전부요소를 音譯한 예로 고지:古池, 굴바위:屈破/屈坡, 대쟁이:大壯, 도비/되비:道非, 두구:土九, 못안:牟山, 증계/징계:曾溪, 질고개/지루고개:埵古介, 방아:放鶴, 사리배이/사린방이:沙里方, 소근이:所近里, 소시랑/소시랑이:小始朗/小侍郎, 오리:五里, 옹당이:翁堂, 움:牛音/遇音 등이 있다.

6. 동리명의 근원형을 바탕으로 고대에까지 소급되는 어휘를 발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대지명 연구 나아가 국어어휘사 기술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예컨대 勿台리는 『輿圖』와 『忠誌』에서는 勿怠坊리라 하였는데 坊이나 리는 모두 동네 또는 마을을 뜻하는 것이므로 동의중복을 피하면서 언어경제도 도모하기 위하여 坊을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勿台는 勿怠로도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속지명 ‘물태³⁷⁾’를 음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태’는 수원이 좋아 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임을 고려할 때 물[水]+터[基]로 볼 수 있다.³⁸⁾ 그런데 ‘물태’와 더불어 ‘매륜’이라는 전래지명이 존재함이 주목을 끈다. 이 지역은 삼국시기 고구려 지역이었는데 부여계 언어에서 [水]를 ‘買’라 하였음을 『三國史記』 지리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⁹⁾ ‘매륜’의 ‘매’는 ‘買忽’의 ‘買’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고구려어의 잔재가 ‘매륜’에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參考文獻

<인터넷 사이트>

國史編纂委員會 <http://www.history.go.kr>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 <http://www.atlaskorea.org>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37) 각종 지명관련 문헌에서 이 지역은 수원이 좋아 물이 많이 나므로 ‘매륜’ 또는 ‘물태’라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38) 터[基]를 활용한 동리명으로 ‘새터’가 무수히 존재한다. 『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 사이트에서 ‘새터’를 검색하면 무려 1,671개나 나온다. 지역에 따라서는 ‘새터’를 ‘새태’라고도 발음하는데 이 또한 『한국지명총람』에서만 187회가 검색된다. 비어두음절의 ‘터’가 어두음절의 ‘새’에 이끌려 ‘태’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9) 『삼국사기』 卷第三十七 雜誌 第六 한산주의 주·군·현·성 조에서 “買忽—云水城，水谷城縣—云買忽，南川縣—云南買，泉井口縣—云於乙買串” 등과 같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買:水·川·井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즉 ‘買’는 [水]를 비롯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川]·[井]을 뜻하는 고구려어임을 알 수 있다.

堤川市 <http://www.okjc.net>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資料>

- 『三國史記』地理志(1145).
『龍飛御天歌』(1447).
『高麗史』(1451~1454).
『朝鮮王朝實錄』(1413~1865).
『世宗實錄』地理志(1454).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東國輿地志』(1656~1673).
『東輿備攷』(1682).
『海東地圖』(18세기 중반).
『靑丘圖』(19세기 초반).
『東輿圖』(19세기 중반).
『輿地圖書』(1757~1765).
『戶口總數』(1789).
『大東水經』(1814).
『大東地志』(1861~1866).
『湖西邑誌』(1871).
『朝鮮後期地方地圖』(1872).
『淸州郡 邑誌』(1898년 전후).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
『朝鮮地誌資料』(1910년대).
李秉延(1922), 『朝鮮寰輿勝覽』.
민족문화추진회(1967), 국역 『新增東國輿地勝覽』, 민문고.
한글학회(1971), 『한국지명총람』 (3).
내무부 지방행정국 지방기획과(1979), 『地方行政區域發展史』.
建設部 國立地理院(1987), 『地名由來集』.
忠淸北道(1987), 『地名誌』.
한글학회(1991), 『한국땅이름큰사전』.
제천문화원(1991), 『義林文化』 제6집(제천 지명편).
內務部(1996), 『地方行政區域要覽』.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1996), 『韓國漢字語辭典』, 檀國大學校 出版部.
충북향토문화연구협의회(1997), 『忠淸北道各郡邑誌』.

제천문화원(1999), 『堤川 마을誌』.
 국립국어원(1999), 『표준 국어대사전』, (주)두산동아.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1999-2008), 『漢韓大辭典』, 檀國大學校 出版部.
 충북향토문화연구소(2001), 『忠淸北道輿地集成』(下).
 韓國學文獻研究所(2006), 『全國地理志』 1~3, 亞細亞文化社.
 신종원편(2007),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편-, 경인문화사.
 임용기편(2008), 『조선지리지자료』 황해도편, 태학사.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편(2012), 『조선지리지자료』 충청북도편, 돌음A&C.
 국토지리정보원(2010), 『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
 동아시아연구소편(2011), 『京畿道歷史地名事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柳今烈 編(2014~2015), 『淸風府邑誌史料集成』 1~4, 奈堤文化研究會.

<論著>

김순배(2013), “필사본 『朝鮮地誌資料』 충청북도편 지명 자료의 시론적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31-44.
 김정태(2016), “『戶口總數』(1789)의 마을지명에 대하여 ~대전 유성 지역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87, 어문연구학회, 5-33.
 김진식(2010), “법정리 한역 지명 연구 1”, 『새국어교육』 제84호, 297-319.
 도수희(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2009), 『한국 지명 新 연구』, 제이앤씨.
 朴秉喆(2003ㄱ), “堤川 地域 固有地名語에 對應하는 漢字地名語 研究”, 『語文研究』 제31권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28.
 ——(2003ㄴ), “音譯에 의한 地名語의 漢字語化에 관한 研究”, 『地名學』 9, 韓國地名學會, 83-106.
 ——(2004), “地名語의 漢譯化 類型에 관한 研究”, 『口訣研究』 第13輯, 口訣學會, 5-37.
 ——(2011), “『龍飛御天歌』 正音 表記 地名과 漢字語 地名의 對立, 變遷에 관한 研究”, 『國語學』 60, 國語學會, 3-32.
 ——(2012), “文字 ‘串’에 관한 研究”, 『國語學』 64, 국어학회, 65-92.
 ——(2016ㄱ), “淸風府 洞里名에 관한 歷史的 考察 ~현재 淸風面으로 편성된 邑內面, 近西面, 水下面 지역을 중심으로~”, 『國語學』 79, 국어학회, 3-30.
 ——(2016ㄴ), “洞里名の 形成과 變遷에 관한 歷史的 考察 ~堤川 市內 지역을 중심으로~”, 『地名學』 25, 韓國地名學會, 95-128.
 박흥국(2007), “제천 장락동 모전석탑의 창건시기”,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5-20.
 서동일(1995),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석론).
 성희제(2006), “지명어의 구성”, 『地名學』 12, 韓國地名學會, 129-156.
 송기중(2001), “근대 지명에 남은 훈독 표기”, 『地名學』 6, 한국지명학회, 177-216.
 신종원의 6인(2010), 필사본 『朝鮮地誌資料 경기도편』 연구, 경인문화사.

- 楊普景(1987), “朝鮮時代邑誌의 性格과 地理的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박론)
-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 유재영(1994), 『朝鮮地誌資料』에 대한 고찰, 우리말연구의 샘터(연산 도수희 선생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尹智賢(2005), 日帝의 韓國地名 改編의 類型에 관한 研究 ~京城府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教育大學院(碩
論)
- 윤흥기(2006), “뉴질랜드 마오리 지명을 통해서 본 한국 토박이 땅이름의 지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6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한국지리연구소, 155-163.
- 李健植(2012), “朝鮮 初期 洞里村名의 國語學的 研究”, 『語文研究』 제40권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7~83.
- 李炳鉉(1996), 『日本古代地名研究』, 亞細亞文化社.
- 이병운(2004), 『한국 행정지명 변천사』, 이회.
- 이수건(1989),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 이인철(1996), 『新羅村落社會史研究』, 一志社.
- 이재영(2001), “충청북도 행정구역 변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석론).
- 이준희(1990),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研究』, 一志社.
- 이희권 1999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集文堂.
- 임용기(1995), “『조선지리지』와 부평의 지명”, 『畿甸文化研究』24,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41-210.
- (1998), “지리지의 국어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하여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글』 242, 한글학회, 405-433
- 千素英(2003), 『한국 지명어 연구』, 이회.

“洞里名の 形成과 變遷에 관하여”에 대한 토론문

백두현(경북대)

좋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동리명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제 소견을 곁들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하 경어 생략). 발표자의 지적대로 동리명(=마을이름)에는 우리나라 지명 중 그나마 고유 지명어가 많이 보존되어 있다. 하나의 지명 표기에 고유어 지명과 한자어 지명이 공존하는 경우가 동리명에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신라 경덕왕 대에 군 단위 지명을 한역화 했다. 동일 지명에 고유어 지명의 음借 표기와 한역화한 漢字 지명 표기가 공존한 경우는 고대국어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어 왔다. 한역지명과 고유지명이 대응하며 공존하는 사례는 마을지명(=동리지명)에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명 연구는 발표자의 지적대로 삼국사기에 수록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대지명 연구가 많았던 듯하다.

마을지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발굴과 정리,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신진연구자들이 마을지명 연구에 진입하기 쉽다. 발표문에 전국의 동리명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은 『輿地圖書』(1757년~1765년)라고 언급되어 있다. 마을지명이 수록되어 있는 주요 자료 목록이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조선시대 자료(고지도, 각종 고문서 등), 일제 강점기 자료(『조선지지』 등), 해방 후에 여러 시군 단위에서 간행한 시군지 및 향토사 자료, 한글학회 및 개인들이 조사한 지명 자료 등이 있을 듯하다. 이런 자료들의 체계적 정리와 디지털 가공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 ①이 방면의 자료 정리 현황과 접근법을 소개해 주시면 후속 연구자들에게 길잡이가 될 듯하다.

조선시대사 연구자들이 정리해 놓은 각종 고문서 자료 특히 호적관련 자료에 고유어 인명은 물론 마을지명이 적지 않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자료에 수록된 지명과 인명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일찍이 고 최범훈 선생님의 인명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호적 자료의 인명 연구가 최근에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강희숙 교수). ②마을지명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란다.

발표자께서 지명의 한역화 유형을 4개로 나눈 것은 고유어 지명과 한역 지명의 대응 관계를 연구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되리라 본다. “雅譯이란 고유지명어와 동음 또는 유사음을 보다 肯定的인 뜻과 대응되는 한자로 옮긴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토론자가 느끼기에 雅譯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아역의 지향성이 추상적 개념인 방향으로 간 것인지? 구체적 사물에 비견하여 아역한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명 한역의 심리적 기제나 사회적 특성, 가치관 등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③이 점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발표지 7쪽에서 ‘花山洞’의 전래지명 ‘꽃산’을 설명하시면서 ‘꽃산’의 ‘꽃’을 ‘串’과 관련 지었다. ‘串’(꽃)은 발표논문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육지가 바다를 향해 돌출한 지형을 ‘꽃’이라” 한다. 해안가 지형을 가리키는 말이 ‘꽃串’인데 제천은 내륙지방이다. 한자 지명 ‘花山洞’의 ‘花’와 전래 지명 ‘꽃산’에서 ‘花:꽃’이 잘 대응하여 별 문제가 없는데 굳이 ‘꽃串’을 여기에 끌

어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11쪽의 표4에 보인 ‘竹串里’(대꼬지)로 보아 ‘곶’(串)이란 낱말이 내륙 지방의 지명에도 쓰인 예가 있다. ④‘串’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발표지 9쪽 표3에 보인 동면 동리명 중 ‘曾溪里, 증계/징계(전래지명) : 高明洞(현용 동명)’이 토론자의 관심을 끈다. 星山 呂씨와 碧珍 李씨의 관향(貫鄉)인 경북 성주군 벽진면에 ‘징기’라는 전래 지명이 있다. 이 마을은 한자로 ‘樹村’(수촌)이라 적는다. 전래 지명 ‘징기’는 15세기 문헌에서 ‘나무’를 뜻한 ‘증계’의 화석형이다.¹⁾ 벽진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 이름 ‘징기’는 한자지명 ‘樹村里’에 대응한다. 여기서 ‘징기: 樹’의 대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표3에 보인 전래지명 ‘증계/징계’는 『여지도서』에 ‘曾溪里’로 되어 있다. ‘曾溪里’의 ‘曾’은 유가에서 숭배하는 曾子의 이름자에서 따온 것일지도 모른다.²⁾ 이 마을의 현용 지명 ‘高明洞’은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지명이다. ‘증계/징계’의 기원을 ‘증계’와 관련 지을 만한 이 마을의 小地名을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질문이라기보다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한 것임)

끝으로 지금 시행 중인 도로명 주소 표기에는 동리명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필자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은 ‘上仁洞’인데 현용 도로명 표기에는 ‘上仁 西路’(전에는 ‘상인 1동’이었음)로만 표기하여 ‘洞’이 없어졌다. 현용 도로명 주소에 ‘洞’ 혹은 ‘里’를 뺌으로써 ‘洞’에 함축된 입체적 ‘공간성’(空間性) 개념이 사라졌다. 도로 지번으로 표기되는 주소 표기는 공간성 개념을 ‘道路’에 함축된 ‘선조성’(線條性)의 개념으로 바꾸었다. ‘洞’를 버리고 ‘路’를 택한 현용 도로명 주소 표기는 공간성 개념을 버리고 선조성 개념으로 대체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리’를 주소 표기에서 삭제한 것은 공동체가 거주하는 공간성 개념을 약화시켜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이 사는 마을과 집은 ‘洞’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지, ‘路’라는 선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역사가 짧고 계획 도시가 대부분인 미국의 주소 표기어나 적절한 도로명 표기법을 전통적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한국에 적용해 놓은 것은 아닌가? 도로명 주소 표기 정책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발표자께서는 지명 연구의 권위자로서 이 방면에 중요한 업적을 쌓아 오셨고, 또 연구 경험을 살려 도로명 중심의 지명 개편 정책에도 자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⑤‘동리’ 표기를 없앤 데 대한 토론자의 문제의식에 대해 발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질문의 요점을 ①~⑤의 번호로 표시했습니다.)

2017년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2017. 7.11~12)(계명대학교 영암관 358호)

1) 증계 우희 다투 <1447석보상절3:42b>. 부야미 가칠 무려 증격 가재 연즈니 <1447용비어천가,007>. 이 낱말은 중세국어 이후에 화석형에만 잔존한 사어로 변한 듯하다.
2) 성주 벽진 수촌이 고향인 고 려증동 선생님은 스스로 당신의 호를 ‘집계’(斟溪)라고 붙이셨다. ‘징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한자화하신 것이다.

15세기 한국어 의문법 종결어미의 생성형태론

최명옥(서울대)

1. 서론

15세기 한국어의 의문법 종결어미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으나 의문법 종결어미의 형태론을 논한 것은 안병희(1967), 허웅(1975), 고영근(1987), 안병희·이광호(1990), 장윤희(1998), 김유범(2007) 등이다.

이들 중에 안병희(1967)은 변형문법론에 생성형태론이 등장하기 전의 연구이고 그 외의 연구는 모두 변형문법론에 생성형태론이 등장한 후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연구들이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구조주의 형태론이다. 구조주의 형태론은 정치하고 치밀하게 형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목적이 표면형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이므로 형태소의 기저 실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는 한국어의 형태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글은 구조주의 형태론과 변형문법론에 등장한 생성형태론이 가진 문제와 함께 15세기 한국어의 의문법 종결어미에 대한 기존의 형태론이 가진 문제에 대해 논하고 생성문법론의 관점에서 15세기 한국어 의문법 종결어미의 형태소를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조주의 형태론과 생성형태론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여기서는 이 글의 논의와 직접 관련된 구조주의 형태론과 변형문법론에 등장한 생성형태론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 그 해결 방안을 변형문법론의 관점에서 제시한다.¹⁾

2.1. 구조주의 형태론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구조주의 형태론은 파생형태론과 굴절형태론을 연구 영역으로 한다. 파생형태론은 어근에 접사가 통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문제를 다루는 형태론이라면 굴절형태론은 활용과 곡용에 관여하는 어간과 어미 각각에 속하는 이형태간의 관계를 다루는 형태론이다. 구조주의 형태론의 경우, 광의의 형태론에는 파생형태론이 포함되지만, 협의의 형태론은 굴절형태론을 의미한다(大塚高信, 中島文雄 1982/83: 735).

구조주의 형태론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이 글의 논의에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은 형태소 표시와 함께 형태분석 결과에 대한 인식이다. 먼저 구조주의 형태론에서는 표면형의 분석에서 추출되는 이형태들의 부류(class)를 / / 속에 제시함으로써 형태소를 표시한다. 그 경우에 음운론적으로 결정되는 이형태들은 ~로, 형태론적으로 결정되는 이형태들은 ∞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어 표준어 명령법 종결어미의 형태소를 보기로 한다. 명령법 종결어미의 이형태로는 ‘-아라, -어라, -거라, -너라, -여라’가 있다. 이 중에서 앞의 둘은 음운론적으로 결정되고 나머지는 형태론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명령법 종결어미의 형태소는 /-아라~-어라∞-거라∞-너라∞-여라/로²⁾ 표시하며 간단히 {-어라}를³⁾ 대표 형태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명옥(2009: 7-40, 2012: 38-40, 2016: 181-183)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여기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소로 표시한다. 그리고 그 밖의 이형태들은 형태소 또는 이 대표 형태소에서 교체되는 것으로 본다(Nida 1949: 45).

그러나 변형문법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형태소 표시와 함께 형태소로부터 이형태들이 도출된다는 설명은 합당하지 않다. 변형문법론적 관점에 따르면, 형태소(기저형)는 모든 이형태들의 도출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명령법 종결어미의 형태소 /-아라~-어라 ∞ -거라 ∞ -너라 ∞ -여라/는 이형태들의 집합으로서 이들 이형태의 도출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저형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소 또는 대표 형태소로부터 형태론적으로 결정되는 이형태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변형문법론적 관점을 따르면, 표준어 명령법 종결어미의 형태소는 //{- \emptyset -ㄱ-ㄴ-j}어라//로 표시된다.⁴⁾ 이 형태소는 어휘화한 교체형 //어라//, //거라//, //-너라//, //-여라//를 공통부분 '-어라'를 기준으로 묶은 것이다. 이들 어휘화한 교체형은 통사·의미부에서 다음과 같은 어휘선택규칙(LSR)에 의하여 선택된다. 그리고 //-어라//는 다음과 같은 음운규칙(PR)에 의해서 /-아라/로 교체된다.

$$\begin{array}{l} \text{LSR: 통사·의미부} \\ //\{-\emptyset-\text{ㄱ}-\text{ㄴ}-\text{j}\}\text{어라//}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거라//: 가 } _ \\ //\text{-너라//: 오 } _ \\ //\text{-여라//: 하 } _ \\ //\text{-어라//: 그 밖에} \end{array} \right. \end{array}$$

$$\text{PR: //어//} \rightarrow /a/ / X\{a,o\}(C) _ Y$$

이상과 같이, 변형문법론적 관점에 따른 형태소는 모든 교체형의 도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형태소는 //XAY// (단일형태소)나 //X{a-b}Y// (복합형태소)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형태소는 기저의 실재를 잘 반영하며 그 형태소로부터 모든 교체형이⁵⁾ 도출되는 과정의 설명은 실제 언어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구조주의 형태론에 의한 것보다 합당하다.

2.2. 생성형태론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변형문법론의 초기에는 형태론이 없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Halle(1973)가 제시한 독자적인 형태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Aronoff(1976)에서 그 문

- 2) 이들 이형태는 다음의 활용형에서 확인된다. 잡아라(執), 먹어라(食), 가거라(去), 오너라(來), 하여라(爲)
- 3) 형태소를 구성하는 이형태가 많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통계상 우세한 것, 새로운 구조형성에서 생산적인 것, 새로운 구조를 형성함에 있어서 규칙적인 것을 택하여 기본형(basic allomorph)으로 삼고 그것을 { } 속에 넣어 형태소를 대표한다.
- 4) 이 글에 사용되는 '기호' 및 '약호'는 다음과 같다. // //: 형태소 또는 형태음소, / /: 교체형 또는 교체음소, **[]**: 범주표시, **X, Y**: 변항(variables), **C**: 자음소, **V**: 모음소, **N**: 명사, **동**: [\pm 동작]동사, **[+동]**: 동작동사, **[-동]**: 상태동사, **선어**: 선어말 어미, **계**: 계사, **s[]s**: 문(文), **//a//** \rightarrow **//b//**: 형태음소 a는 음소 b로 교체된다, **a(b)**: ab와 a, **{a-b}**: 형태음소 a와 형태음소 b, **{a, b}**: 교체음소 a와 교체음소 b
- 5) 구조주의 형태론에서 '이형태'는 표면형의 분석 결과 기능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어형들이다. 그러나 변형문법론적 관점에서 '이형태'는 기저형인 형태소에 규칙이 적용되어 도출되는 '교체형'이다. 이 점에서 앞으로 필자는 변형문법론적 관점에서 논의할 때에는 '이형태' 대신 '교체형'이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됨으로써 음운부에 속했던 형태론적 현상들이 어휘부 소관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 결과 변형문법론의 틀 속에 생성형태론이 등장한다. 생성형태론은 어형성과 관련된 정신체계 혹은 단어와 단어의 내부구조와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다루는 언어학의 한 부류이다(Aronoff and Fudeman 2005: 1-2).⁶⁾ 이 점에서 생성형태론에는 굴절형태론이 배제되거나 주변적인 것으로 된다.

이러한 생성형태론은 한국어의 형태론에 얼마나 적합한가? 한국어에서 명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는 자립형태소로서 그 자체가 단어이다. 그러나 ‘막-(防), 가-(去)’와 같은 동작동사나 ‘밧-(櫓), 길-(長)’과 같은 상태동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단어가 되지 못하며 ‘-고, -지, -니?, -으면, -어도’와 같은 구속형태소가 통합하여야 비로소 ‘막꼬, 막찌, 망니?, 마그면, 마가도’, ‘가고, 가지, 가니?, 가면, 가도’나 ‘밧꼬, 밧찌, 밧니?, 미우면, 미워드’, ‘길고, 길지, 기니?, 길면, 기러도’와 같은 단어가 된다.

이 경우에 단어의 내부구조는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형태론적 문제를 가진다. ‘去’의 어간은 ‘가-’이지만, ‘防, 櫓, 長’의 어간은 각각 이형태 {막-, 망-}, {밧-, 밧-, 미우-}, {길-, 기-}를 가진다. 한편 어미 중에서 ‘-니?’는 이형태를 가지지 않지만, 나머지 어미는 각각 이형태 {-꼬, -고}, {-찌, -지}, {-면, -으면}, {-아도, -어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 이형태의 도출을 설명할 수 있는 형태소의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앞에서 명사는 그 자체가 단어라고 했지만, 명사는 곡용어미와 통합하여 곡용을 하므로 명사 자체도 형태론적 문제를 가진다. 위에 제시한 표준어의 활용형과는 달리, 표준어 ‘밭’(田)과 ‘테’(輪)에 곡용어미 ‘-이, -을, -에, -으로, -도, -만’이 통합하는 경우에 실현되는 전남 <보성> 지역어의 곡용형은 다음과 같다. ‘바시, 바슬, 바테, 바트로, 받또, 밤만’. ‘테가, 테를, 테에, 테로, 테도, 테만’. 이들 곡용형을 분석하면, ‘테’는 이형태를 가지지 않지만, ‘밭’에 대한 <보성>지역어는 이형태 {밭, 밧, 받, 밤}을 가진다. 그리고 곡용어미의 경우, ‘-에’와 ‘-만’은 이형태를 가지지 않지만, 나머지는 이형태 {-이, -가}, {-을, -를}, {-으로, -로}, {-또, -도}를 가진다. 표준어의 경우, 명사는 자립형태소로서 형태소의 설정이 불필요하지만 표준어가 아닌 지역어에서는 명사도 형태소의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음운과정과 통사현상이 활용형과 곡용형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활용 어간과 곡용 어간의 형태소는 물론 활용 어미와 곡용 어미의 형태소가 먼저 설정되어야 음운론과 통사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변형문법론 속의 생성형태론은 활용과 곡용에 대한 형태론을 다루지 않는다. 이 점에서 생성형태론은 한국어의 형태론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생성형태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변형문법론적 관점에서 구조주의 형태론 속의 굴절형태론을 한국어 형태론에 수용하는 것이다. 그 방안은 2.1.의 후반부에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3. 15세기 한국어의 의문법 종결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종결어미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문장을 종결하는 문법 형태소이다. 앞에 제시한 15세기 한국어 의문법 종결어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면 표

6) "(In linguistics) morphology refers to the mental system involved in word formation or to the branch of linguistics that deals with words, their internal structure, and how they are formed."

<1>과 같다.

이들 연구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는 ‘-더-, -아/어-, -으니-, -으리-, -스-, -느-’ 등을 모두 선어말어미로 처리하여 종결어미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과, 허웅(1975)를 제외하면, ‘-니다, -니까, -르따, -르가, -녀, -려’와 같이 표면형에서 분석된 것을 형태소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결어미의 형태소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 서술어에서 어간과 어미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어간과 종결어미 사이에 선어말어미가 있을 경우에는 어미에서 다시 선어말어미를 분석해야 한다. 그렇게 분석된 종결어미에 이형태가 없으면 그 자체가 형태소가 되며 이형태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 이형태로부터 형태소를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는 물론 현대 한국어의 형태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기준으로 형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모두 공시적 형태나 형태소로 인정한다는 점이다.⁷⁾

종결어미 논저	의문법 종결어미
안병희(1967)	-가/고, -니다, -니까/고, -르가/고, -녀/뇨, -려/료 -이썸, -이썸녀, -이썸니잇가
허웅(1975)	①-은다, -을다, -가/고, -은가/고, -을가/고, -으냐/뇨, -으랴/료 ②-넋가/고, -릿가/고 ③-으니잇가/고, -으리잇가/고
고영근(1987)	①-녀, -니다, -르따, -니까/고, -르까/꼬 ②-넋가 ③-니잇가
안병희·이광호 (1990)	-가/고, -녀/뇨 -려/료, -니까, -르고, -니다 -이썸, -이썸녀, -이썸니잇가
장윤희(1998)	①-녀/뇨, -려/료, -니다, -르다, -니까/고, -르가/고 ②-이, -넋가/고, -릿가/고(?) ③-니잇가/고, -리잇가/고
김유범(2007) ⁸⁾	①-니아/오, -리아/오, -니다, -르다, -니까/고, -르가/고 ②-넋가

<표 1>

한국어 형태론에서 그러한 사실이 타당한가? 다음에 제시된 ㉠의 활용형을 대상으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로 한다.

㉠은 표준어 어간 ‘잡-(執), 먹-(食), 서-(立), 길-(長)’과 어미 ‘-고, -더라, -더냐, -습니다, -습니까’가 통합할 때의 활용형이다.

- ㉠ ㄱ. 잡꼬, 잡떠라, 잡떠냐, 잡습니다, 잡습니까
 ㄴ. 먹꼬, 먹떠라, 먹떠냐, 먹습니다, 먹습니까
 ㄷ. 서고, 서더라, 서더냐, 섬니다, 섬니까

7)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최명옥(2014)를 참조하기 바람.

8) 원문에는 기본 형태소와 이형태를 열거했는데, 다른 연구자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자가 재배열한 것임.

ㄹ. 길고, 길더라, 길더냐, 겁니다, 김니까

먼저 ㉠의 활용형을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기준으로 형태를 분석하면 ㉡와 같으며 ㉡로부터 어간과 어미의 이형태를 정리하면 ㉢와 같다.

- ㉡ ㄱ. 잡-꼬, 잡-떠-라, 잡-떠-냐, 잡-습니-다, 잡-습니-까
ㄴ. 먹-꼬, 먹-떠-라, 먹-떠-냐, 먹-습니-다, 먹-습니-까
ㄷ. 서-고, 서-더-라, 서-더-냐, 서-ㄱ니-다, 서-ㄱ니-까
ㄹ. 길-고, 길-더-라, 길-더-냐, 기-ㄱ니-다, 기-ㄱ니-까

- ㉢ ㄱ. 어간: 잡-, 먹-, 서-, {길, 기}-
ㄴ. 선어말어미: -{습니, ㄱ니}-, -{떠, 더}-
ㄷ. 어말어미: -{꼬, 고}, -라, -냐, -다, -까

그리고 ㉢로부터 설정된 어간과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의 형태소는 ㉠와 같다.

- ㉠ ㄱ. 어간: //잡-//, //먹-//, //서-//, //길-//
ㄴ. 선어말어미: //-{스-∅}습니-//,⁹⁾ /-더-//
ㄷ. 어말어미: //-ㄷㅏ//, //-어도//, //-고//, //-으면//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선어말어미의 형태소이다.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기준으로 분석된 형태에서 설정된 형태소이므로 //-{스-∅}습니-//와 //-더-//는 공시적 선어말어미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한가? 특히 //-더-//는 현대 이전의 한국어 형태론 연구자들이 예외 없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기준으로 분석된 결과를 그대로 공시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미국의 언어 이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동안 그런 연구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한국어학계에서 그런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결어미 ‘-ㄷ다’나 ‘-ㅂ니다’ 등이 현재도 학술 논문이나 저서에서 형태소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 그간의 사정을 말해준다.

형태론은 언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어와 같이, 대개 한 음절이 하나의 형태소인 언어에서는 형태론이 거의 불필요하며 구속형들로 이루어진 긴 연쇄가 하나의 단어가 되는 에스키모어의 경우에는 형태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¹⁰⁾ 그러므로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는 형태 분석의 훌륭한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기준에 의해 분석된 형태와 그것으로부터 설정된 것을 모두 공시적 형태나 형태소라고 인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해당 시기의 한국어 자체에서 발견된 ‘X의(성립)조건’, 예를 들면, ‘공시적 형태소의 (성립)조건’ 또는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다.

9) 이형태 ‘-ㄱ니-’는 표면형을 분석한 것인데 ‘ㄱ’은 음절을 형성할 수 없다. 그것은 표면형의 분석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의 기저형은 ‘-습니-’가 되어야 한다.

10) 이에 대해서는 Bloomfield(1933: 207-208)을 참조하기 바람.

특히 선어말어미의 경우, 필자는 최명옥(2009: 167)에서 처음으로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조건을 제시했다. 그것은 활용어간과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고 종결어미는 물론 연결어미와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명옥(2014: 202)에서는 그 조건을 좀 더 구체화하여 현대 한국어에서 선어말어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어떤 형태소가 선어말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①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어간과 계사어간과 통합할 수 있고 ② 어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결어미 ‘-으니(까), -으며, -으면, -어(도), -고, -지’와 종결어미 ‘-더라, -(슴-음)니다, -(슴-음)니까’와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선어말어미로 제시된 //{-스-∅}음니-//와 //-더-//는 선어말어미의 조건 ①은 충족시키지만 조건 ②는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공시적인 선어말어미가 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선어말어미의 조건은 15세기 한국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15세기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는 형태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②에 제시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형태소에 차이가 있다. 다음은 15세기 한국어의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이다.¹¹⁾

어떤 형태소가 선어말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①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어간과 계사어간과 통합할 수 있고 ② 어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결어미 ‘-으니(까), -으며, -고, -다가, -는디, -(다,러)니’와 종결어미 ‘-{다,라},¹²⁾ -(더,러)라, -뇨, -는니라’와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¹³⁾

위에서 논의한 점들을 유의하면서 15세기 한국어 의문법 종결어미의 형태론을 진행하기로 한다. 15세기 한국어 의문법 종결어미에도 단일형태소와 복합형태소가 있다. 그런데 의문법 종결어미의 형태소는 대부분이 복합형태소이므로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어미초의 형태소로 기준으로 형태소 부류를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3.1. //-ㄱY//류

다음 (1)은 //-ㄱY//류에 속하는 의문법 종결어미 //-거니{오-어}//에 어간 //소사나-(湧), 잇{∅- }-(有), 없-(無), 닐-(起), 종(僕), 엇데(何), 헝-(爲), 데-(爛)//가 통합한 것이다.

11)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어미들은 최명옥(2014)에서 15세기 한국어의 선어말어미라고 인정된 ‘-으시-’, ‘{-스-스-△}음-’, ‘-어{잇-(이)시}-’가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짜해 디여 우르시며 王과 大愛道와도 슬허 우르시며<석상3: 30ㄴ>
- 雲雷音王佛스게 風流 받즈보며 바리 받즈오샤물 보습건덴<월석18: 62ㄴ>
- 學無學이 [...] 眷屬 六千人과 혼디 와시며(오-아시-으며)<법화1: 45b>
- 엇데 이에쑤 天子 | 업스시뇨<월석7: 11ㄴ>
- 네 업던 이를 얻즈보뇨<석상13: 16ㄱ>
- 四祖 | 便安히 묻 겨샤 현 고들 울마시뇨<용가 110>

12) 종결어미 ‘-라’는 계사 어간과 통합하는 것임.

13) { } 속의 ‘러’와 ‘라’는 계사 어간과 통합하는 것이고 ‘더’와 ‘다’는 그 외의 어간과 통합하는 것임.

- (1) a. 었던 因緣으로 이 寶塔이 싸해서 소사나거뇨<월석21: 209ㄱ>14)
 b. 어디사 도흔 쓰리 양즈 그즈니 잇거뇨<석상6: 13ㄴ>
 c. 우리는 었더 낱 그지 업거뇨<월석23: 87ㄱ>
 d. 몇 디위를 江風이 여러 날 닐어뇨<남명 상: 40ㄴ>
 e. 無[○] 字를 닐은 ㅼ든 었테어뇨<몽산, 가: 13ㄱ>
 f. 오히려 ㄴ미 좃이어뇨<몽산, 간: 22ㄴ>
 g. 能히 韋郎으로 히여 자취를 ㅼ 疎히케 ㅎ거녀<두초21: 25ㄴ>
 h. 寬이 … 安徐히 닐오되 羹애 네 소니 테어녀<내훈1: 18ㄱ>

그러므로 위의 서술어는 각각 ‘소사나-거뇨, 잇-거뇨, 업-거뇨, 닐-어뇨, 었테-어뇨, ㅎ-거녀, 테-어녀’로 분석된다. 그 결과 네 개의 종결어미 ‘-거뇨, -어뇨’와 ‘-거녀, -어녀’가 추출된다. 그 중에서 ‘-거뇨, -어뇨’는 문(文) 속에 ‘엇던, 어디, 었더, 몇, 었테’와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에 사용되며 ‘-거녀, -어녀’는 문 속에 의문사가 없을 때에 사용된다. 그리고 ‘-어뇨’와 ‘-어녀’는 어간말의 //ㄹ//와 //j// 그리고 계사 어간 //이-// 뒤에서 어미초의 //ㄱ//가 탈락된 것이다. 이것은 15세기 한국어에 존재했던 공시적 음운규칙에 의한 것이다.¹⁵⁾

그렇게 되면 네 개의 종결어미는 ‘-거뇨’와 ‘-거녀’로 축소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종결어미의 첫음절 ‘거’는 과거표시나 확인표시의 선어말 어미 ‘-거-’로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 제시한 15세기 한국어의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허용(1975: 956-78)은 자신이 설정한 선어말 어미와 종결어미 및 연결어미와의 통합 그리고 해당 선어말 어미와 그에 선행하는 다른 선어말 어미와 통합을 자세히 정리한 것인데, 그것은 이 글의 논의에 큰 도움이 된다. 허용(1975: 972-73)에 의하면 ‘-거-’는, “安樂國 이는 …어미 ㅼ 보아 시름 깊거다<월석8: 87ㄴ>”에서 보듯이,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 중 종결어미 //ㄴ다//와는 통합하지만 그 외의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 통합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는 선어말 어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거뇨’와 ‘-거녀’는 종결어미가 된다.

이 두 종결어미는 문말에 실현되고 [+의문] 표시의 기능을 가지며 형태가 유사하므로 한 형태소의 교체형이 된다. 그들 종결어미가 가진 공통부분을 기준으로 묶으면 ‘-거녀{오, 어}’로 된다. 여기서 { } 속의 교체음소의 도출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음소를 //X//라고 하면, 이 종결어미의 형태소는 //ㄴ거녀X//가 된다. 그런데 교체음소 중에서 //오//를 형태음소라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교체음소 /어/의 도출을 설명할 수 있는 공시적 음운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를 형태음소라고 하여도 교체음소 /오/의 도출을 설명할 수 있는 공시적 음운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 교체음소의 도출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3의 형태음소를 찾을 수도 없다.

14) 이 글에 사용되는 문헌 약호와 문헌명은 다음과 같다. **금삼**: 금강경삼가해 언해, **남명**: 남명천계송언해, **내훈**: 내훈, **능엄**: 능엄경언해, **두초**: 초간두시언해, **몽산**: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 **법화**: 법화경언해, **삼강**: 삼강행실도(동경대본), **석상**: 석보상절, **속삼강**: 속삼강행실도(원간본), **용가**: 용비어천가, **원각**: 원각경언해, **월석**: 월인석보, **곡**: 월인천강지곡(상), **육조**: 육조법보단경언해(중), **훈**: 훈민정음언해본

15) 어간 //알-//(知)과 //여회-//(離) 그리고 //(백성)이-//가 연결어미 //ㄴ고//와 통합할 때에 어미초의 //ㄱ//가 어간말의 //ㄹ//와 //j// 그리고 계사 어간 //이-// 뒤에서 타락하여 ‘須達이 ㅼ든 알오 ㅼ믈게를 부러 아니<곡 56ㄴ, 기154>’와 ‘龍이 더위를 여회오 올위러 보스븐니<월석7: 36ㄱ>’그리고 ‘(民은) 百姓이오 (音은 소리니)<훈1ㄱ>’로 실현되는 것도 이 음운규칙의 적용 결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거뇨’와 ‘-거녀’를 어휘화한 교체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두 교체형은 어휘화하여 어휘부에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어휘화한 교체형은 통사·의미부에서 어휘선택 규칙에 의해 선택되는 것으로, 문 속에 의문사가 있는 문의 서술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뒤에서는 //-거뇨//가 선택되고 문 속에 의문사가 없는 문의 서술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뒤에서는 //-거녀//가 선택된다.¹⁶⁾ 이들 어휘화한 교체형을 포괄하는 형태소는 복합형태소 //-거니{오-어}//로 표시된다.¹⁷⁾ 이 형태소를 구성하는 어휘화한 교체형 //-거뇨//와 //-거녀//의 선택규칙은 L1과 같으며 어미초의 //ㄱ//가 탈락되는 음운규칙은 P1과 같다.

$$L1 \quad //-거니\{오-어\}// \Rightarrow \begin{cases} //-거뇨// : s[[+의문사] \quad X] (\text{선어}) ___]_s \\ //-거녀// : s[[-의문사] \quad X] (\text{선어}) ___]_s \end{cases}$$

$$P1 \quad //ㄱ// \rightarrow \emptyset / X\{r, j, i\} ___ Y$$

15세기 한국어 문헌에서 발견되는 //-ㄱY//류에 속하는 의문법 종결어미를 제시하면 (2)와 같다.

$$(2) \quad //-거니\{오-어\}//, //-ㄱ\{아-오\}//^{18)}$$

(2)에서 형태소 //-ㄱ\{아-오\}//는 어휘화한 교체형 //-가//와 //-고//를 합한 것이다. 이들 형태소가 실현된 예는 (3)과 같다.

16) 구조주의 형태론에 의하면 그들 교체형은 문 속에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통사론적으로 결정되는 이형태라 할 것이다. 통사론적으로 결정되는 이형태는 일반 형태론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7) 문헌에는, “몇디위물 ...胡床에 앉가니오<두초18: 23>, 엇데 搖落호물 相對호엇가니오<두초6: 31>, 어느 드리로 ...나를 외오 허다가 빠질 삼게 허가뇨<두초6: 31>”에서 보듯이, 종결어미 ‘-가니오’나 ‘-가뇨’도 발견된다. 이 종결어미의 사용 예는 모두 ‘두시언해 초간본’에서 발견된다. 이 책에는, “(몇 히를 니근 바블) 맛나거니오(逢)<두초11: 10>, (玄冬에 몇 바물 陽臺에서) 자거뇨(宿)<두초17: 12>”에서 보듯이, 종결어미 ‘-거니오’와 ‘-거뇨’도 사용된다. 종결어미 ‘-가{니오, 뇨}’가 문 속에 의문사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을 보면 ‘-거뇨’와 동일하게 ‘-어뇨, -가녀, -아녀’와 같은 종결어미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어미가 사용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동일 문헌에 ‘-거Y’와 ‘-가Y’가 공존하므로 복수 종결어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 이 유형에 속하는 형태로, “엇던 因緣으로 이련 祥瑞 잇거시뇨<석상13: 14ㄴ-15>”에서 발견되는 ‘-거시뇨’가 있다. 그런데 이 형태소에 국한할 경우에, 이 형태소는 지금까지 ‘-거-’가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는 필자의 주장을 무효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으시-’가 선어말 어미이므로 ‘-으시-’가 분리되면 ‘-거-’ 또한 분리된다. 그러면 ‘-거-’도 선어말 어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반증을 또 반증하는 근거가 있다. 그것은 초기 문헌인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에는, 단 한 번 발견되는 연결 어미 ‘-거신마른’과 ‘-시거마른’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거시’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 뒤 《월인석보》에서부터 ‘거시’와 ‘시거’가 같은 문헌에 사용된다. 필자는 이것이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분리될 수 없는 ‘거’ 뒤에 둔다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음 예문이다. “(釋迦 彌勒이 이) 부테시거시니<몽산,삼: 21>, 몽산,간: 22>, (부텃) 體眞實호시거시니<능엄8: 64>, (웃술) 주시거시든<소학언2: 12>” 예문 속의 ‘-시거시니’나 ‘-시거시든’에서 어간 뒤의 ‘시’는 준대표시 선어말어미 ‘-으시-’이고 두번 째의 ‘시’는 준대표시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시뇨’는 그 자체가 종결어미이거나 ‘-시거뇨’의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동일한 것으로 ‘-더시Y’가 있다. 이 역시 ‘-시더Y’의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

- (3) a. 趙州는 이 엇던 面目고<몽산, 간: 55ㄴ>
 b. 뒤 이 나홀 기리 살 사름고<두초6: 2ㄱ>
 c. 엇테 서르 니브리랏 말오 햏야늘<삼강, 충신: 6ㄱ>
 d. 므스기 大悲오<원각3: 상1-2: 85ㄴ>
 e. 그디 子息 업더니 므스 罪오<월석1: 7ㄱ>
 f. 이 엇던 境界오<몽산 2ㄴ>
 g. 이 썩리 너희 중가<월석8: 94ㄴ>
 h. 이 이습가 이 업습가<금삼3: 39ㄱ>
 i. 이는 賞가 罰아<몽산, 간: 53ㄴ>
 j. 네 이제 소리아 아니아<능엄4: 126ㄴ>

(3)의 예문에서 4개의 의문법 종결어미 ‘-고, -오, -가, -아’를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고’는 {面目(면목), 사름} 뒤에 실현되고 ‘-오’는 {말-(勿), 大悲(대비), 罪(죄), 境界(경계)} 뒤에 실현된다. 그리고 ‘-가’는 {중, 이습, 업습, 賞(상)} 뒤에 실현되고 ‘-아’는 {罰(벌), 소리, 아니아} 뒤에 실현된다. 이를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오’는 어간말 //{ㄹ, 이, j}// 뒤에 실현되고 ‘-아’는 어간말 //{ㄹ, 이}// 뒤에 실현된다. 이를 종합하면 ‘-아’는 어간말 //j// 뒤에 분포하는 예가 발견되지 않을 뿐이므로 두 어미는 //{ㄹ, 이, j}// 뒤에 실현된다. 이것은 P1에서 어미초의 //ㄱ//가 탈락하는 음운환경과 동일하다. 따라서 어미 ‘-오’와 ‘-아’는 ‘-고’와 ‘-가’의 //ㄱ//가 어간말의 //{ㄹ, 이, j}// 뒤에서 탈락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4개의 의문법 종결어미는 ‘-고’와 ‘-가’로 한정된다. 이들 어미는 어미 ‘-거뇨’와 ‘-거녀’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한 형태소의 교체형이 된다. 교체형 ‘-고’는 문 속에 의문사가 있을 때 서술어 어간 뒤에 실현되고 교체형과 ‘-가’는 문 속에 의문사가 없을 때 서술어 어간 뒤에 실현된다. 이 두 어미를 공통부분을 기준으로 묶으면 ‘-ㄱ{아, 오}’로 되는데, { } 속의 ‘아’와 ‘오’의 도출을 공시적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음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두 어미는 어휘화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어휘화한 교체형 //가//와 //고//를 포괄하는 형태소는 //ㄱ{아-오}//로 표시된다. 이들 어휘화한 교체형은 통사·의미부에서 어휘선택 규칙에 의해 선택된다. 설정된 형태소를 구성하는 어휘화한 교체형의 선택규칙은 L2와 같으며 어미초의 //ㄱ//는 음운규칙은 P1에 의해서 탈락한다.

$$L2 \quad //ㄱ\{오-아\}// \Rightarrow \begin{cases} //고// : s[[+의문사] \quad X] ___]_s \\ //가// : s[[-의문사] \quad X] ___]_s \end{cases}$$

3.2. //-ㄴY//류

다음 (4)는 //-ㄴY//류에 속하는 의문법 종결어미 //-(느니)잇ㄱ{오-아}//에 어간 //햏-(爲), 잇{∅-ㅣ}-(有), 나-(出), 엇테(何), (善知識)이-, 가-(去), 잇{∅-ㅣ}-(有), 安樂햏-(爲), 아니아-, (道)ㅣ-//가 통합한 것이다.

- (4) a. 므스글 道ㅣ라 햏느니잇고<월석9: 24>
 b. 이제 어디 잇느니잇고<월석23: 78ㄱ>

- c. 어미 ...어느 길헤 냇느니잇고<월석23: 90> ,
- d. 姬의 우수른 엇테잇고<내훈2: 20ㄱ>
- e. 엇던 사르미 이 善知識이잇고<원각 하3-1: 77ㄱ>
- f. 어디 가시느니잇가<남명, 상: 52>
- g. 僧이 趙州의 무로디 가히는 佛性이 잇느니잇가 <몽산,간: 51ㄱ>
- h. 世尊이 ...安樂호시느니잇가 아니잇가<법화5: 91>
- i. 이 究竟法이잇가 이 行하시던 道ㅣ잇가<법화1: 164ㄴ>

그러므로 위의 서술어는 각각 ‘호-느니잇고, 잇-느니잇고, 나-잇느니잇고, 엇테-잇고, 善知識이-잇고, 가-시느니잇가, 잇-느니잇가, 安樂호-시느니잇가, 아니-잇가, 究竟法이-잇가, 道ㅣ-잇가’로 분석된다. 이렇게 분석된 종결어미 중 ‘-잇느니잇고’와 ‘-시느니잇가’는 다시 ‘-(아)잇-느니잇가, -(으)시-느니잇가’로 분석된다. ‘-아잇-’과 ‘-으시-’는 15세기 한국어에서 ‘완료’와 ‘존대’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4개의 종결어미 ‘-느니잇고’와 ‘-느니잇가’ 그리고 ‘-잇고’와 ‘-잇가’가 추출된다. 그 중에서 ‘-느니잇고’와 ‘-잇고’는 문 속에 의문사가 있을 때 서술어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뒤에 실현되고 ‘-느니잇가’와 ‘-잇가’는 문 속에 의문사가 없을 때 서술어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뒤에 실현된다. 그리고 ‘-느니잇고’와 ‘-느니잇가’는 동사나 선어말 어미 뒤에 실현되고 ‘-잇고’와 ‘-잇가’는 //j//로 끝나는 명사나 계사 어간 뒤에 실현된다.

이들 어미를 공통부분을 기준으로 묶으면 각각 ‘-느니잇ㄱ{오, 아}’와 ‘-잇ㄱ{오, 아}’가 된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의문법 종결어미는 ‘-고’와 ‘-가’이고 그 앞에 있는 ‘느’나 ‘(으)니’나 ‘(으)이’는 선어말 어미로 보았다. 그러나 ‘(으)이’는 앞에 제시된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 중 종결어미 ‘-다’와는 통합하지만 그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와는 통합하지 못한다(허용 1975: 958). 그리고 ‘(으)니’는 제시된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 중 어떤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도 통합하지 못하며(허용 1975: 966) ‘느’는 제시된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 중 종결어미 ‘-다’와 연결어미 ‘-니’와는 통합하지만, 그 외의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는 통합하지 않는다(허용 1975: 965-66). 그러므로 ‘느’나 ‘(으)니’나 ‘(으)이’는 선어말 어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느니잇ㄱ{오, 아}’와 ‘-잇ㄱ{오, 아}’가 종결어미가 된다.

그런데 { } 속의 교체음소 ‘아’와 ‘오’의 도출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음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종결어미 ‘-느니잇고’, ‘-느니잇가’와 ‘-잇고’, ‘-잇가’가 어휘화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을 말해준다. 그렇게 되면 동사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와 통합하는 종결어미의 형태소는 //느니잇ㄱ{오-아}//가 되고 //j//로 끝나는 명사와 계사 어간 //이-//와 통합하는 종결어미의 형태소는 //-잇ㄱ{오-아}//가 된다. 이 두 형태소는 모두 의문을 표시하고 문장 종결어미가 되며 ‘잇ㄱ{오-아}’를 공통으로 가지지만 어간이 동사냐 명사(이-)냐에 따라 달리 실현되므로 한 형태소의 교체형이 된다. 따라서 두 형태소를 포괄하는 형태소는 //-느니잇ㄱ{오-아}//로 표시된다. 이 형태소를 구성하는 어휘화한 교체형이 통사·의미부에서 선택되는 어휘선택 규칙은 L3와 같으며 어미초의 //으//는 음운규칙 P2에 의해서 탈락한다.

$$L3 \quad \left\{ \begin{array}{l} //느니잇고// : s[[+의문사] X] 동(선어) _]_s \\ //느니잇가// : s[[-의문사] X] 동(선어) _]_s \end{array} \right. \Rightarrow //-(느니)잇ㄱ{오-아}//$$

//-으잇고// : s[[+의문사] X]_{N_____}]_s
 //-으잇가// : s[[-의문사] X]_{N_____}]_s

P2 //으// → ∅ / X{V,ㄹ}] _____Y

15세기 한국어 문헌에서 발견되는 //-ㄹY//류에 속하는 의문법 종결어미를 제시하면 (5)와 같다.

(5) //-{ㄹ-∅}은ㄱ{아-오}//, //-나니{오-*어}//, //-노닛가//, //-논가//, //-{ㄹ-∅}은다//

앞에서 ‘ㄹ’가 선어말 어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논의했으므로, 여기서 논의할 것은 ‘ㄹ’로 시작하는 형태소를 제외한 것들이다. 먼저 형태소 (5)에서 //-는ㄱ{아-오}//는 종래에 선어말 어미 ‘-느-’와 종결어미 ‘-은가’와 ‘-은고’의 통합체라고 보았으며 형태소 //-나니{오-*어}//는 동사 //오-//(來)와 형태론적으로 결정되는 형태소인데, 종래에 선어말 어미 ‘-나-’, ‘-니-’와 종결어미 ‘-오’의 통합체라고 보았다. 그리고 형태소 //-노닛가//는 종래에 선어말 어미 ‘-노-’, ‘-오-’, ‘-니-’와 종결어미 ‘-가’의 통합체라고 보았으며 //-논가//는 선어말 어미 ‘-노-’, ‘-오-’와 종결어미 ‘-은가’의 통합체라고 보았다. 그리고 형태소 //-{ㄹ-∅}은다//에서 어휘화한 교체형 ‘-는다’를 선어말 어미 ‘-느-’와 종결어미 ‘-은다’의 통합체라고 보았다.

그러나 종래에 선어말 어미로 보았던 ‘(으)니’는 앞에 제시한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 중 어떤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와도 통합한 예가 없으며(허용 1975: 966) ‘나’는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 중에서 종결어미 ‘-다’와는 통합하지만 그 외의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는 통합한 예가 없다(허용 1975: 973). 그리고 ‘오’는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 중 종결어미 ‘-라’ 외의 어떤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 통합하는 예가 없다(허용 1975: 964). 또 ‘느’는 ‘ㄹ’과 동일한 것으로 이 형태가 선어말 어미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앞에서 논의했다. 그러므로 (5)에 제시된 것들은 모두 의문법 종결어미의 형태소가 된다.

그 중에서 복합형태소 //-느니{오-어}//는 동작동사의 어간이나 동작동사와 통합한 선어말 어미 뒤에서 실현된다. 그리고 //-{ㄹ-∅}은ㄱ{아-오}//와 //-{ㄹ-∅}은다//에서 교체형 //-는Y//는 동작동사의 어간이나 동작동사와 통합하는 선어말 어미 뒤에서 실현되고 교체형 //-은Y//는 상태동사나 계사 어간 뒤에서 실현된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서 형태소 ‘//{-느니{오-어}//, 19) //-{ㄹ-∅}은ㄱ{아-오}//, //-나니{오-*어}//, //-{ㄹ-∅}은다//’를 구성하는 어휘화한 교체형이 통사·의미부에서 선택되는 어휘선택 규칙은 L4-L7과 같다.

L4
 //-느니{오-어}// ⇒ { //{-느뇨}// : s[[+의문사] X]_{[+동](선어)_____}]_s

19) ‘잇느뇨<능엄2: 36>, 잇느녀<월석25: 79ㄴ>, 잇느니여<석상24: 18>, 잇느니야<몽산 62>, 득외엿느니오<두초7: 26>’에서 보듯이, 이 종결어미의 표기형은 15세기 당시에 다양하다. 그들 표기형은 {-느뇨, -느니오}와 [-느녀, -느니여]와 ‘-느니야’로 분류된다. ‘-느니오’와 ‘-느니여’에 대하여 각각 ‘-느뇨’와 ‘-느녀’가 공존한다는 사실은 전 시기의 ‘-니오’와 ‘-니여’는 15세기에 ‘-뇨’와 ‘-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느니야’는 ‘-느니여’가 ‘-느니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데 15세기 문헌에는 ‘-느냐’가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느뇨’와 ‘-느녀’를 대표로 삼는다.

//-느녀// : s[[-의문사] X] [+동](선어)___]s

L5 //{-{ㄴ-∅}은ㄱ{오-아}}// ⇒ { //{-는고// : s[[+의문사] X] [+동](선어)___]s
 { //{-는가// : s[[-의문사] X] [+동](선어)___]s
 { //{-은고// : s[[+의문사] X] [-동,계]___]s
 { //{-은가// : s[[-의문사] X] [-동,계]___]s

L6 //-나니{오-*어}// ⇒ { //-나뇨// : s[[+의문사] 오] ___]s
 { //-나녀// : s[[-의문사] 오] ___]s

L7 //-{-{ㄴ-∅}은다}// ⇒ { //-는다// : s[[+의문사] X] [+동](선어)___]s
 { //-은다// : s[[-의문사] X] [-동,계]___]s

L5와 L7의 ‘-{-{ㄴ-∅}은’에서, //으//는 어간말 음절나 선어말 어미의 말 음절이 양성모음 소 //아, 으, 오//이면 그 뒤에서 P3의 음운규칙의 적용을 받아 /으/로 교체된다.

P3 //으// → /으/ / X{아, 으, 오}(C)] 동/선어. (ㄴ)___Y

3.3. //-ㄷY//류

다음 (6)은 //-ㄷY//류에 속하는 의문법 종결어미 //-더니잇ㄱ{오-아}//에 어간 //니{∅-ㄹ}르-(謂), 맞디-(任), 겨시-(在), (므스)이-//가 통합한 것이다

- (6) a. ㄴ이 니르더니잇고<월석23: 84>
- b. 黃梅付囑은 엇데 ㄴ르쳐 맞디시더니잇고<육조 상: 42>
- c. 菩薩入 어마니미 姓이 므스기러니잇고<월석21: 27-8>
- d. 世尊하 손지 世間애 겨시더니잇가<월석18: 36>

그러므로 위의 서술어는 각각 ‘니르-더니잇고, 맞디-시더니잇고, (므스)이-러니잇고, 겨시-더니잇가’로 분석된다. 이렇게 분석된 어미 ‘-시더니잇고’에는 선어말 어미 ‘-(으)시-’가 있으므로 다시 ‘-시-더니잇고’로 분석된다. 그 결과 3개의 종결어미 ‘-더니잇고, -러니잇고’와 ‘-더니잇가’가 추출된다. 그 중에서 전자는 문 속에 의문사가 있을 때, 후자는 문 속에 의문사가 없을 때에 서술어 어간이나 선어말 뒤에 실현된다. 그리고 전자에서 ‘-더니잇고’는 동사 어간이나 선어말 뒤에서 실현되고 ‘-러니잇고’는 계사 어간 뒤에 실현된다.

이들 종결어미는 과거 회상 존대 의문종결 어미로서 동일한 기능을 가지며 문서술어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뒤에 실현되고 형태구조가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에서 한 형태소의 교체형이 된다. 그러므로 ‘-더니잇고’와 ‘-더니잇가’를 공통부분을 기준으로 묶으면 ‘-더니잇ㄱ{오, 아}’가 된다. 그리고 자료의 부족으로 ‘-러니잇가’의 예가 발견되지 않지만, ‘-러니잇고’가 문 속에 의문사가 있을 때 서술어 어간 뒤에 실현되므로 문 속에 의문사가 없을 때 ‘-러니잇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 종결어미를 공통부분을 기준으로 묶으면 ‘-러니잇ㄱ{오, 아}’가 된다.

이렇게 공통부분을 기준으로 묶여진 ‘-더니잇ㄱ{오, 아}’와 ‘-러니잇ㄱ{오, 아}’에서 ‘더’

와 ‘니’와 ‘(으)이’는 선어말 어미로 인정되었다. 이 중에서 ‘니’와 ‘(으)이’가 선어말 어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논의했으므로 ‘더’가 선어말 어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허웅(1975: 969)에 따르면 ‘더’는 종결어미 ‘-라’와만 통합할 뿐 그 외의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 통합하는 예는 없다.²⁰⁾ 그러므로 그것은 선어말 어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더니잇ㄱ{오, 아}’와 ‘-러니잇ㄱ{오, 아}’는 모두 종결어미가 된다. 이들 종결어미를 다시 공통부분을 기준으로 묶으면 ‘-{ㄷ, ㄹ}니잇ㄱ{오, 아}’가 되는데 { } 속의 두 교체음소 ‘ㄷ’와 ‘ㄹ’의 도출은 형태음소 //ㄷ//가 계사 어간 뒤에서 /ㄹ/로 교체되는 음운 규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오’와 ‘아’의 도출은, 3.1.의 (3)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시적 음운규칙으로써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분석된 3개의 종결어미와 자료의 제약으로 발견하지 못한 ‘-러니잇가’는 모두 어휘화한 교체형으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어휘화한 교체형을 포괄하는 형태소는 //-더니잇ㄱ{오-아}//가 된다.

이 복합형태소를 구성하는 2개의 어휘화한 교체형은 통사·의미부에서 어휘선택 규칙 L8에 의해서 선택된다. 그리고 교체형 //-러니잇고//와 //-러니잇가//는 음운부에서 음운규칙 P2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L8 \quad //-더니잇ㄱ{오-아}// \Rightarrow \begin{cases} //-더니잇고// : s[[+의문사] X]_{\text{통(선어)}} ______]_s \\ //-더니잇가// : s[[-의문사] X]_{\text{통(선어)}} ______]_s \end{cases}$$

$$P4 \quad //ㄷ// \rightarrow /ㄹ/ / (N)이] ______ Y$$

15세기 한국어 문헌에서 //-ㄷY//류에 속하는 의문법 종결어미를 제시하면 (7)과 같다.

(7) //-더니잇ㄱ{오-아}//, //-더니{오-어}//, //-던다//, //-던ㄱ{오-아}//, //-도소니{오-어}//²¹⁾

(7)에서 복합형태소 //-도소니{오-어}//는 종래에 선어말 어미 ‘-도-, -소-(허웅 1975: 957), -(으)니-’와 종결어미 ‘-오(<-고)’와 ‘-어(<-아<-가)’가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으)니’가 선어말 어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논의했다. 그리고 ‘도’와 ‘소’도 선어말 어미가 될 수 없다. 앞에 제시한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면, ‘도’는 종결어미 ‘-다’와는 통합하지만 그 외의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는 통합한 예가 없으며 ‘소’는 어떤 어간과도 통합한 예가 없으며 어미의 경우, 종결어미 ‘-라’와 연결어미 ‘-으니’와만 통합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소니{오-어}//는 의문법 종결어미가 된다.

(7)에 제시된 형태소 중에서 복합형태소 //-더니{오-어}//, //-던ㄱ{오-아}//, //-도소니{오-어}//를 구성하는 어휘화한 교체형은 통사·의미부에서 다음에 제시되는 어휘선택 규칙 L9-L11에 의해서 선택된다. 그리고 어미초의 //ㄷ//는 음운규칙 P4에 의하여 /ㄹ/로 교체된다.

20) ‘더’의 교체형인 ‘러’가 실현되는 예는 위에 제시된 것 하나 뿐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할 수 없다.

21) 이들 형태소 외에 ‘-더시뇨 -더시니 -더시닛가 -더신ㄱ{오-아}’가 있으나 이 형태소를 구성하는 ‘더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시더’의 잘못일 수 있다(주 16 참조)는 점에서 형태소 목록에서 제외했다.

$$L9 \quad //\text{-더니}\{\text{오-어}\}// \Rightarrow \begin{cases} //\text{-더뇨}\text{//} : s[[+의문사] \ X]_{\text{통}} \text{---}]_s \\ //\text{-더녀}\text{//} : s[[-의문사] \ X]_{\text{통}} \text{---}]_s \end{cases}$$

$$L10 \quad //\text{-던}\text{ㄱ}\{\text{오-아}\}// \Rightarrow \begin{cases} //\text{-던고}\text{//} : s[[+의문사] \ X]_{\text{통}} \text{---}]_s \\ //\text{-던가}\text{//} : s[[-의문사] \ X]_{\text{통}} \text{---}]_s \end{cases}$$

$$L11 \quad //\text{-도소니}\{\text{오-어}\}// \Rightarrow \begin{cases} //\text{-도소뇨}\text{//} : s[[+의문사] \ X]_{\text{통}} \text{---}]_s \\ //\text{-도소녀}\text{//} : s[[-의문사] \ X]_{\text{통}} \text{---}]_s \end{cases}$$

3.4. //-순다//

다음 (8)은 의문법 종결어미 //-순다//와 어간 //들-//(入)이 통합한 것이다.

(8) 내 이제 너드려 묻노니 ...므슴 方便을부터 三摩地에 드순다<능엄5: 31ㄴ>

그러므로 서술어 ‘드순다’는 ‘드-순다’로 분석된다. 이 분석에서 어간 ‘드-’는 //들-//의 //ㄹ//가 어미초의 //ㅅ// 앞에서 탈락된 것이다. 그리고 종결어미 ‘-순다’는 종래에 선어말 어미 ‘-스-’와 종결어미 ‘-은다’가 통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스’는 앞에 제시된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에 있는 어떤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 통합한 예를 보이지 않는다(허용 1975: 976). 그러므로 그것은 종결어미의 일부이지 선어말 어미는 아니다. 따라서 형태소는 //-순다//가 된다.

3.5. //-어Y//류

다음 (9)은 의문법 종결어미 //-어리{*오-어}//에 어간 //머믈-(止), 닛-(忘), 말-(勿), 得ᄃᆞ-, 혜-(念)//가 통합한 것이다.

- (9) a. 竹枝ㅅ 놀애 도티 아니ᄃᆞ니 그룬 빅 톱고 머므러리아<두초21: 19ㄴ>
 b. 쇠오져 흘 저괴 能히 니저리아<두초7: 20ㄴ>
 c. 四座ㅣ 敢히 喧笑호믈 마라리아<두초8: 25ㄴ>
 d. 王이 닛오디 머리를 빌오져 ᄃᆞ노니 得ᄃᆞ야려<남명, 상: 53>
 e. 國體의 安危를 구되여 혜여리아<두초10: 12ㄱ>

그러므로 위의 서술어는 각각 ‘머믈-어리아, 닛-어리아, 말-어리아, 得ᄃᆞ-j-아려, 혜-j-어리아’로 분석된다. 그 결과 3개의 종결어미 ‘-어리아, -아리아, -아려’가 추출된다. 그 중에서 ‘-어리아’와 ‘-아리아’는 ‘두시언해 초간본’에 한정되어 나타나는데, 이 종결어미의 말음절 ‘아’가 ‘(으)리’의 ‘이’ 뒤에서 어미초의 //ㄱ//가 탈락함으로써 종결어미 ‘-가’에서 변한 것이라면, ‘-어리어’와 ‘-아리어’는 각각 ‘-어리아’와 ‘-아리아’에서 변한 것이 된다.

종래에 종결어미 ‘-어리아는 선어말 어미 ‘-어-, -(으)리-’와 종결어미 ‘-아’가 통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어’는 앞에 제시된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 중에서 종결어미

‘-다’와 통합한 예만 보일 뿐 그 외의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 통합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허용 1975: 97). 그리고 ‘(으)리’는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 중에서 종결어미 ‘-라’와 연결어미 ‘-으며’와 통합하는 예만 보일 뿐 그 외의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 통합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허용 1975: 968). 그러므로 ‘어’와 ‘(으)리’는 종결어미의 일부이며 선어말 어미는 아니다.

한편 종결어미 ‘-아려’는 ‘-아리어’에서 ‘이어’가 비음절화하여 이중모음화한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느니어’가 ‘-느녀’로 변한 것과 동일하다. 문 속에 의문사가 없을 때 실현되는 ‘-느녀’에 대하여 문 속에 의문사가 있을 때 실현되는 ‘-느뇨’가 있듯이, ‘-아려’에 대하여도 ‘-아료’가 있을 것이 기대되는데, 15세기 문헌에는 이 종결어미의 사용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16세기 초의 『속삼강행실도』에 “그디 죽고 즈식이 업스니 누을 좃차리오 <속삼강 중, 열: 5ㄴ>”의 서술어 ‘(누을) 좃차리오’에서 분석되는 ‘(쫘)-아리오’는 15세기에 ‘-아료’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아료’와 ‘-아려’를 대표로 하면, ‘-어리어’에 대한 ‘-아리어’가 있듯이, 그들 종결어미 각각에 대하여 교체형 ‘-어료’와 ‘-어려’가 있었을 것이 예상된다.

그리하여 ‘-어료’와 ‘-아료’, ‘-어려’와 ‘-아려’를 공통부분을 기준으로 묶으면 각각 ‘-{어, 아}료’와 ‘-{어, 아}려’가 되며 이 둘을 공통부분을 기준으로 묶으면 ‘-{어, 아}리{오, 어}’가 된다. 여기서 { } 속의 교체음소의 도출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음소가 있다면 그것을 { } 속의 교체음소와 대체한 것이 형태소가 된다. 먼저 교체음소 ‘어’와 ‘아’는 형태음소 //어//의 교체 규칙 P4에 의해서 /아/로 교체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체음소 ‘오’와 ‘어’의 도출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음소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교체형 ‘-어료’와 ‘-어려’가 어휘화한 것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들 어휘화한 교체형을 포괄하는 형태소는 //-어리{*오-어}//가 된다.

복합형태소 //-어리{*오-어}//를 구성하는 어휘화한 교체형은 통사·의미부에서 어휘선택 규칙 L12에 의해 선택된다. 그리고 어미초의 //어//는 음운규칙 P5에 의해서 /아/로 교체된다.

$$L12 \quad //-어리{*오-어}// \Rightarrow \begin{cases} //-어료// : s[[+의문사] \quad X] \text{ 동 } ___]_s \\ //-어려// : s[[-의문사] \quad X] \text{ 동 } ___]_s \end{cases}$$

$$P5 \quad //어// \rightarrow /아/ / X\{아, 으, 오\}(C)] \text{ 동 } ___ Y$$

15세기 문헌에서 발견되는 //-어Y//류에 속하는 의문법 종결어미를 제시하면 (10)과 같다.

$$(10) \quad //-언다//^{22)}$$

3.6. //-오Y//류

다음 (11)은 종결어미 //-오리잇기{오-아}//에 어간 ‘ㅎ-’(爲)가 통합한 것이다.

22) 이 종결어미의 사용 예는 다음과 같다. ㉠. 모디 杜撰을 마롭디니 아란다<몽산 20>, 문노니 그되는 이에 既知ㅎ안다 문ㅎ안다<금삼4: 54>

- (11) a. 어느 모습 어느 헤미 부텨 天倫에 參預호리잇고<능엄5: 29ㄴ>
 b. 현마 七寶로 꾸며도 도타 호리잇가<월곡 상, 기121>

그러므로 위의 서술어는 각각 ‘參預ㅎ-오리잇고’와 ‘ㅎ-오리잇가’와 ‘로’ 분석된다.²³⁾ 그 결과 의문법 종결어미 ‘-오리잇고’와 ‘-오리잇가’가 추출된다. 이 중에서 전자는 문 속에 의문사가 있을 때, 후자는 문 속에 의문사가 없을 때 각각 서술어 어간 뒤에 실현된다. 이들 종결어미는 종래에 선어말 어미 ‘-오-, -(으)리-, -(으)이-’와 종결어미 ‘-고’와 ‘-가’가 통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으)리’와 ‘(으)이’가 선어말 어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오’가 선어말 어미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오’는 앞에 제시된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 중에서 종결어미 ‘-라’와만 통합할 뿐 그 외의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 통합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 역시 선어말 어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오리잇고’와 ‘-오리잇가’는 의문법 종결어미가 된다. 이 둘을 공통부분을 기준으로 묶으면 ‘-오리잇ㄱ{오, 아}’가 되는데 앞에서 { } 속의 교체음소 ‘오’와 ‘아’의 도출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음소가 없다는 것을 논의하였으므로 그 두 종결어미는 어휘화한 교체형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 교체형을 포괄하는 형태소는 //-오리잇ㄱ{오-아}//가 된다. 이 복합형태소를 구성하는 어휘화한 교체형이 통사·어휘부에서 선택되는 어휘선택 규칙은 L13과 같다.

$$L13 \quad //-오리잇ㄱ\{오-아}\} // \Rightarrow \begin{cases} //-오리잇고// : s[[+의문사] X]_{\text{통}} __]_s \\ //-오리잇가// : s[[-의문사] X]_{\text{통}} __]_s \end{cases}$$

15세기 한국어 문헌에서 발견되는 //-오Y//류에 속하는 의문법 종결어미를 제시하면 (12)와 같다.

- (12) //-오리잇ㄱ{오-아}//, //-온가//²⁴⁾

3.7. //-오Y//류

다음 (13)은 //-오Y//류에 속하는 의문법 종결어미 //-오니잇ㄱ{오-아}//가 어간 //뎡-(集), 낱-(産), (뎡)이-, 없-(無), 겨시-(在), (善心)이-//과 통합한 것이다.

- (13) a. 엇던 因緣으로 모든니잇고<법화5: 97ㄱ>
 b. 摩耶婦人이 …엇던 因緣으로 如來를 나쓰뵈시니잇고<석상11: 24>
 c. 무로디 眷屬은 며치니잇고<석상24: 46ㄴ>
 d. 부터 得ᄃᆞ리 잇느니잇가 업스니잇가<법화4: 170>
 e. 스승니미 엇던 사르미완디 우리 地獄門 알퐁 와 겨시니잇가<월석23: 82ㄱ>

23) 분석된 어간 ‘ㅎ-’는 어미초의 //오// 앞에서 어간말의 ‘오’가 탈락한 것이다.

24) 이 형태소에도 어휘화한 교체형 //-온고//와 음운부에서 음운규칙 //우// → /오/ / X{아, 으, 오}(C)]_통. ___Y’에 의해 교체를 보이는 종결어미 ‘-온가’와 ‘-온고’가 사용되었을 것이 예상되지만 그러한 예문은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f. 善心이니잇가 아니잇가<법화7: 20-21>

그러므로 위의 서술어는 각각 ‘몬-으니잇고, 낫-스븍시니잇고, (뎡)이-니잇고, 없-으니잇가, 겨시-니잇가, (善心)이-니잇가’로 분석된다. 그 중에서 서술 어미 ‘-스븍시니잇고’는 선어말 어미 ‘-술-’과 ‘-으시-’와 통합한 것이므로 ‘-술-으시-니잇고’로 분석되므로 종결어미는 ‘-니잇고’가 된다. 그 결과 4개의 종결어미 ‘-으니잇고, -니잇고’와 ‘-으니잇가, -니잇가’가 추출된다. 그 중에서 전자는 문 속에 의문사가 있을 때, 후자는 문 속에 의문사가 없을 때 각각 서술어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뒤에 실현된다. 전자와 후자는 ‘-(으)니잇고’와 ‘-(으)니잇가’로 합쳐지는데, 다시 이것들을 공통부분을 기준으로 묶으면 ‘-{으, 으}니잇{오, 아}’가 된다.

이 종결어미의 형태소는 { } 속의 교체음소가 합당하게 도출될 수 있는 형태음소를 찾으면 그것을 각각 {으, 으}, {오, 아}와 대체한 것이 된다. 그런데 교체음소 ‘으’와 ‘으’의 경우, ‘으’는 ‘으’를 형태음소로 할 경우에 앞에 제시한 음운규칙 P3에 의해서 도출된다. 그러나 교체음소 ‘오’와 ‘아’는 그것들의 도출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음소를 찾을 수 없다. 이 사실은 교체형 ‘-으니잇고’와 ‘-으니잇가’가 어휘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어휘화한 두 교체형의 도출을 설명할 수 있는 형태소는 // -으니잇{오-아} //가 된다. 이들 어휘화한 교체형은 통사·의미부에서 L14의 어휘선택 규칙에 의해서 선택된다.

$$L14 \quad // -으니잇{오-아} // \Rightarrow \begin{cases} // -으니잇고 // : s[[+의문사] \quad X]_{\text{통}}(\text{선어}) \quad]_s \\ // -으니잇가 // : s[[-의문사] \quad X]_{\text{통}}(\text{선어}) \quad]_s \end{cases}$$

15세기 문헌에서 발견되는 // -으Y //류에 속하는 의문법 종결어미를 제시하면 (14)와 같다.

(14) // -으니잇{오-아} //, // -으잇{오-아} //, // -으니{오-어} //, // -으니 //, // -으리{오-어} //, // -으려니{오-*어} //, // -으리 //, // -으리잇{오-아} //, // -으리로소니잇가 //, // -으리로소녀 //, // -을{오-아} //, // -을다 //

형태소 // -으니잇{오-아} //가 서술어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뒤에서 실현되는 것과는 달리, 형태소 // -으잇{오-아} //는 계사 어간 뒤에서 실현된다. ㉠. 내 이젯 몸과 므슴과 는 쯤 이 엇던 物이잇고<능엄2: 45>, 이 구경법이잇가 이 행히시던 道ㅣ잇가<법화1: 64>. 이와는 달리, 형태소 // -을{오-아} //은 동사나 계사 어간 그리고 선어말 어미 뒤에서 실현된다. ㉡. 어느 法으로 어느 法을 得흥고<월석13: 54>, 어느 劫에 功德이 저굄가<월곡 상, 기169>, 荊蠻애 가문 어느 힐고<두초7: 4>, 獄主ㅣ 더 설븐 짜해 읍기싫가 햏야<월석23: 85>, 王이 널오되 어더 보스발까<석상24: 43>. 그리고 형태소 // -으리로소니잇{ *오-아} //는 종래에 선어말 어미 ‘-으리-, -도-, -소-, -(으)니-, -(으)이-’와 종결어미 ‘-고’와 ‘-가’가 통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선어말 어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논의되었다. 이 형태소는, // -으리로소녀 //도 동일하게, 예가 하나 뿐이며 모두 문 속에 의문사가 없는 형식으로 사용되므로 문 속에 의문사가 있고 없고에 따른 구별이 있는지 추정할 수 없어 단일형태소로 제시한다.

한편 형태소 //오니{오-어}//와 //오리{오-어}//에는 //오녀//와 //오려//에 대한 //오냐//와 //오랴//, //오료//에 대한 //오류//가 있어 복수형태소가 인정되지만, 그 수는 매우 적다. 그리고 이표기(異表記)로 //오녀//에 대한 ‘-오니어’와 //오료//에 대한 ‘-오리오’, //오료//에 대한 ‘-오리오’, //오려//에 대한 ‘-오리여’, //오랴//에 대한 ‘-오리아, -오리야’와 //옴기{오-아}//에 대한 ‘-을고, -을가’, //옴다//에 대한 ‘-을따, -을다’가 있다. 그러데 사용 예가 극소수인 //오냐//, //오랴//, //오류//와 이표기형들은 문법적 기능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14)에 제시된 복합형태소를 구성하는 어휘화한 교체형이 통사·의미부에서 선택되는 어휘선택 규칙은 L15-L19와 같다.

$$L15 \quad //오잇기{오-아}// \Rightarrow \begin{cases} //오잇고// : s[[+의문사] \quad X이]_N \quad]_s \\ //오잇가// : s[[-의문사] \quad X이]_N \quad]_s \end{cases}$$

$$L16 \quad //오니{오-어}// \Rightarrow \begin{cases} //오료// : s[[+의문사] \quad X]_동 (선어) \quad]_s \\ //오녀// : s[[-의문사] \quad X]_동 (선어) \quad]_s \end{cases}$$

$$L17 \quad //오리{오-어}// \Rightarrow \begin{cases} //오료// : s[[+의문사] \quad X]_동 (선어) \quad]_s \\ //오려// : s[[-의문사] \quad X]_동 (선어) \quad]_s \end{cases}$$

$$L18 \quad //오리잇기{오-아}// \Rightarrow \begin{cases} //오리잇고// : s[[+의문사] \quad X]_동 (선어) \quad]_s \\ //오리잇가// : s[[-의문사] \quad X]_동 (선어) \quad]_s \end{cases}$$

$$L19 \quad //옴기{오-아}// \Rightarrow \begin{cases} //옴고// : s[[+의문사] \quad X] (선어) \quad]_s \\ //옴가// : s[[-의문사] \quad X] (선어) \quad]_s \end{cases}$$

3.8. //오녀//

다음 (15)는 종결어미 //오녀//에 어간 // (천량)이-, (이습)이-, (頭數) | -, 報體-, 아니-//가 통합한 것이다.

- (15) a. 흐물며 너나뉘 천라이오녀<석상9: 13>
 b. 몸과 모습패 淸淨호리니 흐물며 禪定解脫이 시혹 이슈미오녀<월석23: 94>
 c. 흐물며 이 中엿 生住異滅分劑頭數 | 오녀<능엄4: 102>
 d. 한 數에 디디 아니호시니 흐물며 報體오녀<원각 상1-1: 53>
 e. 흐물며 法 아니오녀<원각 상1-1: 67>

그러므로 위의 서술어는 각각 ‘(천량)이-오녀, (이습)이-오녀, (頭數) | -오녀, (報體)-오녀, 아니-오녀’로 분석된다. 그 결과 종결어미 ‘-오녀’가 추출된다. 종래에 이 형태는 안병

희(1967: 220)와 안병희·이광호(1990: 245)만 반어법의 의문법 종결어미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종결어미를 ‘-이쁘녀’로 보고 안병희(1967: 220)는 서술격 어미 ‘-이’와 의문법 어미 ‘-이쁘녀’가 연결된 것이라 하고 안병희·이광호(1990: 245)은 보조사 ‘잇든’에 계사 ‘이-’와 관정의 의문법어미가 연결된 형태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장윤희(1998: 172)은 ‘-이쁘녀’를 강세 보조사 ‘-잇든’과 감탄조사 ‘-이여’의 통합체로서 결코 어미일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유창돈(1964: 178)은, “흐물며 더운 저글 뿡호미 썩녀<두초7: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쁘녀’를 독립된 형태로 인정하되 계사 어간 ‘이-’와 분리시키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안병희(1967: 220)와 안병희·이광호(1990: 245)은 ‘-이쁘녀’의 계사 ‘이-’와 어미 ‘-이쁘녀’의 통합체를 의문법 종결어미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동작동사 어간 뒤에 선택되는 형태소와 상태동사나 계사 뒤에 선택되는 형태소가 구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L3에서 볼 수 있는 형태소 //으니잇{오-아}//와 //으잇{오-아}//가 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종결어미는 //-이쁘녀//가 되어야 하며 이 종결어미는 계사 어간과 통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장윤희(1998: 172)의 주장에 대한 의문은 그런 주장은 언어 변화, 정확하게 말하면, 형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쁘녀’와 관련된 다른 종결어미, 예를 들면, 다음에 논의할 //-우리이쁘녀//의 존재 때문이다. 형태소 //-우리이쁘녀//에서 ‘우리’를 선어말 어미로 분리할 수 있다면 장윤희(1998: 172)의 주장은 지속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어미의 일부이다. 이것은 ‘우리’와 ‘이쁘녀’가 문법 형태로 되어 형태소의 일부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우리이쁘녀// 전체를 종결어미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9. //-느니이쁘녀//, //-으니이쁘녀//, //-우리이쁘녀//, //-이쁘녀잇가//

다음 (16)은 의문법 종결어미 //-느니이쁘녀//에 어간 //修行호-, 즐기-(喜)//과 종결어미 //-다//가 통합한 것이고 (17)은 의문법 종결어미 //-으니이쁘녀//에 어간 //없-(無), 發호-//가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18)은 의문법 종결어미 //-우리이쁘녀//에 어간 //受持호-, 修行호-, 供養호-//가 통합한 것이고 (19)는 //-이쁘녀잇가//에 어간 //(흙)이-, (드름)이-//가 통합한 것이다.

- (16) a. 늑 위호야 곁히내 니르며 말다히 修行호느니이쁘녀<석상19: 8>
 b. 흐물며 쯔 호웃 모모로 遠離行 즐기시느니이쁘녀<법화5: 85>
 c.俗이 齋戒에도 먹디 아니콘 흐물며 眞實스닷느니이쁘녀<능엄8: 5>,

- (17) a. 흐물며 쯔 因이 업서 本來 잇논 고디 업스니이쁘녀<능엄4: 59>
 b.淨土에 나리니 흐물며 제 菩提心을 發호니이쁘녀<월석23: 76-77>

- (18) a. 信解호 相이 드외니 흐물며 닐그며 외와 受持호리이쁘녀<법화5: 199>
 b.大衆의게 늑 爲호야 곁히야 니르며 말다이 修行호리이쁘녀<법화6: 15>
 c.나 妙法華經을 ... 흐물며 ... 受持호야 種種 供養호리이쁘녀<법화4: 74>

- (19) a. 흐물며 阿羅漢果를 득기 호미이쁘녀잇가<석상19: 4>

b. ㅎ몰며 門戶에 드로미썩니잇가<월석21: 122ㄴ>

그러므로 위의 서술어는 각각 ‘修行ㅎ-느니썩녀, 즐기-시느니썩녀, 眞實스닷-느니썩녀’(16)와 ‘없-으니썩녀, 發ㅎ-니썩녀’(17)로 분석된다. 그리고 ‘受持ㅎ-리썩녀, 修行ㅎ-리썩녀, 供養ㅎ-리썩녀’(18)와 ‘(흙)이-썩니잇가, (드름)이-썩니잇가’(19)로 분석된다. 그런데 분석된 ‘-시느니썩녀’에는 선어말 어미 ‘-(으)시-’가 통합하여 있으므로 그것은 다시 ‘-시-느니썩녀’로 분석되므로 종결어미는 ‘-느니썩녀’가 된다. 그 결과 (16)에서는 종결어미 ‘-느니썩녀’가, (17)에서는 종결어미 ‘-으니썩녀, -니썩녀’가, (18)에서는 ‘-리썩녀’가, (19)에서는 ‘-썩니잇가’가 추출된다.

추출된 종결어미 중에서 (16)과 (19)의 ‘-느니썩녀’와 ‘-썩니잇가’는 다른 교체형이 없으므로 그 자체가 종결어미 //느니썩녀//와 //썩니잇가//가 된다. 이와는 달리, (17)의 종결어미는 교체형 ‘-으니썩녀’와 ‘-니썩녀’를 가지는데 형태소를 //으니썩녀//라고 하면 교체형 /-니썩녀/는 음운규칙 P2에 의하여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18)의 ‘-리썩녀’는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 실현되는 것인데, (14)의 //으리Y//류의 형태소를 고려하면,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으리썩녀’가 실현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8)의 형태소는 //으리썩녀//가 된다.

4. 결론

형태론은 한국어 연구를 위한 바탕이 된다. 형태론에서 형태소가 설정되지 않으면 한국어 음운론이나 한국어 통사론도 제대로 될 수 없다. 변형문법론에 형태론이 제외되면서 한국어 형태론은 음운론 연구자에 의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음운론에서 기저형의 설정은 형태소의 설정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들어 변형문법론의 틀 안에 생성형태론이 등장했지만, ‘단어형성론’에 거의 한정됨으로써 그것은 한국어 형태론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유의하면서 지금까지 필자는 15세기 한국어 의문법 종결어미의 형태론을 변형문법론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위해서 이 글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구조주의 형태론과 변형문법론 속의 생성형태론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기준으로 분석된 형태나 형태소에 대한 한국어 형태론자들의 인식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해결안을 제시하였다.

구조주의 형태론의 문제점으로 형태소 설정과 형태소 표시의 문제를 지적하고 생성형태론의 문제점으로 활용과 곡용의 형태론이 제외된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구조주의 형태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변형문법론적 관점에 따라, 형태소는 모든 표면 이형태의 도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형태소는 //XAY//(단일형태소)나 //X{a-b}Y// (복합형태소)로 표시되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생성형태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국어의 생성형태론은 구조주의 형태론에서 다루던 파생형태론(조어론)과 굴절형태론을 수용하고 파생형태론은 생성형태론을 바탕으로 하되 굴절형태론은 변형문법론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기준으로 분석된 형태와 그 결과에서 설정된 형태소에 대한 한국어 형태론자의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기의 한국어 자체에 존재하는 ‘해당 문제

의 (성립)조건'을 기준으로 분석된 형태나 형태소의 공시성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15세기 한국어의 의문법 종결어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구조주의 형태 분석에서 추출된 선어말 어미를 모두 공시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자는 15세기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로 인정할 수 있는 //오시-//와 //-{ㅅ-ㅈ-ㅊ}을-//과 //-어{잇-(이)시}-//가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를 기준으로 이 시기의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을 정하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설정된 15세기 한국어 의문법 종결어미의 형태소를 어미초의 형태음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ㄱY//류: //-거니{오-어}//, //-ㄱ{아-오}//
- ② //ㄴY//류: //-{ㄴ니}잇ㄱ{오-아}//, //-ㄴ슨다//, //-ㄴ니{오-어}//, //-ㄴ니//, //-ㄴ넛가//, //-{ㄴ-∅}은ㄱ{아-오}//, //-나니{오-*어}//, //-노넛가//, //-논가//, //-{ㄴ-∅}은다//
- ③ //ㄷY//류: //-더니잇ㄱ{오-아}//, //-더니{오-어}//, //-던다//, //-던ㄱ{오-아}//, //-도소니{오-어}//
- ④ //-슨다//
- ⑤ //-어Y//류: //-어리{*오-어}//, //-언다//
- ⑥ //-오Y//류: //-오리잇가//, //-온가//
- ⑦ //으Y//류: //-으니잇ㄱ{오-아}//, //-으잇ㄱ{오-아}//, //-으니{오-어}//, //-으니//, //-우리{오-어}//, //-으려니{오-*어}//, //-우리//, //-우리잇ㄱ{오-아}//, //-우리로 소니잇ㄱ{*오-아}//, //-우리로소니{*오-어}//, //-음ㄱ{오-아}//, //-음다//
- ⑧ //-ㅅ녀//
- ⑨ //-ㄴ니ㅅ녀//, //-으니ㅅ녀//, //-우리ㅅ녀//, //-ㅅ니잇가//

이상의 형태소 중에서 복합형태소를 구성하는 어휘화한 교체형은 통사·의미부에서 어휘 선택 규칙에 의해서 선택되는데 그것은 본론에 제시된 L1-L19와 같고 음운부에서 어미초의 형태음소에 적용되는 음운규칙은 P1-P5와 같다. 끝으로 위에 제시된 15세기 한국어 의문법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기능이나 의미특성을 밝히는 작업은 문법 연구자들이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서울: 탑출판사.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고은숙(2011),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변천』, 서울: 한국문화사.
 김유범(2007), 『중세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서울: 도서출판 월인.
 김정시(1983), 「땃음씨 끝의 사적 연구 -15세기에서 16세기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
 김충희(1972), 「15세기 국어의 서법체계 시론」, 《국문학논집(단국대)》 5-6합병호.

- pp.37-70.
- 안병희(1965), 「후기중세국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학술지(건국대)』 6. pp. 59-82.
- 안병희(1965/75), 「第三章 文法論」, 『國語學概論(講座)』(語文學硏究會 編, 서울: 首都出版社). pp.122-141
- 안병희(1967), 「한국어발달사 중」, 『한국문화사대계(언어·문학사)』 V(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편). pp. 167-261.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안상철(1998), 『형태론』, 서울: 민음사.
- 유창돈(1964), 『이조국어사연구』, 서울: 선명문화사.
-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개설』, 서울: 민중서관.
- 이상일(1960), 「15세기 국어의 활용어미 연구」(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이승녕(1954/61), 『고전문법』, 서울: 을유문화사.
- 이승녕(1961), 『중세국어문법』, 서울: 을유문화사.
- 이승녕(1981/85), 『중세국어문법(개정증보판)』, 서울: 을유문화사.
- 장윤희(1998), 「중세국어 종결 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전상범(1995), 『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 전상범, 김영석, 김진형(공역)(1994), 『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 최명옥(1985), 「서북방언의 문서술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 19세기후기 평북의 주 지역어를 중심으로」, 『방언』 8, pp. 57 - 97.
- 최명옥(2006a), 「활용어간의 공시 형태론: 평북 운전지역어를 중심으로」, 『어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김규철 교수 정년기념 논총)』, 도서출판 역락. pp.393-431.
- 최명옥(2006b), 「국어의 공시 형태론: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 설정을 중심으로」, 『이병근 선생 퇴임기념 국어학논총』, 서울: 대학사. pp.13-39.
- 최명옥(2007), 「한국어 형태론의 문제점과 그 대안」, 『서강인문논총(서강대)』 22. pp.19-52.
- 최명옥(2008:초판1쇄), 『현대한국어의 공시 형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명옥(2009), 「중세한국어 형태론연구의 세 문제」, 『조선반도의 언어와 사회 (유곡행리선 생활력기념논문집)』, 유곡행리 선생 환력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동경: 명석서점. pp. 160-186.
- 최명옥(2009:초판2쇄), 『현대한국어의 공시 형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명옥(2012), 「중세한국어 곡용어미의 형태론과 음운론」, 『진단학보』 115. pp.37-60.
- 최명옥(2014), 「중세한국어 선어말 어미의 형태론」, 『한국어사연구』 1. pp. 191-237.
- 최명옥(2015), 「16세기 한국어의 동사 어간에 대한 공시 형태론: 『순천 김씨묘 출토언간』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사회(서강대)』 26. pp.1-38.
- 최명옥(2016), 「16세기 한국어의 활용어미에 대한 공시형태론: 『순천 김씨묘 출토언간』을 중심으로」, 『한국어사 연구』 2. 181-257.
- 허웅(1975), 『우리 옛말본-형태론』, 서울: 샘 문화사.
- 大塚高信, 中島文雄 監修(1982/83), *The Kenhyusha Dictionary of English Linguistics and Philology* 『新英語學辭典』, 東京: 研究社.
-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Aronoff & Fudeman(2005), *What is Morphology?*,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Bauer, L.(1994), “morphology”, in R. E. Asher and J. M. Y. Simpson (ed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5, Oxford-New York-Seoul-Tokyo: Pergamon Press. pp.2543-2553.
- Beard, Robert(1998), “Derivation”, in Andrew Spencer and Arnold M. Zwicky.(eds)(1998). pp.45-65.
- Bloomfield, L.(1933/66),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ybee(1985), *Morph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이성하·구현정(역)(2000), 『생성형태론』, 서울: 한국문화사.
- Chet, C. & R. Hudson. (2004), “Inflection Morphology in Word Grammar”, In F. Katamba (ed.), *Morphology* vol. 1.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441-467.
- Halle(1973),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formation”, *Linguistic Inquiry* 4, pp.3-16.
- Joseph, Brian D.(1998), “Diachronic Morphology”, In A. Spencer and A. M. Zwicky (eds)(1998), pp. 351-373.
- Matthews(1991), *Morphology*, Cambridge Univ. Press.
- Nida, E. A.(1946/49),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The University of Michigan. 김진형(역)(2000), 『형태론: 단어의 기술적 분석』, 대우학술총서 481 번역, 서울: 아카넷.
- Scalise, Sergio(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Publications. 전상범(역)(1987), 『생성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 Spencer, Andrew and Arnold M. Zwicky.(eds)(1998), *The Handbook of Morphology*, Blackwell.
- Spencer, Andrew(1991), *Morphological Theory: An Introduction to Word Structure in Generative Grammar*.
- Stump, G. T. (1998), “Inflection”, In A. Spencer and A. H. Zwicky(eds)(1998). pp.13-43.

“15세기 한국어 의문법 종결어미의 생성형태론”에 대한 토론문

최 동 주 (영남대학교)

이 논문은 한국어 형태론에 관한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성문법론’의 관점에서 ‘15세기 한국어 의문법 종결어미의 형태소를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 논의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근거로 종결어미의 형태소 설정을 세밀하게 고찰함으로써, 형태소 분석 및 관련된 문법 현상에 관해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논문은 발표자께서 최근 일련의 논의를 통해 밝혀 온, 한국어의 공시형태론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문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몇 편의 연구를 확인하지 못하여, 토론자의 이해가 부족한 점이 적지 않으나, 궁금하게 생각되었던 몇 가지 사항을 밝힘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논문이 기존 논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기존 논의에서 선어말어미로 간주되던 ‘-더-’, ‘-으리-’, ‘-느-’, ... 등을 종결어미의 일부로 분석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는 형태 분석의 훌륭한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기준에 의해 분석된 형태와 그것으로부터 설정된 것을 모두 공시적 형태나 형태소라고 인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해당 시기의 한국어 자체에서 발견된 ‘X의(성립)조건’, 예를 들면, ‘공시적 형태소의 (성립)조건’ 또는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15세기 한국어의 ‘공시적 선어말 어미의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형태소가 선어말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①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어간과 계사어간과 통합할 수 있고 ② 어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결어미 ‘-으니(까), -으며, -고, -다가, -는디, -(다,러)니’와 종결어미 ‘-{다,라}, -(더,러)라, -뇨, -느니라’와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더-’, ‘-으리-’, ‘-느-’, ... 등을 선어말어미에서 제외한 것은 이들이 일부의 종결어미와만 통합할 수 있어 ②를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②의 ‘-더라’와 ‘-느니라’ 등에는 기존 논의에서 선어말어미로 간주되던 ‘-더-’와 ‘-느-’가 포함되어 있어 ‘-더-’와 ‘-느-’는 당연히 이들과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선어말어미가 반드시 위에 제시된 여러 어말어미와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연적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연결어미는 이어진 문장을 구성하므로 종결어미와 달리 선어말어미의 통합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 ‘-니’ 등 일부 어미와만 통합할 수 있어도 선어말어미로 분석이 가능하며, 각 선어말어미의 기능에 따라 어떤 어말어미나 일부 서술어의 어간과의 통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이 쓰리 너희 종가’와 ‘뉘 이 나홀 기리 살 사롭고’의 ‘가’와 ‘고’를 의문법 종결어미로 간주하고 한 형태소의 교체형으로 보았습니다. ‘가’와 ‘고’를 한 형태소의 교체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박재연 2010, 김유범 2008, 2017) 이에 관한 논의는 줄이고자 하나, 앞의 예들에 나타나는 ‘가’, ‘고’가 명사에 통합하였으며, 용언의 어간에는 직접 통합하지 못함에도 종결어미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다른 (의문법) 종결어미와 달리, 이들만 명사와 통합할 수 있으며 용언 어간에 직접 통합하지 못하는 특수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각주 18)과 21)에서 ‘-거시-’와 ‘-더시-’에 대해, 그 자체가 종결어미이거나, ‘-시거-’, ‘-시더-’의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15세기에 이르면서 ‘-거시-’>‘-시거-’와 ‘-더시-’>‘-시더-’의 배열순서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에 이미 변화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변화 이전의 모습과 과도기적인 모습, 그리고 변화 이후의 모습이 공존하는 시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공존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이 논문의 L3와 L15, 그리고 각각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3 \quad \begin{aligned} & //-\text{ㄴ니잇고}// : s[[+의문사] \quad X]_{\text{동(선어)}} _]_s \\ & \{ //-\text{ㄴ니잇가}// : s[[-의문사] \quad X]_{\text{동(선어)}} _]_s \\ //-\text{(ㄴ니)잇} _ \{ \text{오-아} \} // & \Rightarrow \left\{ \begin{aligned} & //-\text{으잇고}// : s[[+의문사] \quad X]_{N _ }]_s \\ & //-\text{으잇가}// : s[[-의문사] \quad X]_{N _ }]_s \end{aligned} \right. \end{aligned}$$

(4) e. 옛던 사르미 이 善知識이잇고<원각 하3-1: 77>

i. 이 究竟法이잇가 이 行하시던 道 | 잇가<법화1: 164>

$$L15 \quad //-\text{으잇} _ \{ \text{오-아} \} // \Rightarrow \left\{ \begin{aligned} & //-\text{으잇고}// : s[[+의문사] \quad X이]_{N _ }]_s \\ & //-\text{으잇가}// : s[[-의문사] \quad X이]_{N _ }]_s \end{aligned} \right.$$

예: 내 이젯 몸과 맛습과는 또 이 옛던 物이잇고<능엄2: 45>

이 구경법이잇가 이 행하시던 道 | 잇가<법화1: 64>

L3은 ‘//-(ㄴY//류’이며 L15는 ‘//-(으Y//류’의 의문법 종결어미로 제시되었습니다. L3의 한 교체형인 ‘-으잇고’, ‘-으잇가’에 대해서는 “//j//로 끝나는 명사와 계사 어간 //이-//와 통합하는 종결어미의 형태소는 //-(잇) _ \{오-아\} //가 된다”고 하고, L15에 대해서는 “형태소 //-(으잇) _ \{오-아\} //는 계사 어간 뒤에서 실현된다.”라고 하였으나, 예문 중 하나가 동일하며, L15의 경우 X의 뒤에 ‘이’가 있음을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여서, 이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L5 //-(ㄴ-∅)은 _ \{오-아\} //와 L7 //-(ㄴ-∅)은 다 //에 대해서, “교체형 //-(은Y//는 동작동사의 어간이나 동작동사와 통합하는 선어말 어미 뒤에서 실현되고 교체형 //-(은Y//는 상태동사나 계사 어간 뒤에서 실현된다”고 함으로써, L5의 경우 ‘-는가, -는고, -은가, -은고’

가 모두 한 형태소의 교체형이며, L7의 경우 ‘-는다’와 ‘-은다’가 한 형태소의 교체형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예에서 보듯이 동작동사의 어간 뒤에도 ‘-은가’, ‘-은고’, ‘-은다’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에는 L5 및 L7의 형식들과는 의미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가. 卽心 疑心은 阿難이 訶마 부테 드원가 訶더니(석상 24,4a)
- 나. 이 이룬 엇던 因緣으로 이룬 相이 現~~호~~고(법화 3:112)
- 다. 大王아 네 나히 며친 曁 恒河스므를 본~~다~~(능엄 2:8b)

(가-다)에서처럼 동작동사에 ‘-은가’, ‘-은고’, ‘-은다’ 등이 통합할 때에는 과거 상황으로 해석되며, ‘-는가, -는고’, ‘-는다’와 의미상 대립되므로, L5 //-(ㄴ-∅)은ㄱ{오-아}//나 L7 //-(ㄴ-∅)은다//의 교체형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는가, -는고’, ‘-는다’와 구별되는 별도의 종결어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오Y//류’에도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의 (가-다)에서처럼 동작동사에 결합하고 과거 상황의 의미로 해석되는 ‘-은가, -은고’, ‘-은다’를 ‘-는가, -는고’ 및 ‘-는다’의 교체형으로 간주되는 ‘-은가, -은고’ 및 ‘-은다’와 별개의 종결어미로 볼 수 있다면, 결론에 제시된 목록 중 ⑦의 //오니잇ㄱ{오-아}//, //오니{오-어}//, //오니//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②와 ⑦의 형태소 설정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3b) ‘摩耶婦人이 …엇던 因緣으로 如來를 나쓰불시니잇고 <석상11: 24>’는 과거 상황이며, (13d) ‘부터 得~~호~~리 잇~~느~~니잇가 업스니잇가<법화4: 170>’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울러 L5와 L7의 ‘-(ㄴ-∅)은’에서, “//오//는 어간말 음절나 선어말 어미의 말 음절이 양성모음소 //아, 으, 오//이면 그 뒤에서 P3의 음운규칙의 적용을 받아 /으/로 교체된다.”고 하였으나, ‘-는가, -는고, -는다’의 ‘ㄴ’가 ‘느’로 실현되는 일은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P3(//오// → /으/ / X{아, 으, 오}(C) | 동/선어. (ㄴ)___Y)가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여섯째, 결론에 정리된 의문법 종결어미의 형태소는 39개에 이릅니다. 의문법 종결어미들의 구별은 ‘의문’ 기능 자체의 특성(판정의문문인가 설명의문문인가?, 직접의문문인가 간접의문문인가?, 2인칭의문문인가의 여부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결론에 제시된 의문법 종결어미들은 ‘느’나 ‘거’, ‘더’, ‘으리’, ‘오’, … 등의 출현 여부가 중요한 구별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법 종결어미들 사이의 차이가 의문 기능보다는 시상이나 서법, 높임 등에 있으며, 이는 ‘-더니잇고, -러니잇고’와 ‘-더니잇가’ 등에 대하여 ‘과거 회상 존대 의문종결어미’(p.12)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와 같이 ‘-더-’, ‘-으리-’, ‘-느-’, … 등을 선어말어미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평서형 종결어미도 그 수가 늘어날 것이며, 이들 사이의 차이 역시 시상이나 서법, 높임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5부

개인 발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현황과 주요 자료

최 경 훈(계명대 동산도서관 사서)

I. 서언

계명대학교는 한국학의 바탕이 기록 문화의 寶庫인 고문헌의 수집에서 시작된다는 취지로 1968년에 도서관 내에 한적실을 설치하였다. 한적실은 1997년에 고문헌실로 확대 개편되었고, 1999년에는 상설전시실과 귀중본실의 설치, 문화재 지정 신청 등을 통하여 전시와 보존, 자료 가치 발굴, 한국학 연구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3년에는 오랜 기간 도서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문헌정보학과 김남석 교수가 소장 고문헌과 고문헌 구입 기금을 기부함에 따라 '碧梧古文獻室'로 명명되었다.

1960년대에 단행본에 포함되어 600여 책의 고문헌으로 시작된 것이 50년 역사가 되어가는 현재는 76,000여 책으로 증가하였으며, 국가문화재(보물) 21종 93책과 대구시 유형문화재 4종 9책을 보유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고문헌 전문 도서관으로 성장하고 있다.¹⁾

고문헌은 선조가 남긴 지혜의 보고이다. 그래서 고문헌을 대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처럼, 우선 후대에 물려주어 후손들도 볼 수 있도록 배려할 책임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 자료로 적극 활용하면서 필요한 가치를 찾아내어 사람들과 공유할 때 고문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동산도서관에서는 자료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 기반 위에 자료 활용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목록을 작성하여 접근점을 제공하고, 전시회 개최, 목록·영인본·도록 등의 책자 발간, 타 기관 전시회 자료 대여 등을 통해서 소장 고문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현재의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존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동산도서관 고문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2007·2008년 수행된 국학기초자료사업이 계기가 되었다. 2년 동안 130건에 대한 전문가의 해제가 이루어졌고, 2008년 10월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서의 자료적 가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도 개최되었다. 동산도서관 소장 지정문화재(장인진), 불경(남권희), 국어사(백두현), 필사본 문집(김영진), 국문시가(권순희), 고전소설(김준형), 간찰첩과 시첩(백승호), 중국고서(박철상)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였다. 위 사업의 결과 개별 해제는 2권의 해제집으로 출판되었고, 논문은 『한국학 논집』 37집(2008)에 수록되었으며, 보완을 거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서의 자료적 가치』(2010)라는 단행본으로도 출판되었다.

국학기초자료사업은 동산도서관 고문헌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접근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사업 이후에도 2011·2012년의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이어져 75건이 해제되었으며, 결과물은 『동산도서관 소장 선본고서 해제집 3』으로 출판되었다. 2014년

1) 고문헌실이 이처럼 성장 발전하게 된 이면에는 역대 도서관장의 관심은 물론, 申一熙 총장의 국학 중시의 고문헌 애호정신에 힘입은 바 크다. 1982년 대구의 고서 애호가였던 이인재 선생의 장서 7,500여 책의 수집이 이루어졌고, 1995년에는 고문헌 수집 특별 지시로 당시 담당자가 전국을 순회하며 한 해 동안 고문헌 6,036책이 수집되었다.(장인진, 2015. 「고문헌실의 역사와 현황, 연구발전 방향」, 『한국학연구원 기획학술대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학술적 가치』, 7-10쪽. 참조)

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학술적 가치(2014)’라는 주제로 동산도서관 소장 개별 고문헌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고문헌실의 역사와 현황, 연구 발전 방향(장인진)’이라는 기초 발표와 숙취신한첩(백두현), 광주이씨家 고서(김영진), 사마방목(최경훈), 잡훼원집(이상동), 허주산고(임규완), 국조화장록(박철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한국학논집』 59집(2015)에 수록되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지원은 동산도서관의 고문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제공해 주었고, 해당 결과물이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알려지면서 동산도서관의 고문헌은 현재의 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어학 분야를 비롯하여 역사, 지리, 경학 등 지난 연구와 해제에서 다루지 못한 분야도 있고, 동산도서관 소장 고문헌이 76,000점 넘는 방대한 양이라는 점에서 아직 해당 분야 전문가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자료들이 많다.

여기에서는 동산도서관 고문헌 수집과 장서 구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정리나 전시 준비 과정에서 발견한 주요 자료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I. 동산도서관 소장 고문헌 개괄

1. 고문헌 증가 현황

동산도서관의 고문헌은 처음에 단행본과 함께 관리되었다. 그러다가 1969년 9월에 군위 한밤마을 오산 홍정수(1878-1965) 선생의 고서 1,800여 책을 손자 홍영석 교수가 기증하면서 고문헌은 별도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²⁾ 오산문고 유치는 한적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에는 오산문고 이외에 약간의 고서가 수집되어 모두 1,870책 정도의 규모가 되었다. 이후 1973년 무렵에 한적실에 전임 직원 1명이 배치되면서 구입과 기증의 방법으로 고문헌 수집이 시작되었다.³⁾

1970년대에는 안동댐 수몰과 도시 이주 등으로 고문헌 공급이 증가하면서 주로 안동과 대구의 고서점을 통하여 수집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16,000여 책이 증가하여 1980년까지 18,000여 책의 고서를 보유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한적실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에는 16,000여 책이 증가하여 1990년까지 35,000여 책의 고서를 보유하였다. 1982년 학자이자 장서가였던 이인재 선생의 고서 7,540책이 입수되면서 고문헌의 질적 양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⁴⁾ 장서량이 증가하면서 자료 활용도 또한 높아졌고, 소장 자료에

2) ‘오산문고’로 관리되고 있다. 이 오산문고 자료를 시작으로 고서 등록번호 앞에 영문 ‘A’를 붙여 별도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도서관 등록 자료 가운데 고문헌이 별도로 등록 관리되는 시작이었다. 그런데, 고문헌 가운데 국내단행본에 붙이는 영문 ‘K’로 시작하는 책이 610권 가량 고문헌 서고에 있었다. 그 책이 바로 고문헌을 별도로 등록 관리하기 이전에 단행본과 공존했던 초창기의 고서들이다.

3) 기증 자료로는 1974년 6월에 이장연 선생의 중국고서 280책[일청문고], 1975년 8월에 군위 한밤마을 우신 홍일흠(1896-1972) 선생의 고서 500여 책[우신문고], 1977년 5월에 종중손 이원주 교수가 기증한 향산 이만도 선생의 문집 책판 560판 등이 있다. 한문교육과 이원주 교수는 직접 자료를 기증하는 한편, 수집에 대한 다방면의 자문 등을 통하여 고문헌 구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문헌정보학과 김남석 교수는 도서관장(1970. 8.-1979. 2.)으로 재직하면서 고문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원주 교수와 전국을 다니며 고문헌을 수집하는 한편, 행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김남석 교수는 2003년 정년퇴직을 하면서 고문헌 26책과 고문헌 구입기금 1억원을 기부하여 지금도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영남 지역 자료를 대상으로 계속 수집, 기증되고 있다.

4) 귀중본으로 등록된 848책 가운데 523책이 이인재문고본이고, 국가 및 지방문화재 25종 102책 가운데

대한 정보 제공 요구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1987년 5월에 30,000여 책에 대한 『古書目錄』⁵⁾을 무료 배포하여 한국학 연구에 기여하였다.

1990년대는 25,000여 책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시기로 2000년까지 61,000여 책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4년 동안 2,000여 책이 수집된 반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 동안 23,000여 책이 수집되어 연평균 4,000책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 고문헌 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1995년 3월 신일희 총장의 고문헌 수집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특별예산을 지원받아 1995년 한 해에만 6,000여 책이 수집되었다.⁶⁾

2000년대는 10,000여 책이 수집되었으며,⁷⁾ 2010년대는 2016년까지 4,700여 책이 수집되었다. 이 시기에는 다른 시기보다 기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1,100여 책의 기증되었다. 2004년 인재 최현 선생의 『詔齋先生文集』 책판 103점(피아노과 김난희 교수 기증 주선), 2009년 조동일 석좌교수 기증 고문헌 123점, 계명문화대학 이동순 교수 기증 고문헌 239점, 대명동에 거주하던 신범용 선생 기증 고문헌 378책 등이 대표적이다.⁸⁾

2. 고문헌 현황

동산도서관 등록 고문헌은 2016학년도 기준으로 76,530점(고서 72,849점, 고문서 3,012점, 목판 669점)이다.

1) 고서

계명대학교 소장 고문헌의 대부분은 95.2%를 차지하는 고서이다. 우선 주제별로 보면 문학서가 가장 많아 절반 가까운 30,000여 책인데, 그 가운데 한국인 문집이 24,000책으로 전체 고서의 33%이다. 그리고 역사 분야가 24,000여 책인데, 그 가운데 족보가 14,000여 책으로 전체 고서의 19.5%이다. 한국인 문집과 한국 족보가 절반 이상인 52.5%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인물과 가계 연구에 풍부한 자료를 갖추고 있다.

한국인 문집을 판본별로 보면, 금속활자본 698책, 목판본 9,117책, 목활자본 5,783책, 석판본 4,408책, 연활자본 1,885책, 영인본 224책, 필사본 1,864책의 구성을 보인다. 금속활자본은 무신자, 임진·정유자, 운각자, 현종실록자 등 조선 후기 활자로 찍은 책들이고, 목활자본도 대부분 조선 후기의 인본들이다. 목판본 가운데 임란 이전 간본이나 유일본이 많으며, 필사본은 간본을 그대로 베낀 전사본도 있으나 상당 부분이 간행을 위한 교정본 또는 미간행 원고본들이다.

<표 1> 고서 주제별 현황

주제	수량(책)	비율(%)	비고
000(총류)	1,697	2.3	백가사전류

18종 95책이 이인재문고본으로 동산도서관 고문헌의 핵심장서로 평가된다.

- 5)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편. 1987. 『古書目錄』. 계명대학교 출판부.
- 6) 장인진. 2015. 「계명대 동산도서관 고문헌의 활용과 연구 방향」. 『한국학논집』 60. 155쪽.
- 7) 2006년도에 교육부 ‘역사자료정보화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동안 등록되지 않고 관리되던 고문서 2,354점과 목판 665점 등 3,019점의 등록과 정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에는 단행본으로 등록되어 관리되던 고문헌 자료 612점의 고문헌 등록이 이루어졌다. 3,600여 점이 기존에 있던 자료의 고문헌 등록이기 때문에 실제 수집은 6,400여 책이다.
- 8) 기증 자료는 기증코너로 별도 분리하여 관리되며, 상설전시실에 순회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100(철학)	9,520	13.1	경서 6,361책, 한국·중국 철학 2,000책, 풍수지리 300책
200(종교)	1,837	2.5	불교 1,586책, 기독교 182책
300(사회과학)	1,176	1.6	서원 331책, 법률 149책, 방목류 218책, 병서 97책
400(어학)	1,105	1.5	
500(순수과학)	386	0.5	
600(자연과학)	1,151	1.6	의서 1,057책
700(예술)	589	0.8	
800(문학)	31,033	42.6	한국인 문집 23,979책
900(역사)	24,170	33.2	족보 14,160책
정리중	185	0.3	
합계	72,849	100	

다음으로 판본별로는 아래의 <표 2>와 같은 분포를 보인다. 이 가운데 금속활자본에서는 갑인자본 등 임란 이전 활자본이 135책, 무신자본 등 임란 이후 활자본이 2,188책이다.

<표 2> 고서 판본별 현황

판본	수량(책)	비율(%)	비고
금속활자본	2,323	3.2	갑인자 34책, 병자자 20책, 무신자 418책, 운각자 480책
목판본	27,464	37.7	중국 2,823책, 일본 246책
목활자본	17,141	23.5	일본 1책
석판본	9,933	13.6	중국 1,850책, 일본 8책
연활자본	7,422	10.2	중국 660책, 일본 26책
영인본	1,163	1.6	중국 610책, 일본 11책
필사본	6,842	9.4	
탁본	130	0.2	중국 46책, 일본 1책
기타	431	0.6	고성경, 등사본, 도활자본, 정리중 도서 등
합계	72,849	100	

2) 고문서

동산도서관의 고문헌 수집은 한국 고서를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문서·목판은 구입보다는 기증에 의해서 수집되었다.

목판은 669매 가운데 향산 이만도 선생의 『향산문집』 556판, 인재 최현 선생의 『인재선생집』 103판, 『경현록』 2판, 『척암선생문집』 1판 등이 있다. 고문서는 3,012점 가운데 간찰이 1,600장으로 53.1%이며, 호구단자 320장, 소지류 180장, 명문(매매) 100장 등이 있다. 고문서 가운데 몇 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예문관개명첩(1893)

1893년 정월에 예문관에서 吏曹의 草記에 의거하여 金致權의 이름을 金昌鉉으로 개명하면서 발급한 첩이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나 관원은 이름을 바꾸자 할 경우 국왕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명첩은 전하는 것이 많지 않으며, 대개 개명의 경우 역적과 이름이 같은 경우 등 사유가 기재되지만 본 문서에는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삼척군수첩문(1903)

1903년 4월에 삼척군수가 생원시에 입격한 金源達에게 보낸 문서로 신묘년(1891)의 사마방목 간행 비용 104냥(1권에 52냥)을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방목 비용 납부 문서는 19세기 후반에 발급된 것만 3종 정도 알려져 있는데, 모두 규장각에서 인출한 방목들이었다. 김원달이 합

격한 1891년 사마시에는 797명이 합격하였다. 모두 이 문서대로 방목을 입수하였다면, 규장각은 방목 판매로 82,888냥의 수익을 남겼을 것이다. 해당 사마방목은 『辛卯慶科增廣司馬榜目』으로 2권 2책의 정리자본이다.

Ⅲ. 주요 자료

1. 지정문화재

동산도서관에서는 1999년부터 문화재 지정 신청을 시작하여 지금은 25종 102책의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문화재가 21종 93책이며, 지방문화재가 4종 9책이다. 이들 지정문화재 가운데 보물 11종에 대해서는 소개된 바 있으며,⁹⁾ 보물 21종에 대해서는 간략한 도록으로 제작되어 배포된 바 있다.¹⁰⁾

<표 3>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지정문화재 현황

	지정번호	문화재명	판본	수량	간행연대	지정연월	비고
1	보물710-6호	東人之文四六(卷7-9)	목판본	1	[1355]	2001. 8.	
2	보물772-4호	金剛經三家解(卷2)	정축자본	1	1482	2001. 8.	이인재문고
3	보물1051-2호	分類杜工部詩諺解(卷11-12)	을해자본	1	1482	2001. 8.	이인재문고
4	보물1320호	禮念彌陀道場懺法(卷7-10)	목판본	1	1376	2001. 8.	이인재문고
5	보물1321호	武藝諸譜翻譯續集	목판본	1	1610	2001. 8.	이인재문고
6	보물1335호	大藏一覽集(卷1)	목판본	1	13세기	2002. 1.	이인재문고
7	보물1369호	翻譯名義集	목판본	8	15세기	2003. 2.	이인재문고
8	보물1463호	龍飛御天歌(卷8-10)	목판본	3	1447	2006. 4.	이인재문고
9	보물1464호	司馬榜目	갑인자본	1	1501	2006. 4.	
10	보물1465호	陶隱先生集	목판본	1	1406	2006. 4.	
11	보물1466호	眞逸遺稿	목판본	1	1467	2006. 4.	
12	보물1629-2호	宸翰帖	친필본	1	17세기	2010. 1.	이인재문고
13	보물1702호	三峯先生集(卷1)	목판본	1	1487	2011. 2.	
14	보물1703호	須溪先生批點孟浩然集	목판본	1	1445	2011. 2.	이인재문고
15	보물1704호	新刊詳明算法	을해자본	1	16세기	2011. 2.	이인재문고
16	보물1705호	阿毘達磨大毘婆沙論(卷38)	목판본	1	11-12세기	2011. 2.	이인재문고
17	보물1706호	集大乘相論(卷下)	목판본	1	11-12세기	2011. 2.	이인재문고
18	보물1707호	大方廣佛華嚴經疏	목판본	41	1087	2011. 2.	이인재문고
19	보물1892호	益齋亂藁	목판본	1	1432	2016. 2.	
20	보물1893호	櫟翁稗說	목판본	1	1432	2016. 2.	
21	보물1894호	退溪先生集	목판본	24	1600	2016. 2.	
22	대구시 55호	大丘邑志	필사본	1	1768	2010. 1.	벽오문고
23	대구시 70호	虛庵遺藁	목판본	1	1512	2013. 10.	이인재문고

9) 장인진. 2008.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보물 11종의 가치에 대하여」. 『2008 한국학연구원 추계 기획학술대회』. 1-25쪽.

장인진. 2008.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보물 도서 11종의 문헌적 가치」. 『한국학논집』 37집. 5-34쪽.

1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2017.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국가문화재 보물 도록(3版)』. 오카디엘.

24	대구시 79호	三國史記	현종실록자본	6	1711	2017. 1.	이인재문고
25	대구시 80호	北征錄	필사본	1	1658	2017. 1.	이인재문고

1) 국가문화재

① 宸翰帖(坤)

효종의 딸인 숙휘공주와 부마 정제현에게 효종, 현종, 숙종 내외 6인이 보낸 왕실의 편지 35편을 모은 첩이다.¹¹⁾ 편지의 편성과 수록 내용에 대해서는 앞장의 서문에 밝혀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집안에 전하던 왕실의 필적으로 첩을 2개 만들었는데, 건(乾)은 사조[효종·현종·숙종·영조]의 한자로 된 어필이고 곤(坤)은 육성(효종·현종·숙종·인선왕후·명성왕후·인현왕후)의 한글 편지이며, 수신자는 숙휘공주와 남편인 인평위 정제현임
- 첩을 만든 이유는 집안에 전해지던 편지의 크기가 고르지 않아 모두 한 곳에 모아 편안히 모시고자 두 첩(한문·한글)으로 장첩함
- 언서첩 끝에는 인현왕후가 친히 만들어 준 비단 주머니 한 쌍을 붙였음
- 후손들은 두 첩을 석실과 금궤에 감추어 보호하여 천지와 더불어 국가와 한가지로 오래 전하도록 해야할 것임
- 1802년 8월에 외손인 정진석이 삼가 기록함

이 『신한첩(곤)』은 단국대 김일근 선생이 1959년 신흥출판사에서 『이조어필언간첩』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첨부하여 영인 출판하여 알려졌다. 왕실 언간첩이 희귀하기 때문에 소개 이후 서예, 국문학 분야의 연구가 있었으며,¹²⁾ 『문헌과 해석』, 『말과 글』을 통하여 일부 언찰이 소개되기도 하였다.¹³⁾

② 삼봉선생집(1465·1487, 보물1702호)

삼봉 정도전의 문집 중간본의 일부이다. 정도전의 문집은 1397년에 강원도 원주에서 2권으로 간행된 것이 초간본이다. 그 뒤 1465년에 증손 정문형이 초간본을 바탕으로 7권본으로 증보하여 경상감사로 있으면서 안동에서 중간하였다. 정문형은 강원도감사로 나갔을 때 증편 추각하였고, 안동 중간본에 합하였다. 동산도서관 소장본은 1487년에 강원감영 추각본으로 전체 8권 가운데 권1의 1책이다.

③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1445, 보물1703호)

성당의 시인 맹호연의 시집이다. 송말 원초의 문인인 수계 劉辰翁(宋)이 批點을 찍고,¹⁴⁾ 成

11) 전문가 연구를 통하여 35편의 편지 중 효종의 편지 2편은 수신자가 인선왕후이며, 인선왕후 편지 처음 2편은 작성자가 장렬왕후임이 밝혀지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김일근. 1957. 『宸翰帖』의 문헌적 가치. 『국어국문학』 21집. 174-176쪽.
 윤경수. 1987. 淑徽宸翰帖의 研究: 가치와 서식을 중심으로. 『외대어문논총』 3집. 157-184쪽.
 김연희. 2003. 『淑徽公主宸翰帖』의 書體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백두현. 2015. 조선시대 왕실언간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한국학논집』 59집. 349-403쪽.

13) 김일근·이종덕. 2000-2001. 17세기 궁중언간-숙휘신한첩. 『문헌과 해석』 11-14집.
 이종덕. 2015-2016. 말글연구-효종의 한글 편지 등. 『말과글』 143-145·148호.

14) 유진웅은 송말원초의 문인으로 韋應物(唐), 杜甫(唐), 陳與義(宋) 등 중국 문인의 시문에 대하여 교정, 비점, 평점 등의 방식으로 주석을 하였다. 조선에서 간행된 중국 문인의 시문집 가운데 『須溪先生校本韋蘇州集』, 『須溪先生批點杜工部五言律詩』, 『須溪先生評點簡齋詩集』 같이 유진웅의 주석서가 15세기부터 17세기 초까지 활자본(갑인자, 을해자, 훈련도감자), 목판본(복각본) 등으로 다수 간행되어

彭이 교정하여 간행한 책을 저본으로 신속주의 사촌 형인 신자교(1413-1484)가 글씨를 써서 1445(세종 27)에 남원도호부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간기 부분 일부 몇 글자가 떨어져 있으나 서문(王士源), 본문, 발문(신자교) 등 체제가 갖추어져 있고, 중국책을 그대로 새긴 복각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 판하본을 다시 써서 판각하였다는 사실 등 간행 전말이 발문에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중국본의 국내 출판 양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책이다.

④ 신간상명산법(16세기, 보물1704호)

명나라 학자 安止齋가 편찬한 문답 형식의 수학책이며, 1373년 중국 廬陵李氏의 明經堂 간본(洪武癸丑春 廬陵李氏 明經堂刊)을 저본으로 16세기 중반에 간행된 을해자본이다. 2권 1책 완질본이며, 16세기 인본에서 흔히 보이는 이음 종이를 사용하였다. 을해자본으로는 이 책이 유일하다.

⑤ 대방광불화엄경소(1087, 보물1707호)

송나라 승려 정원(송)이 주본 화엄경을 해설한 책이다. 정원은 대각국사 의천이 송나라에 머물 때 교류한 스승이기도 한데, 고려로 귀국할 때 선물로 받게 되자 비용을 지불하고 항주의 각수에게 판각을 주문하여 다음 해에 고려로 경판 2,900여 판이 전달되었으며, 1372년 변상도가 추가되었다. 이후 일본의 거듭되는 대장경판 요청에 따라 1424년 경판이 일본으로 전해졌으나 전하지 않는다. 전체 120권이나 현재 국내에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것 29권과 동산도서관 소장본 41권만이 전하고 있어 완질을 이루지 못하며 대부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⑥ 익재난고(1432, 보물1892호), 역옹패설(1432, 보물1893호)

익재 이제현의 문집과 시문비평집이며, 두 책은 보통 함께 간행되었다. 1363년 아들 이창로(李彰路)와 장손 이보림(李寶林)이 편집하여 경주에서 간행한 것이 초간본이다.¹⁵⁾ 다음 간행은 세종의 명으로 집현전의 교정을 거쳐 마련한 원고를 강원도 원주에서 간행한 원주간본이다. 계명대 소장본은 바로 원주 간본이며, 『익재난고』 1책(권6-7)과 『역옹패설』 4권 1책이다.

2) 지방문화재

① 대구읍지(1768, 대구시문화재 55호)

1768년(영조 44)에 편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대구의 읍지로 100장 분량이다. 본문은 建置沿革, 郡名, 官職, 姓氏, 山川, 坊里, 學校, 先生案, 科擧, 人物, 題詠, 碑板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선생안은 역대 경상도관찰사가 수록된 營先生案, 대구부사와 판관이 수록된 邑先生案 등이 있는데, 영선생안의 마지막에는 趙暉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1767년(영조 43) 7월에 경상감사에 임명되었고, 후임 감사 李澱은 그해 12월에 부임하여 이 책의 편성 시기를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

② 허암유고(1511, 대구시문화재 70호)

정희량(1469-?)의 문집이며, 친구 이우(1469-1517)가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하여 1511년에 강릉에서 간행한 초간본이다. 정희량은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의주·김해로 유배되었는데, 이 문

조선 문인의 당송 시 이해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15) 이 초간본은 『익재난고』 낙질 일부가 개인 소장, 『역옹패설』 완본이 숙명여대 도서관에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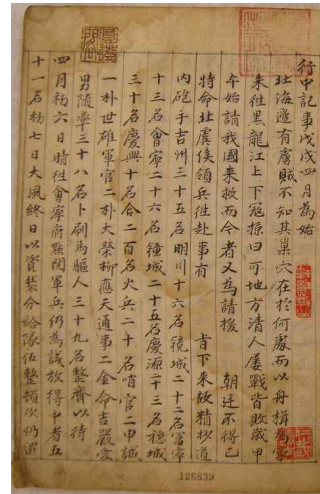
집은 유배지에서 지은 詩가 수록되어 있다.

③ 삼국사기(1711, 대구시문화재 79호)

1711년에 숙종이 아들 연잉군(후일 영조)에게 내린 내사본이며, 전체 10책 가운데 6책이다. 이 『삼국사기』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연잉군이 장서인을 날인했을 때의 의식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잉군은 ‘延祜君房’이라는 자신의 장서인을 날인하면서 내사인이 있는 첫 권은 어보를 피하여 다음 장에 찍었다. 다른 책에는 모두 첫 장에 장서인을 날인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아마도 어보와 동일한 면에 자신의 장서인을 찍는 것은 ‘불효·불충’이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삼국사기(1711, 연잉군 내사)



<그림 2> 북정록(1658)

④ 북정록(1658, 대구시문화재 80호)

1658년에 있었던 제2차 나선정벌 당시 조선군사령관 신유 장군의 일기이다. 청나라는 남하하는 러시아군에 연패하면서 화력을 증강하고자 1654년에 조선에 소총수 100명을 요청하여 남하를 저지한 적이 있었다. 1658년에도 재차 조총수 200명을 요청하였고, 신유 장군은 264명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흑룡강(아무르강)까지 나아가 승전하고 귀국한다. 이 일기는 회령으로 가서 군병을 점검하는 4월 6일부터 돌아오는 8월 26일까지 114일 간의 일정이 일자별로 수록되어 있다. 관점에 따라 가공된 것이 아니라 개인 일기라는 사실성이 담겨 있는 1차 사료로 소중한 역사 자료이다.

2. 비지정 주요 자료

1) 내사본류

내사본은 국왕이 신료나 기관에 승정원(규장각)을 통하여 하사한 서적을 말한다. 하사 대상이 결정되면 해당 정보가 표지 이면에 작성되어 승정원 담당 승지의 확인을 받으며, 이후 어보(내사인)가 날인되어 대상자에게 전달된다.

국왕이 하사하는 서적인 만큼 내사본은 상품의 고급 도서이며, 내사기(첫 권의 표지 이면에 작성되는 문서)는 해당 서적의 출판 연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되는 선본이다. 내사는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서적 유통 시스템인 것이다. 내사기

와 내사인을 갖춘 내사본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442년(세종 24) 무렵에 양성지에게 내사된 갑인자본 『춘추경전집해』이다.¹⁶⁾

동산도서관에는 모두 67건의 내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내사기·내사인을 갖춘 것이 39건, 내사인만 있는 것이 26건, 내사기만 있는 것이 2건이다. 시기적으로는 성종연간의 을해자본 『淸書』, 1585년 성혼에게 내사된 『초결백운가』를 제외하면 1612년 내의원자본 『간이벽온방』부터 1893년 정리자본 『국어』 사이에 하사된 내사본들이다.

① 초결백운가

복송의 서화가 미불(米芾; 1031-1107)이 초서를 배우려는 초학자를 위하여 草聖 왕희지의 글자를 집자하여 만든 서첩이다. 초서 입문서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간행되어 대부분의 기관에서 탁본, 사본 등으로 소장하고 있다.

이 책은 연두색 비단 표지로 된 절첩본으로, 표지에는 내사본임을 나타내는 ‘內賜’와 서명인 목서되어 있다. 표지 안쪽에 내사기(萬曆十三年五月日/內賜同知中樞府事成渾草訣百/韻歌一件/命除謝/恩 左副承旨臣李[花押])가 있고, 권수면에 내사인이 찍혀 있다. 본문은 완전하지 못하고 7장만이 남아 있으며, 본문 끝에 간기(嘉靖庚子春三月望書石)가 있다. 뒷표지 이면에는 목서 발문이 1장(가로 73.0cm, 세로 25.4cm) 붙어 있다. 성혼(1535-1598)의 외손 윤선거(1610-1669)가 1666년(숙종 7)에 쓴 친필 발문이다. 발문 본문에 外祖, 宣廟 등의 글자는 행을 바꾸어 한 두 글자를 올리거나 한 칸을 띄워서 존대를 하고 있다.

발문에 기록된 내용은, ‘이 책은 외조인 우계 선생이 선조 때에 내사 받은 책이며, 전란으로 잃어버려 자손들도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우연히 朴東休로부터 경성 金某의 집에 이 책이 있고 다른 초결백운가가 있어야 바꿀 수 있다고 하자 李舜岳¹⁷⁾에게 부탁하여 그의 집에 있는 책을 가지고 박동휴를 통하여 바꾸어서 소장하게 되었다’는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윤선거는 첩을 받아 보고 전체 36엽 가운데 23엽이 결락된 것을 알고 슬프고 애석하게 생각하였고, 비서관에서 새로 석각한 것을 찾아 탁본하여 빠진 것을 보충하고, 또 별도로 하나를 장정하여 이순악에게 보답하였음을 적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7장이 남아 있다. 이 발문은 그의 문집인 『노서선생유고』 권16에 「牛溪先生受賜草訣帖跋」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정몽주 학맥의 적통을 잇는 우계 성혼이 선조로부터 하사받은 내사본이라는 점과, 우계의 외손인 미촌 윤선거가 책의 소장 내력을 기록한 지문이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② 간이벽온방

이 책은 역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것을 수록한 의서로써, 1612년(광해 4)에 형조참의 尹銑(1559-1637)에게 내사된 것이다.¹⁸⁾ 『간이벽온방』은 1524년(중종 19) 관서 지역에 역병이 일어나자 중종이 김순몽 등에게 명하여 언해를 붙여 편찬하게 한 것인데, 이때의 간본은 전하

16) 藤本幸夫. 2010. 「大英圖書館所藏 朝鮮本に 就いて」, 『朝鮮學報』 216. 16-18쪽. (다만, 이 책에는 날짜 없이 ‘內賜 集賢殿副修撰梁誠之/春秋左傳/命除謝/恩/右承旨臣趙[花押]’라는 기록만 있어서 후지모토 선생은 권말의 인출기, 양성지의 관직, 우승지 趙克寬의 관직 등을 감안하여 1442년 9월부터 1443년 2월 사이를 내사된 시기로 추정하였다. 이 책은 대영도서관에서 양장으로 개장될 때 내사기를 오려서 마지막 책의 끝으로 옮겨 붙여져서 날짜가 원래부터 없었는지 오려서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날짜 기록까지 온전한 내사본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大谷大學 소장의 갑진자본 『大同宣府軍門練武圖法』으로 1501년 3월에 理山郡守 李之芳에 내려진 것이 있다.)

17) 李舜岳(1625-1701)은 尹宣擧의 묘인 尹文擧(1606-1672)의 사위로 본관은 龍仁, 字는 汝詢이며, 號는 竹牖임. 1663년(현종 4) 계묘년 식년시에 생원으로 입격하였음

18) 內賜記: 萬曆四十一年正月 日/內賜刑曹參議尹銑辟瘟方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李[花押]

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1578년(선조 11) 정월에 李仲樑에게 내사된 을해자본이 전한다.¹⁹⁾ 그 후 1613년(광해군 5)에 다시 역병이 크게 일어나 이것을 재차 간행하여 내렸는데, 계명대 소장본은 이 때 간행하여 내사한 것 중의 하나이다.

③ 효경언해

주희(송)의 『효경간오』를 언해한 것이다. 선조의 명으로 교정청에서 1585년(선조 18)부터 1590년(선조 23)까지 사서언해와 함께 언해가 이루어져 1590년에 경서자로 인출되어 사헌부장령 張雲翼에게 내사된 것이 일본 존경각에 전한다.²⁰⁾

이 책은 1666년(현종 7)에 仁興君 李瑛(선조의 제13자)의 아들인 朗善君 李俔(1637-1693)에게 내사된 목판본이다.²¹⁾ 참고로 동일 판본으로 좌참찬 송준길에게 내사된 것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²²⁾ 『효경언해』가 내사될 때에는 주희(송)의 『효경간오』를 董鼎(元)이 增註한 『효경대의』도 함께 내사되어 좌참찬이던 송준길²³⁾과 영의정이던 정태화에게 내사된 것²⁴⁾이 전한다.

2) 족보류

동산도서관에는 14,000책이 넘는 족보가 소장되어 있어 질과 양 모든 면에서 가장 풍부한 족보 소장 기관이다. 동산도서관 소장 족보의 현황과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소개된 바 있다.²⁵⁾

동산도서관의 족보 수집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9,000여 책이 수집되어 10,000여 책의 족보를 소장하게 되면서 족보 특성화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명실상부 족보 전문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족보를 수집하고 있다.

1800년 이전에는 족보 간행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현재 전하는 것도 적어 동산도서관에는 1,000책 정도가 있다. 그 가운데 희귀본으로 분류되는 1700년 이전 간행 족보는 40책 정도에 불과하다.

<표 4> 동산도서관 소장 족보(1700년 이전)

	서명	연도	소장사항	판본	간행지
1	眞城李氏族譜	1600	3권 2책	木板本	安東 陶山書院
2	晉陽河氏世譜	1606	2권 2책	木板本	陝川 海印寺
3	淸州韓氏世譜	1617	1권 1책	木板本	淸州 菩薩寺
4	全義李氏姓譜	1634	2권 2책	木板本	
5	義城金氏族譜	1656	1권 1책	木板本	梁山
6	章懿公內外子孫譜	1657	3권 2책	木板本	丹陽

19) 고려대 만송문고(內賜記: 萬曆六年(1578)正月日, 內賜行副護軍李仲樑簡易辟瘟方一件命除謝恩, 都承旨臣尹[花押])

20) 천혜봉,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2002), p.412.

21) 內賜記: 康熙五年十月二十三日/內賜朗善君俔孝經諺解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李[押]

22) 규장각(內賜記: 康熙五年十月二十三日 內賜議政府左參贊宋浚吉 孝經諺解一件 命除謝恩右承旨 臣李[花押])

23) 內賜記: 康熙五年(1666)十月二十三日 內賜議政府左參贊宋浚吉...右承旨臣李[花押](연세대 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고서(좌옹) 172 효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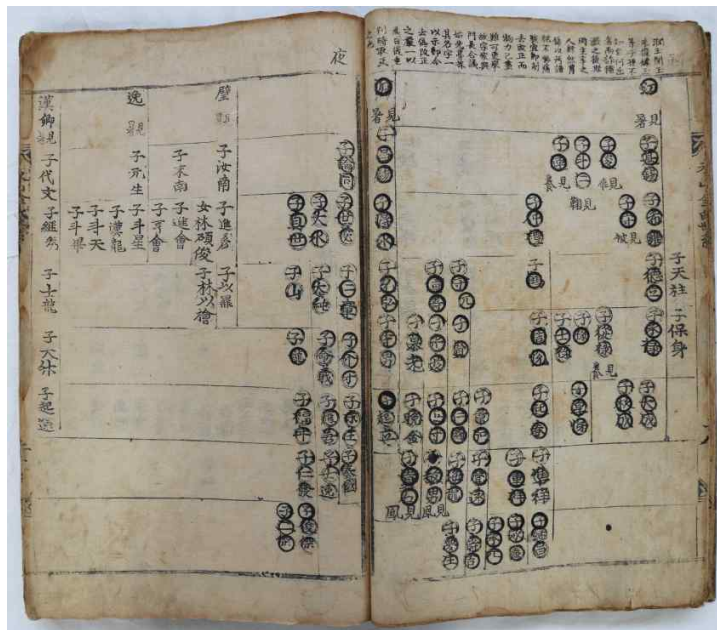
24) 內賜記: 康熙五年(1666)十月二十三日 內賜議政府領議政 鄭太和孝經一件命除謝恩 右承旨 臣李[花押](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古1328-1A)

25) 장인진. 2011.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族譜의 현황과 善本. 『한국학논집』 44집. 7-65쪽.

7	順興安氏族譜	1659	영본 2책(권1-2)	木板本	義城
8	昌原孔氏族譜	1660	1권 1책	木板本	
9	恩津宋氏族譜	1666	1권 1책	木板本	
10	晋州蘇氏族譜	1670	영본 1책(권2)	木板本	羅州牧
11	咸陽朴氏族譜	1678	5권 2책	木板本	
12	潘南朴氏世譜	1683	영본 2책(卷2-9, 別譜 6卷)	木板本	伊川
13	永山金氏世系	1684	1권 1책	木活字本	
14	晋州姜氏族譜	1685	3권 2책	木板本	南漢 天柱寺
15	梁氏大族譜	1686	11권 2책	木板本	
16	幸州奇氏内外子孫譜	1689	4권 2책	木板本	
17	興城張氏族譜	1690	2권 2책	木板本	
18	昌寧曹氏族譜	1693	영본 4책(卷1-2, 卷5-6)	木板本	黃海兵營
19	宜寧南氏族譜	1693	4권 2책	木板本	咸鏡監營
20	星州李氏族譜	1694	3권 3책	木板本	
21	瑞山柳氏重刊別譜	1694	2권 1책	木板本	
22	延安李氏族譜	1694	3권 3책	木板本	平安監營

① 영산김씨세계(1684, 목판본)

김수온(1410-1481)의 후손을 수록하고 있는 영산 김씨의 목활자본 족보로 1684년(숙종 10) 무렵에 편성, 간행되었다.



<그림 3> 영산김씨세계(1684)

권두 11장(鷄林金氏分派錄 3장, 新羅世系 8장), 본문 68장(제19장 결락 제외)과 권말에 1684년에 지은 송시열의 발문 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80장이다.

족보의 편성은 17세기 족보 편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자녀 수록 순서가 태어난 순서를 기준으로 하고, 18세기 이후에 보이는 남성 중심의 족보 편성과 달리 본손 이외에 외손 계열에 대해서도 수록하고 있는 萬姓譜 성격의 족보라 할 수 있다.

이 족보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족보 간행 이후, 가계를 속이고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적발되어 이에 대한 문중의 조치 사항을 별도의 나무판에 새겨 매 해당 면 상단 서미 부분에 찍어 넣은 것이 특징이다. 족보 위장 편입 적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수록되어 있는 재

미있는 족보이다. 위장 편입한 사람은 金潤玉 등 4명으로 모두 김수온의 증손이었다. 족보를 이미 간행하였기 때문에 다시 간행하기에는 물력이 부족하여 이름을 먹으로 지워 표시하고, 다음에 중간할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족보의 해당 면에는 그 후손의 이름에 원형 표시의 도장을 일일이 찍어 표시하고, 해당면의 상단에 동일한 기록을 나무에 새겨 일일이 찍어 표기하였다. 1760년에 간행된 『영산김씨족보』를 보면 해당 인물 4명의 후손은 모두 족보에서 사라지고 없다.

② 서촉명씨세보(1759, 무신자본)

1759년(영조 35)에 무신자로 인출된 족보이다. 족보 간행 방법은 18세기 중반 이전에는 대체로 목판본이었다. 18세기 중반 이후에 목활자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개인이 만든 활자들이었다. 20세기에는 석판본과 연활자본이 등장한다. 동산도서관 소장 족보의 판본 분포도 대략 목판본 480책, 목활자본 8,000책, 석판본 1,400책, 연활자본 2,400책으로 나타난다.

금속활자본은 민간에서 18세기 중반(순조초-고종)에 『선원속보』 등 족보 간행에 주로 사용된 필서체철활자본이 많이 보이고, 간혹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정리자체철활자본도 보인다. 18-19세기 문집 간행에 많이 사용된 운각인서체자본이 간혹 보이지만, 족보의 본문이 아니라 주로 권두 권말의 서발문, 문헌록 등에 사용되는 정도이다. 도서관에서 사용되던 금속활자로 찍은 족보는 아마도 이 책이 유일할 정도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²⁶⁾

이 족보는 그런 점에서 전체를 무신자로 인출하였다는 점과 족보 분송 기록(明氏族譜新刊冊分送錄)이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분송록에는 평산, 경성 등 13 고을에 15부를 보내고 있으며, 적은 수량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²⁷⁾

③ 의성김씨족보(1656, 梁山刊)

이 책은 김왕(1606-1681) 등이 편찬 간행한 의성김씨 목판본 족보이다. 의성김씨는 경순왕의 아들인 金錫을 시조로 하고 있는데, 이 책은 김석의 현손인 金龍庇 후손의 가계를 수록하고 있다. 후손 김왕이 중심이 되어 족보를 편성하여 두었다가 1656년에 김왕이 양산군수로 부임한 후 간행한 것이다.

족보 편성은 외손도 수록한 만성보이며, 남녀 구분없이 태어난 순서로 수록하는 종연차법을 따르는 등 17세기 족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본문의 공란에 기록된 선조 기일 가운데 ‘康熙十九年庚申(1680)十二月望記/ 註書’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어 이 책이 족보 간행자인 김왕이 가지고 있었던 책으로 보인다.

3) 희귀본

① 이학지남

26) 도서관의 활자는 정부에서 서적을 인출할 때 사용되었고, 사사로이 사용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도서관 활자로 민간에서 다수 사용된 활자는 문집을 많이 찍어 문집자라고도 불리는 운각인서체자 정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구자본 『文化柳氏族譜(1688)』이 있으나 한구자는 1677년 무렵 김석주가 개인적으로 만든 활자로 김석주(1634-1684) 사후에 집안에 보관되어 오다가 1695년 정부에서 사들였기 때문에 1688년 인출 당시는 도서관의 활자가 아니라 민간 활자로 보는 것이 맞다.

27) 족보에는 족보 간행의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舊譜 서발문 등이 수록된다. 『西蜀明氏大同譜(1957)』의 경우에도 권두에 구보의 서발문(신사보, 병신보)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 족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이어서 표기된 <舊譜重修來歷>에도 이 己卯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만큼 소량 인출되어 집안에도 전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徐元端(元)이 1301년(대덕 5)에 편찬한 책이며, 관리들이 알아야 할 직무와 행정·법률 규범을 모은 일종의 편람 사전이다. 일찍 우리나라에 전해져 승문원에서 정한 吏文의 학습서나 漢吏學 취재서로도 널리 사용되었던 책이다.²⁸⁾

서문·목록·歷代吏師類錄의 권두, 8권으로 구성된 본문, 李云俊의 발문과 간행 참여자 정보가 수록된 권말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두의 역대이사유록은 송대까지 이름난 관리의 명단이다. 본문은 법전 체제와 상응하는 이전(권1), 예전(권2), 형전(권3-6), 호전(권7), 사례집(권8)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의 형 집행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책의 간행은 경주부윤 柳規가 집에 있던 서적을 내어 경주판관 趙信孫과 논의한 후 1458년(세조 4)에 이루어졌다. 권말의 경주 유학교수관 이운준의 발문에 간행 전말이 수록되어 있으며, 글씨는 경주 유학 안부(安富)가 썼다.

이 책은 1423년에 원나라 법전인 <지정조격>과 함께 50부가 인출되고, 1430년에는 <대명률>과 함께 형 집행의 근거 문헌으로 다루어지는 등 조선의 법전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 책이다. 현재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정도에 소장된 희귀본이다. 그러나 서문이 없거나 발문이 없는 등 완전하지 못한 반면, 계명대 소장본은 서문과 발문까지 완전한 선본이다.

② 신편류취대동시림(병자자본)

이 책은 조선 중기 문인 유희령이 우리나라 문인의 詩를 모은 시선집이며, 1542년(중종 37)에 국왕에게 진상하여 인출된 병자자본의 일부이다.

저자는 기존의 우리나라 시문선집이 잡다하거나 소략하다고 비판하면서 작품 채택의 대상 시기를 고대로부터 당대로까지 확대하고, 대상 작가를 위로는 왕실로부터 아래로는 여성과 승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였다. 이 책은 『동문선』에서 詩를 수록한 것이 19권(권4-22)인 반면에 이 책은 70권으로 3배가 넘는 분량을 수록하고 있고, 문체의 형식 아래에 시대·신분·작자 생몰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독특한 편차 방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한시 연구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문헌이다.²⁹⁾

전체 70권 분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충남대에 5권 2책(권13-14, 63-65), 계명대에 12권 3책(9-11, 31-39)이 전하는 것이 유일하다. 자료의 상태를 보면, 권9-11의 1책은 권9의 앞 5장까지와 권11의 19장 이후로 결락이 있고, 권31-35의 1책은 습취로 인한 전반적인 얼룩으로 배접되고 있으며, 권35의 5장 후엽부터 결락이 있는 점을 제외하면 자료의 상태는 양호하다. 특히 권31-39의 두 책에는 함창(상주) 출신의 학자 채무일(1496-1556)의 장서인(仁川世家·蔡無逸章·居敬)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도 이 책의 가치를 높인다.

③ 우역방

소·말·양·돼지 등 가축의 질병 치료에 관한 수의학서로 완전서명은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이다. 1541년(중종 36)에 평안도 지방에 우역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편성되었다. 이 책은 수의학서이지만, 한문 원문을 제시한 뒤 그 내용을 이두문으로 먼저 번역하고, 다시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 양식을 가지고 있어 국어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다.³⁰⁾

이 책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순서도 섞여 있다. 우선 순서를 맞춰보면 본문은 권

28) 양오진. 2003. 『이학지남』의 성격과 언어적 특징에 대하여. 『중국언어연구』 16권. 274쪽.

29) 황위주. 2009. 신편류취대동시림 해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선본고서 해제집 2』. 241-246쪽.

30) 이은규. 1998. 필사본 <우역방> 연구-이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학』 63호. 48-49쪽.

수제면 제1장을 제외하고 장차 22장까지 온전하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이며, 16장부터 22장까지 7장은 이 간본(1644)에서 추가된 ‘牛疫治療方’이다. 권두 부분은 권응창의 서문(1541) 3장, 최명길의 ‘牛疫方後跋(1636)’ 2장, 이식의 ‘今附牛疫方跋(1644)’ 1장으로 되어 있으며, 서문의 장차는 각각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방점은 없고, 반치음(△)과 옛이음(○)은 보인다. 15장 본문은 을해자본을 그대로 다시 새겼고, 추가된 ‘우역치료방’은 새로 등재본을 만들어 새긴 것으로 보인다.

권두 3개의 서·발문 가운데 1644년 이식이 작성한 발문이 가장 뒤의 것이다. 이식 발문에 따르면, ‘1636-1637년 사이에 우역이 널리 퍼져 태복사에서 치료방 1책을 간행·배포하려 하였으나 병란으로 없어서 전하지 못했고, 1644년에 다시 양서 지역에 우역이 발발하자 교서관에 명하여 나무에 새겨 수백 권을 인출해서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도록 하였으며, 새로 나온 得效方 2-3조를 뒤에 부록하도록 하였다. 앞선 최명길의 발문(1636)에 따르면, 1636년 평안·황해 양도에 우역이 크게 일어나 경기·호서로 번지려 하자 尹義立이 선조가 소장하고 있던 내사본 ‘언해마우치료방’ 1책을 내었는데, 이는 1541년에 왕명을 받들어 편찬하여 1578년에 다시 우역이 발생하여 재간한 내사본이었다.

이 책의 간행에 앞서 1541년, 1578년, 1636년에 각각 간행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의 현존본은 1541년의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오카다 소장의 활자본(현재 소재불명)과 1929년에 오카다본을 필사한 동경대학의 오구라본, 1578년 활자본 2종(고대만송-내사본, 일본 궁내청), 1636년 교서관 간본 1종(오쿠타이라 소장본), 1636년 해주 간본(규장각 일사문고)이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조사되어 알려져 있으나 1644년 간본은 필사본 2종(日本杏雨書屋-三木榮文庫, 영남대)이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¹⁾ 이 책은 처음 발견되는 1644년 교서관 간본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우역방(1644)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 權應昌(朝鮮) 編 - 木板本(乙亥字覆刻) - [한양: 교서관, 1644(仁祖 22)]

1冊 : 四周雙邊, 半廓 21.8x14.9 cm, 有界, 9行17字, 內向混葉花紋魚尾 ; 28.7x18.6 cm

版心題: 牛疫方

序(3장): 嘉靖二十年(1541)十一月二十五日左承旨臣權應昌次知啓依允

跋(1장): 丙子丁丑間牛疫熾染..其時自太僕寺刊行治療方一冊 傳布未廣而 因兵亂蕩佚不傳 今年又疫又發 兩西一時狀聞屬有侍臣之言 上申令該曹卽校局刻板印出數百件 分送州縣而 又以新出得效方二三條 附于後焉...家喻戶飭使擇其中易得材料...順治元年(1644)十二月十五日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

31) 이은규. 2004. 소창문고본 《우역방》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36호. 176쪽.

學...李植書

牛疫方後跋(2장): 上十四年丙子(1636)夏平安黃海兩道牛疫大熾 至秋猶不止 延入京畿以及湖西 朝廷患之 工曹參判尹義立出其先人所藏內賜諺解馬牛治療方一冊 乃嘉靖二十年奉教撰著而 萬曆六年又因牛疫 再刊以頒者也...臣鳴吉 時忝校書提調 實主其劊刷之役 略書其事於卷尾...崇禎九年(1636)九月十七日...崔鳴吉書

4) 필사본 주요 자료

동산도서관 필사본은 6,800책 정도로 전체 고서의 9.4%를 차지한다. 주제별로 보면, 한국인 문집류가 1,864책으로 가장 많고, 역사류 583책, 유교경전류 500책, 시집류 470책, 소설류 443책, 족보·가승류 265책, 일기·서간류 192책, 의서 122책, 가사류 96책, 서원자료 65책, 읍지 59책 등의 분포를 보인다.

필사본은 오로지 그대로 베낀 전사본도 있겠으나 필사자가 필사한 후에 학습을 하면서 주석을 남기거나 필사 기록이나 장서인을 남기는 등 유일성을 가진다. 특히 조선시대 서적 인쇄가 사회적 합의와 비용 마련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필사본은 조선시대 문화의 좀 더 섬세한 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가운데 성책고문서는 사회경제의 측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이며, 간행되지 않고 참가자 수만큼 제작되는 계(회)첩, 비용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간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간행되더라도 상당 부분이 누락되는 문집의 원고본과 교정본, 개인 일기, 간찰첩 등은 간본 이전의 유일한 자료로 그 가치는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① 소수서원 자료

소수서원은 주세붕이 옛 속수사 터에 1543년 설립한 서원으로 이황이 서적 수집 등 기틀을 마련하여 1550년 사액을 받은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서원은 지역에서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사림 공동체이면서,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지방 사학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서원에는 원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서적, 운영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토지와 노비가 필요했다. 서원에서는 이를 관리하고자 서책록, 전답안, 노비안 등을 갖추어 점검 관리하였다. 동산도서관에는 소수서원의 서책록 2권(1653·1762), 노비안 3권(1677·1762·1783), 전답안 1권(1762)이 있다.



<그림 5> 소수서원 자료(서책록과 노비안)

② 과강강의

이 책은 초계문신³²⁾ 申馥(1753-?)이 1783년 5월부터 1784년 7월까지 四書 課講에 참석하여 정조와 서유방 등 시관의 물음에 답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신복은 평산 신씨로, 字는 英伯이며, 거주지는 안동이다. 1783년 영조를 세실에 모시고 원자를 책봉한 경사로 실시된 증광시에서 진사와 문과에 함께 합격한 인물이다. 『抄啓文臣題名錄』에 계묘년(정조 7) 좌의정 洪樂性이 선발한 16명 가운데 한 명으로 올라 있으며, 별도 문집을 남긴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책에는 본문을 제외하고 서발문 등 여타 기록이 없다. 표지는 ‘奎閣講義 單’이라는 제목과 ‘大學 論語 中庸 孟子’라는 수록 내용이 목서되어 있다. 본문은 ‘癸卯五月朔初次課講講義’라는 권수제로 ‘大學序’부터 시작한다. 사서 순서에 따라 임금과 시관의 물음과 신복의 답변이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임금의 물음에는 ‘御製條問曰’, 시관의 물음에는 ‘試官○○○條問曰’로 시작하고 ‘(臣)馥對曰’의 형식으로 답변한다. 임금의 물음에는 붉은색 선으로 시관의 물음은 남색 선으로 표시하였고, 임금의 물음에는 한 글자를 올려 존대가 적용되고 있다. 붉은색 批點과 남색 비점이 곳곳에 있는데, 붉은 색 비점 옆에 ‘御批’라고 주서되어 있는 것도 있다. 문답 말미에는 ‘御評 多失本旨不’, ‘評 終未通暢粗’, ‘一通二略’ 같은 평가가 있기도 하다.

대학·논어·중용·맹자의 순서대로 매일 초하루에 初次·再次 2차례의 과강이 이루어졌다. 초계문신의 과강 내용은 초계문신이 지은 글이 수록된 『奎華名選』 2종(계묘·신축)에 일부 수록되어 있다. 신복 또한 계묘년 선발 초계문신이라 권9에 그의 글이 수록되어 있고, 부록인 권 17에는 과강에 수록한 글들 가운데 신복의 글도 1편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奎華名選』 賦, 詩, 制, 表 등 다른 글도 1편씩 수록되어 있고, 講義는 <七書講義>라는 제목 아래 각 1편씩만 수록되어 있어 소략하다. 반면 이 책은 1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사서 과강 강의로 내용이 풍부하여 신복 개인 뿐만 아니라 과강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정조 때 일시적으로 진행되었던 초계문신의 과강 강의 책자는 李書九가 1787년부터 1788년까지 과강에 참여하면서 남겨진 『課講講義』 필사본 1책 정도가 규장각 소장본으로 확인될 뿐이다.

<표 5> 申馥 『課講講義』의 구성

과목	일정	기간(개월)	회차
대학	1783. 5. - 1783. 7.	3	6
논어	1783. 8. - 1783. 12.	5	10
중용	1784. 1. - 1784. 윤3.	4	8
맹자	1784. 4. - 1784. 7.	4	7

③ 삼청동도회도첩(三清洞道會圖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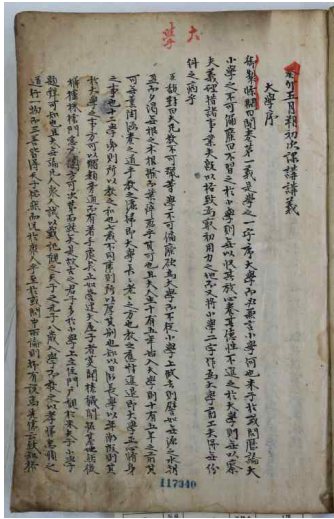
이 첩은 1654년 겨울에 경상도 출신 관료 15인과 생진사 11인이 삼청동(서울)에서 도회를 연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도첩을 1894년에 다시 모사한 것이다.³³⁾ 도회가 열린 것은 이 해에 실시된 과거의 경상도 출신 합격자를 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첩은 특정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설명한 서문, 계획 장면을 그린

32) 정조가 문풍을 진작키 위해 37세 이하의 문신을 뽑아 月講·旬製로 경서와 시문을 익히고 시험을 보며 그 殿最로 상벌을 내리게 한 인재 양성 제도로 선발은 相臣이 맡아서 하였다. 1781년(정조 5)에 시작되어 1800년 정조가 죽을 때까지 10차에 걸쳐 138인이 배출되었고, 그 뒤 중단되었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33) 책 표지에 ‘關逢敦牂(甲午)仲夏摹寫 / 三清洞道會圖帖’라 하여 제목과 함께 갑오년에 모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권말에 수록된 宋鴻來(1876-1948)의 발문에도 ‘다시 모사하고 발문을 쓴다.’는 같은 표현이 나온다.

그림, 참석자의 명단, 행사 중 지어진 시문, 첩의 제작 경위를 설명한 발문으로 구성되며, 보통 참가자 모두 나누어 가지는 기념첩이다.³⁴⁾



<그림 6> 과강강의



<그림 7> 삼청동도회도첩

이 첩에는 행사 취지와 서문 작성의 경위를 설명한 흥여하의 서문이 있다. 흥여하는 영남 선비 26인이 삼청동에서 도회를 열 때 한양에 있었으나 와병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1656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있을 때 행사에 참석하였던 안斗徵과 李英甲이 도첩을 가져와 흥여하에게 보여주었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첩에 서문 몇 자를 쓰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³⁵⁾ 서문에 이어 계획 장면이 채색 그림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 <會案>이라는 제목 아래 참가자 26인의 명단이 신분, 성명, 자, 생년, 본관, 거주지의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명단에 이어서는 첩의 제작 경위를 설명한 송래희의 발문이 있다. 발문에 따르면, ‘宋寅漢이 옥산의 장씨가에서 오랫동안 보관되어 오던 이 첩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8대조 宋世隆(1610-?)이 張舉, 李廷機 등 제현과 더불어 삼청동에서 도회를 열고 성명을 기록하고 흥여하의 서문을 붙인 첩이니, 우리가 다시 모사하여 발문을 쓰기를 위하여 첩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표 5> 삼청동도회 참가자 명단

	신분	품계	성명	나이	자	호	생년	본관	거주	과거이력	문집
1	活人別提	종6	安弘靖	60	靖爾		1595	順興	豊基	생1651	
2	司僕主簿	종6	蔡以恒	59	汝久	五峯	1596	仁川	咸昌		목활자본(1867)
3	前察訪	종6	金玎	59	子鳴		1596	義城	靑松		
4	進士		洪仁量	56	德宇		1599	南陽	義城	진1646/문1657	
5	奉常僉正	종4	金光宇	55	子晦		1600	順天	柒谷	문1624	
6	刑曹正郎	정5	郭弘址	55	子久	太虛亭	1600	玄風	高靈	진1624/문1635	필사본(계유)

34) 이 『삼청동도회도첩』의 경우 안동 군자마을(광산김씨 설월당 종가 전적)에 일본으로 추정되는 첩이 전한다. ‘35.7×19.2cm’ 크기의 채색본인데, 군자마을 선조 가운데 진사 金璫(1633-1678)이 삼청동 행사의 참석자였기 때문에 1부를 받아 집안에 전한 것이다. 이 설월당본의 권말에 “甲午九月初六日會于三清洞”이란 목서가 있어 사마시 합격증 수여(장방) 다음날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씨는 원본과 먹색이나 글씨체가 달라 이후 별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5) 이 서문은 장학(1614-1669)의 『南坡先生文集』 권4의 말미에 <三清洞道會帖序>로 첨부되어 있다.

7	工曹正郎	정5	李廷相	53	立卿		1602	永川	義城	생1630/문1638	
8	前正郎	정5	金注	57	汝定	不求堂	1596	義城	醴泉	생1633/문1639	목판본(1867)
9	新生員		宋世弼	48	公彦		1607	冶爐	星州	양시1654	
10	典牲奉事	종8	韓時重	47	汝任		1608	淸州	晋州	진1648	
11	進士		郭後昌	47	興叔		1608	玄風	大邱	진1646/문1657	
12	生員		權克休	47	時遠		1608	安東	咸昌	생1652/문1657	
13	進士		李壽徵	46	大年	竹軒	1609	慶州	慶州	진1639/문1657	목판(1911)
14	新進士		宋世隆	45	公輔		1610	冶爐	星州	진1654	
15	刑曹佐郎	정6	申瀚	44	景藏		1611	平山	仁同	진1635/문1646	
16	權智學諭	종9	李廷機	42	子愼	漫翁	1613	永川	義城	양시1635/문1648	연활자본(1915)
17	刑曹佐郎	정6	金以載	42	仲厚		1613	義城	尙州	진1633/문1648	
18	禮曹正郎	정5	金堯欽	41	欽之	乖菴	1614	咸昌	榮川	생1642/문1649	
19	戶曹佐郎	정6	權穆	41	泰如		1614	安東	星州	생1639	
20	長興直長	종7	柳埴	40	厚甫		1615	文化	善山		
21	進士		安斗徵	35	景樞		1620	順興	龍宮	진1652	
22	前參奉	종9	張粲	41	聖源	南坡	1614	仁同	仁同	생1642	목판본(1868)
23	進士(新)		李英甲	33	善鳴	野翁	1622	慶州	咸昌	진1654/문1660	목활자본 실기(1937)
24	新生員		權迪	29	啓汝	鳩谷	1626	安東	醴泉	양시1654/문1660	석판본(1941), 필사본
25	進士		金璵	22	明寶	迂軒	1633	光州	醴泉	진1652/문1660	석판본(1926)
26	新進士		李萬榮	45	仁老		1610	星山	醴泉	진1654/문1660	무

④ 택당선생시고간여(澤堂先生詩稿刊餘)

이 책은 李植(1584-1647)의 문집 간행 후에 간본에 수록되지 못한 시문을 모아 별도로 만든 필사본이다. <택당집>의 편찬과 처음 간행은 아들 이단하가 정리하여 1674년 남평(나주)에서 송시열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간행은 1747년에 증손 이기진이 평양에서 간행하면서 초간본에 2편을 추가한 것이다. 추가된 2편 가운데 1편은 <간여>에서 뽑았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간여>는 초간 이후에서 중간 이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의 가치는 당시 한문사대가로 평가되는 저자의 간본 미수록 문장을 모았다는 점과 교정을 거친 자료라는 점이다. 전체 17권 10책(시고 권1-6, 문고 7-15, 별고 16-17)의 완질본이며, 내용별로 묶어 권차를 나누어 필사하고 교정을 한 것은 저자의 문장을 정리하려는 1차적 목적 이외에 간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내용 가운데 1625년, 1627년, 1629년에 저자가 승지로 있으면서 작성한 <정월일기>,³⁶⁾ 병자호란 때(1636. 12. 9.-1637. 2. 20.)까지 남한산성에 있을 때를 적은 <위성일기>, 해서지역에 말을 접열하러 갈 때(1617. 9. 9.-11. 28.) 적은 <정사서행일기>, 정묘호란 때(1627. 1. 16.-3. 25.) 분조를 배종할 때의 기록인 <분조일기> 등의 일기와 저자가 책력에 메모한 내용을 정리한 <잡록> 등은 모두 간본에 없는 자료로 저자 개인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현재 규장각에 낙질 9책, 연세대 도서관에 낙질 1책이 소장되어 있다.

6) 중국, 일본고서

중국고서는 연구자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받지 못했고, 고서 시장에서도 저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중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많은 관심을

36) 수록기간은 1625년(기사) 4월 16일부터 10월 29일, 1627년(정묘) 1월 1일부터 1월 15일, 1629년(기사) 2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정월일기> 말미에는 1686년에 쓴 송시열의 발문이 있다.

받고 있고, 가격 또한 예전과 다르다.

동산도서관의 중국고서는 6,000책, 일본고서는 300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³⁷⁾ 예전에 중국 고서는 고문서·목판과 마찬가지로 구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기증이나 일괄 구입 과정에서 함께 입수된 것들이다.³⁸⁾ 그래서 족보, 문집, 방목 등 장서구성 계획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집했던 것과는 다르다.

동산도서관의 중국고서는 근대 출판물인 석판본·연활자본·영인본이 3,120책으로 중국고서의 52%를 차지한다. 목판본은 2,800책 정도이며, 대부분 명청대 간본이다.

동산도서관 중국고서에 대해서는 중국고서의 가치(서적 유통, 裝幀史)와 함께 다음과 같은 주요 자료 12종이 소개된 바 있다.³⁹⁾

- 元版 『資治通鑑』 1책(영본)
- 『孝順事實(1420)』 10권 5책: 갑인자의 자본, 이상백(1904-1966) 선생 장서인
- 『書集傳(1438)』 1책(영본): 正統三年孟春良旦/三峰葉氏廣勤堂刊
- 『春秋集注(1572)』 30권 4책: 金陵 富春堂 간본
- 『昌黎先生集(명말)』 14책, 東雅堂 藏板
- 『新刊唐荊川先生稗編(1591)』 32책(영본): 文霞閣 간행, 金聖廈(김석주 손자) 장서인
- 『新刻山居四要(1592)』 5권 1책: 文會堂 간행, 南九萬 장서인
- 『陸放翁全集』 50책: 毛晉(1599-1659) 汲古閣 간행, 李瀾(1725-?) 장서인
- 『古文淵鑑(1685)』 6책(영본): 內府 套印本, 李鼎寬·洪哲謨·金翰濟(추사 손자)의 장서인
- 『淳化秘閣法帖考正(1730)』 12권 4책: 集帖의 효시라는 <淳化閣帖> 연구서, 金敬淵 등 장서인
- 『國朝畫徵錄(1739)』 3권 2책: 柳最寬의 책 표지에 추사가 제첨 기록을 남긴 책
- 『積古齋鍾鼎彝器款識』 10권 5책: 吳圭一·劉在韶의 장서인 100여방의 인장 있음

① 효순사실

명나라의 3대 황제인 永樂帝가 효가 백행의 뿌리이며, 萬善의 근원임을 강조하여 史·傳 등 여러 책에 수록된 효행 인물 270명을 찾아 그 효행을 논하고 아울러 행적을 시로 표현하여 엮은 효행서이다.

10권 5책의 중국 목판본으로 四針眼 장정이며, 포갑이 있다. 판심 기준 좌우측으로 습취로 인한 훼손이 있어 이를 배접하였다. 배접 부분은 판심 부분을 포함하여 손상된 부분을 模寫하여 보충하고 있으며, 떨어져 나간 부분, 즉 제1책의 서문부터 권1의 16장까지, 제3책의 끝장, 제5책 권10의 21장부터 23장까지 등은 그대로 模寫하여 보완하고 있다.

편성 순서는 1420년의 <御製孝順事實序(2장)>, 목록(6장)에 이어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각

37) 중국 고서는 한국 고서와 외형적으로 다르다. 우선 크기에 차이가 많이 난다. 중국 고서의 표지는 본문 종지와 별 차이가 없고, 몇 권을 포괄으로 감싸서 보관하며, 종지도 얇은 죽지가 대부분이라 당대에 보고 버리기에 맞을 정도로 보존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 고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표지는 종이를 여러 장 겹쳐 두껍고 능화문이라는 별도 문양을 넣고, 본문의 종지도 도침이 된 양질의 저지를 사용하여 보존에 탁월하다. 형태적으로 많이 다른 중국 고서와 한국 고서가 섞여서 관리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2008년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서의 자료적 가치'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박철상 선생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중국본 고서의 가치'라는 발표는 보존 관리를 넘어 중국고서의 가치를 알리고, 별도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였다. 서가를 돌며 중국 고서를 한국 고서 사이에서 가려내기 시작했다. 중국고서라는 별도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면서 급하게 가려낸 것이 6,000책 정도이고, 많지는 않겠지만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8) 일괄 입수되었던 이인재문고에 중국고서 1,153책, 일본고서 223책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고 안에 원나라, 명나라 간본 등 중국 선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39) 박철상. 200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중국본 고서의 가치. 『한국학논집』 37집. 221-234쪽.

책의 첫 장에 날인된 <朝鮮慶州李氏友絃書樓想白堂藏>, <客燕所得> 등 3개의 장서인을 통하여 이 책이 전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이상백(1904-1966) 교수가 근래에 중국 연경에서 입수한 것이며, 휴정 이인재 선생을 거쳐 계명대에 입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이 책은 『僞善陰鷲』과 함께 1434년(세종 16) 주조된 갑인자의 字本으로 사용되어 고인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며, 국내 유일본으로 그 가치가 있다. 갑인자는 1434년 이후 정유자까지 5회나 추가로 주조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금속 활자이다. 이 뿐 아니라 조선시대 효행서인 『삼강행실도』 등 효행서 편찬에도 참고가 된 책으로도 가치를 가진다.

② 군신도상

이 책은 중종의 명으로 조선에서 편찬된 책이 일본에 전래되어 慶長年間(1596-1614)에 일본의 목활자로 인출된 책이다.

『君臣圖像』은 흥문관대제학 이행 등이 인물을 선정, 약전·찬문을 짓고, 조선의 화공이 도상을 그려 간행되었으며, 1526년 5월에 황헌 등에게 내사되었다.⁴¹⁾ 본문에는 행실도류의 예와 같이 우측에는 인물도상을 넣고, 좌측에는 약전과 찬시를 수록하는 형식으로 군왕 40인과 신하 68인 등 108인이 수록되어 있다. 편찬 목적은 이행의 서문에서 ‘善을 따르고 不善을 경계하고자’ 간행되었으나 조선에서는 이때의 간행 한 차례에 그쳐 그 뒤의 간행은 없었다.

계명대 소장 『군신도상』은 신하 부분으로 3책으로 분책되어 있다. 조선본과는 달리 양각판 화이며, 전체가 두꺼운 종으로 배접되어 있어 종이 식별에 어려움이 있고, 사용된 활자도 을해자와 흡사하지만 을해자보다는 굵고 글자체도 큰 목활자이다. 조선의 활자 조판 방식인 조립식의 특징이 보이지 않아 목판본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책이다. 다행히 이 책의 동일본이 『國立國會圖書館所藏 古活字版圖錄』에 수록되어 있어 일본 목활자본임을 알 수 있었다.⁴²⁾ 일본에서는 이 책이 1651년(慶安 4) 京都에서 다시 개판되기도 하였다.

IV. 결언

이상과 같이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현황과 주요 소장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은 국가 및 지방 문화재 25종 102책을 포함하여 고문헌 76,000여 책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고문헌 전문 도서관이다. 1969년에 오산 흥정수 선생의 고서 1,800여 책이 기증되고, 1973년에 전담 전문 사서가 배치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학교 당국과 역대 도서관장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국 대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고문헌 전문 도서관으로 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다.

동산도서관은 90년대까지 고문헌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었고, 90년대 후반부터 문화재 지정 사업을 진행하여 문화재 관리 기관으로 위상을 높였다. 2007·2008년 수행된 국학기초자료사업을 통해서 전문가의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더욱 대내외에 알려졌다.

고문헌의 증가는 60년대 2,000책에서 출발하여 70, 80년대 각각 16,000책이 증가하였고,

40) 박철상. 200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중국본 고서의 가치. 『한국학논집』 37집. 224쪽

41) 천혜봉. 2003. 『일본 봉좌문고 한국전적』. 민음사. 105-106쪽.

42) 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 1990. 『國立國會圖書館所藏 古活字版圖錄』. 東京: 汲古書院. 326-327쪽.

90년대 26,000책이 증가한 이후 고문헌 가격 상승, 시장 유통 서적의 감소 등으로 수집량이 줄고 있다. 이 가운데 1982년에 수집된 이인재 선생의 장서 7,540책은 고문헌의 질을 높이는 계기였다.

고문헌 구성은, 고서가 72,849책(95.2%)으로 가장 많다. 한국인 문집(24,000책)과 족보(14,000책)가 52%를 차지한다. 판본은 목판본(27,500책), 목활자본(17,100책)이 61%를 차지하고 근대 출판 방식인 석판본(9,900책)과 연활자본(7,400책)이 2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중국고서는 6,000책, 일본고서는 300책 정도이다. 고문서와 목판은 주로 기증에 의하여 입수되었으며, 고문서가 3,012점, 목판이 669매이다.

동산도서관의 주요 자료는 우선 지정 문화재를 꼽을 수 있다. 보물 지정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지정된 것으로는 왕실 연간첩인 『신한첩(근)』, 정도전의 문집인 1487년 추각 목판본 『삼봉선생집』, 맹호연의 시집으로 신자교가 글씨를 써서 1445년 남원에서 간행한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 조선시대 3대 수학 교재로 사용된 16세기 을해자본 『신간상명산법』, 대각국사 의천이 송나라에 판각을 주문하여 1087년에 간행한 『대방광불화엄경소』, 세종의 명으로 집현전에서 교정한 원고본을 원주에서 1432년 간행한 『익재난고』와 『역옹패설』 등이 있다. 대구시 유형문화재로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대구의 읍지인 필사본 『대구읍지』,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귀향 갔던 정희량의 시를 모아 1512년 강릉에서 간행된 목판본 『허암유고』, 1711년에 숙종이 아들 연잉군에게 하사하여 연잉군이 장서인을 남긴 현종실록자본 『삼국사기』, 1658년 제2차 나선정벌의 조선군사령관 신유 장군의 114일간의 참전 일기인 필사본 『북정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내사본은 임금이 하사한 책으로 상품의 고급 도서이다. 동산도서관에는 67건의 내사본이 있으며, 그 가운데 1585년 성혼에게 내사된 후 분실되었다가 외손 윤선거가 다시 찾아 그 사연을 기록한 탁본 『초결백운가』, 1612년(광해 4)에 형조참의 尹銑(1559-1637)에게 내사된 역별 치료서인 내의원자본 『간이벽온방』, 1666년 朗善君 李僎(1637-1693)에게 내사된 목판본 『효경언해』 등이 있다.

족보는 조선시대의 상징성을 가지는 책이다. 동산도서관에는 14,000여 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1700년 이전 족보는 1600년 간행 목판본 『진성이씨족보』를 포함한 22종 40책 정도로 매우 희귀한 족보들이다. 의미 있는 족보로는 위장 편입 후손이 적발되어 이에 대한 조치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1684년 간행의 목활자본 『영산김씨세계』, 족보 중에서는 특이하게 교서관의 무신자로 1759년 15부를 인출했다는 기록이 있는 『서촉명씨세보』, 1656년 양산 군수로 부임하여 평소 정리해 두었던 책을 간행한 목판본 『의성김씨족보』 등이 있다.

희귀본으로는 관리들의 업무 편람 사전이자 吏文 학습서로 사용된 1458년 경주 간행의 목판본 『이학지남』, 유희령이 선집한 우리나라 시선집으로 1542년 인출된 병자자본 『신편류취대동시림』, 가축 질병 치료서로 전하는 간본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1644년 교서관 간행의 목판본 『우마양시염역병치료방』 등이 있다.

유일성이라는 상대적 가치를 가지는 필사본은 대략 6,800책 정도이다. 전사본, 경전이나 시문 등 과거 대비 학습서 등도 있겠으나 한국인 문집류, 성책 고문서, 일기서간첩 등 가치 있는 자료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책 고문서로는 소수서원의 서책록 2권(1653·1762), 노비안 3권(1677·1762·1783), 전답안 1권(1762)이 있으며, 초계문신 申馥이 1783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사서 과강에 참석하여 문답하고 평가받은 것이 정리된 『課講講義』, 1654년 경상도 출신 과거합격자 환영 행사 기념첩을 1894년에 다시 제작한 『삼청동도회동첩』, 택당 이식의 간행 문집에 수록되지 못한 글을 모은 『택당선생시고간여』 등이 있다.

6,300책 정도로 파악되는 중국과 일본 고서는 서적 교류와 유통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중국 고서 가운데는 영락제의 명으로 효자 270명이 수록된 효행서인 명판본이면서 갑인자의 자본이 되었던 『효순사실』, 조선의 책과 활자인쇄술이 전래되어 간행될 수 있었던 16세기 초반의 일본 목활자본 『군신도상』 등이 있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은 지속적인 양질의 고문헌을 수집 보존하고, 연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는 고문헌 전문 도서관으로 변함없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2009.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선본 고서 해제집 1-2』. 계명대학교출판부.
- 김영진 외. 201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서의 자료적 가치』. 계명대학교출판부.
- 박철상. 200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중국본 고서의 가치. 『한국학논집』 37집. 221-234쪽.
- 백두현. 2015. 조선시대 왕실언간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한국학논집』 59집. 349-403쪽.
- 양오진. 2003. 『이학지남』의 성격과 언어적 특징에 대하여. 『중국언어연구』 16권. 273-305쪽.
- 윤경수. 1987. 淑徽宸翰帖의 研究: 가치와 서식을 중심으로. 『외대어문논총』 3집. 157-184쪽.
- 이은규. 1998. 필사본 <우역방> 연구-이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학』 63집. 45-65쪽.
- _____. 2004. 소창문고본 《우역방》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36호. 171-190쪽.
- 장인진. 2008.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보물 도서 11종의 문헌적 가치」. 『한국학논집』 37집. 5-34쪽.
- _____. 2011.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族譜의 현황과 善本. 『한국학논집』 44집. 7-65쪽.
- _____. 2015. 「계명대 동산도서관 고문헌의 활용과 연구 방향」. 『한국학논집』 60집. 155쪽.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현황과 주요 자료”에 대한 토론문

이은규 (대구가톨릭대)

이 논문은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실태를 개관하고 중요한 자료를 가려 그 내용을 분석한 글입니다. 동산도서관에 고문헌실이 만들어진 과정은 물론 그간에 많은 고문헌 자료를 소장하게 된 경과를 밝힌 점과, 잘 알려지지 않은 주요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해제하고 있는 점이 아주 돋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헌과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 정리해 주신 선생님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토론자 입장에서는 국어학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자료가 좀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선생님의 논의가 많은 문헌을 대상으로 서지적 분석을 하고 있어서 토론자로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어 보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동산도서관에는, 『묘법연화경』이나 『범망경』 등 여말선초의 구결 자료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혹시 이 논문에서 언급된 자료 가운데 구결 문헌은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외에, 계명대 소장본으로서 학계에 알릴 만한 국어사 문헌은 없는지요?

2) 1711년에 간행된 『삼국사기』의 연잉군 장서인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책과 달리 “내사인이 있는 첫 권은 어보를 피하여 다음 장에 장서인을 찍”은 것은, 연잉군의 “불효·불충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현상이 다른 문헌에서도 확인이 되는지요?

3) Ⅲ. 2장에서는 ‘비지정 주요 자료’로 개념화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주요 자료’란 서지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될 만하다는 뜻인지요? 그리고 2장에서 분석 대상 자료를 ‘내사본 - 족보류 - 희귀류 - 필사본 - 중국·일본 고서’로 분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아울러 이런 분류가 일반적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내사본 『간이벽온방』 관련

- (1) 이 책을 ‘주요 자료’라고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어학적으로 귀한 자료임에 틀림없으나 선생님께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이 책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 (2) 9쪽 본문 밑에서 넷째 줄에서는 계명대본의 내사년이 ‘1612년(광해 4)’으로, 10쪽 첫째 줄에서는 ‘1613년(광해 5)에 간행한 것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주에 소개된 내사기의 ‘만력 41년’은 1613년 광해 5년이 맞습니다. 앞의 기술이 옳기인지요?
- (3) 확인 차원에서, 계명대본이 ‘훈련도감자본’이 틀림없는지와, 을해자본의 중간본인지 아니면 복각본인지도 판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내사본 『효경언해』 관련

『효경언해』는 존경각본(1590년)과 강희 5년본(1666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규장각본이나 국립중앙도서관본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계명대본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효경언해』 이본들에는 구결이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1666년 간본인 계명대본에도 구결이 기입되어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같은 판본의 이본들과 비교할 때 기입된 구결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6) 희귀본 『우역방』 관련

계명대본 『우역방』은 중요한 발견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본의 계통을 좀더 분명히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644년 간행본은 지금까지 필사본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계명대본은 교서관 간행본으로서, 후대 필사본들의 저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문 14쪽에 제시된 그림과 1755년에 필사된 영남대본을 비교해 본 결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 (1) 계명대본이, “15장 본문은 을해자본을 그대로 다시 새겼고, 추가된 ‘우역치료방’은 새로 등재본을 만들어 새긴 것”이라면 이는 복각본인지 아니면 중간본이라 하는 것이 맞는지 서지학적인 판단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 (2) 계명대본에 추가된 방문의 수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이점은 후대 필사본 계열의 이본을 정리하는 데에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의 추가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이식의 발문에서는 2~3개, 삼목영(1973)에서는 5~6개가 추가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1755년 필사된 영남대본에는 9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된 방문의 내용이 동일한지와 표기 양상의 비교도 필요합니다.
- (3) 그외 1578년 간본과 1636년 간본의 관련성 등 『우역방』 이본들에 대한 새로운 서지 정보나 선생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소한 것입니다만, 11쪽의 『영산김씨세계』와 관련된 기술 중 앞부분의 “족보 위장 편입 적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수록되어 있는 재미있는 족보이다. 위장 편입한 사람은 金潤玉 등 4명으로 모두 김수온의 증손이었다.”와, 끝머리의 ‘1760년에 간행된 『영산김씨족보』를 보면 해당 인물 4명의 후손은 모두 족보에서 사라지고 없다.’의 밑줄 친 부분은 표현상 오해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명대학교 소장본 『(숙휘)宸翰帖 坤』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장요한(계명대학교 국문과)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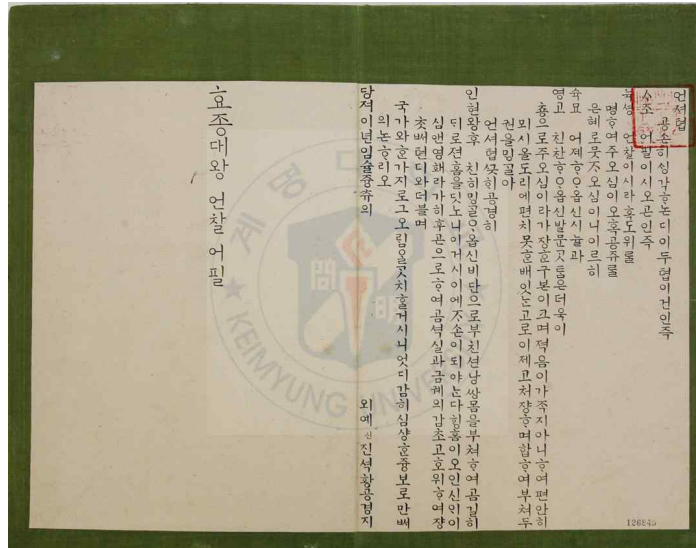
이 글은 계명대학교 동산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숙휘)宸翰帖 坤』에 대해 국어학, 특히 국어사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 통시적 관점에서 주목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이 문헌의 국어사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현재 계명대학교 동산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숙휘)宸翰帖 坤』은 고(故) 김일근 교수가 1959년에 『이조어필언간집』을 발간하면서 판독문이 소개되어 세간에 관심을 받아 왔는데, 『(숙휘)宸翰帖 坤』의 개인 소장자인 이인재(李仁哉)가(대구 소재) 1982년에 계명대학교에 기증하여 동산 도서관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다. 『(숙휘)宸翰帖 坤』은 조선의 국왕과 왕비 등이 작성한 친필 한글 편지로서 한 편 한 편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지난 2010년 1월에 보물 1629호로 지정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숙휘)宸翰帖 坤』은 3인의 국왕과 4인의 왕비 발신자, 즉 효종(2편), 현종(3편), 숙종(6편), 장렬 왕후(2편) 인선 왕후(16편), 명성황후(1편), 인현 왕후(5편)가 출가한 숙휘 공주(淑徽公主, 1642~1696)와 그의 남편 정제현(鄭齊賢, ~1662), 인선왕후(仁宣王后)에게 한글로 쓴 편지이다. 이 편지는 정제현의 5대손인 정진석(鄭晋錫)이 황공경지(惶恐敬識)한 마음으로 편지를 성첩한 것이다.

아래는 신한첩의 서문으로 정진석(鄭晋錫)이 작성한 내용이다.

1) 계명대학교 동산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宸翰帖 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효종의 넷째 딸 숙휘 공주와 그의 남편 정제현이 수신자인 편지를 묶은 책이다. 정제현이 수신자인 1편을 제외한 34편이 모두 숙휘 공주가 수신자인데, 국립청주박물관의 『宸翰帖』과 구분하기 위하여 『(숙휘)宸翰帖 坤』으로 명명하도록 한다. 아시다시피 국립청주박물관의 『宸翰帖』은 표제가 없고 현재의 표제 ‘淑明宸翰帖’은 고 김일근 선생님이 써 붙인 것이다.



[그림 1] 서문

위 서문의 말미에 있는 “당저이년임술중추의 외예신진석황공경지”(當寧二年壬戌仲秋 外裔臣 晉錫惶恐敬識)에서 정제현의 5대손인 정진석(鄭晋錫)이 순조 2년(壬戌) 중추(仲秋)에 성첩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숙휘 공주(1642~1696)는 1653년 당시 12세 나이로 정몽주의 후손인 정제현(鄭齊賢)과 혼인하였다.²⁾ 그런데 남편이 병이 들어 앓다가 1662년 21세 나이로 죽었다. 『보만재집(保晩齋集)』의 인평위 신도비에 실려 있다. 또한 숙휘 공주가 44세가 되던 해(1685년)에 아들 태일이 25세 나이로 요절하였고(1661~1985)³⁾, 첫째 아들과 셋째 딸도 요절하였다.⁴⁾ 이러한 사연들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 『(숙휘)宸翰帖 坤』 문헌의 시대는 17세기 중·후기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숙휘 공주의 5대손인 정진석이 1802년에 성첩한 것은 사실이지만 『(숙휘)宸翰帖 坤』은 숙휘 공주

2) 정제현(鄭齊賢)과 숙휘 공주(淑徽公主)에 대한 『조선왕조실록』 기사 중에 참고할 만한 기사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정제현(鄭齊賢)을 인평위(寅平尉)로 삼아 숙휘 공주(淑徽公主)를 시집보냈는데 제현은 우참찬 정유성(鄭維城)의 손자이다(以鄭齊賢爲寅平尉 尙淑徽公主 齊賢 右參贊維城之孫也)<효종실록 11권: 44a>
- 나.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이 죽었다(寅平尉 鄭齊賢卒)<현종실록 5권: 2b>
- 다. 숙휘 공주(淑徽公主)의 길례(吉禮)를 거행하였다(行淑徽公主吉禮)<효종실록 11권: 50a>
- 라. 숙휘 공주(淑徽公主)가 졸(卒)하였다. 공주는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셋째 딸인데,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에게 하가(下嫁)하였다가 일찍 홀로 되고, 또 아들을 잃었으므로 슬픔이 병이 되어 졸하였다(淑徽公主卒 主 孝宗大王第三女也 下嫁寅平尉 鄭齊賢 早寡 又收子 悲哀成疾卒)<숙종실록 30권: 63a>
- 마. 정건일(鄭健一) 【숙휘 공주(淑徽公主)의 아들이다.】(鄭健一 【淑徽公主之子。】)<숙종실록 65권: 15a>
- 바. 공주(公主)의 아들 정태일(鄭台一)의 초상에 내재궁(內祿宮)과 외재궁을 모두 주었다고 합니다(公主子鄭台一之喪 竝賜內外祿宮)<숙종실록 16권: 31a>

3) 각주 2)의 바에 실어 놓은 실록 내용을 보면 숙종 11년(1685)에 정태일의 초상을 치른 사실을 알 수 있다.

4) 『(숙휘)宸翰帖 坤』에서 인선 황후가 보낸 편지 중 ‘닌상’, ‘티상’, ‘효회’라고 지칭하는 자녀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숙휘 공주의 자녀들이며 ‘닌상’과 ‘효회’는 어려서 죽은 것으로 보인다. 정제두(鄭齊斗)의 『하곡집(霞谷集)』에서 인상과 딸이 어려서 죽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국립청주박물관 편 2011).

가 살아 있는 동안 받은 편지이고 남편의 죽음과 자녀들에 관한 일이 편지의 주 내용인 것으로 보아 이 편지의 문헌적 시대를 17세기 중·후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근대 국어 시기에 국어의 변화는 역동적으로 일어난다. 표기부터 음운, 형태뿐 아니라 통사와 의미의 변화까지 많은 언어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역사적 변화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관계를 말해줄 뿐 아니라 언어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대 국어 국어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17세기 자료인 『(숙휘)宸翰帖 坤』은 근대 국어의 역동적 언어 변화 양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왕실가의 편지라는 점에서 왕실 언어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숙휘)宸翰帖 坤』의 서지 사항과 언어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숙휘)宸翰帖 坤』의 서지 사항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3장에서는 『(숙휘)宸翰帖 坤』의 언어적 특성을 표기와 음운, 형태, 통사 측면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숙휘)宸翰帖 坤』이 국어사적 가치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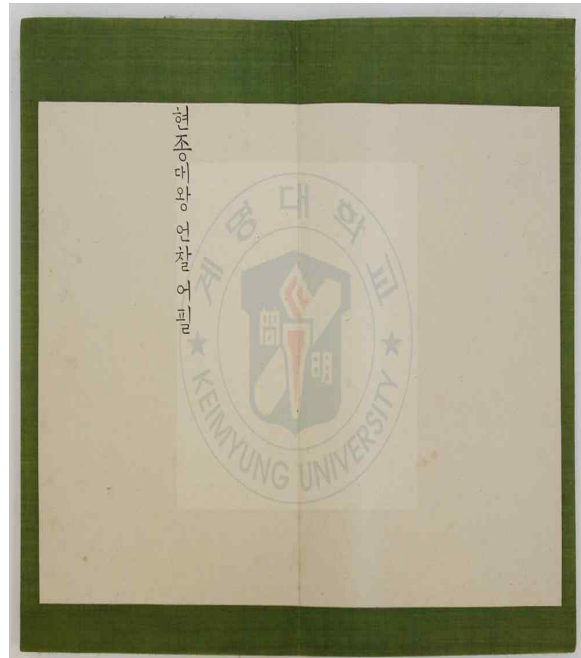
2. 서지상의 특징

『(숙휘)宸翰帖 坤』은 연화문양이 들어 있는 짙은 녹색의 비단으로 만들어진 표지에 『宸翰帖 坤』이라고 필사되어 있고 가로 42.7cm, 세로 26.5cm 직사각형으로 제본되어 있다. 그리고 발신자마다 편지를 구분하여 성첩하였는데 새로운 발신자가 시작될 때마다 이를 아래 [그림 3]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5) 백두현(2015)에서 『(숙휘)宸翰帖 坤』을 ‘조선시대 황실인간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중층론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설정하여 언어문화, 사회문화, 특정문화 차원에서 『(숙휘)宸翰帖 坤』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이 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이 발표문을 준비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서지 사항과 국어학적 특징에 집중하여 다루고자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백두현(2015)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부각하여 제시함으로써 이 문헌의 가치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표지



[그림 3] 내지 표지

『(숙휘)宸翰帖 坤』의 첫 장을 넘기면 서문으로 보이는 부분이 위의 [그림 1]처럼 되어 있다.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것이 ‘언서첩’이라고 쓴 부분인데, 표지의 ‘宸翰帖 坤’와 달리 ‘언서첩’이라 한 것은 한글로 쓴 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즉 표지에서는 왕실의 편지인 것을 드러내고, 서문에서 ‘언서첩’이라 하여 왕이나 왕비, 공주 등이 쓴 한글 편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언서첩’의 첫 문장을 보면 이 책이 ‘건(乾)’과 ‘곤(坤)’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원문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언서첩

공손히 생각하논디 이 두 텃이 건인즉
스조 어필이시오 곤인즉
늑성 언찰이시라

여기에서 ‘스조’는 효종, 현종, 숙종, 영조 4대를 이르는 것인데 이 임금의 편지를 ‘건(乾)’이라 하였고, ‘늑성’은 효종, 현종, 숙종, 인선 왕후, 명성 왕후, 인현 왕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임금과 왕후의 편지를 ‘곤(坤)’이라 하였다. 또한 ‘건(乾)’과 ‘곤(坤)’을 각각 ‘어필’과 ‘언찰’로 달리 표현하고 있다.⁶⁾ 여기에서 계명대학교 소장본이 ‘곤(坤)’에 해당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고(故) 김일근 교수가 초기 연구에서 『(숙휘)宸翰帖 坤』의 발신자를 효종, 현종, 숙종, 인선 왕후, 명성 왕후, 인현 왕후로 본 것도 위의 내용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장렬 왕후가 쓴 두 개의 편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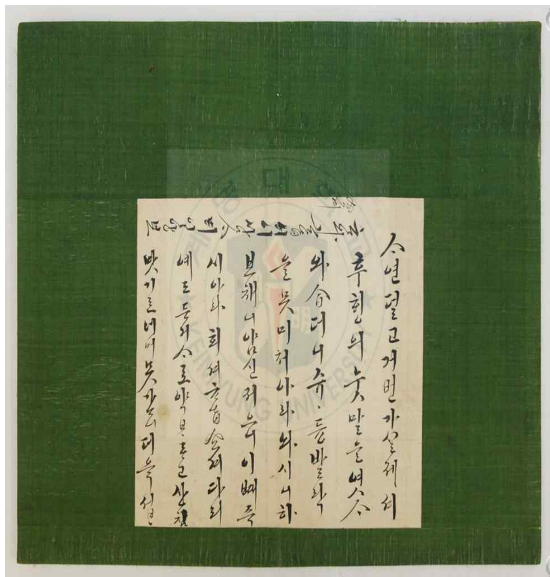
서문의 아래의 내용도 주목된다.

6) 백두현(2015)에서는 이때 ‘건(乾)’은 한문으로 쓴 어필을 말한다고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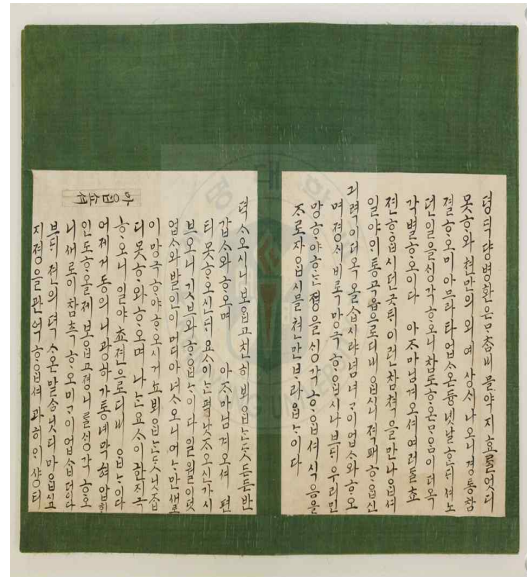
가장한 구분이 크며 적음이 가죽지 아니하여 편안히 피시을 도리에 편치 못한 배 잇는 고로 이제 고쳐 장하며 합하여 부쳐 두 권을 밍글아 …… 즈손이 되야는 다행홈이오 인신의 이심엔 영쾌라 가히 후손으로 하여곰 석실과 금궤의 감초고 호위하여 장쳐 뼈 텨디와 더불어 국가와 한가지로 그 오립을 꺾치힐 거시니

위의 내용에 따르면, 이 첩은 크기가 고르지 않은 언찰을 편안히 모시고자 성첩하였고, 이 첩을 모시고 있는 것은 자손으로서 다행한 일이고 신하된 몸으로서 영화로운 일이므로 낱장으로 있던 편지를 성첩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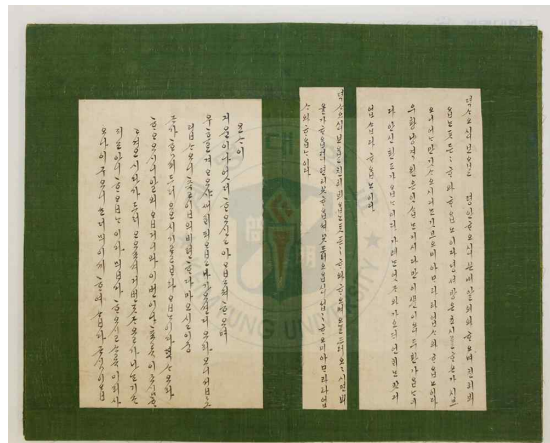
아래 사진은 겉 표지와 내지 표지, 편지의 성첩 방법을 보인 것이다. 편지를 성첩할 때 발신자별로 나누어 1면에 1첩, 혹은 1면에 2첩 내지 3첩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 1면 1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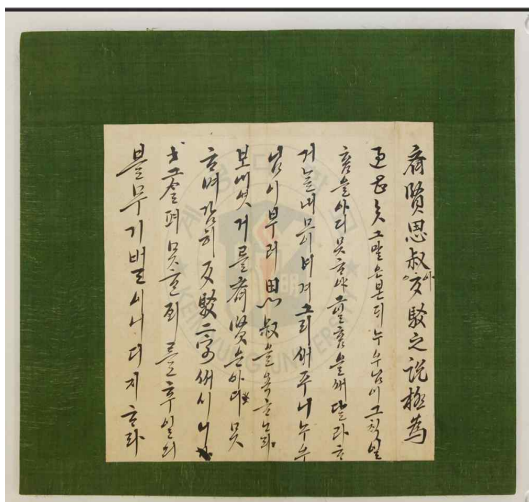
[그림 5] 1면 2첩



[그림 6] 1면 3첩

이 『(숙휘)宸翰帖 坤』에 실린 편지에는 수신자와 발신자, 발신의 연월일이 적혀 있지 않지만 위 [그림 3]처럼 성첩할 때 발신자별로 구분하여 배열하여서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편지에 실린 사건을 통해서 편지의 작성 시기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호칭이나 문장의 높임 표현, 편지에 담겨진 사연 등을 통해서도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별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다. 우선, 발신자가 현종인 3편이 주목된다. 현종의 3편 중에서 1편은 인평위 정제현에게 보낸 것이고 나머지 2편은 자전인 인선 왕후에게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편지 내용의 호칭이나 문장의 높임 표현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현종의 편지(수신자: 정제현)



[그림 8] 현종의 편지(수신자: 인선 왕후)

위 [그림 7]의 앞 부분 ‘齊賢 思叔아’에서 현종이 정제현에게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다. 즉, 편지의 앞 부분의 호칭 표현을 통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숙휘 공주가 아니고 부마 정제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신자가 정제현인 것은 이 편지가 유일하다. [그림 8]은 현종이 인선 왕후에게 보낸 것인데 이 편지도 후반부에 기술된 ‘즈던하’라고 부르는 호칭 표현과 ‘굵굵흐읍더이다’와 같은 높임 표현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한편, 인선 왕후로 분류된 편지 중에서 앞의 두 편은 장렬 왕후가 쓴 것으로 판명되었다 (김일근 1991, 김연희 2003 참고). 김일근(1959)에서는 장렬 왕후(2편)을 알아내지 못하고 인선 왕후 편지로 분류하였는데 내용과 자형 등을 통해서 초기 인선 왕후 편지로 분류된 것 중 맨 앞의 2편이 장렬 왕후 편지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아래는 김연희(2003:36)에서 제시한 『(숙휘)宸翰帖 坤』의 자형인데 이를 통해서 인선 왕후와 장렬 왕후의 자형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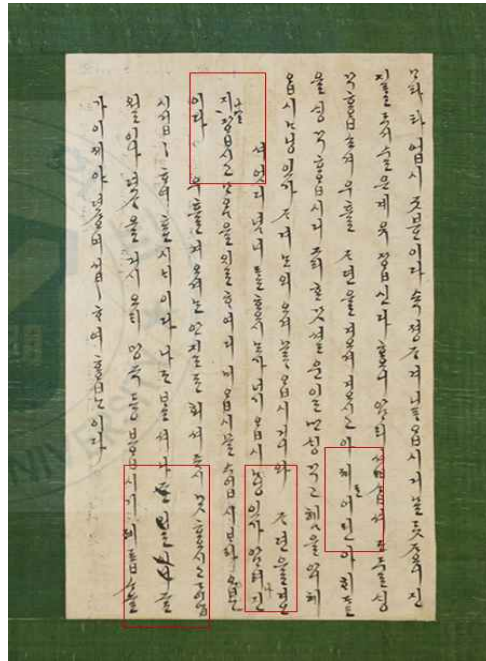
[그림 9] 김연희(2003:36)에서 제시한 자형의 모습

이를 종합하여 『(숙휘)宸翰帖 坤』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숙휘)宸翰帖 坤』의 발신자와 수신자

구분	발신자	수신자
효종 2편	효종	숙휘 공주
현종 1편	현종	정제현
현종 2편	현종	인선 왕후
속종 6편	속종	숙휘 공주
장렬 왕후 2편	장렬 왕후	숙휘 공주
인선 왕후 16편	인선 왕후	숙휘 공주
명성 왕후 1편	명성 왕후	숙휘 공주
인현 왕후 5편	인현 왕후	숙휘 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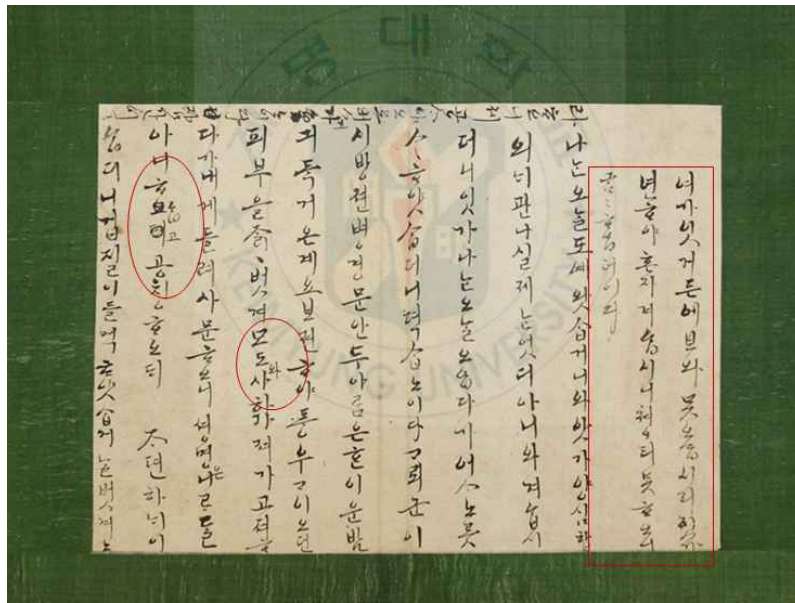
다음은 편지를 작성하고 수정한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편지를 작성하고 나서 빠뜨린 글자를 나중에 추가로 새겨 넣거나, 작성하다가 몇 자를 지우고자 할 때는 붓으로 글자에 선을 그어 표시하였다.



[그림 10] 명성 왕후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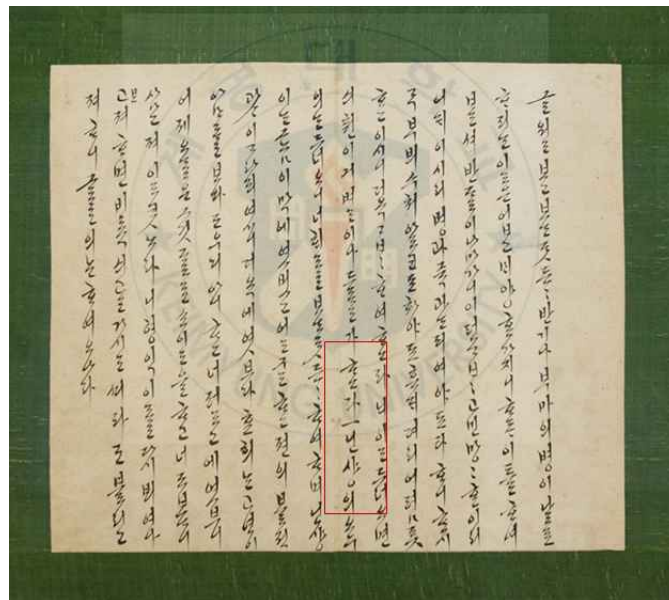
아래의 현종 두 번째 편지에서도 빠뜨린 글자를 글자 사이에 새겨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에서 ‘아래로’에서 ‘로’를 새겨 넣었고 ‘아므려나’에서 ‘나’를 새겨 넣었다. ‘글월이나’에서는 글자를 지우려고 붓으로 그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오른쪽 여백에 편지의 뒷부분이 들어간 편지이다. 『(숙휘)宸翰帖 坤』에서 편지 내용이 지면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면의 윗부분에 새겨 넣었는데 아래 현종의 편지는 윗부분도 부족하여 오른쪽 여백에 남은 부분을 새겨 넣었다. 이 편지는 작성 전부터 오른쪽 여백을 많이 남겨놓아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 글을 새겨 넣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림 11] 현종의 두 번째 편지

다음은 편지 중간에 ‘一’이 표시된 부분을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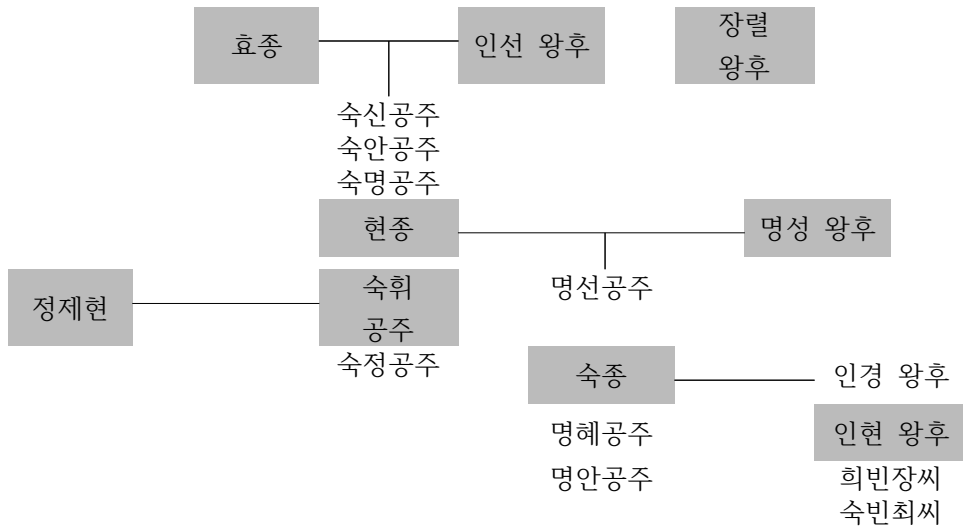


[그림 12] 인선 왕후의 열다섯 번째 편지

위 그림처럼 편지 중간에 ‘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인선 왕후 두 편지에서만 확인된다. 이는 현대의 단락 나눔과 유사하다. 위 편지에서 ‘一’의 앞뒤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一’의 앞은 부마의 병을 걱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一’의 뒷부분은 숙휘 공주의 자녀인 님상의 오누이(즉 님상과 효희를 말함)가 찾아와 반가웠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선 왕후의 다른 편지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숙휘)宸翰帖 坤』의 수신자와 발신자를 중심으로 친인척 관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 국어학적 특징

3.1. 표기 및 음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음소적·음절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15세기의 정제된 표기는 17세기에 오면서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된다. 『(숙휘)宸翰帖 坤』에서도 연철, 분철, 중철 표기와 같은 다양한 표기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중철 표기는 연철 표기나 분철 표기에 비하면 매우 드문 편이다.

- (1) 가. 도히<효종 1>, 세히<효종 2>, 업스니<효종2>, 거스로<현종 3>, 프리<숙종 5>, 드리와<장렬 1>, 업슬가<장렬 1>, 깃거ㅎ며<인선 1>, 업서도<인선 3>, 알ㅎ니<인선 12>
- 나. 덕어시니<효종 2>, 말은<현종 1>, 식음을<숙종 1>, 먹어도<장렬 1>, 밤의<인선 2>, 덕으리<인선 3>
- 다. 노룻술<현종 2>, 궂티<숙종 1>, 밧찌<인선 5>, 압퓌<인선 3>

위 (1 가~다)는 연철, 분철, 중철 표기를 차례로 보인 것이다. 이 외에도 ‘압히’<숙종 2>와 같이 재음소화 표기도 확인된다.

병서 표기는 ‘ㅅ’계 합용병서와 ‘ㅆ’계 합용병서가 확인된다.

- (2) 가. 썸의나<인선 3>, 썸<인선 4>, 썸네<인선 9>, 썸<인현 3>, 썸<인선 7>, 썸을<인선 14>,
나. 뵈여<인선 4>, 브러<인선 6>, 빼<현종 3>, 뿃을<숙종 5>, 뿃날<인선 12>, 뿃

ㅎ읍고<명성 1>

다. 빠 머기는<인선 4> 떠디는<인선 7>

위 (2 가)는 ‘ㅅ’계 합용 병서의 예이고 (2 나, 다)는 ‘ㅈ’계 합용 병서의 예이다. 그런데 예를 검토해 보면 ‘ㄱ’ 된소리 표기는 ‘ㅅ’으로 표기하고 ‘ㄷ’ 된소리 표기는 ‘ㅈ’과 ‘ㅉ’으로 표기하며, ‘ㅅ’ 된소리 표기는 ‘ㅆ’, ‘ㅈ’으로, ‘ㅈ’ 된소리는 ‘ㅉ’으로, ‘ㅈ’ 된소리는 ‘ㅉ’로 표기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 된소리 표기가 ‘ㅅ’계 합용병서와 ‘ㅈ’계 합용병서로 서로 혼용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였는데 『(숙휘)宸翰帖 坤』에서는 ‘ㄷ’ 된소리와 ‘ㅅ’ 된소리에서만 ‘ㅅ’계 합용병서와 ‘ㅈ’계 합용병서로 혼용되어 표기되고 ‘ㄱ’ 된소리와 ‘ㅈ’ 된소리, ‘ㅈ’ 된소리 표기는 일정하게 표기되어 나타난다. 한편, (2 다)처럼 유기음 ‘ㅈ’에 대해서 ‘ㅈ’계 합용병서로 표기된 두 예가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2 다)는 ‘타 먹이는’으로 해석되는 예와 ‘터지는’으로 해석되는 예인데 이때 ‘ㅉ’의 표기는 유기음으로 해석된다. 한편, ‘흙씩’<인현 3>가 확인되는데 이 단어는 중세 국어 ‘흔뺨’가 현대국어의 ‘함께’로 변화한 중간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15세기에는 종성에서 ‘ㅅ’이 ‘ㄷ’과 엄격하게 구별되어 쓰이던 것이 근대 국어 시기에 혼용을 보이다가 17세기 말부터 ‘ㅅ’으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숙휘)宸翰帖 坤』에서는 혼기된 표기는 확인되지 않고 ‘ㅅ’으로 통일된 예만 보인다.

- (3) 가. 뿔을<숙종 5>, 밧줍서<숙종 5>, 낫々치<인선 9>, 일궂고<인선 12>, 궂잡고<명성 1>, 뿔조오니<명성 1>
- 나. 낫줍디<숙종 2>, 낫디<숙종 2>, 좃고<인선 6>

위 (3 가)는 15세기에는 ‘ㄷ’이나 ‘ㅈ’ 받침이었던 형태인데 모두 ‘ㅅ’으로 표기되었다. ‘ㄷ’으로 표기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3 나)는 본래 ‘ㅈ’이나 ‘ㅉ’인 형태인데 이 형태들도 모두 ‘ㅅ’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종성의 ‘ㄷ’, ‘ㅅ’, ‘ㅈ’가 ‘ㅅ’으로 통일되는 표기 양상과 달리 ‘-읍/습/줍-’의 교체가 15세기의 교체 양상을 유지하고 있는 예가 있어 흥미롭다.

- (4) 가. 밧줍서<숙종 5>, 궂조오면<명성 1>
- 나. 잇스오링잇가<명성 1>, 잇습눈<인현 1>

위 (4)는 어간의 종성 표기가 ‘ㅅ’인 것은 동일하지만 (4 가)는 ‘-줍-’이 후행하고 (4 나)는 ‘-습-’이 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종성 표기가 ‘ㅅ’으로 통일되는 것과 달리 본래 형태, 즉 원 형태를 인식하고 있는 언어 직관이 반영된 표기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은 15세기에서는 ‘ㅅ’ 뒤에서 ‘-습-’이 통합하고 ‘ㄷ, ㅈ, ㅉ, ㅈ’ 뒤에서 ‘-줍-’이 통합하였는데 이러한 교체 조건이 (4)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종성에서 ‘ㅅ’, ‘ㄷ’, ‘ㅈ’가 ‘ㅅ’로 발음되면서 ‘ㅅ’으로 표기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근대 국어 ‘-습-’의 이형태 교체 조건은 15세기의 교체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국어에서 종성의 ‘ㅅ’이 간혹 탈락하는 일이 있는데 이 문헌에서도 나타난다.

- (5) 가. 햏여습다<인현 3>, 햏와스오니<인현 5>, 햏조와습더니<현종 3>, 아와스오니

<숙종 4>, 아녀스오니<숙종 2>

나. 거즈<명성 1>

위 (5 가)의 예들은 ‘혀습다’(‘ㅎ-’+‘-엿-’+‘-습-’+‘-다’), ‘혀와스오니’(‘ㅎ-’+‘-오-’+‘-앗-’+‘-스오-’+‘-니’), ‘엿즈와습더니’(‘열-’+‘-즈오-’+‘-앗-’+‘-습-’+‘-더-’+‘-니’), ‘아와스오니’(‘알-’+‘-오-’+‘-앗-’+‘-스오-’+‘-니’), ‘아녀스오니’(‘아니-’+‘-엇-’+‘-스오-’+‘-니’) 정도로 분석되는 경우인데 모두 종성의 ‘스’를 탈락하여 표기하였다. (5 나)는 ‘거즈’의 종성 ‘스’이 탈락한 형태이다.

한편, 종성의 ‘스’이 ‘ㄴ’으로 나타난 예들도 있다.

(6) 몬내<인선 12>

위 (6)은 15세기에 ‘몯내’ 형태가 후행하는 비음에 동화된 ‘몬내’를 표기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 ‘몬내’는 인선 왕후 편지뿐 아니라 인현 왕후, 숙종 편지에서도 두루 확인된다는 점에서 당시의 비음화 현상을 표기에 자연스럽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낫논가’<장렬 2>처럼 동화되지 않은 형태의 표기도 존재한다. 한편, 위 (6)의 ‘몬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즌시’(즉시)<인선 4>처럼 종성의 ‘ㄱ’이 ‘ㄴ’으로 표기된 일도 존재한다. 이 ‘즌시’는 ‘즉시’<현종 3, 명종 1>로도 나타난다. 또한 ‘알룬다’<인선 2>처럼 유음화된 표기가 나타난 것도 주목된다.

다음은 ‘알’과 ‘알프-’에서 ‘ㄹ’이 탈락되는 시기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예이다.

(7) 가. 압퓌<인선 3>

나. 알퓌 디<인선 왕후 7>

위 (7 가)는 15세기 ‘알’에서 ‘ㄹ’이 탈락된 표기 형태이고, (7 나)는 15세기 ‘알프-’가 그대로 표기된 형태이다. ‘알’과 ‘알프-’는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알’, ‘아프-’로 재구조화되는데 두 단어의 ‘ㄹ’ 탈락 시기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구개음화 현상과 어두 ‘ㄴ’의 탈락 현상은 이 자료에서는 찾기 어렵다.

(8) 가. 덕노라<효종 1>, 아디 못혀야<현종 1>, 디내논고<인선 14>

나. 녀겨<효종 1>, 녀날<숙종 1>, 녀디<숙종 2>, 녀녀<숙종 5>, 니르고<인선 11>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예가 있어 제시한다.

(9) 가. 우으며<인선 1>

나. 즐겹은<인선 9>

다. 모도와<현종 2>

위 (9 가)는 “글월 보고 무스히 이시니 깃거혀며 보는 듯 든스 반기노라 스연도 보고 우으며 식모의게 더리 스랑을 바티거든”<인선 1>에 해당하는 예로서 밑줄 친 부분이 ‘우으며’로

해석되는 예이다. ‘웃다’는 15세기에서 ‘웃고’, ‘우스며’로 활용된다. 이때 ‘우스며’는 16세기 초 ‘ㅅ’의 소실로 ‘우스며>우으며’로 나타나게 되는데, 위 (9 가)는 ‘우스며’의 ‘ㅅ’ 탈락으로 나타난 표기인 것이다. 즉, 이 시기 ‘웃-’는 모음 뒤에서 ‘우으며’로 활용을 보이는 불규칙 활용의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웃-’가 규칙 활용을 보이게 되었는지 또한 불규칙 활용 체계에서 규칙 활용 체계로 변화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9 나)는 “요스이는 즐겁은 쏟네 업스니 실로 답스 호고 섭스 호니”에 해당하는 예이다. 이때 밑줄 친 ‘즐겁은’은 ‘반가와’<인선 8>을 고려하면 ‘즐거우--+니’(즐거운)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형태이나 어간이 변형되지 않고 ‘즐겁은’으로 실현된 것이 흥미롭다. (9 다)는 어간이 ‘모도-’이어서 연결어미 ‘-아/어’가 통합하면 ‘모도아’ 정도로 활용되어야 하나 ‘모도와’로 실현되어 눈에 띈다.

3.2. 문법

3.2.1. 곡용

『(숙휘)宸翰帖 坤』의 조사 특징으로 우선 주격 조사 ‘-가’의 출현이 주목된다.

- (10) 가. 니광하가 통네 막혀 압혀 인도호 올 제 보옵고<숙종 2>
 나. 두드러기가 불의에 도다 브어 오르니<인선 4>

위 (10 가)는 “이광하가 통네 막기어 앞에 인도할 때 보고” 정도로 해석되고 (10 나)는 “두드러기가 불의에 돌아 부어오르니” 정도로 해석된다. 선행 체언의 모음 뒤에 나타난 경우로 이른 시기의 ‘-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니광하가’와 같은 경우는 ‘ㅣ’모임이나 하향이중모음 뒤가 아닌 모음 뒤에 나타난 경우라는 점에서 ‘-가’의 통합 변화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격 조사 ‘-가’는 초기에는 ‘ㅣ’모임이나 하향이중모음 뒤에 나타나다가 근대 국어 후기에 오면서 통합 양상이 확장되는데(이기문 1972) 위 (10 가)는 ‘-가’의 분포가 확장된 예로서 매우 이른 시기의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숙휘)宸翰帖 坤』의 주격 조사 체계는 15세기 국어와 유사하게 선행 체언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ㅣ’가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가 나타나는 교체가 우선한다.

- (11) 가. 상신 나오니<숙종 1>, 던되 그리드 록 무디 호 실샤<명성 1>
 나. 집이 다 뵈 듯 호고<인선 10>

다음은 주어가 존칭일 때 주로 붙는 조사 형태이다.

- (12) 가. 아즈마님겨오서 편터 못 호 오 신터<숙종 2>
 다. 자던 으로 겨오서 엇디 넘 녀 를 호 오 시 는가 너 기 읍 시 는 닝 잇 가<명성 1>

위 (12)처럼 주어와 준칭일 때는 ‘-겨요셔’, ‘-으로겨오셔’를 써서 높이고 있다.

호칭 조사는 15세기와 같이 선행 체언이 평칭일 때는 ‘-아’가 통합하고 준칭일 때는 ‘-하’가 통합한다.

(13) 가. 齊賢 思叔아 反駁之設 極爲過甚矣 그 말은 본디<현종 1>

나. 즈던하 나이옵더니 겹질이 들먹흐얏습거늘 벗겨노라 흐오니.....가노이다<현종 2>

다음으로 보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보조사는 선행 체언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 주는 데 중세 국어와 비교할 때 변형된 형태도 확인되고 중세 국어와 다른 의미 특성을 보이는 형태도 확인된다.

(14) 가. 니일 드러오기란 네 기운을 보와가며 흐여라<인선 7>

나. 너를사 큰사람만 너겨 흔 시만 업서도 섭々 흐야<인선 3>

다. 덩 셔방은 초시를 흐온가 시브오니 어느만 깃스오시거뇨<인현 1>

라. 흉디는 경영흐여 흔 거시 지극디 못흐니 흐여 주는 보람이 업서 서운흐여 흐디
니 인스조차 흐여시니 몬내 웃노라<인선 11>

마. 더욱 넋디 못흐여 밤곳 아적곳 모다 니르고 잇노라<인선 11>

위 (14 가)의 ‘-란’은 목적어 성분에 붙어서 주제의 의미를 더해 주는 대제격조사이다. 15세기에 활발히 쓰이다가 근대 국어 오면서 점차 세력을 잃어 버렸는데 『(숙휘)宸翰帖 坤』에서는 한 예가 확인된다. (14 나)의 ‘-를사’는 ‘-를’에 강제 보조사 ‘-사’(‘-샤’)가 통합한 형태로서 대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14 나)의 ‘큰사람만’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조사 ‘-만’이 ‘큰사람’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면 (14 나)는 ‘너를 큰사람으로만 여겨’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맥락을 고려하면 ‘너만을 큰사람으로 여겨’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즉, (14 나)에서 ‘-만’의 의미 영역이 보통의 쓰임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4 다)의 ‘어느만’은 ‘얼마만큼’ 정도로 해석되어 이때 ‘-만’은 상당한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된다. (14 라)에서 ‘인스조차’는 ‘인사까지’ 정도로 해석된다. ‘-조차’와 ‘-까지’의 의미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조차’가 주로 부정문에 쓰인다는 점에서 위 (14 라)는 주목된다. (14 마)에서 ‘-곳’은 (14 마)처럼 ‘밤곳 아적곳 니르-/일곳-’ 형식으로 나타나는데(“밤새곳 아적곳 일곳고”<인선 12>, “밤새곳 일곳고 잇노라”<인선 10>) 이때 ‘-곳’은 ‘-에서’ 혹은 ‘-까지’ 정도로 해석된다. 형태적 혹은 의미적 유사성으로 볼 때 중세 국어의 ‘-지’(‘-짓’)의 이형태가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즈겨’의 쓰임을 검토하기로 한다. ‘즈겨’ 형태는 명성 왕후 편지에서만 나타난다.

(15) 가. 아무리 싱각흐와도 거즈 일 긷좁고 즈겨 므음이나 인평위 므음이나 그리드록
<명성 1>

나. 즈겨 므음을 싱각흐오면 목이 메읍고<명성 1>

위 (15 가, 나)에서 ‘즈겨’는 음성 형식으로 보면 15세기 ‘즈가’, 즉 ‘자기’의 높임말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즈겨’는 ‘자기’와는 다르게 해석된다. ‘자기’는 재귀대명사로서 선행하

는 명사에(주로 3인칭 명사) 결속되어 해석되지만⁷⁾ 위 (16)의 ‘즈겨’는 결속되는 3인칭 명사가 존재하지 않고 수신자(곧 청자)인 숙휘 공주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자기’의 용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즈겨’가 주어 자리에 나타난 경우이다.

(16) 가. 즈겨는 외오셔 모르옵시거니와 자던으로겨오셔 엇디 넘너를 호오시는가 너기옵시느닝잇가<명성 1>

나. 즈계 더리되옵시니 솔드리 못 닛치옵고<명성 1>

만약 위 (16)의 ‘즈겨’가 ‘자기’와 같은 재귀대명사라면 위 (16)은 비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귀대명사는 결속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속되는 명사 없이 문두에 홀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16)의 ‘즈겨’는 재귀대명사 ‘자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아래 예는 ‘즈겨’가 호칭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17) 즈계야 하늘님도 그대도록 늬의 인성도 설이도 믿드르션다<명성 1>

위 ‘즈계야’는 ‘숙휘 공주여’ 정도로도 바꿀 수 있다. 즉 수신자인 숙휘 공주를 부르는 장면으로서 ‘즈겨’가 2인칭 대명사임을 보여준다. 일종의 2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당신’과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문헌에 쓰인 ‘즈겨’는 중세 국어의 ‘즈갸’와는 다른 용법으로 2인칭 대명사로 해석되며 현대 국어에서 상대를 매우 친근히 부를 때 사용하는 ‘자기’와 매우 유사하다. 명성 왕후는 현종의 부인으로서 숙휘 공주에게는 순위 올케이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동갑동갑호옵고 각별이 호옵다가 즈계 더리되옵시니 솔드리 못 닛치옵고 에엳브옵시니 출히 므음이 사오나온 사람 궂즈오면 낫즈올 듯 시브오이다”<명성 1>을 보면 숙휘 공주와 명성 왕후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각별히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이에서 명성 왕후가 숙휘 공주에게 ‘즈겨’를 쓴 것을 보면 현대 시대에서 상대를 친근히 부를 때 쓰는 ‘자기’의 용법을 이 시기에 이미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명성 왕후와 숙휘 공주 사이에서 ‘즈겨’가 쓰인 사실은 ‘즈겨’의 의미 변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3.2.2. 활용

활용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종결어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결어미는 15세기 이후 많은 변화를 겪는데 이 『(숙휘)宸翰帖 坤』에서도 근대 국어의 변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18) 가. 니일면 볼 거시니 잠 덕노라<효종 1>

나. 글월 보고 무스히 이시니 깃거호며 보는 듯 든스 반기노라<인선 1>

다. 나는 오늘 오옵다가 어스 노릇술 호얏습더니 덕습노이다

7) 임흥빈(1987), 박진호(2009), 이익섭·채완(2005)

위 (18)은 ‘-노라’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노라’는 기원적으로 ‘-ㄴ-+-오-+-라’로 분석되는 어미로서 (18 가, 나)와 같이 주어 1인칭과 호응 관계를 보이는 종결 표현이다. ‘-노-’의 1인칭 호응은 (18)의 주어가 화자 자신이라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누우님이 부러 思叔을 욕호노라”<현종 1>처럼 주어가 3인칭인 경우에도 사용되는 예가 있어 남겨둔다.

감탄법 종결어미도 주목할 만하다.

- (19) 가. 목이 배우고 에엇브읍실샤<명성 1>
- 나. 던되 그리드록 무디호실샤<명성 1>
- 다. 더욱 보는 듯 닛디 못홀쇠<장렬 2>
- 라. 즈계야 하늘님도 그대도록 님의 인심도 설이도 민드르선다<명성 1>

위 (19 가)의 ‘-르샤’는 15세기 국어 ‘-르씨’에서 기원한 것으로 근대 국어에 일어난 어말어미 양성화 현상에 따른 것이다. 이 어미는 주로 형용사와 통합하여 감탄문을 이루는 것이 특징적이다.⁸⁾ (19 나)에서 ‘못홀쇠’의 ‘-르쇠’는 이현희(1994)의 지적처럼 ‘-리로소이다’에서 ‘-다’의 절단과 어말어미 간소화 현상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위 (19 나)의 경우처럼 동사나 형용사에 통합한 ‘-르쇠’는 감탄의 표현과 함께 미래 혹은 추정의 의미가 도출되어 계사에 통합한 ‘-르쇠’와는 구별된다(장요한 2009). (19 라)의 ‘-르다’는 15세기 ‘-르더’가 양성화 현상으로 인해 변형된 형태이다.

종결 표현 중에서 <명성 왕후>의 편지에 나타난 ‘-링잇가’, ‘-닝잇가’ 형태도 흥미롭다.

- (20) 가. 어이 호오링잇가<명성 1>
- 나. 악사온 거시 이스오링잇가마는<명성 1>
- 다. 그리 혼갓 설운 일만 심각고 험을 아니 해읍시느닝잇가<명성 1>
- 라. 자던으로겨오셔 엇디 넘녀를 호오시는가 너기읍시느닝잇가<명성 1>

유독 명성 왕후 편지에서만 확인되는 ‘-링잇가’, ‘-닝잇가’ 형태는 16세기 자료인 『소학언해』에서 몇 예가 확인된다. 이 『소학언해』의 “可히 두 번 남진 블트리잇가 말링잇가”<小學5:67b>에서 ‘-링잇가’의 쓰임과 청자대우 등급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예서 동일한 사태, 동일한 청자에 대해서 ‘-리잇가’와 ‘-링잇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리잇가’, ‘-링잇가’의 높임 등급이나 종결 기능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링잇가’, ‘-닝잇가’ 형태가 명성 왕후 편지의 ‘브르읍노이다’나 ‘호읍노이다’와 어울리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형태가 ‘호쇼셔’체 높임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링잇가’와 ‘-닝잇가’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즉, ‘-리잇가’와 ‘-링잇가’, ‘-니잇가’와 ‘-닝잇가’의 쓰임에 차이가 있을까? 현재로서는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나는, ‘-잇-’은 15세기에 ‘-잇-’(즉, ‘-ㅇ-’이 두음)이기 때문에 자음 ‘-ㅇ-’이 선행 음절의 받침이 되어 발음한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능한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해서 ‘ㅇ’을 삽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후자

8) 15세기 ‘-르씨’와 근대 국어 ‘-르서’에 대해서는 이승희(1996), 정재영(2000), 장윤희(2002), 장요한(2009)가 참고할 수 있다.

는 명성 왕후와 숙휘 공주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중세 국어의 연결어미 ‘-며’와 ‘-명’의 관계를 고려한 것인데 확인하기는 어렵다.

소위 절단 구성의 종결어미도 확인된다.

- (21) 가. 쏘 수이 볼 일만 기다리고 잇닌<장렬 1>
나. 먹기도 상시나 다르디 아녀 디내닌<장렬 1>
다. 더욱 섭스흐와흐읍닌<현종 3>
라. 쏘 더 픽이게 흐여습다 근심이읍<인현 3>

위와 같이 종결어미가 전달되고 다른 선어말어미가 융합한 형식으로만 종결되거나 {-습-}이 어말에 위치하여 종결되는 경우는 근대 국어에 일어나는 변화로 관찰된 현상이다. 특히 ‘-닌’과 같은 어말어미 간소화 현상은 종결어미가 종결의 기능뿐 아니라 시제와 높임의 기능까지 부담하는 현상을 낳게 되었고 높임의 강도가 조정되면서 높임 등급 체계가 세분화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한편 (21 라)에서 보이는 ‘-읍’ 종결 형식도 흥미롭다. 이 형식은 19세기 후반 자료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 예도 매우 이른 시기에 출현한 ‘-읍’ 종결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활용 형식에서 흥미로운 현상 중의 하나는 {-습-}의 중복 표현이다.

- (22) 가. 녀녀 ㄱ이 엿스와흐오며<숙종 1>
나. 요스이는 떡 낫조신가 시브오니 깃브와흐읍느이다<숙종 2>
라. 스연은 즈시 아와스오니<숙종 4>
마. 기운 엇더 흐오시거노 아읍고져 브르오며<숙종 5>
바. 녀녀 브리읍디 못 흐와흐읍느이다<숙종 5>

위 (22 가, 나)는 형용사 어간에 ‘-어흐-’가 결합한(파생한) 경우인데 이때 {-습-}이 앞뒤에 모두 통합한 예이다. (22 다)는 ‘알-+-오-+-앗-+-스오-+-니’와 같이 분석되는데 이때는 한 어간에 ‘-습-’이 두 번 통합한 경우이다. (22 마)는 연속된 두 용언에 ‘-습-’이 모두 통합한 예이다. (22 바)에서 밑줄 친 부분은 ‘-습-’이 세 번 통합한 예이다. 이와 같이 {-습-}을 과도하게 중복 표기하는 것은 이 자료가 궁중 언간이라는 사실과 함께 {-습-}의 기능 변화와 관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습-}은 15세기에 존칭의 객체에 대한 주어·화자 겸양으로 사용되었으나 근대 국어에 오면서 {-습-}은 화자 겸양으로 의미가 간소화되어 청자와 주어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되었다.⁹⁾ {-습-}을 주어 높임, 청자 높임, 객어 높임에 덧붙여 사용하면 더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되는데¹⁰⁾ 이러한 {-습-}의 중복 표기가 궁중 자료에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높임의 효과 때문이다.

높임과 관련해서 ‘-거뇨’도 흥미롭다. ‘-거뇨’는 15세기에서 하라체 종결어미로 사용된 형태인데 이 문헌에서는 ‘-(으)시-’와 어울려 ‘흐쇼셔’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9) {-습-}의 기능 변화에 관해서는 박양규(1991), 서정목(1988, 1992), 안병희(1961, 1965, 1981), 이경우(1998), 이승욱(1973), 이익섭(1974), 이현희(1985), 최기호(1981), 허웅(1961), 장요한(2003) 등이 참고된다.

10) 황문환(2002) 참고.

- (23) 가. 어느만 새로이 망극호야 호오시거뇨.....초전으로 디내읍늬이다<숙종 2>
 나. 귀운 엇더호오시거뇨.....호읍늬이다<숙종 5>
 나. 어느만 깃스오시거뇨 깃브오미 아므라타 업스와 호읍노이다<인현 1>

위 (23)처럼 ‘-시거뇨’가 ‘호쇼셔’체와 어울리는 일이 확인되는데 ‘-(으)시-’의 존재가 주체가지만 주체가 곧 수신자(청자)인 숙휘 공주이기 때문에 상대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으)시-’의 높임 대상인 주체가 청자와 동일인이 아닐 때는 위와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 예가 이를 보여준다.

- (24) 설운 날이 다드라 오시거뇨.....눈물뿐이로다<인선 7>

위 (24)는 인선 왕후의 편지 용례인데 이때 ‘-시거뇨’는 딸인 숙휘 공주를 수신자(청자)로 하면서 ‘하라체’와 어울린다. 이때 ‘-(으)시-’는 효종의 소상(小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수신자(청자)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위 (23)과 같은 ‘-시거뇨’ 형태이지만 ‘하라체’인 ‘-로다’와 어울리는 것이다.

다음은 명사형 어미 ‘-음’과 ‘-기’의 교체 현상을 제시한 것이다.

- (25) 가. 섭스호오미 아므라타 업스와호읍늬이다<숙종 4>
 다. 친히 뵈옵는 듯 든스 반갑스오미 아므라타 업스와호오되<인현 5>

- (26) 가. 훌혀 나가니 섭스호기 아므라타 업서 오던 때를 싱각고<장렬 1>
 나. 스연을 보니 더욱 참혹 잔잉호기 아므라타 못호여<인선 5>

‘-음’과 ‘-기’는 동명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빈도의 변화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15세기에서는 주로 ‘-음/움’이 사용되고 ‘-기’는 그 빈도가 매우 낮았다. 그런데 근대 국어 시기에 오면서 ‘-기’가 ‘-음’의 자리를 점차 차지하게 되어 현대국어와 같이 ‘-기’가 우세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과도기적 단계의 모습을 『(숙휘)宸翰帖 坤』의 ‘-음’과 ‘-기’의 교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숙휘)宸翰帖 坤』의 서지 사항과 국어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서지 사항에서는 『(숙휘)宸翰帖 坤』의 성첩 시기와 성첩 구성을 검토하고, 국어학적 특징에서는 표기와 음운, 문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국어학적 특징은 15세기 국어 및 근대 국어와의 차이점이나 두드러진 점을 부각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정리하고 연구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숙휘)宸翰帖 坤』의 ‘언서첩’ 내용을 다루었다. ‘언서첩’에는 성첩 시기와 『宸翰帖』의 편성(乾과 坤), 발신자의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숙휘)宸翰帖 坤』의 초기 연구에서는 ‘언서첩’의 내용을 근거로 ‘효종’, ‘현종’, ‘숙종’, ‘인선 왕후’, ‘명성 왕

후’, ‘인현 왕후’가 발신자로 알려졌는데 이 후에 ‘장렬 왕후’ 편지가 속해 있고, 수신자 또한 숙휘 공주만이 아니라 숙휘 공주의 남편 ‘정제현’과 ‘인선 왕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숙휘)宸翰帖 坤』의 성첩 방법을 제시하였다. 『(숙휘)宸翰帖 坤』은 앞부분에 ‘언서첩’을 두고 발신자를 소재목과 같이 별도로 제시하고 이어서 편지를 1면에 3편까지 작첩한 것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편지에 빠뜨린 글자를 새겨 넣은 방법과 글자를 넘길 때 여백에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글자를 새겨 넣을 때는 앞 글자와 뒤 글자의 사이에 새겨 넣고, 수정할 때는 글자 가운데에 획을 그어 다시 적는 방법을 취하였다. 글자가 넘칠 때는 우선 상단 여백을 채우고 이도 부족하면 오른쪽 여백에 새겨 넣었다.

3장에서는 표기와 음운을 별도로 살펴보았다. 중철 표기는 소수의 몇 예만 보이고 연철과 분철 표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종성 ‘ㅅ’ 표기가 ‘ㄷ’과 혼동하는 표기는 보이지 않고 ‘ㅅ’으로 통일된 표기만 보이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종성 ‘ㅅ’을 생략한 표기나 ‘ㄷ’으로 동화된 표기도 확인하였다. 이어서 합용 병서 표기 중에서는 ‘ㅅ’계열 합용병서와 ‘ㅂ’계열 합용 병서 표기가 혼동 표기로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15세기에 유기음이었던 ‘터지-’가 ‘뻘지-’로 나타난 사실을 제시하였다.

곡용에서는 주격 조사 ‘-가’의 출현과, 15세기 호칭 조사의 출현, 15세기와 비교할 때 변형된 보조사의 출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격 조사 ‘-가’의 출현과 변형된 보조사의 출현을 확인하였으나 호칭 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15세기 용법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즈겨’가 2인칭 대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예를 검토하면서 ‘즈겨’를 현대국어 ‘자기’와 같이 재귀대명사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점을 설명하였다.

활용에서는 ‘-노라’가 주어 3인칭일 때도 나타난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하였다. ‘-노라’의 ‘-노-’는 기원적으로 1인칭의 ‘-오-’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과 다르게 3인칭에 나타난 점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감탄법 종결어미를 검토하였는데 감탄법 종결어미는 15세기 이후에 어미의 양성화나 간소화 등으로 변형된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종결어미 ‘-링잇가’와 ‘-닝잇가’의 받침 표기 ‘ㅇ’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받침의 ‘ㅇ’이 후행하는 ‘-잇-’의 기원형에서 비롯된 것인지 화용론적 효과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습-}의 증가 표현과 ‘-거뇨’의 높임 등급, ‘-음’과 ‘-기’의 교체 등도 국어사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상으로 『(숙휘)宸翰帖 坤』을 국어사 관점에서 볼 때, 『(숙휘)宸翰帖 坤』은 과도기적 언어 단계를 보여주는 문헌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문헌이 지니는 개별 국어학적 특성, 가령 종성의 ‘ㅅ’ 표기 통일, {-습-}의 증가 표현, 종성 ‘ㅅ’의 동화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적 특성이다. 다만 특정 사회 계층에서 사용한 언어라는 측면에서 사회언어학적인 접근을 면밀히 시도해 볼 만하다. 즉, 궁중 언어가 일반 사회 언어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언어의 변화 관점에서 궁중 언어는 어떤 변화 과정을 보이고 그 변화 시기는 어떠한지 등은 추후 확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경태(1998), 근대 국어의 어말어미, 《근대 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고영근(1987),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탐출판사.
 고영근(1999), 《국어형태론연구》(증보판), 서울대학교출판부.
 고영근·남기심(1987), 《표준 국어문법론》, 탐출판사.

- 국립청주박물관 편(2011),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 국립청주박물관학술연구서, 국립청주박물관.
- 김연희(2003), 淑徽公主宸翰帖의 書體 研究,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김일근(1959), 『신한첩(宸翰帖)』의 문헌적 가치, 《국어국문학》 21, 국어국문학회, 174-176.
- (1959), 《이조어필언간집》, 건국대 출판사.
- (1991), 《諺簡의 研究》, 건국대 출판사.
- 김일근·이종덕(2000a), 17세기 궁중언간 - 숙휘신한첩①, 《문헌과해석》 11, 문헌과해석사, 74-82.
- (2000b), 17세기 궁중언간 - 숙휘신한첩②, 《문헌과해석》 12, 문헌과해석사, 134-149.
- (2000c), 17세기 궁중언간 - 숙휘신한첩③, 《문헌과해석》 13, 문헌과해석사, 40-55.
- (2001), 17세기 궁중언간 - 숙휘신한첩④, 《문헌과해석》 14, 문헌과해석사, 60-75.
- 박진호(2009), 재귀사, 《학여와 함께하는 국어학》, 학여회, 태학사, 45-63.
- 서태룡(1985), 정동사어미의 형태론,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 염광호(1998), 《중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 이광호(2004/2005), 《근대 국어문법론》, 태학사.
-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승희(1996), 중세 국어 감동법 연구, 《국어연구》 139.
- 이익섭·채완(1999/2005),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현희(1982), 국어 중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건, 《국어학》 11, 국어학회, 143-162.
- 이현희(1989), 국어 문법사 연구 30년, 《국어학》 19, 국어학회, 291-351.
- 이현희(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57-81.
- 임홍빈(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선구문화사.
- 장요환(2009), 근대 국어에 나타나는 감탄법 중결어미 유형-『일동장유가』를 중심으로-, 《형태론》 11권 2호, 형태론학회, 245-268.
- 장윤희(1998), 《중세 국어 중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정재영(2000), 국어 감탄문의 변화-감탄법 중결어미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293-325.
- 최세화(1997), 《17세기 국어 문장 중결 형식의 연구-청자 대우법과 문체법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황문환(2002), 《16·17세기 언간의 상대 경어법》, 태학사.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계명대학교 소장본 『(숙휘)宸翰帖 坤』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에 대한 토론문

송지혜(금오공과대)

이번 학술대회 장소인 계명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한첩 곤』에 대하여 발표해 주셔서, 영인본으로만 접하다가 동산도서관에서 실제로 보물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읽었습니다. 발표문을 읽고 의문이 든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1. 이 자료의 크기가 ‘가로 42.7cm, 세로 26.5cm 직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의 사진을 보면 세로로 더 긴 직사각형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편집하여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펼쳤을 때 한 면의 크기를 이룬 것이지요?

2. 7쪽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정리하신 표에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도 함께 나타내면 어떨겠습니까? 인현 왕후가 숙휘 공주에게 보낸 편지라면 조카며느리[姪婦]가 쓴 편지라는 것을 쉽게 파악하고 경어법을 살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9쪽에 장렬왕후는 효종의 어머니이므로 최상단에 놓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3. 9쪽 <그림 12>에 나타나는, 문단 나누기를 표시하는 듯한 가로줄은 인선왕후의 두 편지에서만 확인된다고 하는데, 김일근(1959)의 <이조 어필 연간집>에 영인된 자료를 보면 인선왕후의 편지 4건에 나타납니다(인선왕후 연간 7, 8, 14, 17). 영인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4. ‘ㅅ’계 합용병서의 예로 든 (2가)에 ‘쌍을’을 예로 든 까닭이 무엇인지요?

5. (7)의 ‘앞’은 ㄹ 탈락형이 16세기 자료에서부터 보이고, ‘알ㅍ-’는 ㄹ 탈락형이 17세기 초반부터 보입니다.

무덤 아팍 가 울오 <1514속삼강행실도효:6b>

울흔녁 곁투로 들며 아프로 옷기슬 등기고 <1588소학언해(도산서원본)5:70b>

목이 물라 썰썰하여 아프고 입이 즈므르고 <1608언해두창집요上:59b>
아프면 <1608 태산집요 10>

6. (14 나) ‘너를사 큰사롬만 너겨’의 ‘만’은 조사 ‘만큼’, ‘처럼’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틀을 므슴만 너기시리 <월인 상 45>
밥 머글 스시만 너겨 <석보상절 13:34>

7. (14 마)의 “밤긔 아적긔 모다 니르고 잇노라<인선 11>”의 ‘긔’은 의미가 ‘씩지’와도 비슷한데, 현대국어에서 ‘마음껏, 지금껏’ 등에 결합한 접사 ‘-껏’에 해당하는 접사 ‘-씩장’과 의미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므슴씩장 <석보상절 6:11>). ‘밤새도록 아침까지 내내’ 정도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연산군 때의 만분가(萬憤歌)에 ‘므음긔’이 나타납니다.

8. ‘-읍’ 종결형은 19세기 후반 자료에서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17세기 초의 <현풍곽씨언간>부터 한글 편지에 나타납니다.

그지 업스와 이만 흠읍. 경신 삼월 순삼일. <현풍곽씨 125>

조선시대 한글편지 웹서비스 소개

황문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에서는 올해 말부터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대한 웹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연구기간: 2011. 12. 01~2014. 11. 30, 연구책임자: 황문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편지의 원본 이미지와 함께 판독문, 현대어역, 어휘 주석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물론 공개 여건에 따라서는 원본 이미지와 판독문 정도를 소개하는 데 그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범 서비스** 중인 아래 주소를 방문하셔서 앞으로 개선할 점을 비롯하여 많은 의견을 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주소 : <http://archive.kostma.net/letter/letterList.aspx>

○ 들어가기 : 네이버 검색창 → 한국학자료센터 → 조선시대 한글편지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with various navigation and service links. A red circle highlights the '조선시대 한글편지' link in the '조선시대 한글편지' section, with an arrow pointing to the text '한글편지 웹서비스 들어가기'. A blue circle highlights the '우리 지역 자료' (Our Local Resources) section, with an arrow pointing to the text '의견 남기는 곳'.

※ 각종 장소 안내 ※

<학술대회장>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영암관(인문국제학대학)
 358호(들메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역에서 오시는 방법



강창역에서 오시는 방법

<7/11 저녁식사 장소> 부천식당 (053-593-95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705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682-2



<7/11 숙박 장소> 계명대학교 명교생활관 (053-580-6882~4)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



2017년 여름 국어사학회·계명대 한국학연구원 공동 전국학술대회

주최 : 국어사학회·계명대 한국학연구원